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696-01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연구 책임자
민 병 곤

2017. 12. 15.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7년 5월 ~ 2017년 12월(8개월)

2017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책임자 민병곤

공동 연구원 김종철, 정희창, 박현정, 김혜정, 박재현, 김승현,
서보영, 이기연

보조 연구원 장지혜, 김민재, 차경미, 박민호, 신유진, 김동섭,
허모아

조사 수행 기관 KANTARS PUBLIC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는 5년 주기로 계획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실행(2018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 언어생활을 위한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어능력 조사를 위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론 구축, 문항 개발, 문항 검증이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을 위한 국어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및 평가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어능력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어능력 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2012)’와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연구(2013)’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마련하고, 2013년 조사와 연계하여 2018년 국어능력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연구’는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이다. 따라서 기 수행된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수행되었다. 이에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의 영역별 문항 수, 시간, 배점에 준하여 조사 도구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최초 개발은 가교문항을 포함하여 2배수의 문항을 개발하고, 1차 예비조사를 통해 1.6배수의 문항을 선별하고 다시 2차 예비조사를 통해 1.2배수의 문항을 확정지었다.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2013년에 실시된 국어능력 평가에서는 평가 실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수를 축소하고 조사 도구를 ‘가’형과 ‘나’ 형으로 이원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간단한 수준의 ‘행렬 표집(matrix sampling)’ 방식으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TIMSS나 PISA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2018년 국어능력 측정은 이를 보다 전문화하여 행렬 표집 방식의 검사의 전체 하위 문항을 모든 피험자들이 풀지 않고, 문항들을 여러 개의 소책자(booklet)로 나누어 개별 피험자들은 하나씩의 소책자에만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문항 수가 많은 ‘읽기’ 영역의 경우는 조사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렬 표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험자의 피로도를 낮추어 시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

행렬 표집 설계 검사에서 각 개인들은 전체 검사의 일부 문항들에만 응답하지만 만일 전체 검사에 답했을 때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각 구획들이 일정 수만큼 서로 짝지어져서 문항반응이론의 공통 척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문항반응이론에서는 피험자의 잠재된 능력 수준과 문항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행렬 표집 설계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서 문항 모수나 능력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듣기로 구성된 총 5개의 폭넓은 영역들에 대해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렬 표집 설계의 하나인 구획섞여짜기설계(Block Interlaced Anchor Design)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행렬 표집 방식의 조사 도구를 1, 2차 예비조사에서 동일하여 적용하여 시행 방식 또한 검증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2013년과 비교 가능한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국어능력의 하위 영역을 기

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영역별로 변화하는 문식력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국어능력 평가에 참여하였던 전문 인력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더하여,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다각도로 문항을 검토하여 조사 도구로서의 결점을 최소화하였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듣기’ 영역에서는 영상을 활용하여 구두 의사소통 상황의 실제성을 높이고, ‘읽기’ 영역은 실용적 텍스트와 다양한 독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쓰기’ 영역에서는 언어생활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쓰기 상황을 제시하고 컴퓨터로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손 글씨 방식을 선택 가능하게 하여 두 조사 방식 간의 동등화를 꾀하였다. ‘문법’ 영역은 타 영역과의 연계 속에서 언어운용의 전반을 다루는 통합평가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시행되는 예비조사는 무엇보다 문항 검증을 통한 안정적인 평가 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평가 도구가 평가 수행 방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대규모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평가 방식의 변화가 적합한지 그 시행 방식을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1, 2차 예비조사의 표본은 층화 후 집락(cluster)을 먼저 추출하고, 집락에서 조사 단위인 개인을 할당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한다. 층화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그룹들, 즉 층들(strata)로 나누고 각 층에서 확률 혹은 비확률 표본을 뽑는 것을 의미한다. 본 예비조사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 동지역(중소도시), 경기 읍면지역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1차 예비조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16세~65세의 성인 남녀 94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의 2배수 분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각 영역 별로 표본을 나눠서 조사했으며 영역별 표본 수는 평가지 유형 개수나 응답 예상 시간 등에 차등을 두었다. 말하기·쓰기 검사지는 4종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7문항이며 검사 인원은 전체 200명이다. 읽기 검사지는 5종으로 검사지당 18문항 혹은 19문항이며 검사 인원은 500명이다. 문법·듣기 검사지는 3종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28문항이며 검사 인원은 240명이다. 1차 예비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조사 목적과 조사비용,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8명의 표본이 추가 표집되어 948명의 표본이 완성되었다.

조사는 1:1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태블릿 피시의 디지털 검사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디지털 검사지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Nfield CAPI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자료는 1차적으로 태블릿 피시에 저장되고 나중에 인터넷 연결과 프로그램 동기화 과정을 통해 중앙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검사의 설계상 영역별 원점수 총점은 검사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문항이 갖는 변별도나 곤란도에도 차이가 있고 영역별로 문항 수의 차이도 있다. 이에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문항의 양호도를 분석하였다.

1차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 듣기, 읽기 영역 및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별 점수 분포는 봉우리가 하나로 그려지고 좌우가 대칭하는 종 모양의 곡선인 정규분포에 가까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듣기와 읽기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부정 편포(negative skewed distribution)를 띠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가 많았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하기 영역의 경우 4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쓰기의 경우 3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정적 편포(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를 보였다. 문법 영역의 점수 분포는 왜도 -1.974 로 정규분포에 비해 오른쪽으로 상당히 치우치는 부적 편차를 보였다.

듣기 영역 20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 문항에서 변별도가 .1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문항들은 듣기 능력을 거의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이다. 말하기 영역 6문항과 읽기 영역 40문항은 모두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쓰기 영역 6개 문항 중 한 개의 문항이 내용의 조직, 표현의 하위 영역에서 낮은 변별도를 나타냈다. 문법 영역 20문항은 대부분 양호한 문항모수를 보였고 3개 문항에서 변별도가 .2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지역에 따라서 경기 읍면 지역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차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각 영역을 담당하는 공동 연구원들이 수정한 영역별 문항을 모든 공동 연구원들이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사용할 조사 도구의 1.6배수 문항을 선정하였다. 조사 도구의 삭제 및 수정 문항의 선정 기준은 문항모수추정치를 통해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반응곡선을 통해 분석 기준별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하였다.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조사 도구의 특성 및 평가 영역, 통계 수치 등을 고려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7년 1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모집단은 1차와 동일하다. 조사 목표 표본 수는 조사 목적과 조사 비용, 기간을 고려하여 총 760명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 수 역시 목표 표본 수와 같다. 응답자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표본을 나누어 조사했으며 영역별 표본 수는 평가지 유형 개수나 응답 예상 시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평가지가 1종으로 구성된 문법·듣기 영역은 160명의 표본, 3종으로 구성된 읽기 영역은 400명, 4종으로 구성된 말하기·쓰기 영역은 200명이 표본을 배분하였다. 1차와 동일하게 개인의 국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의 5개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2차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 대체로 정규분포에 가깝지만 듣기 영역의 경우 약간 부적 편포를 문법 영역의 경우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적 편포를 보였다. 읽기 영역 및 말하기 영역은 약간의 정적 편포를 드러냈다. 변별도 및 곤란도 분석에서는 듣기 영역의 5개 문항에서 변별도가, 3개 문항에서 곤란도의 문제가 드러났다. 읽기의 4문항 정도가 변별도 .3이며 곤란도 수준 3을 벗어나는 값으로 대다수 피조사자들이 분포하는 능력 수준에서 거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배경변인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많지 않았으며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 점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대재이상 학력자들이 고졸미만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 사용될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본 조사 및 후속 연구 진행과 관련한 논의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문항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조사 시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경비의 확보’, ‘문항의 실제성 확보’, ‘국어능력 평가

결과 환류 방안 마련', '조사대상 표본 수 확보', '검사지 구성', '채점 절차', '문항의 자문 및 검토 과정의 개선', '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및 비용 확보', '영역 통합적 문항의 개발', '변화하는 국어능력의 개념과 조사의 연속성 사이의 균형 확보'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더하여 영역별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듣기 영역에서는 '말하기와의 연계를 통한 실제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 '평가 요소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 '실제성 담보를 위한 담화 유형의 다양화'이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평가 요소의 다원화', '말하기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담화의 상호작용적 속성 강조', '채점의 신뢰도 확보'를 제시하였다. 읽기 영역에서는 '조사 방식의 개선', '디지털 시대 읽기 능력의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조사 시행', '조사 도구 개발에 있어서 문항 선제 방식에 대한 제고'를 들 수 있다. 쓰기 영역의 경우 '채점 기준의 정밀화 및 동등화', '피험자 답안 작성의 성실도 확보', '쓰기 영역별 평가 요소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기준의 다차원화 필요'가 제시되었다. 문법 영역은 '문항 수정 및 선별 방식의 문제', '국어 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설정의 필요', '국민의 언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개발의 필요'이다. 끝으로, 듣기 13문항, 말하기 5문항, 읽기 25문항, 쓰기 4문항, 문법 12문항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여 문항 카드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2018년에 이루어지는 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국어능력, 국어능력 평가, 국민의 국어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문법 능력, 행렬 표집 방식, 문항반응이론, 1차 예비조사, 2차 예비조사

차 례

I. 서 론

1. 연구 목적	1
1) 연구 시행의 근거	1
2) 세부 목표	1
(1) 이론 및 방법론 개발	1
(2) 문항의 설계 및 안정화	2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기대 효과	5

II. 조사 도구 설계의 이론적 검토

1. 국어능력의 개념	6
2. 영역별 국어능력의 개념	9
1) 듣기 영역	9
(1) 듣기 능력의 개념	9
(2) 듣기 능력의 요소 탐색	10
(3) 듣기 평가의 설계 방향	11
2) 말하기 영역	12
(1) 말하기 능력의 개념	12
(2) 말하기 평가 연구 검토	13
① 말하기 평가 연구 : 선행연구	13
② 말하기 능력의 구인	14
3) 읽기 영역	15
(1) 독서 능력의 개념	15
(2) 독서 능력의 하위 요소 비교	16
(3) 독서 능력 평가의 관점 변화	17

차 례

4) 쓰기 영역	18
(1) 쓰기 능력의 개념	18
(2) 쓰기 능력의 하위 요소	19
5) 문법 영역	21
(1) 문법 능력의 개념	21
(2) 문법 능력의 하위 요소	22
3. 국내외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24
1) 국내의 국어능력 조사 사례	24
2)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32
(1) 미국	32
(2) 영국	36
(3) 일본	39
(4) 유럽	43
(5) 중국	48
(6) 기타 언어능력 측정 사례	49

Ⅲ. 조사 도구의 개발

1. 조사 도구 개발의 절차	53
2. 영역별 조사 도구의 구성	54
1) 듣기 영역	54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54
(2) 가교문항 검토	56
(3) 문항 형식	60
2) 말하기 영역	61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61
① 평가 영역	61
② 평가 형식	64
(2) 가교문항 검토	66
(3) 문항 형식	68

차 례

3) 읽기 영역	69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69
(2) 가교문항 검토	71
(3) 문항 형식	78
4) 쓰기 영역	79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79
① 평가 영역	79
② 평가 요소	81
(2) 가교문항 검토	83
(3) 문항 형식	85
5) 문법 영역	86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86
(2) 가교문항 검토	87
(3) 문항 형식	90

IV. 1차 예비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1. 1차 예비조사 시행	92
1) 1차 예비조사의 설계	92
(1) 모집단 및 표본 수	92
(2) 평가 영역별 표본 수 배분	92
(3) 모집단 층화화 표본 수 배분	93
(4) 집락(읍·면·동) 추출과 응답자 추출	93
(5) 조사대상자(개인) 추출 방법	96
① 성별 변인	96
② 연령 변인	96
③ 학력 변인	96
④ 직업 변인	97
(6) 표본 구성	97

차 례

2) 1차 예비조사를 위한 검사지 구성	99
(1) 영역별 검사지 구성	99
①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99
②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99
③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100
(2) 영역별 검사 문항의 실제	100
2. 1차 예비조사의 진행	101
1) 조사 방법	101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101
3) 1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103
4) 조사 검증	103
5) 결과물 제출	103
3. 1차 예비조사 관련 특이 사항	104
1) CAPI 활용 관련	104
(1) 글자 크기	104
(2) 문항별 시간의 배분 및 운영	105
(3) 문항 간 이동	105
2) 실사 과정상의 문제점	106
4. 1차 예비조사 결과	106
1) 1차 예비조사 결과의 채점	106
(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106
(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106
① 말하기 영역	107
② 쓰기 영역	119
(3)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 채점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	124
① 말하기 영역	124
② 쓰기 영역	125
2) 1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125
(1) 검사 설계상의 특징	125
(2) 영역별 점수 분포 분석	126

차 례

① 기술통계	126
② 영역별 점수 분석 방법	127
③ 듣기 영역	127
④ 말하기 영역	128
⑤ 읽기 영역	129
⑥ 쓰기 영역	129
⑦ 문법 영역	130
(3) 영역별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0
① 듣기 영역	130
② 말하기 영역	131
③ 읽기 영역	133
④ 쓰기 영역	134
⑤ 문법 영역	135
(4) 배경변인별 분석	136
① 듣기 영역	136
② 말하기 영역	137
③ 읽기 영역	140
④ 쓰기 영역	142
⑤ 문법 영역	144

V. 2차 예비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1. 2차 예비조사 도구의 시행	146
1) 2차 예비조사 도구의 확정	146
(1) 영역별 삭제 및 수정 문항의 선정 기준	146
① 듣기 영역	146
② 말하기 영역	147
③ 읽기 영역	148
④ 쓰기 영역	148
⑤ 문법 영역	149

차 례

(2) 개별 문항별 수정 및 삭제 내용	150
① 듣기 영역	150
② 말하기 영역	151
③ 읽기 영역	152
④ 쓰기 영역	155
⑤ 문법 영역	155
2) 2차 예비조사의 설계	156
(1) 모집단 및 표본 수	156
(2) 평가 영역별 표본 수 배분	157
(3) 모집단 층화화 표본 수 배분	157
(4) 집락(읍·면·동) 추출과 응답자 추출	158
(5) 조사 대상자(개인) 추출 방법	160
① 성별 변인	161
② 연령 변인	161
③ 학력 변인	161
④ 직업 변인	161
(6) 표본 구성	161
3) 2차 예비조사를 위한 검사지 구성	163
(1) 영역별 검사지 구성	163
①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163
②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164
③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164
(2) 영역별 검사 문항의 실제	164
2. 2차 예비조사의 진행	165
1) 조사 방법	165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165
3) 2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166
4) 조사 검증	166
5) 결과물 제출	166

차 례

3. 2차 예비조사 관련 특이 사항	166
1) 문법 영역 조사 도구 관련	166
2) CAPI 활용 관련	167
4. 2차 예비조사의 결과	168
1) 2차 예비조사 결과의 채점	168
(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168
(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168
① 말하기 영역	169
② 쓰기 영역	180
(3)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 채점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	187
① 말하기 영역	187
② 쓰기 영역	187
2) 2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188
(1) 검사 설계상의 특징	188
(2) 영역별 점수 분포 분석	189
① 기술통계	189
② 영역별 점수 분석 방법	189
③ 듣기 영역	189
④ 말하기 영역	190
⑤ 읽기 영역	191
⑥ 쓰기 영역	192
⑦ 문법 영역	193
(3) 영역별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3
① 듣기 영역	193
② 말하기 영역	194
③ 읽기 영역	196
④ 쓰기 영역	197
⑤ 문법 영역	198

차 례

(4) 배경변인별 분석	199
① 듣기 영역	199
② 말하기 영역	201
③ 읽기 영역	204
④ 쓰기 영역	206
⑤ 문법 영역	209
3) 최종 도구의 확정	210

VI. 제언

1. 전반적 제언	211
1) 조사 도구의 설계와 제작	211
(1) 문항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211
(2) 영역 통합형 문항의 개발을 위한 문항의 실제성 확보	211
2) 조사의 실행	211
(1) 조사 시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경비의 확보	211
① 조사원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경비 확보	211
② 피조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사례비 상향	212
③ 태블릿 피시의 기술 구현을 위한 비용 확보	212
(2) 조사대상 층화 표집의 중요성	213
(3) 구성형 문항 검사지의 문항 수 확대	213
3) 조사 결과의 분석과 활용	214
(1) 주관식 문항의 채점 시스템 정밀화	214
(2) 국어능력 평가 결과 환류 방안 마련	214
(3) 변화하는 국어능력의 개념과 조사의 연속성 사이의 균형 확보	215
2. 영역별 제언	215
1) 듣기 영역	215
(1) 실제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를 위한 말하기와의 연계	215
(2) 듣기 평가 요소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	215
(3) 듣기 평가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담화 유형의 다양화	216

차 례

2) 말하기 영역	216
(1) 평가 요소에 대한 제언	216
(2) 말하기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담화의 상호작용적 속성 강조 필요	216
(3) 채점의 신뢰도 확보 방안	217
3) 읽기 영역	217
(1) 조사 방식의 개선	217
(2) 디지털 시대의 읽기 능력의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조사 시행	217
(3) 읽기 능력의 하위 요소 및 텍스트 유형별 분석	218
4) 쓰기 영역	218
(1) 채점 기준의 정밀화 및 동등화	218
(2) 피험자 답안 작성의 성실도 확보 방안 마련	219
(3) 하위 영역 평가 요소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기준의 다차원화	219
5) 문법 영역	220
(1) 다각도로 변화하는 국어 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방향 설정	220
(2) 국민의 언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의 다양화	220
참고 문헌	221
<Abstract>	223
[부록]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본 조사 시행을 위한 영역별 최종 문항	227
1) 듣기 영역	227
2) 말하기 영역	254
3) 읽기 영역	260
4) 쓰기 영역	310
5) 문법 영역	318

표 차례

<표 I-1> 본 연구의 연구 범위	2
<표 I-2>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3
<표 I-3> 본 연구의 연구 절차	4
<표 II-1> 국어능력의 범주와 요소(김규훈, 2015: 85)	7
<표 II-2> 국어능력의 하위 구분(장경희 외, 2005: 60)	8
<표 II-3> 자국어 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요소	10
<표 II-4> 외국어 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요소	10
<표 II-5> 듣기 영역 평가 영역 및 세부 평가 항목	12
<표 II-6> 화법 평가의 구인 제시 방식 (박재현, 2015)	14
<표 II-7> 김종철 외(2013)에서 사용한 평가 요소	15
<표 II-8> PISA, PIAAC, NAER, PIRLS, NAEP, NRI의 독서 능력에 대한 하위 요소 비교	16
<표 II-9> 국내 대규모 평가에서의 쓰기 평가 요소	20
<표 II-10> 김종철 외(2013)에서 사용한 평가 요소	20
<표 II-11> 각종 문법 능력 평가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법 능력 하위 요소 비교	22
<표 II-12> 규범 능력의 구성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이관희, 정희창, 2015: 57에서 재인용) ..	23
<표 II-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의 문법 능력 평가 요소	23
<표 II-14>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문법 능력의 하위 구인	23
<표 III-1> 본 연구의 조사 도구 개발 절차	53
<표 III-2> 2013, 2017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55
<표 III-3> 2013년 조사 듣기 영역 담화 유형	55
<표 III-4> 2018년 본 조사 듣기 영역 담화 유형	56
<표 III-5> 2013년도 평가 영역과 2018년도 평가 영역의 비교	62
<표 III-6> 2017년도 제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의 평가틀	63
<표 III-7> 2017년도 제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의 문항 정보	64
<표 III-8> 2017년도 제2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의 문항 정보	64
<표 III-9> 설득하는 말하기(요청하는 말) 평가 요소	65
<표 III-10> 설명하는 말하기(개념 및 경험 설명하는 말) 평가 요소	66
<표 III-11> 설득하는 말하기(주장하는 말) 평가 요소	66
<표 III-12> 읽기 영역의 2013년도 평가 영역과 2018년도 평가 영역의 비교	69
<표 III-13> 읽기 영역(‘가’ 형)의 텍스트 유형	70
<표 III-14> 2013년 조사 읽기 영역(‘나’ 형)의 텍스트 유형	70
<표 III-15> 2018년 조사 읽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	71
<표 III-16> 2013, 2018 쓰기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80
<표 III-17> 2017년도 제1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평가틀	81
<표 III-18> 2017년도 제2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평가틀	81

<표 III-19> 설명적 글쓰기 문항의 평가 요소	82
<표 III-20> 설득적 글쓰기 문항의 평가 요소	82
<표 III-21> 친교적 글쓰기 문항의 평가 요소	83
<표 III-22> 2013년, 2018년 문법 영역 평가 영역	86
<표 III-23> 1차 예비조사를 위한 문법 영역 문항 배분 현황	87
<표 III-24> 문법 영역 가교문항의 ‘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조사 결과 (단위: %)	90
<표 IV-1> 평가 영역별 표본 수	92
<표 IV-2> 층별 표본 수	93
<표 IV-3> 집락 추출 결과	94
<표 IV-4> 직업 변인 구분	97
<표 IV-5> 문법·듣기 영역 표본 구성	97
<표 IV-6> 읽기 영역 표본 구성	98
<표 IV-7> 말하기·쓰기 영역 표본 구성	98
<표 IV-8>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99
<표 IV-9>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99
<표 IV-10>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100
<표 IV-11> 영역별 조사 진행 방법 및 지침	102
<표 IV-12> 1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103
<표 IV-13> 주관식 답안 채점단 구성	107
<표 IV-14> 말하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108
<표 IV-15> 말하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09
<표 IV-16> 말하기 2번 문항 채점 기준	110
<표 IV-17>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10
<표 IV-18> 말하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112
<표 IV-19> 말하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12
<표 IV-20> 말하기 4번 문항 채점 기준	114
<표 IV-21> 말하기 4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14
<표 IV-22> 말하기 5번 문항 채점 기준	116
<표 IV-23> 말하기 5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16
<표 IV-24> 말하기 6번 문항 채점 기준	118
<표 IV-25> 말하기 6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18
<표 IV-26> 쓰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120
<표 IV-27> 쓰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20
<표 IV-28> 쓰기 2~4번 문항 채점 기준	121
<표 IV-29> 쓰기 2~4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21
<표 IV-30> 쓰기 5번 문항 채점 기준	122
<표 IV-31> 쓰기 5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22
<표 IV-32> 쓰기 6번 문항 채점 기준	123
<표 IV-33> 쓰기 6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23

<표 IV-34> 말하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124
<표 IV-35> 쓰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125
<표 IV-36> 듣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 구성	125
<표 IV-37> 읽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구성	126
<표 IV-38> 문법 영역 검사지별 문항구성	126
<표 IV-39>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 구성	126
<표 IV-40> 영역별 점수 분포의 기술통계치	126
<표 IV-41> 1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0
<표 IV-42>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선정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1
<표 IV-43>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2
<표 IV-44>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2
<표 IV-45>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전달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2
<표 IV-46> 1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3
<표 IV-47>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문항 중 내용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4
<표 IV-48>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문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4
<표 IV-49>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문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4
<표 IV-50> 1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35
<표 IV-51> 1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36
<표 IV-52>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37
<표 IV-53> 1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40
<표 IV-54>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42
<표 IV-55> 1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44
<표 V-1> 2차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협의회	146
<표 V-2>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듣기 문항의 수정 사항 및 이유	150
<표 V-3>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읽기 문항의 삭제 및 이유	152
<표 V-4>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읽기 문항의 수정 사항 및 이유	153
<표 V-5>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법 문항의 수정 사항 및 이유	155
<표 V-6> 2차 예비조사 평가 영역별 표본 수	157
<표 V-7> 2차 예비조사 층별 표본 수	158
<표 V-8> 2차 예비조사 집락 추출 결과	159
<표 V-9> 2차 예비조사 직업 변인 구분	161
<표 V-10> 2차 예비조사 문법·듣기 영역 표본 구성	162
<표 V-11>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표본 구성	162
<표 V-12> 2차 예비조사 말하기·쓰기 영역 표본 구성	163
<표 V-1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163
<표 V-14>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164
<표 V-15> 2차 예비조사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164
<표 V-16> 2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166
<표 V-17>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전문가	167

<표 V-18> 2차 쓰기 주관식 답안 채점단 구성	169
<표 V-19> 2차 예비조사 채점자 정보	170
<표 V-20> 말하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171
<표 V-21> 말하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71
<표 V-22>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73
<표 V-23>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73
<표 V-24> 말하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174
<표 V-25> 말하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75
<표 V-26> 말하기 4번 문항 채점 기준	176
<표 V-27> 말하기 4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76
<표 V-28> 말하기 5번 문항 채점 기준	178
<표 V-29> 말하기 5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78
<표 V-30> 2차 예비조사 쓰기 W-1 문항 채점 기준	181
<표 V-31> 2차 예비조사 쓰기 W-1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81
<표 V-32> 2차 예비조사 쓰기 W-2, W-3 문항 채점 기준	183
<표 V-33> 2차 예비조사 쓰기 W-2, W-3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83
<표 V-34> 2차 예비조사 쓰기 W-5 문항 채점 기준	185
<표 V-35> 2차 예비조사 쓰기 W-6 문항 채점 기준	185
<표 V-36> 2차 예비조사 쓰기 W-5, W-6 문항 세부 채점 기준	186
<표 V-37> 2차 예비조사 말하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187
<표 V-38> 2차 예비조사 쓰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187
<표 V-39>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구성	188
<표 V-40>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 구성	188
<표 V-41> 2차 예비조사 영역별 점수 분포 기술통계치	189
<표 V-42>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3
<표 V-4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4
<표 V-44>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4
<표 V-45>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5
<표 V-46>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5
<표 V-47>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6
<표 V-48>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7
<표 V-49>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7
<표 V-50>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7
<표 V-51>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198
<표 V-52>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99
<표 V-5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1
<표 V-54>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4
<표 V-55>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6
<표 V-56>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9

<표 V-57> 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협의회	210
<표 V-58> 최종 조사 도구 자문 및 검토 전문가	210

그림 차례

[그림 III-1] [L-11] 문항의 선지	61
[그림 III-2] 말하기 문항의 형식	68
[그림 III-3] 읽기 영역의 문항 형식	78
[그림 III-4] 쓰기 문항의 예시	85
[그림 III-5] 실생활 관련 텍스트	91
[그림 III-6] 문학 작품 텍스트	91
[그림 IV-1] 화면 구성 방안(듣기 영역)	101
[그림 IV-2] 1차 예비조사의 듣기 영역 점수 분포	127
[그림 IV-3] 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 점수 분포	128
[그림 IV-4] 1차 예비조사의 읽기 영역 점수 분포	129
[그림 IV-5] 1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점수 분포	129
[그림 IV-6] 1차 예비조사의 문법 영역 점수 분포	130
[그림 IV-7] 1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36
[그림 IV-8]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배경변인별 분석	138
[그림 IV-9]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138
[그림 IV-10]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139
[그림 IV-11]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배경변인별 분석	139
[그림 IV-12] 1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41
[그림 IV-13]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배경변인별 분석	142
[그림 IV-14]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143
[그림 IV-15]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143
[그림 IV-16] 1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145
[그림 V-1]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점수 분포	189
[그림 V-2]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점수 분포	190
[그림 V-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점수 분포	190
[그림 V-4]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점수 분포	190
[그림 V-5]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점수 분포	190
[그림 V-6]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점수 분포	191
[그림 V-7]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점수 분포	192
[그림 V-8]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점수 분포	192
[그림 V-9]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점수 분포	192
[그림 V-10]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점수 분포	193
[그림 V-11]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0
[그림 V-12]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배경변인별 분석	201
[그림 V-1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202

[그림 V-14]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203
[그림 V-15]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배경변인별 분석	203
[그림 V-16]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5
[그림 V-17]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배경변인별 분석	206
[그림 V-18]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207
[그림 V-19]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208
[그림 V-20]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209
[그림 VI-1] 쓰기 영역별 평가 기준 다차원화의 필요성	219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5년 주기로 계획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2018년에 계획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목적 아래 수행되었다.

1) 연구 시행의 근거

국어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국어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어능력 조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제9조 실태조사에 관한 법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어 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국어의 발전을 위한 국어능력 조사가 5년을 기점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어능력 조사에 대한 연구는 국립국어원을 주축으로 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해 온 바, 이삼형 외(2004), 김문오 외(2005), 김성규 외(2006), 김동환 외(2008), 장경희 외(2009), 박재현 외(2015) 등의 성과를 낳았다. 나아가 장소원 외(2012), 김종철 외(2013)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성을 갖춘 대규모의 조사로, 국어 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는 의미를 갖는다.

2) 세부 목표

(1) 이론 및 방법론 개발

이번 연구는 2012년과 2013년에 수행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마련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체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7년 연구에서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이론을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평가 관련 연구와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어능력의 개념 및 범주를 규명하고, 국어능력의 하위 구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하였다.

(2) 문항의 설계 및 안정화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시행될 본조사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았다. 2018년의 본조사가 국민의 국어능력 추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문항의 설계에 있어 2013년에 수행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국어능력 평가의 최신 이론을 반영하되 2013년 문항과의 동등화를 염두하며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에 사용된 문항을 선별하여 가교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 검증을 통해 평가 도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여, 2차에 걸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시행함으로써 문항의 양호도를 측정하여 신뢰로운 문항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실시된 국어능력 평가 도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문식력¹⁾을 영역별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상정하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표 I-1> 본 연구의 연구 범위

연구 범위	구체적 시행 방안
이론 구축	■ 국내외 연구 및 평가 사례 조사 및 국어능력의 범주 규정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영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체계적 평가 방법론 마련
평가 도구 설계	■ 2013년 국어능력 평가 도구와의 연속성 고려 ■ 변화하는 문식력 반영하여 컴퓨터 기반 검사 설계 및 실제성 고려한 통합적 평가 문항 설계
1차 예비조사	■ 층화 추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표집된 94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시행 후 신뢰도, 타당도, 변별도와 적합도 분석.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보정 ■ 교육 평가 전문가(서울대 교육학과 박현정 교수)의 공동 연구원 참여, 전문조사 기관(KANTAR PUBLIC과의 공조 체재 유지 ■ 전문 조사 기관(KANTAR PUBLIC)의 조사원 집단을 활용한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 시행
2차 예비조사	■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 도구의 재설계 ■ 층화 추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표집된 94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시

1) 여기서는 Literacy의 번역어로 ‘문식력’을 택하였다. 다만 인용하였거나 문맥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문식성’이나 ‘문해력’을 혼용하였다.

	행 후 신뢰도, 타당도, 변별도와 적합도 분석.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보정 ▪ 교육 평가 전문가(서울대 교육학과 박현정 교수)의 공동 연구원 참여, 전문 조사 기관(KANTAR PUBLIC과의 공조 체제 유지 ▪ 전문 조사 기관(KANTAR PUBLIC)의 조사원 집단을 활용한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 시행 ▪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 시행상의 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수립
문항 정교화	· 말하기: 6문항 → 5문항 ⇒ 최종 4문항 · 듣 기: 20문항 → 15문항 ⇒ 최종 12문항 · 읽 기: 40문항 → 31문항 ⇒ 최종 24문항 · 쓰 기: 6문항 → 5문항 ⇒ 최종 4문항 · 문 법: 20문항 → 15문항 ⇒ 최종 12문항

구체적인 영역별 평가 문항 구성의 혁신 방안은 <표 2>와 같다.

<표 1-2>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 범위	구체적 시행 방안
말하기	▪ 구두 의사소통으로서의 실제성을 강화 ▪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적 상황을 제시 → ‘보고-말하기’, 상정된 청자에게 말하기 등의 방식으로 구성 ▪ 조사원의 상황 설명 변수를 통제하여 오염도를 낮춤
듣기	▪ 영상을 통해 실제 담화 상황을 구축하여 제시 ▪ 소집단 대화,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화 추구 ▪ 답지 구현 방식의 다양화 → drag, click, pull-down 등
읽기	▪ 독서 능력 평가의 관점 변화를 반영 → 실용성 기반, 폭 넓은 읽기 문식력 반영 등 ▪ 국제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세부 평가 틀(matrix) 재구성
쓰기	▪ 컴퓨터를 활용한 쓰기 방식 도입 ▪ 노출 빈도가 높고 실용적인 상황 제시로 실제성 확보 ▪ 상황 제시문을 통한 실제적 맥락 제공
문법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의 연계 ▪ 원리에서 적용까지의 전반적 언어 운용 능력 측정 ▪ 실용 텍스트 제시 방식 도입

이러한 연구 범위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9개월에 걸친 연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다.

<표 I-3> 본 연구의 연구 절차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이론 구축 ~ 2017년 6월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영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체계적 평가 방법론 마련
조사 도구의 설계 및 조사 시행 방식 결정 ~ 2017년 7월	▪ 평가 도구의 설계 ▪ 숙달된 조사원을 통한 가구 방문 1:1 개별 조사 방식 ▪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 설정 ▪ 인구 분포 통계를 활용한 2단계 층화 후 집락 추출, 집락에서 개인 할당 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보 ▪ 서울, 인천, 경기 동지역(중소도시), 경기 읍면지역 4개의 층으로 구분
1차 예비조사 시행 ~ 2017년 9월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9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 조사 검증
1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 2017년 10월	▪ 조사 도구의 적합성 분석 ▪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성 분석 ▪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식의 타당성 분석 ▪ 행렬 표집 설계 검사지 간 동등화, 수직 척도화 분석 → 신규 문항의 적절성, 가교문항의 적절성 평가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보완 ~ 2017년 10월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보완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도 확인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인
2차 예비조사 시행 ~ 2017년 11월	▪ 조사원 선발 및 재교육 ▪ 7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 조사 검증
2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 2017년 12월	▪ 조사 도구의 적합성 분석 ▪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성 분석 ▪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식의 타당성 분석 ▪ 행렬 표집 설계 검사지 간 동등화, 수직 척도화 분석 → 신규 문항의 적절성, 가교문항의 적절성 평가
조사 도구 정교화 및 관련 정책 제언 ~ 2017년 12월	▪ 각 조사 영역별 세부 결과 분석 및 문항의 정교화 ▪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3.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가 연구 의의와 목적에 부합되게 실현된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국어기본법 제23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국어능력 측정 조사이다. 본 연구는 국어능력에 대한 국내외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2013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어능력 조사가 안정적으로 정례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국민의 국어능력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조사 도구의 내용적인 측면과 시행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되 2차에 걸친 대규모 예비조사와 충분한 검증 절차를 통해 조사 도구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개발과 문항 검증뿐 아니라 시행 방식의 검증 또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그 시행 방식 및 시행 여건,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 시행을 고려한 조사 도구 개발 절차를 구축한다.

넷째,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이루어질 대규모 평가의 조사 도구 개발과 그 시행 방식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규모의 국어능력 평가 시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위상을 갖는 대규모 조사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조사 도구 설계의 이론적 검토

1. 국어능력의 개념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원년 연구로 삼아, 국어생활 각 분야에서 국민의 국어능력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에 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어능력’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하위가 되는 영역별 국어능력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영역에 바탕을 두고 어떠한 도구로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 기본법 제1장 제3조에서는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국어능력의 검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대략적인 국어능력의 조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국어능력을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어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해당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 및 평가 요소의 구안 등 보다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교육 및 국어 교육, 교육 평가 등의 다양한 이론과 국내외의 다양한 언어 조사 및 평가 방식과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2013년에 시행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연구는 장소원 외(2012)에서 이루어진 ‘기초 연구’를 실행하는 차원의 연구로서, 장소원 외(2012)에서 구축한 이론적 기반 및 국어능력 조사 체계에 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소원 외(2012)에서는 평가 대상으로서의 ‘국어능력’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어능력 평가 정책 및 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김성규 외(2006), 김동환 외(2008), 장경희 외(2009) 등과 같은 기존 논의를 인용하였다. 특히 김성규 외(2006)에서는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한 각종 언어활동과 연관된 능력으로 기본적으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장소원 외(2012)에서는 ‘읽기,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국어능력 조사 체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국어능력의 개념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다면적인 층위에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양정실 외(2014)의 연구를 기초로 한 구영산(2013)에서는 국어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접근 관점을 6가지로 정리하여 열거하였는데²⁾, 구영산(2013)은 다양한 국어능력의 속성을 종합하여 ‘국어능력’이란 ‘각각의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개별 언어활동 주체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능력’임을 함의한다고 하였다. 노명완(2002)은 ‘말하기·듣기·읽기·쓰

2) 구영산(2013)에서는 해당하는 선행 연구들을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국어능력에의 접근 관점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보편 국어능력의 속성’, ‘각각의 직종이 요구하는 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 국어능력의 속성’, ‘국가 수준에서 유의미한 시험이 요구하는 국어능력의 속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활동 맥락에서 요구되는 국어능력의 속성’, ‘각급 학교 학습자의 발달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특정 시기의 국어능력 속성’, ‘언어 영재나 국어 학습부진 학생과 같이 개개인의 언어능력 특성을 고려한 국어능력의 속성’으로 나누었다.

기'의 언어능력의 개발이 국어 교육의 목표라고 보고, '국어능력'이란 '고등 수준의 창조적 사고 능력'이자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되며, 나아가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윤여탁 외(2009)에서는 교사의 국어능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국어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언어 기반 정의, 인지 기반 정의, 사회 기반 정의, 통합적 정의'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³⁾.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국어능력의 개념 속에 '소통, 문화, 규범'이 핵심적인 요소로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복합적인 개념인 국어능력은 그 하위 범주 및 요소도 다층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어능력 검정의 시행 방안을 다룬 이삼형 외(2004)에서도 국어능력의 개념을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규칙 체계', '행위', '기능적 결과물'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 또한 '지식', '수행력', '경험', '태도'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교차적으로 각각 융합함으로써 국어능력의 구성 요소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규훈(2015)은 융복합적 교육의 관점에서 국어능력을 개념화하며, 국어능력의 구조를 '사고, 소통, 문화'의 세 범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국어능력이 사고, 소통, 문화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들 거대 담론이 함유한 개념적 성격을 국어능력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

<표 II-1> 국어능력의 범주와 요소(김규훈, 2015: 85)

범주		요소
사고	국어적 사고력	국어에 관한 인지적, 정의적 사고, 상위인지
소통	의사소통능력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능력으로서 문해력
문화	언어문화능력	국어 문화 현상의 이해·향유·창달 능력

이와 관련해 이성영(2014)은 국어능력에 '지식, 기능, 태도, 전략, 문법 능력, 텍스트능력, 국어 행위 능력, 사고력, 문화능력 등 다양한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들 구성요소 중 어느 것

3) 윤여탁·신명선·주세형(2009)에서 정리한 국어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어 기반 정의: ① 국어 규범의 이해와 활용 능력

② 어휘 능력, 문법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종합

③ 텍스트 생산과 수용 능력

(2) 인지 기반 정의: 국어적 사고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3) 사회 기반 정의: ①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국어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② 원활한 국어 생활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 사람의 사회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국어능력은 한 사람이 문화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능력 중 하나임.

(4) 통합적 정의(기타): ① 구성 요소 중심: 국어에 대한 앎, 국어사용에 관한 기능, 국어 관련 태도의 종합

② 국어사용 과정 중심: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거나 분석, 비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국어사용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봄.

③ 문식성(또는 문해력; literacy) 중심: 국어능력은 곧 문식성

4) 김규훈(2015)에서는 국어능력의 '사고, 소통, 문화' 범주에서 타교과 및 비교과 간의 '넘나들'을 가능케 하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고'의 측면에서는 '국어와 다른 현상을 연계한 문제 해결 능력'을, '소통'의 측면에서는 '확장된 언어로서 기호를 소통하는 문해력'을, '문화'의 측면에서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지닌 중층성을 실천하는 힘'을 설정하였다.

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국어능력의 정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어능력은 복합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된 만큼, 연구자에 따라 시각을 달리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 연구 중 국어능력의 하위 범주 설정을 시도하는 연구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했다. 민현식 외(2001), 민현식(2002)은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화(화법) 능력, 독해 능력, 작문 능력, 규범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며, 국어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능력 범주를 측정하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병규 외(2004)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캠벨과 웨일즈(Campbell & Wales, 1970), 하임즈(Hymes, 1972),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 바흐만(Bachman, 1990)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능력을 ‘언어능력’과 연관 지어 설명하며,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언어를 매개로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적 인지 과정으로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활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장경희 외(2005)에서는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⁵⁾ ‘국어능력은 인간 내부의 생각이나 정서를 말이나 글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능력이며,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말과 글로써 상호작용적인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 즉 국어 지식을 기초로 생산적인 언어 기호 활동과 상호작용적인 언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언어 기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국어능력의 구체적인 하위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2> 국어능력의 하위 구분(장경희 외, 2005: 60)

능력 층위	표현 능력		이해 능력		관련 국어 지식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읽기 능력	
음운	▪ 발음 능력	▪ 표기 능력	▪ 청음 능력	▪ 문자 지각 능력	음운 규칙, 음운 체계
단어	▪ 단어 변환의 인지 작용 ▪ 단어 표현 능력		▪ 단어 변환의 인지 작용		단어 지식
문장	▪ 발화 구성 능력 ▪ 발화 표현 능력	▪ 문장 구성 능력 ▪ 문장 표현 능력	▪ 명제 구성의 인지 작용 ▪ 해석 능력 ▪ 이해 능력		문장 규칙
텍스트	▪ 구어 텍스트 구성 능력 ▪ 구어 텍스트 표현 능력	▪ 문어 텍스트 구성 능력 ▪ 문어 텍스트 표현 능력	▪ 덩이 명제 구성의 인지 작용 ▪ 해석 능력 ▪ 이해 능력		텍스트 구성 원리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국어능력의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어능력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논의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고려하되,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어 기본법 제1장 제3조에

5) 장경희 외(2005)에서는 국어능력을 ‘다각적인 관점의 국어능력 개념 규정’과 ‘언어의 존재 양식에 따른 국어능력의 개념(언어 기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어능력, 담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국어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국어능력 정의들이 부분적으로만 국어능력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어능력 자체가 ‘고도의 복합적인 기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어능력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지닌 다각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 ‘국어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국어능력의 하위 활동 영역을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문법’으로 상세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각 영역별 국어능력의 개념을 규명함으로써 영역별 조사 체계 정교화를 위한 이론적 전제를 확인할 것이다.

2. 영역별 국어능력의 개념

1) 듣기 영역

(1) 듣기 능력의 개념

인간의 언어활동은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구어의 경우 표현 활동은 말하기, 이해 활동은 듣기로 나타난다.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이해 능력은 주어진 텍스트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장경희 외, 2005). 즉, 듣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구어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구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일 터인데, 동일한 이해 능력의 범주에 속하는 읽기 능력과는 달리 듣기는 ‘구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능력의 특성과 구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밝히려는 노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듣기 능력은 일반적인 언어능력과 구인을 같이 한다. 인간의 언어는 다층적인 층위를 지닌 기호 체계로 존재하며, 기호 체계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다. 듣기는 이해 활동이며, 이는 기표 구성체가 기의 구성체로 변환되는 활동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음운’, ‘단어’, ‘문장’, ‘텍스트’ 층위의 기호 체계로서 존재하며, 인간은 이러한 기호를 가지고 언어활동을 수행한다(장경희 외, 2005: 56). 로스트(Rost, 허선익 역, 2011/2014: 333)에서도 지엘 외(Gierl et al., 2005)에서 영어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험들을 분석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언어능력의 하위 범주에 듣기 능력이 속하며, 듣기 능력이 ‘음운 지식’, ‘어휘 지식’, ‘통사 지식’, ‘화용 지식’, ‘일반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벅(Buck, 2001: 104)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듣기 능력 서술을 위한 열개로서 ‘언어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제시하였다. 전자에는 문법 지식, 담화 지식, 화용 지식, 사회언어학 지식이 속하며, 후자에는 인지 전략과 상위인지 전략이 속한다. 이를 통해 청자는 듣기 상황에서 언어 관련 지식을 떠올리며 언어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글렌(Glenn, 1989)은 듣기 능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각, 주의, 해석, 기억, 반응, 반언어적 단서, 비언어적 단서’가 듣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기(上記)한 지식들이 인간의 듣기 활동에 총체적으로 관여하며 듣기 능력을 구성하게 된다. 기표 정보가 입력되면 그것이 의미 정보로 전환되고, 단어의 의미들은 결합하여 명제로 구성되는데, 이를 인지 행위를 통하여 머릿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명제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이해 행위라 한다(장경희 외, 2005: 58). 이러한 이해 행위에는 언어적인 의미 이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청자가 듣기 활동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언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임철성, 2016: 252). 즉, 정보 확인, 내용 이해, 내용 비판, 감상 등이 포함되는데(서혁, 1999: 257), 이는 국어적

사고력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듣기 평가는 국어적 사고력의 측면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서혁, 1999: 252-253). 따라서 듣기 평가에서는 기본 이해의 층위인 ‘사실적 이해’, ‘추리(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중심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듣기 능력의 요소 탐색

대부분의 국내외 (외)국어능력 조사 사례⁶⁾들에서도 듣기 능력을 측정할 때, 언어적 의미 파악 중심의 위와 같은 이해의 층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 조사 및 시험에서 설정하고 있는 듣기 평가의 요소이다.

<표 II-3> 자국어 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요소

시험명	평가 요소	비고
KBS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리·상상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논리적 이해 능력 등	듣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읽기 영역과 함께 평가 요소를 제시함.
대학수학능력 시험 언어 영역 (~2012)	다양한 담화 유형의 음성 자료를 들으면서 내용과 형식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수능 언어(현 국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이 출제되었던 2012년까지 기조가 유지되었음.
국어능력인증 시험(ToKL)	언어 기능 영역(청해) - 이해, 추론, 비판, 창의	언어 기능 영역과 함께 이해, 추론, 비판, 창의를 모든 사고영역을 종합 평가하는 문항 구성을 지향함.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듣고 반응하기, 추론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가 주를 이룸.

<표 II-4> 외국어 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요소

	평가 요소	비고
일본어능력 시험(JLPT)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 개요 이해, 발화 표현, 즉시 응답, 통합 이해	
중국어한어수평고시 (HSK)	단문, 대화, 대담 등을 듣고 세부 정보나 주제, 목적 등을 묻는 듣기 문제	
IBT TOEFL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듣기,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듣기, 정보를 종합하는 듣기	각 듣기 요소에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에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음.

6) 국제 학업성취도평가나 성인 대상 문식력 조사와 같이 대규모 조사에서는 주로 읽기 영역에 국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듣기 평가는 주로 어학연수를 위한 시험이나 해당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항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들은 여러 언어 ‘시험’에서 치러지는 듣기 평가의 사례에 가깝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어 인증 시험(ESOL)	요점 적기, 단답형, 진위 선택형, 이름 붙이기, 나열하기, 짝 맞추기 등의 문항으로 제시됨	
독일어 능력시험 (TestDaF)	특정한 정보가 텍스트 안에 제시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의미적 연관성을 유추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메모형식으로 답변하기	
프랑스어 능력시험 (TCF)	이미지, 사진, 그림 등에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일상 대화의 이해, 간결한 대화내용 이해, 발표문, 라디오 자료 등에 대한 이해	

국내의 자국어 듣기 평가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언어별 듣기 평가에서도 대부분, 상술하였던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와 같은 언어적 의미 파악 중심의 이해의 층위를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 요소나 구체적인 문형 등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듣기 평가에서 기본 이해의 층위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해의 층위가 듣기 능력의 전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듣기 능력에는 언어적 이해 능력뿐 아니라 관계적 능력과 점검 능력이 존재하며 이러한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임철성, 2009). 그러나 관계적 능력은 대인 의사소통에서 상호교섭적인 의미 구성 과정에 방점이 놓이며, 점검 능력은 듣기 활동의 상위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깊은데, 이들은 시험 및 조사 환경에서 그 능력을 면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나 시험에서는 듣기 능력을 평가할 때 언어적 의미 파악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장소원 외(2012)를 기반으로 한 2013년도 조사에서 듣기 능력의 평가 요소로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를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

(3) 듣기 평가의 설계 방향

본 조사에서는 앞서 논의한 듣기 능력의 개념과 국내외 (외)국어 시험 및 조사 사례에서의 듣기 평가 요소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도 조사와의 연속선상에서 듣기 능력의 평가 영역을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아래에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듣기 영역 평가 영역 및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영역	세부 평가 항목
사실적 이해	▪ 세부 정보의 파악 ▪ 핵심 정보의 파악 ▪ 지시의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 내용의 추론 ▪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 ▪ 적용
추론적 이해	▪ 내용의 평가 ▪ 형식의 평가

다만, 다양한 담화 상황 제시 및 답지 구현 방식의 변화와 같은 문항 형식 및 내용의 다변화를 통해 2013년 실시된 조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실제와 가까운 의사소통 상황을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3인 이상의 참여자가 등장하는 소집단 대화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제적인 듣기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말하기 영역

(1) 말하기 능력의 개념

주지하다시피 국어능력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영역별 국어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각각 ‘화법’, ‘독서’, ‘작문’, ‘문학’, ‘문법’이라는 용어로 규정되는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화법’ 영역은 듣기와 말하기를 통칭하여 다루는 과목이다. 이처럼 말하기는 듣기와 함께 엮여 설명되곤 하는데, 이는 인간의 구어 의사소통 상황이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말하기는 상대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 상 듣기와 말하기를 서로 분리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법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기 능력을 규정하고자 한다.

화법은 사전적으로 ‘말하는 방법’이라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어국문학자료사전(1998)에 의하면 화법은 ‘말하기에 쓰이는 일반적이고 특수한 모든 방법’으로, 두 사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화법은 말하기를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하기는 의사소통이라는 목적 아래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따라 화법을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구어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해 왔다(민병곤, 2012). 예컨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화법은 말을 통해 생각과 느낌, 경험을 교류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행위이다. 학습자는 듣기·말하기를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정서를 교감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창조적인 말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설명으로부터 화법은 ‘의미 공유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과정’, ‘문화 계승 및 발전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즉 화법의 과정에는 의사소통 참여자 개인의 인지적 요인 및 관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앞서 기술한 화법의 성격으로부터 화법 능력을 정의내릴 수 있다. 화법 능력을 ‘구어 의사소통 능력’으로 규정한다면, 화법 능력이란 곧 구어 의사소통에 작용하는 모든 제반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이 될 것이다. 즉, 화법 능력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으로, 의사소통 참여자의 구어 이해 및 표현 능력, 대인관계적 상호작용 능력,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전인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이창덕, 2008; 민병곤, 2006).

(2) 말하기 평가 연구 검토

① 말하기 평가 연구 : 선행연구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평가 방법 개발과 관련된 연구와 담화 유형별 평가 요소와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말하기 평가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장경희 외(2006), 김평원(2007), 이도영(2010)을 참고할 수 있다. 후자의 담화 유형별 평가 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손세모돌(2007), 조재윤(2007) 등의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장경희 외(2006)의 연구는 말하기 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말하기 능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말하기 실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말하기 평가의 영역과 항목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말하기 능력의 하위 요소를 구성 능력, 표현 능력, 수행 능력으로 범주화 하여 파악하고, 말하기 능력을 ‘언어를 기표화하고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담화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문법성, 논리성, 다양성, 유창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적절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김평원(2007)은 대규모 성인 말하기 평가 설계의 원리를 모색하여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평원(2007)의 연구는 말하기 평가가 피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변별해내는 것보다는 말하기 능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주장하며, 말하기 평가의 원리를 ‘실제 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 ‘과제 기반 평가’, ‘직무 중심 평가’, ‘평가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평가’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평가 시스템은 실제로 ‘KBS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시험’으로 실현된바, 대규모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해낸 정책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이도영(2010)은 말하기 교육의 지향점을 살펴봄으로써 말하기 평가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말하기가 갖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말하기 평가의 목표를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윤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원화된 평가 목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말하기 평가 전반에 대한 설계 원칙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말하기의 내용이나 표현은 담화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말하기 평가 설계 시에는 담화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담화 유형별 평가 요소의 설계 방침에 대해 모색한 연구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말하기 평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세모돌(2007)의 연구는 말하기에서의 설명의 개념을 규정하고 설명적 말하기 평가 방법을 모색하였다. 논의에 따르면 설명 능력은 내용과 표현, 전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각각의 측면을 세분화 하여 ‘구조의 적절성’, ‘명확성’, ‘내용의 체계성’ 등의 하위 기준을 설명 능력의 하위 평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조재윤(2007)에서는 담화 유형별로 평가 요소에 가중치를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조재윤(2007)은 ‘정보전달적 말하기’, ‘설득적 말하기’, ‘토의’, ‘토론’으로 담화 유형을 구분하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각 유형에 따른 평가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 논의는 화법 교육 전문가를 선정하여 말하기 유형별 평가 요소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행 평가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말하기 평가는 말하기 능력의 하위 구인을 항목별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제 기반의 실제 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말하기의 제측면을 고려하여 평가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채점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② 말하기 능력의 구인

말하기 능력의 하위 구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말하기 능력의 하위 구인은 말하기 평가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민의 일반적 말하기 수행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므로, 대규모로 실시된 선행 말하기 평가 연구의 평가 영역을 검토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의 하위 구인을 상정할 수 있다. 말하기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평가 영역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II-6> 화법 평가의 구인 제시 방식 (박재현, 2015)

독립 구인 적용		‘내용’과 ‘표현/전달’ 구분한 구인 적용		
장경희(2006)	조재윤(2006)	류성기(1996)	김평원(2010)	손세모들(2007)
유창성 문법성 다양성 논리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적절성	준비도	내용 선정	내용 구성 능력	내용
	이해력	내용 조직		
	조직력	표현 및 전달	표현 능력	표현
	표현력			전달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태도			

본 연구의 원형이 되는 김종철 외(2013)에서는 위와 같은 하위 구인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직접 말하기 평가에 사용하였다.

<표 II-7> 김종철 외(2013)에서 사용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3) 읽기 영역

(1) 독서 능력의 개념

독서 능력에 대해서는 일찍이 다양한 분야와 여러 연구자들이 개념 정립을 해 왔으며, 그만큼 연구자들의 읽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져 왔다. 이와 같이 읽기 또는 독서 능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그에 따라 여러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는 연구 과제의 목적에 맞게 평가와 관련하여 읽기 능력의 개념을 탐색하여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평가에서 독서 능력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텍스트, 독자, 상황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NAEP⁷⁾)
- 학습, 여가, 그리고 공동체 참여를 위해 자신의 배경 지식, 텍스트, 그리고 읽기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NAER⁸⁾)
- 사회적 요구 혹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PIRLS⁹⁾)
- 개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문자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PISA¹⁰⁾)

위의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읽기란 독자와 텍스트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의 구성 및 재구성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읽기의 과정적인 측면이 중요시된다는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구 또는 개인적 필요 또는 목적을 위한 읽기라는 점이 강조된다는 것 역시 위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이다.

7) 미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NAEP, 2004)

8) 국가 수준 읽기 평가(NAER, 2005)

9) 국제 읽기 문식력 연구학회(PIRLS, 2000)

10)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프로그램(PISA, 2003)

(2) 독서 능력의 하위 요소 비교

독서 능력의 하위 구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다양한 독서 능력검사도구들이 상정하고 있는 독서 능력의 하위 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PISA, PIAAC, NAER, PIRLS, NAEP, NRI의 독서 능력에 대한 하위 요소 비교

시험명 하위 요소	PISA(2010)	PISA(2015)	PIAAC ¹¹⁾	NAER	PIRLS	NAEP	국내NRI ¹²⁾
내용	· 매체글(비문학/문학) · 산문(도표, 그림)	· 매체 · 환경 · 체제 · 유형	· 기술 · 서사 · 설명 · 논증 · 지시 · 친교	· 글(비문학/문학) · 산문(도표, 그림)	· 문학적 텍스트 · 정보/논증 텍스트	· 문학적 텍스트 · 정보/논증 텍스트 · 지도, 그림	
과정 (인지)	· 특정 정보 추출하기	· 접근 및 확인	· 접근 및 확인	· 특정 정보 추출하기	· 특정 정보 추출하기		· 확인 (어휘, 세부내용)
	· 대의 파악하기 · 추론적 이해하기	· 통합 및 해석	· 통합 및 해석	· 추론	· 추론	· 일반적 이해 (대의 파악) · 해석하기	· 대의 (대의 파악) · 추론 (비명시적 내용도출)
	· 내용에 대한 고찰			· 해석	· 해석	· 독자와 텍스트 연결	· 평가 (텍스트의 특성(구조, 갈래, 내용)에 의거한 종합적 평가) · 반응 (배경지식을 적용한 텍스트에 대한 독자 반응)
	· 형식에 대한 고찰			· 평가(내용 및 구조)	· 평가(내용 및 구조)	· 평가(내용 및 구조)	· 창의 (텍스트와 배경지식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
상황 (목적)	· 개인적 · 공적 · 직업적 · 교육적	· 개인적 · 공적 · 교육적 · 직업적	· 직장 관련 · 개인 · 사회 및 지역 사회 · 교육과 연수			· 문학적 경험 · 정보 획득 · 과제 수행	

11)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2012)의 평가 3영역(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 중 ‘언어능력’ 부분에 대한 구분이다.

12) 윤준채, 서혁(2010), 표준화독서능력개발연구, 독서연구24호. 한우리(사) 지원에 의해 2010년 초등용 개발됨.

(3) 독서 능력 평가의 관점 변화

2012년 PIAAC, 2015년 PISA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 능력에 대한 평가의 관점이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독서 능력에 대한 개인적이며 교육적인 측면 외에 공적이고 직업적인 측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항 설계에 있어서 실용적 목적의 읽기 과제가 제시되거나, 제재 선정에 있어서도 안내문, 제품 설명서, 영수증 등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텍스트가 선정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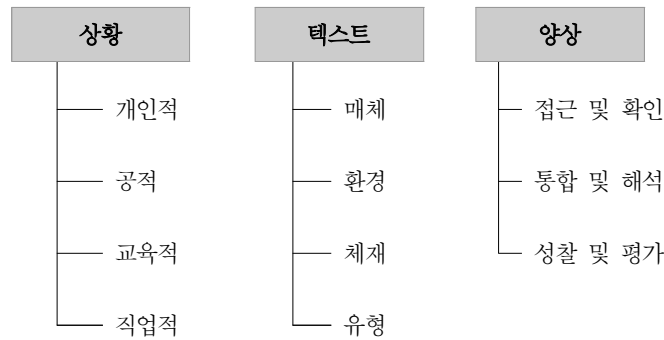
둘째, 포괄적 문식력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즉 독서 능력을 단순히 문자를 읽거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폭넓은 문식력 개념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PISA에서는 독서 능력을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PIAAC(2012)은 물론 PISA(2015)에서는 기존의 ‘대의 파악, 추론, 이해, 형식’ 등의 문어적 평가 요소들이 ‘접근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평가 및 반성’ 등 종합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용어들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텍스트 복잡도(complexity)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독서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텍스트의 어휘, 구조, 내용, 길이와 같은 텍스트 요인뿐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독자 요인, 특정 과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상황 요인 등이 기존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또한 디지털 매체 환경 요인 등도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텍스트, 독자,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문항이 설계되고 있다.

넷째, 독서 사회 혹은 문식력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서능력 평가는 표면적으로 개인의 인지 검사가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독서 능력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 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자가 속한 독서 사회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서 환경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문식력 평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설문을 병행함으로써 ‘학습자’와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한다. 독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읽기 문식력에 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문식력에 대한 태도나 동기, 참여 시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부모나 학교 설문을 통해서도 문식력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독서 평가와 독서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경향들은 환경 요인들이 단지 독서 능력과 별개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인의 문식력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최근 독서 평가의 경향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독서는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를 추론하고 종합하여 읽기 목적에 맞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의 파악 능력, 추론 능력, 평가 능력, 감상 능력¹³⁾, 상황적 재구성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독서 능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영역으로 구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2 PIAAC, 2015 PISA는 다음과 같은 matrix를 구성하였다.

13) 감상 능력이란 좋은 글에 대한 심미적인 평가로서, 즐거움이나 깨달음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동반한다.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능력과는 구분되지만, 문항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2013 연구에서와 같이 제외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 기초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의 평가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수용하되, 재구성 층위를 추가하여 4수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 특정 정보 확인 : 텍스트 내의 특정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선별, 중심내용[대의] 파악, 논지 전개 방식 이해
- ㉡ 추론 : 텍스트의 부분 혹은 전체로부터 직접적 추론
 - 생략된 정보, 함축적 의미, 필자의 의도 파악
- ㉢ 평가 : 주관적 혹은 객관적 관점으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심미적 평가
 - 내용[주장, 논거, 자료]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사회적 신념ideology 혹은 가치 분석, 글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perlocutionary force) 평가
- ㉣ 상황적 재구성 : 텍스트를 넘어 지식, 아이디어, 태도를 도출하여 상황에 맞게 재구성
 - 다중텍스트 혹은 복합양식 텍스트를 통합하여 읽기 목적, 매체, 장르,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텍스트의 주제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사회문화적 의미 재구성

이중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영역인 상황적 재구성 능력이란 독서 목적, 매체, 장르, 상황, 사회적 신념 등 맥락에 적절하게 텍스트 내용을 재구조화 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태도를 도출하는 능력¹⁴⁾이다.

4) 쓰기 영역

(1) 쓰기 능력의 개념

쓰기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쓰기 능력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를 지닌 문자 텍스트의 생산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진대연, 2006: 27)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넓은 범위의 개념은 쓰기 평가 도구의 설계에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기 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그 하위 요인들을 귀납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쓰기 능력의 개념에 접근하기로 한다.

14) 이는 PIAAC의 ‘평가와 성찰’에 가까운 정의이다.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에 대한 접근은 기반하고 있는 이론에 따라 달라져 왔다. 형식주의적 관점에서는 규범 문법이나 수사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숙련을 쓰기 능력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한 반면,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계획, 아이디어의 생성, 조직 및 배열, 표현, 고쳐쓰기라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을 쓰기 능력의 중핵적인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사회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담화 공동체의 형식이나 관습, 즉 장르 지식과 적용 능력을 쓰기 능력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식주의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좋은 텍스트를 ‘모방’하는 능력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국어능력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쓰기 능력과는 다소 차이를 지닌다. 이에 인지주의적 관점과 사회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쓰기 능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쓰기를 바라본 버레이터(Bereiter, 1987)에 따르면 숙련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쓰기 능력이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첫째, 문자 언어 표현의 유창성, 둘째,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생성의 풍부성, 셋째, 작문 규칙과 관습의 숙달, 넷째, 예상 독자 및 맥락과 글의 주제의 연결, 다섯째, 우수한 글에 대한 감상력과 비판력, 여섯째, 글의 내용의 효과적 조직과 언어 표현에 필요한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이다. 플라워와 헤이즈(Flower&Hayes, 1981: 370)는 과제 환경과 지식에 바탕을 두고 계획하고, 표현하고, 읽고, 조정하는 문제 해결 과정의 운용을 쓰기 능력의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플라워(Flower, 1994)는 쓰기 능력을 정의함에 있어 실제적인 작문 상황에서 필자, 독자, 텍스트, 사회적 맥락, 담화 관습, 사용 언어 등과의 의미 협상을 통하여 협상적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라는 사회 인지주의적 관점으로 쓰기 능력의 개념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고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며, 학습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된 것이라는 비고츠키(Vygotsky), 브루너(Bruner) 등의 업적에 철학적 토대를 둔 것이기도 하다. 같은 견지에서 베이저만(Bazerman, 1981)은 필자가 글을 쓸 때 직면한 문제(오류)는 개인의 인지 행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담화 공동체의 형식이나 관습에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수사적 인식을 쓰기 능력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앞서 언급된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쓰기 능력이란 목적, 맥락, 독자, 담화 관습 등의 수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쓰기 능력의 하위 요소

쓰기 능력의 하위 요소는 관점 및 평가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국민의 일반적 쓰기 수행 능력의 진단을 위해 수행되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로 실시된 선행 쓰기 평가 연구의 평가 영역을 검토함으로써 쓰기 능력의 하위 요소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다음은 선행 대규모 평가에서 설정하고 있는 쓰기 평가 요소이다.

<표 II-9> 국내 대규모 평가에서의 쓰기 평가 요소

시험명	평가 요소	비고
KBS 한국어능력시험	주제 선정, 자료 수집, 개요(outline) 작성, 집필, 퇴고	선택형
대학수학능력 시험 국어 영역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선택형
국어능력인증 시험(ToKL)	주제 설정 및 이해, 자료의 수집·해석·정리, 내용 구성 및 개요 작성, 내용 전개	선택형, 서답형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내용의 적절성 및 풍부성과 다양성, 구성의 논리성 및 연결성과 조직성, 어휘와 문법 사용의 정확성 및 풍부성과 다양성	서답형

국내 대규모 평가에서는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평가의 경우, 계획, 내용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등 쓰기의 과정을 분절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서답형 문항의 경우 구체적인 문형과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의 장르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용, 조직, 표현을 중심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내용, 조직, 표현은 전통적으로 텍스트 언어학에 토대를 둔 기존의 작문 평가 담론에서 글쓰기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평가 준거로 기능해 왔으며, 계획하기와 고쳐 쓰기가 글쓰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한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원형이 되는 김종철 외(2013)에서는 위와 같은 하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직접 쓰기 평가에 사용하였다.

<표 II-10> 김종철 외(2013)에서 사용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내용	▪ 목적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조직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표현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논의를 수렴하고, 2013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3가지 평가 요소를 유지하되, 하위 요소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쓰기 평가 도구 개발 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뢰도 높고 타당도 높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문법 영역

(1) 문법 능력의 개념

문법 능력은 언어능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규칙으로서의 능력’으로 초점화된다(이관화·정희창, 2015: 55). 촘스키가 언어능력을 문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한 이래, 하임즈(Hymes, 1972),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7) 등은 ‘능력(competence)’의 정의를 보다 확장시켜 ‘언어능력’ 또는 ‘의사소통적 능력’의 하위 범주로서의 문법 능력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어 온 문법 능력에 대한 정의를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언어능력(competence)은 문법적인 표현과 비문법적인 표현을 판단하는 능력
- 둘째, 언어능력은 무한수의 문법적인 문장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
- 셋째, 언어능력은 표면 구조가 서로 다른 문장이 동의(同義)임을 알아내는 능력
- 넷째, 언어능력은 한 가지 문장이 표면 구조상 둘 또는 그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능력(Chomsky, 1965)
-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 기호(어휘 지식, 발음과 철자 규칙, 단어 형식, 문장 구조)에 숙달한 정도를 나타냄(Canale & Swain, 1980)
-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이란 문장이 조직되는 원리의 지식으로 어휘, 통사, 발음·문자(표기) 지식을 말함(Bachman, 1990; Bachman & Palmer, 1997)
- 문법적 능력이란 ‘어휘에 대한 지식’,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음운론적 규칙에 대한 지식’을 뜻함(Brown, 2000)

(2) 문법 능력의 하위 요소

문법 능력의 하위 구인은 언어 단위의 구분 체계에 기초하여 큰 틀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논의되어 왔다. 다양한 문법 능력 검사 도구들이 상정하고 있는 문법 능력의 하위 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II-11> 각종 문법 능력 평가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법 능력 하위 요소 비교

	대학수학능력시험 ¹⁵⁾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¹⁶⁾	KBS한국어능력시험
중영역	· 언어의 본질 · 국어 구조의 이해 · 국어 자료의 탐구	<중학교> · 언어생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
		<고등학교> · 음운과 어휘 · 문장과 담화 · 국어 규범 · 국어의 변천	
평가 대상 능력	·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 음운·단어(어휘)·문장·담화 등 국어 단위의 체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 ·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문화 소양 · 한글의 창제와 사용을 비롯한 우리글과 우리말의 변화에 대한 이해 · 국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 다양한 언어 자료를 이용하여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 · 언어 자료로부터 문법적인 원리를 도출해 내는 탐구 능력 · 실제 언어 표현이나 이해 상황에서 국어 문법과 규범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	· 어휘력(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 및 표현 능력) · 문법(어법)능력

본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규범 능력으로서의 문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기 차원의 좁은 개념으로서의 규범뿐 아니라, “문장 내의 여러 요소들 간의 통사, 의미 관계, 어휘의 사용 문제 등이 다루어지는 표현 차원의 문법(정희창, 2012: 49)”도 규범 능력의 일부로서 다루고자 하였다. 즉, 정서법의 개념을 “단어와 문장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바르게 쓰는 언어 규범 전체로 넓게 이해(민현식, 2002: 2)”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 이인호 외(2016),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II-12> 규범 능력의 구성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이관희, 정희창, 2015: 57에서 재인용)

민현식(2000)의 규범 능력	정희창(2012)의 규범 능력
① 단어의 형식: 표기 ② 단어의 내용: 바르고 정확한 어휘 사용 ③ 문장의 형식: 올바른 문장 사용, 높임법, 호응, 문체 등 ④ 문장의 내용: 지식의 정확성, 문장의 논리성, 조리성 등	① 표기: 표기법의 영역 ㄱ.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부호 ㄴ. 띄어쓰기 ② 표현: 문법, 어휘의 영역 ㄱ. 어휘 ㄴ. 문장

다만, 민현식(2000)의 ④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언어가 다루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정희창(2012)에서와 같이 띄어쓰기가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표기 층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의 연구에서는 규범 능력의 구성 요인을 <표 3>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표 II-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의 문법 능력 평가 요소

규범	어휘	문장
1. 맞춤법	1. 의미와 용법	1. 경어법
2. 띄어쓰기	2. 의미 관계	2. 호응 관계
3. 표준어	3. 관용 표현의 의미	3. 접속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논의를 수렴하되, 2013 기초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 영역을 준용하여 위에 제시된 3수준의 평가 영역을 유지한다. 다만 각 평가 영역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문법 능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 평가 영역의 내용을 일부 조정한다.

<표 II-14>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문법 능력의 하위 구인

문법 능력	세부 내용
지식	언어생활의 준거가 되는 규범 지식 확인 - 한글 맞춤법 지식의 확인 및 문학 작품 등의 응용 능력 확인
이해	텍스트의 부분 혹은 전체로부터 문법 내용 확인 - 국어사전 및 일반 텍스트의 전체적 이해 및 맥락적 의미, 생략된 정보 등의 소통 능력 평가
응용	문법 능력을 맥락과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적용하는 능력 - 어휘 및 관용 표현 등을 실제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 사용하는 능력 파악
비판	실제 언어생활의 상황 및 텍스트를 문법 지식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 과다 경어법 사용 등과 같은 사례에 대한 문법적 이해 및 유사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법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3. 국내외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1) 국내의 국어능력 조사 사례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조사 개요	‘국어기본법’에 의거해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TNS Korea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다섯 영역에 따라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향후 5년 주기로 이러한 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체재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조사 대상	일반 국민 전체				
조사 시기	2013년 9월 1일 ~ 11월 15일(약 10주)				
표본 크기	20~59세 성인 남녀 3,000명 (실제 분석 데이터는 2,916명: ‘가’형 1,416명, ‘나’형 1,500명)				
표본 추출 방법	2단계 층화 표본 추출 방식 및 집락 추출 방식으로 표집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을 고려)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 조사				
조사 도구	▪ 장소원 외(2012)의 기초 연구에서 구안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46개 문항, 110분, 1,000점 만점의 조사 도구를 재설계하였다.				
	영역	방식	문항 수	시간	배점
	읽기	선택형(객관식)	20문항	40분	300점
	문법	선택형(객관식)	10문항	10분	150점
	듣기	선택형(객관식)	10문항	15분	150점
	쓰기	서답형(논술, 주관식)	3문항	30분	250점
	말하기	수행형(주관식)	3문항	15분	150점
조사 결과 처리	▪ 조사 실행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 도구를 ‘가’ 형과 ‘나’ 형의 둘로 나누어 설계하되, 읽기 영역의 6문항과 문법 영역의 10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설계하는,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이원화하였다.				
	▪ 4개 등급의 분할 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앵고프(Angoff) 방식’ 활용하여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처리하였다.				
	· 우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대부분(80% 이상) 획득한 수준				
	· 보통: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상당 부분(50%~80%) 획득한 수준				
	· 기초: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20%~50%) 획득한 수준				
	· 기초 미달				

□ 2008년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조사 개요	국민의 기초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실에 기초한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문해 교육 정책 개발의 기반 자료로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조사 시기	2008년 9월 9일 - 10월 28일(7주)										
표본 크기	총 5,212가구 12,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7,033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음.										
표본 추출 방법	4단 층화 확률 비례 추출법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 조사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현대 사회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용적이고 교양적인 글, 서식 등의 다양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읽고 쓰는 능력(기초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질문지 문항 설계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내용</th><th>과정(인지)</th><th>상황</th></tr> </thead> <tbody> <tr> <td>하위 요소</td><td>·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td><td>·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td><td>·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td></tr> </tbody> </table>				내용	과정(인지)	상황	하위 요소	·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	·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	·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내용	과정(인지)	상황								
하위 요소	·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	·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	·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조사 결과 처리	문해력 점수는 크게 '문해력 부진'과 '기초 문해력 보유'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0수준', '1수준', 후자를 2, 3, 4수준으로 나누어 모두 5단계로 구분하였다.										
시사점	문해력에 국한된 평가로, 전체적인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표본 추출이나 통계 처리와 같은 조사 방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평가 제도 개요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주관하며,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총체적인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																
영역 설정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언어 기초 영역		수행기반능력(어휘), 언어규범능력(어법, 어문 규정)														
	언어 기능 영역		청해능력(듣기), 독해능력(읽기), 작문능력(쓰기)														
	사고력 영역		사실적 이해, 추론, 비판, 창의														
문항 수 (영역별)	전체 90문항으로 구성. 객관식 80문항(5지선다), 주관식 10문항.																
	<table><tr><td colspan="6">영역별 문항 수: 객관식(주관식)</td></tr><tr><td colspan="6">어휘: 15(2), 어법: 5, 어문 규정: 5, 듣기: 15(2), 읽기: 40(1), 쓰기: 10(5)</td></tr></table>						영역별 문항 수: 객관식(주관식)						어휘: 15(2), 어법: 5, 어문 규정: 5, 듣기: 15(2), 읽기: 40(1), 쓰기: 10(5)				
영역별 문항 수: 객관식(주관식)																	
어휘: 15(2), 어법: 5, 어문 규정: 5, 듣기: 15(2), 읽기: 40(1), 쓰기: 10(5)																	
평가 시간	1교시 60분(어휘, 어문 규정, 읽기: 객관식 57문항), 2교시 70분(듣기, 어법, 쓰기, 객관식 23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총 130분 동안 진행되며 이중 30분은 듣기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주기	연 6회 실시																
점수 체제	총 200점으로 객관식은 2점씩 동일 배점이며, 주관식은 4점이되 차등 배점(A 4점, B 3점, C 2점, D 1점)한다.																
채점 방식	각 답안지의 채점은 객관식은 OMR 리더기로 채점 후 150점 이상의 고득점자와 100점 이하의 저득점자에 한해서는 역채점 방식을 취한다. 주관식은 동일 답안에 대해 3차에 걸친 채점 실시 후 오차율 30%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한다.																
등급 설정	수준 판정 방식은 절대 평가 방식이다. 등급제이며,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5 등급을 구획한다.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총점	200~185	184~169	168~153	152~137	137미만~121											
* 121점 미만은 급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KBS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제도 개요	KBS 한국어연구회와 자문위원들이 출제, 감수, 관리를 맡고 KBS 한국어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언어생활에 요구되는 국어사용 능력과 국어 관련 교양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선다 객관식.												
영역 설정	평가 영역은 문법, 이해, 표현, 창안, 국어문화 영역으로 나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역 구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문법 영역 (어휘·어법)</td><td>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td></tr> <tr> <td>이해 영역 (듣기·읽기)</td><td>어휘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리·상상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논리적 이해 능력 등</td></tr> <tr> <td>표현 영역 (쓰기·말하기)</td><td>보고서 작성 및 발표·토론 능력, 협상 및 대인 설득 능력, 논증 능력, 표준 화법 등</td></tr> <tr> <td>창안 영역 (창의적 언어능력)</td><td>창의적 표어 제작, 제목 추출, 아이디어 창안, 수사법, 고사성어, 속담 활용 능력 등</td></tr> <tr> <td>국어문화 영역 (국어교과의 교양 지식)</td><td>국어 상식 및 국어 문화에 대한 교양적 이해 능력</td></tr> </tbody> </table>	영역 구분	주요 내용	문법 영역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이해 영역 (듣기·읽기)	어휘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리·상상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논리적 이해 능력 등	표현 영역 (쓰기·말하기)	보고서 작성 및 발표·토론 능력, 협상 및 대인 설득 능력, 논증 능력, 표준 화법 등	창안 영역 (창의적 언어능력)	창의적 표어 제작, 제목 추출, 아이디어 창안, 수사법, 고사성어, 속담 활용 능력 등	국어문화 영역 (국어교과의 교양 지식)	국어 상식 및 국어 문화에 대한 교양적 이해 능력
영역 구분	주요 내용												
문법 영역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이해 영역 (듣기·읽기)	어휘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리·상상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논리적 이해 능력 등												
표현 영역 (쓰기·말하기)	보고서 작성 및 발표·토론 능력, 협상 및 대인 설득 능력, 논증 능력, 표준 화법 등												
창안 영역 (창의적 언어능력)	창의적 표어 제작, 제목 추출, 아이디어 창안, 수사법, 고사성어, 속담 활용 능력 등												
국어문화 영역 (국어교과의 교양 지식)	국어 상식 및 국어 문화에 대한 교양적 이해 능력												
문항 수 (영역별)	전체 100문항. 전체 문항 수와 각 영역 문항 수의 대비를 기준으로 보면, 문법 영역에서 30%, 이해 영역에서 40%, 표현 영역에서 10%, 창안 영역에서 10%, 국어 문화 영역에서 10%가 출제된다.												
평가 시간	120분 (듣기 포함)												
평가 주기	2004년 8월 8일에 전국 9개 도시에서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연 2회 실시되었는데, 2006년부터는 연 4회 시행되고 있다.												
점수 체제	990점 만점. 영역별 성취도와 백분위 점수, 환산 점수를 부여.												
채점 방식	각 답안지의 채점은 객관식은 OMR 리더기로 채점하여 처리한다.												
등급 설정	합격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닌 KBS가 특허출원한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부여 시스템으로 산정한다. 2009년 1월 23일부로 KBS 한국어능력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공인됨에 따라 성인등급과 청소년등급이 국가공인자격 등급으로 통합되었다.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급, 무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국가공인 자격증은 1급에서 4+급까지만 발급된다.												

□ 공직적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언어 논리’ 영역

평가 제도 개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PSAT의 3대 평가 영역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인데, 이 중 ‘언어 논리’ 영역이 국어능력 평가와 관련된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선다형 객관식.										
영역 설정	평가 영역은 ‘이해, 추론, 비판, 평가 능력’으로 나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영역</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이해 능력 영역</td><td>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능력</td></tr> <tr> <td>추론 능력 영역</td><td>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td></tr> <tr> <td>비판 능력 영역</td><td>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능력</td></tr> <tr> <td>표현 능력 영역</td><td>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td></tr> </tbody> </table>	평가 영역	내용	이해 능력 영역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능력	추론 능력 영역	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	비판 능력 영역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능력	표현 능력 영역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
평가 영역	내용										
이해 능력 영역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능력										
추론 능력 영역	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										
비판 능력 영역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능력										
표현 능력 영역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										
문항 수 (영역별)	전체 40문항 (민간경력자의 경우 25문항)										
평가 시간	90분 (민간경력자의 경우 60분)										
평가 주기	연 1회										
점수 체제	100점 만점, 문항당 2.5점씩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등급 설정	이 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피험자들 간의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나머지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영역의 점수를 합해 1차 시험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영역별로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된다.										

□ 의치학교육 입문검사(MEET/DEET) ‘언어 추론’ 영역¹⁷⁾

평가 제도 개요	의·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공동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행한다. 의학/치의학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세부 배경지식 없이도 주어진 지문에서 제공된 정보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방식	지원자(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선다형 객관식.
영역 설정	의치학교육 입문검사의 언어 추론 영역에서는 크게 ‘어휘 파악’,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되며, 내용 영역은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문항 수 (영역별)	MEET: 객관식 40문항, DEET: 객관식 30문항
평가 시간	MEET: 90분, DEET: 80분
평가 주기	연 1회
점수 체제	100점 만점. 정답 문항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 점수(T-점수)를 사용한다.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을 OMR 리더기로 채점
등급 설정	점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학교별로 성적 반영 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언어이해’ 영역

평가 제도 개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5지선다 객관식 문항.
영역 설정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영역의 주제를 다루는 제시문에 기초해 분석, 추론, 비판, 창의 등 종합적인 독해력 및 사고력 측정
문항 수 (영역별)	전체 35문항 (2019학년도부터 30문항으로 변경 예정)
평가 시간	80분 (2019학년도부터 70분으로 변경 예정)
평가 주기	연 1회 (주로 8월 말경)
점수 체제 및 등급 설정	정답 문항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으로 채점 후, 상대적 서열을 반영하여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한다.

17) 2013학년도부터 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으로 대체되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 제도 개요	국립국제교육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주관하는 평가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 2014년 7월 20일 제35회 차부터 시험 체제 개편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 혼용 <table><tr><th colspan="2">문제 유형</th></tr><tr><td colspan="2">선택형 문항(4지 선다 객관식) /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td></tr><tr><td colspan="2">문장 완성형(단답형): 2문항</td></tr><tr><td colspan="2">작문형(TOPIK II 만, 200~300자, 600~700자 각 1문항씩): 2문항</td></tr></table>					문제 유형		선택형 문항(4지 선다 객관식) /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문장 완성형(단답형): 2문항		작문형(TOPIK II 만, 200~300자, 600~700자 각 1문항씩): 2문항																	
문제 유형																													
선택형 문항(4지 선다 객관식) /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문장 완성형(단답형): 2문항																													
작문형(TOPIK II 만, 200~300자, 600~700자 각 1문항씩): 2문항																													
영역 설정	TOPIK I: 듣기, 읽기 / TOPIK II: 듣기, 읽기, 쓰기																												
문항 수 (영역별) 및 평가 시간	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시험 수준</th><th>영역</th><th>문항 수</th><th>평가 시간</th></tr><tr><td rowspan="2">TOPIK I</td><td>듣기</td><td>30</td><td>40분</td></tr><tr><td>읽기</td><td>40</td><td>60분</td></tr><tr><td rowspan="3">TOPIK II</td><td>듣기</td><td>50</td><td>60분</td></tr><tr><td>쓰기</td><td>4</td><td>50분</td></tr><tr><td>읽기</td><td>50</td><td>70분</td></tr></table> ▪ TOPIK I 은 총 100분, TOPIK II는 총 180분 간 실시됨.					시험 수준	영역	문항 수	평가 시간	TOPIK I	듣기	30	40분	읽기	40	60분	TOPIK II	듣기	50	60분	쓰기	4	50분	읽기	50	70분			
시험 수준	영역	문항 수	평가 시간																										
TOPIK I	듣기	30	40분																										
	읽기	40	60분																										
TOPIK II	듣기	50	60분																										
	쓰기	4	50분																										
	읽기	50	70분																										
평가 주기	연 6회 (1, 3, 4, 7, 10, 11월) (해외의 경우 실시하는 회 차가 상이함)																												
점수 체제	각 영역별 100점씩 TOPIK I 은 200점 만점, TOPIK II는 300점 만점																												
채점 방식	한국어 전공 교수, 교육 평가 전문가, 전산 전문가 등으로 채점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공란이나 복수 표기 등 재확인이 필요한 답안지는 채점 위원회에서 정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채점 위원에 의한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채점 완료 후 OMR 판독기를 사용하여 채점한다. ▪ 채점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2회의 확인 채점을 통하여 채점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등급 설정	시험의 수준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 colspan="2">TOPIK I</th><th colspan="4">TOPIK II</th></tr><tr><th>1급</th><th>2급</th><th>3급</th><th>4급</th><th>5급</th><th>6급</th></tr><tr><td>80점</td><td>140점</td><td>120점</td><td>150점</td><td>190점</td><td>230점</td></tr><tr><td>이상</td><td>이상</td><td>이상</td><td>이상</td><td>이상</td><td>이상</td></tr></table> (35회 이전 시험 기준으로 TOPIK I 은 초급, TOPIK II는 중·고급 수준) * 전 영역 종합 점수가 급별 합격 점수에 도달하면 합격 판정함. (제35회 차부터 과락 제도 폐지)					TOPIK I		TOPIK II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80점	140점	120점	150점	190점	230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TOPIK I		TOPIK II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80점	140점	120점	150점	190점	230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한국어능력평가시험(Korean Language Ability Test: KLAT)

평가 제도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재단법인 한국어능력평가원(KETS, Korea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이 주관하여 국내 및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닌 외국인 및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능력을 평가한다. 전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공 분야에서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평가(PBT) 및 컴퓨터시험(CBT).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 혼용.(서답형은 KLAT 고급(5~6급)에서만) * 해외 시행 B-KLAT는 PBT(종이/연필 시험)로만 진행됨.																																							
영역 설정	<table><tr><th colspan="2">시험명</th><th colspan="2">급수</th><th colspan="4">영역</th></tr><tr><td colspan="2">B-KLAT</td><td colspan="2">기초</td><td colspan="4">듣기, 읽기</td></tr><tr><td colspan="2" rowspan="3">KLAT</td><td colspan="2">초급</td><td colspan="4" rowspan="2">듣기, 어휘 및 문법, 읽기</td></tr><tr><td colspan="2">중급</td></tr><tr><td colspan="2">고급</td><td colspan="4">듣기, 읽기, 쓰기</td></tr></table>								시험명		급수		영역				B-KLAT		기초		듣기, 읽기				KLAT		초급		듣기, 어휘 및 문법, 읽기				중급		고급		듣기, 읽기, 쓰기			
시험명		급수		영역																																				
B-KLAT		기초		듣기, 읽기																																				
KLAT		초급		듣기, 어휘 및 문법, 읽기																																				
		중급																																						
		고급		듣기, 읽기, 쓰기																																				
문항 수 (영역별) / 평가 시간 / 점수 체제	영역별 문항 구성 및 배점,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B-KLAT		듣기		25	100	35분																																	
			읽기		25	100	45분																																	
	KLAT	초급	듣기		30	90	45분																																	
			어휘 및 문법		25	50	30분																																	
			읽기		20	60	35분																																	
		중급	듣기		20	60	45분																																	
			어휘 및 문법		25	50	30분																																	
			읽기		30	90	45분																																	
			고급	듣기		30	100	60분																																
				읽기		30	100	60분																																
				쓰기		3	100	45분																																

평가 주기	연 4회 (2, 4, 7, 10월) (CBT, PBT 번갈아서 각 2회씩)																																																												
등급 설정	시험의 수준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B-KLAT		KLAT							--------	------	------	------	-----	------	------	------		기초		초급		중급		고급			1급	2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92~	140~	80~	140~	80~	140~	150~	240~		139	200	139	200	139	200	239	300								

2) 국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

(1) 미국

□ NCES 성인 문식력 조사

조사 제도 개요	미국 국립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가 주관한 조사로, 전국적 차원에서 16세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문식력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1985년: 16세-25세 사이의 청소년 (Young Adult Literacy Survey) 1992년: 美 전역 16세 이상 성인 (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2003년: 16세 이상 성인 1억 9,100만 명,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NAAL)
조사 시기	1985년, 1992년, 2003년 실시
표본 크기	약 19,000명. 미국 거주 인구 중 3만 5천 개 이상 가구를 선택해 이 가구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성인 1만 8천 명 이상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시행하고 전국 107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중 1,200명을 추출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	4단 층화 확률 비례 추출법
조사 방법	방문 면접 조사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세 가지 종류의 문식력을 평가했는데, 산문 문식력(prose literacy), 문서 문식력(document literacy), 수리 문식력(quantitative literacy)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3년 평가에서는 이에 더해 단어 해독 및 인지 능력(the Fluency Addition to NAAL: FAN), 글자와 숫자 이해 조사(the Adult Literacy Supplemental Assessment: ALSA)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처리	점수를 처리하여 우수(Proficient), 보통(Intermediate), 기초(Basic), 기초 미달(Below Basic)의 네 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또한 1992년과 2003년의 결과 비교를 통해 국가 수준의 문식력의 변화를 비교하여 조사 대상의 문식력과 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 수준의 관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들의 문식력 정도 평가, 주별 성인 문식력 평가, 성인이 건강 관련 정보나 서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문식력 정도, 성인의 기초 독해력 평가, 문자와 숫자를 구별하고 단순한 산문체나 서류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의 최소 문식력을 분석하였다.

□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평가 제도 개요	미국 국립 교육 통계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주관하며, 미국 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한 시험이다.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므로 개인이나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다. 지역, 성(性), 계층, 인종에 따른 비교를 통해 교육 격차를 파악한다. 수학과 읽기는 자주 시험을 치르고, 쓰기, 과학, 미국사, 사회, 지리, 예술 등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며 그 시기는 2~3년으로 균일하지 않다. 행렬 표집(matrix sampling) 방식으로 조사 도구를 구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국어능력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역은 읽기와 쓰기 영역이다.				
평가 방식	평가들은 교과별, 학년별로 구분되고, 각 학년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발되는 평가들은 내용전문가, 학교행정가들, 정책결정자들, 교사들, 학부모 등을 포함하는 교육 관련 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다. 국가학업성취도운영위원회(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NAGB)에 의해 평가들이 완성되면 NCES가 문항 개발을 한다. 이후 표본이 되는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진다. 지필평가 문항은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서답형 문항은 응답 길이가 짧은 단답형과 응답 길이가 비교적 긴 서술형 문항이 포함된다. 평가 대상은 4, 8, 12학년 학생들이고, 대상자들은 표집을 통해 선발된다. 표집 방법은 학생 수, 성비, 인종적 비율 등을 고려해 무선추출법을 따른다. 조사는 하루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역 설정	<table><tr><th>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th></tr><tr><td> - 문항의 성격: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 질문의 유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td></tr></table> <table><tr><th>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th></tr><tr><td> - 문항의 성격: 설득/설명/문학적인 글쓰기 - 질문의 구성: 서술형(각 쓰기 목적별 3문항 출제, 각각 1문항씩 선택) - 평가 기준: 내용의 깊이와 다양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 </td></tr></table>	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	- 문항의 성격: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 질문의 유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	- 문항의 성격: 설득/설명/문학적인 글쓰기 - 질문의 구성: 서술형(각 쓰기 목적별 3문항 출제, 각각 1문항씩 선택) - 평가 기준: 내용의 깊이와 다양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
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					
- 문항의 성격: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 질문의 유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					
- 문항의 성격: 설득/설명/문학적인 글쓰기 - 질문의 구성: 서술형(각 쓰기 목적별 3문항 출제, 각각 1문항씩 선택) - 평가 기준: 내용의 깊이와 다양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					
평가 시간	총 90분 소요				
평가 주기	세 유형(국가 수준, 주 수준, 도시 지역 수준)의 NEAP 중 주 단위의 NEAP는 2년을 주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의해 Title I 펀드를 받기 원하는 주는 4, 8학년 수학과 읽기 과목 평가에 2년에 한번씩 참여할 의무가 있다. 국가 수준의 평가와 달리 주 수준의 평가는 4, 8학년만 보았으나, 2009년부터는 12학년도 시범적으로 자원하여 볼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점수 체제	1984년부터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검사 점수를 척도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NAEP는 평균이 250이고, 표준편차가 50이며 0점~500점까지의 범위가 가능한 척도 점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척도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되어 교과목간 점수 비교는 불가능하다.
채점 방식	선택형의 경우 답안지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채점하고, 구성형 문항의 경우는 답안지를 이미지화하여 채점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온라인 채점 시스템(image-based scoring system)을 사용한다. 2000년부터 NAEP는 채점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소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점을 도입했다. 온라인 채점은 전통적인 채점 훈련과 채점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단답형 문항은 정답과 오답 구분만 하여 부분점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서술형 문항은 답안의 질과 내용에 따라 차등 점수가 배정된다.
등급 설정 방법	교과별 성취도는 0점~300점 또는 0점~500점의 척도 점수와 보통(basic), 우수(proficient), 최우수(Advanced) 등의 성취수준으로 판정한다. 또한 결과는 저, 중, 고로 학생들의 성취를 나누고, 변화 추이는 5개의 백분위 점수(10, 25, 50, 75, 90)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 미국 대학 입학 능력 자격 시험(SAT, Scholastic Aptitude Test)

평가 제도 개요	미국의 대학 입학 능력 시험으로, 미국 대학 위원회(College Board)가 감독 및 실시하며,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 · 편찬 · 채점한다. 크게 SAT Reasoning test(논리력 평가)와 SAT Subject test(세부 과목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논리력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와 쓰기 능력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다지선다형 문항과 하나의 에세이 문항으로 구성.			
영역 설정	근거 기반 읽기/쓰기(reading & writing), 수학(math), 에세이(Essay) * 에세이는 선택			
문항 수 및 평가 시간	기존 SAT의 영역별 문항 수와 평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내용	문항 수/시간	문항유형/척도점수
	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	Extended Reasoning	36-40	5지선다형 200-800점
		Literal Comprehension	4-6	
		Vocabulary in Context	4-6	
		Sentence Completions	19	
		Total	67/70분	
	쓰기 (Writing)	Essay	1	에세이 작문
		Improving Sentences	25	5지선다형
		Identifying Sentence Errors	18	200-800점(작문)
		Improving Paragraphs	6	20-80점(5지선다형)
Total		50/60분	2-12점(에세이)	

	그러나 2016년 개편 이후에는 Reading Test 52문항 65분, 10분 휴식 후 Writing Test 44문항 35분으로 변경되었다.
평가 주기	연 7회
점수 체제 및 채점 방식	SAT는 원 점수를 200~800점 범위의 척도 점수로 변환하여 보고한다. 각 학생의 척도 점수는 우선 원 점수로부터 산출되며 원 점수는 공식 채점(formula scoring) 방식에 의해 계산된다. 공식 채점은 일반적 채점 방식과 달리 정답을 맞힌 문항에 1점을 부여하고, 오답을 기입한 문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고, 답을 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한다. 오답 문항에 대하여 감점을 할 때 5지선다의 경우에는 1/4점, 4지선다 문항에서는 1/3점을 감점하였으나, 2016년 개편 이후 오답에 대한 감점은 사라졌다. 공식 채점 방식에 의해 구해진 원 점수는 0.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 후 200~800 척도 점수(scaled score)로 전환되며 이때 척도 점수는 다시 10점 단위로 계산된다. 점수 동등화에 있어서는 3모수 문항 반응 모형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험 유형이 출제될 때마다 3,000명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회 시험의 점수가 일관된 의미를 갖도록 조정한다. 에세이 채점은 최소 두 명의 채점자들이 총체적 채점(holistic scoring)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채점자의 최고점은 6점이다. 채점자들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되며, 채점 기준은 사고의 복잡성, 실질성, 그리고 언어의 유창성 등이다. 그러나 시험 개편으로 점수 체제도 다소 바뀌었다.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과 Math가 각각 800점으로 총점 1600점이고 에세이는 총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Reading&Writing의 경우, Reading Test가 총 40점, Writing and Language Test가 총 40점, 둘의 총합에 10을 곱해 800점 만점의 섹션 스코어가 부과된다. 또한 총점수에 더해 Cross Test Score와 Subscores라는 보조 점수가 부과되어 학습자의 강점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에세이는 3문항 각각 8점 만점으로, 최대 24점까지의 점수가 나오는데, 위의 총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급 설정	SAT는 등급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척도 점수와 더불어 점수 범위(score range), 백분위(percentiles)가 보고된다. 점수 범위는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의 상하 30~40점으로 표현된 점수 구간으로, 동일 응시자가 다시 시험을 치를 때 예상되는 점수 구간을 의미하며, 이 범위의 점수는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 IBT TOEFL(Internet-Based Testing TOEFL)

평가 제도 개요	외국인을 위한 대학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ETS가 주관한다. 학술적 주제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듣기, 읽기, 말하기 및 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IBT형은 토플 중에서도 말하기 테스트와 통합형 에세이가 추가된 유형이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듣기, 읽기의 4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과 쓰기, 말하기의 서답형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영역 설정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										
문항 수 (영역별)	듣기: 34-51개 문항, 읽기: 36-56개 문항, 쓰기: 2개 과제, 말하기: 6개 과제										
평가 시간	총 4시간 10분 정도 소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th>소요 시간</th></tr> </thead> <tbody> <tr> <td>읽기 3-4개의 지문, 지문당 12-14개 문제</td><td>60-80분</td></tr> <tr> <td>듣기 6-9개의 지문, 지문당 5-6개 문제</td><td>60-90분</td></tr> <tr> <td>말하기 6개 과제, 6문제</td><td>20분</td></tr> <tr> <td>쓰기 2개 과제, 2문제</td><td>50분</td></tr> </tbody> </table>	문항	소요 시간	읽기 3-4개의 지문, 지문당 12-14개 문제	60-80분	듣기 6-9개의 지문, 지문당 5-6개 문제	60-90분	말하기 6개 과제, 6문제	20분	쓰기 2개 과제, 2문제	50분
문항	소요 시간										
읽기 3-4개의 지문, 지문당 12-14개 문제	60-80분										
듣기 6-9개의 지문, 지문당 5-6개 문제	60-90분										
말하기 6개 과제, 6문제	20분										
쓰기 2개 과제, 2문제	50분										
평가 주기	연 50회 이상										
점수 체제	120점 만점 (읽기 영역:30점, 듣기 영역:30점, 말하기 영역:30점, 쓰기 영역:30점)										
채점 방식	실제 채점자 채점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채점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높인다. 다양한 그룹의 채점자를 이용하며 채점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 채점자의 평가가 각 응시자의 말하기 및 쓰기 점수에 반영되도록 한다.										
등급 설정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난이도에 따른 환산표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제공한다.										

(2) 영국

□ A-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 언어 시험

평가 제도 개요	A-level(Advanced-level) 언어 시험은 AEB(Associated Examining Board), 케임브리지 대학,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 NEAB(Northern Examinations and Assessment Board) 등 대학과 지역 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치러지는 평가이다. 1951년 처음으로 소개되어 지금까지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대학 지원 시 학생들의 학습 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널리 인정받아 오고 있다.
평가 방식	평가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모두 주관식으로서 보통 10문제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한다. 우리나라 대학 1학년 정도 수준의 논술형이며, 평가 문항은 ‘평가하라, 논하라, 비교·대조하라, 비평적으로 고찰하라, 어느 범위까지 동의하겠는가’ 등으로 제시된다.

영역 설정	주로 어학적 능력과 문학적 능력을 측정한다. 이 중 어학적 능력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반응, 기술, 설명, 논평 능력, 언어 연구에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알고 사용하는 능력, 맥락에 따라 언어 형식과 의미가 편차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언어 사용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목적과 청자에 따르는 다양성에 대해 기술하는 능력, 언어 연구에 적합한 지식, 이해, 통찰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문항 수	3문항														
평가 시간	과목당 3시간 (시험 일정이 과목별로 상이하므로 총 한 달여 소요)														
평가 주기	연 1회 (2014년부터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 매년 5-6월에만 실시)														
점수 체제	서로 다른 평가 위원회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 UMS(Uniform Mark Scale)을 사용한다. <table><tr><td>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 90% of available UMS in A2 Modules</td></tr><tr><td>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td></tr><tr><td>B at A level requires 70% of available UMS</td></tr><tr><td>C at A level requires 60% of available UMS</td></tr><tr><td>D at A level requires 50% of available UMS</td></tr><tr><td>E at A level requires 40% of available UMS</td></tr><tr><td>U at A level if less than 40% of available UMS</td></tr></table>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 90% of available UMS in A2 Modules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B at A level requires 70% of available UMS	C at A level requires 60% of available UMS	D at A level requires 50% of available UMS	E at A level requires 40% of available UMS	U at A level if less than 40% of available UMS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 90% of available UMS in A2 Modules															
A at A level requires 80% of available UMS															
B at A level requires 70% of available UMS															
C at A level requires 60% of available UMS															
D at A level requires 50% of available UMS															
E at A level requires 40% of available UMS															
U at A level if less than 40% of available UMS															
채점 방식	성적 평가는 국가 시험 기관에 의해 치러지는 시험과 코스 과정 내의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평가로 이루어진다. 채점에 있어서는 ‘지식’, ‘비판력’, ‘구성력’, ‘자료의 연관성’ 등에 대한 비중치가 명시되어 있고, 외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채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비율을 명시한다.														
등급 설정	각 과목의 성적은 A*, A, B, C, D, E로 평가되며 점수로 환산하기도 한다. (A*는 2010년 신설) <table><tr><td>등급</td><td>A*</td><td>A</td><td>B</td><td>C</td><td>D</td><td>E</td></tr><tr><td>점수</td><td>140</td><td>120</td><td>100</td><td>90</td><td>60</td><td>40</td></tr></table> * 대학에서는 BBC라는 입학 조건 대신 280점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양한 등급 및 과목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등급	A*	A	B	C	D	E	점수	140	120	100	90	60	40
등급	A*	A	B	C	D	E									
점수	140	120	100	90	6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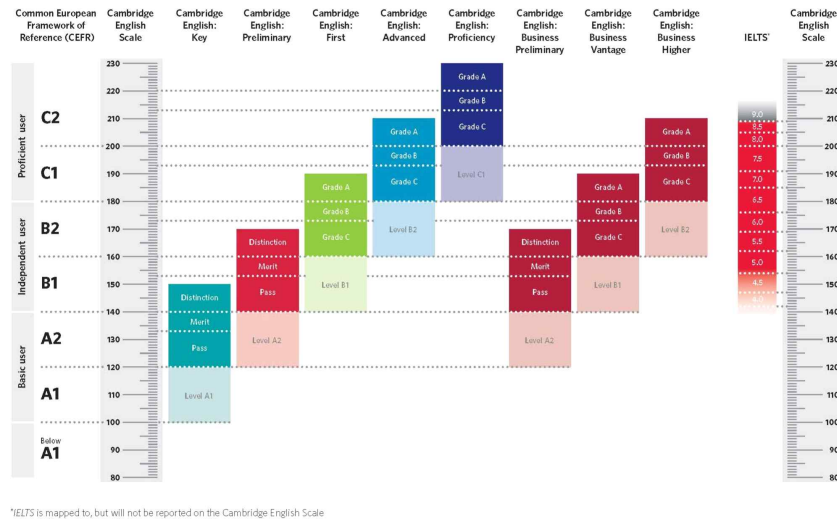
□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어 인증 시험(ESOL)

평가 제도 개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육 평가원(UCLE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모국어 화자와 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평가한다. 수준에 따른 KET, PET, FCE, CAE, CPE와 같은 등급별 시험과, 목표에 따른 CYLET, BEC, BULATS, IELTS 등 다양한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4지선다형 객관식. 말하기는 평가자와 수험자 1~3인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며, 10~30분여의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역 설정 / 문항 수 (영역별) / 평가 시간	시험별 영역 및 문항 수와 평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수준	영역	문항 구성	시험 시간
	KET	읽기&쓰기	9영역 56문항	1시간 10분
		듣기	5영역 25문항	30분
		말하기	2영역	8-10분
	PET	읽기&쓰기	읽기 5영역 35문항, 쓰기 3영역 7문항	1시간 30분
		듣기	4영역 25문항	36분
		말하기	4영역	10-12분
	FCE	읽기&영어 활용	7영역 52문항	1시간 15분
		쓰기	2영역	1시간 20분
		듣기	4영역 30문항	40분
		말하기	4영역	14분
	CAE	읽기&영어 활용	8영역 56문항	1시간 30분
		쓰기	2영역	1시간 30분
		듣기	4영역 30문항	40분
		말하기	4영역	15분
	CPE	읽기&영어 활용	7영역 53문항	1시간 30분
		쓰기	2영역	1시간 30분
		듣기	4영역 30문항	40분
		말하기	3영역	16분
▪ 학생 영어: YLE(Young Learners English), KET for Schools, PET for Schools, FCE for Schools ▪ 일반(성인) 영어: KET(Key English Test), PET(Preliminary), FCE(First Certificate in English), CAE(Certificate of Advanced English), CPE(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English) ▪ 직무 영어: BEC(Business English Certificate), ILEC(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 ICFE(Inter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English), BULATS(Business Language Testing) ▪ 아카데미 영어: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평가 주기	일반 평가 8회, 컴퓨터 기반 평가 4회로 연간 총 12회 정도 실시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점수 체재 /
등급 설정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증 점수를 갱신해야 하는 기존 영어 시험과 달리 합격·불합격(Pass/Fail) 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 시 영구적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각 시험별로 국제적인 언어능력 검증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럽연합 공동 외국어 등급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 CEFR)에 따라 영어능력단계가 부여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일본

□ 일본어 문장 이해 · 작성 능력 검정 시험(文章読解 · 作成能力検定)

평가 제도 개요	일본 한자 능력 검정 협회(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에서 주관하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 검정 시험이다. 201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영역 설정	기초 능력, 이해 능력, 작성 능력의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기초 능력은 어휘와 문법, 이해 능력(독해력)은 의미 내용, 자료 분석, 문장 구성을, 작성 능력은 구성, 표현, 종합 능력을 다루고 있다.						
문항 수 (영역별)	(공개되지 않음)						
평가 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평가 시간</th></tr> </thead> <tbody> <tr> <td>준2급, 3급, 4급</td><td>90분</td></tr> <tr> <td>2급</td><td>60분</td></tr> </tbody> </table>	등급	평가 시간	준2급, 3급, 4급	90분	2급	60분
등급	평가 시간						
준2급, 3급, 4급	90분						
2급	60분						
평가 주기	연 2회						
점수 체재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며, 70%가 합격한다.						
채점 방식	수험자가 작성하는 의견문, 논설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반드시 2인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한다. 채점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른 채점자가 판단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등급 설정	평가 등급은 2~4급으로 나뉘며, 2급은 2급과 준2급으로 나뉘어져 총 4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등급	난이도
	4급	읽기, 쓰기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지적 언어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3급	고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이해, 표현 활동, 지적 언어활동을 위해,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준2급	더 높은 학습을 목표로, 사회에서의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2급	고등교육에서 높은 교양을 주체적으로 체화하기 위해, 사회인으로 요구되는 문장 작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종합적 문장 독해력과 문장 작성력을 가진 정도

□ 일본 한자 능력 검정 시험(日本漢字能力検定)

평가 제도 개요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가 시행하는 한자 능력에 관한 검정 시험이다. 단순히 한자를 읽고 쓰는 지식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도 측정하고 있다. 1975년부터 시작됐으며, 1992년부터 문부 과학성이 인정하는 자격 제도가 되어 학점 인정이나 입학 우대에 사용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 늘어나 널리 활용된다.									
평가 방식	일상생활의 어떤 상황에서도 통용되는 종합적인 한자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식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영역 설정	한자 읽기, 쓰기 문제와 관용구의 구성, 의미, 오자 정정, 한자의 부수와 필순 등 넓은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다.									
문항 수 (영역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험에서의 문항 수는 80~120개 정도로 다양하며, 출제되는 문항 수의 제한이 없다.									
평가 시간	수험등급별 평가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등급</th><th>평가 시간</th></tr><tr><td>8급~10급</td><td>40분</td></tr><tr><td>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4급, 5급, 6급, 7급</td><td>60분</td></tr></table>		등급	평가 시간	8급~10급	40분	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60분		
등급	평가 시간									
8급~10급	40분									
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60분									
평가 주기	연 3회(1월 또는 2월, 6월, 10월)									
점수 체제	<table><tr><th>등급</th><th>총점</th></tr><tr><td>1급~2급</td><td>200점</td></tr><tr><td>준2급~7급</td><td>200점</td></tr><tr><td>8급~10급</td><td>150점</td></tr></table>		등급	총점	1급~2급	200점	준2급~7급	200점	8급~10급	150점
등급	총점									
1급~2급	200점									
준2급~7급	200점									
8급~10급	150점									
채점 방식	필획을 바르고 정확하게 쓴 글자만을 채점 대상으로 하며, 흘려 쓰거나 난잡하게 쓴 글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자의 종류와 글자의 체는 2~10급의 경우 상용 한자 표(2010년)를 기준으로 하며, 1급과 준1급은 한자 능력 검정									

요람1/준1급대상(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발행)이 가리키는 표준자체, 허용자체, 구자체 일람표에 의해 채점된다. 읽기의 경우 2~10급은 상용 한자표(2010년)에 의해 채점된다. 가나(仮名, 가타가나와 히라가나) 사용의 경우 현대판 가나 사용에 의해 채점되며, 오쿠리가나(送り仮名, 한문을 혼독하기 위해 한자의 오른쪽 아래에 다는 가나)의 경우 국가에서 공시한 오쿠리가나 사용법에 의해 채점한다. 부수는 한자능력검정요람 2~10급 대응(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발행)에 수록된 부수일람표와 부수별 사용한자에 의해 채점되며, 필순은 문부성이 만든 필순지도안내(1958년)에 의해, 상용한자의 필순은 한자능력검정요람 2~10급 대응에 수록된 상용한자필순일람에 의한다.

등급 설정

1급에서부터 10급까지로 되어 있고, 1급은 다시 1급과 준1급, 2급은 2급과 준2급으로 나누어져 모두 12단계로 되어 있다.

등급	난이도	대상 한자 수
10급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80자
9급	초등학교 2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240자
8급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440자
7급	초등학교 4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640자
6급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825자
5급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수료자 정도	1,006자
4급	중학교 재학자 정도	1,322자
3급	중학교 졸업자 정도	1,607자
준2급	고등학교 재학자 정도	1,940자
2급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생, 일반인 정도 (상용한자를 모두 읽고 쓰고 활용하는 수준)	2,136자
준1급	대학생, 일반인 정도	약 3,000자
1급	대학생, 일반인 정도	약 6,000자

□ 일본어 검정 시험(日本語検定)

평가 제도 개요	일본어 검정 위원회(日本語検定委員会)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본어 지식과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 검정 시험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험자 수는 연간 10만 명에 이른다. 2011년 7월에 문부과학성의 후원을 받았다. 이 자격 제도를 입시에서 우대하는 학교나 각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영역 설정	일본어 운용에 필요한 6개 영역인 어휘, 표기, 높임말, 한자, 단어의 의미,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영역별)	90~120문항						
평가 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평가 시간</th></tr> </thead> <tbody> <tr> <td>4~7급</td><td>50분</td></tr> <tr> <td>1~3급</td><td>60분</td></tr> </tbody> </table>	등급	평가 시간	4~7급	50분	1~3급	60분
등급	평가 시간						
4~7급	50분						
1~3급	60분						
평가 주기	연 2회						

점수 체제	총합 득점은 '정답인 점수의 합계/총 점수'로 산출하며, 영역별 득점은 '정답인 영역별 점수의 합계/영역별 총 점수'로 산출한다. 영역별 점수와 문제별 점수로 구분된다.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등급 설정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수준</th></tr> </thead> <tbody> <tr> <td>7급</td><td>초등학교 저~중학년 수준</td></tr> <tr> <td>6급</td><td>초등학교 중~고학년 수준</td></tr> <tr> <td>5급</td><td>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td></tr> <tr> <td>4급</td><td>고등학생, 중학생 수준</td></tr> <tr> <td>3급</td><td>사회인,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td></tr> <tr> <td>2급</td><td>사회인, 대학생 수준</td></tr> <tr> <td>1급</td><td>사회인 수준</td></tr> </tbody> </table> *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며, 인정, 준인정으로 표시되면 합격이다. 3~7등급의 경우는 총합득점률이 70% 이상이면 인정, 60~70%면 준인정이 되며, 1~2등급의 경우 총합득점률이 80% 이상이면 인정, 70~80%이면 준인정이 된다. 그러나 6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점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7급을 제외하고 득점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경우 합격되지 못한다.	등급	수준	7급	초등학교 저~중학년 수준	6급	초등학교 중~고학년 수준	5급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4급	고등학생, 중학생 수준	3급	사회인,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	2급	사회인, 대학생 수준	1급	사회인 수준
등급	수준																
7급	초등학교 저~중학년 수준																
6급	초등학교 중~고학년 수준																
5급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4급	고등학생, 중학생 수준																
3급	사회인,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																
2급	사회인, 대학생 수준																
1급	사회인 수준																

□ 일본어능력시험 (JLPT,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평가 제도 개요	일본국제교류기금(日本國際交流基金)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日本國際教育支援協會)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1984년부터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능력을 측정하고 인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필 평가.							
영역 설정	시험은 N1, N2, N3, N4, N5로 나뉘어져 있어 수험자가 자신에게 맞는 레벨을 선택한다. 각 레벨에 따라 N1~N2는 언어지식(문자·어휘·문법)·독해, 청해의 두 섹션으로, N3~N5는 언어지식(문자·어휘), 언어지식(문법)·독해, 청해의 세 섹션으로 나뉜다.							
문항 수(영역별)	시험과목		대문제	N1	N2	N3	N4	N5
	언어지식·독해	문자·어휘	한자읽기	6	5	8	9	12
			표기	—	5	6	6	8
			단어형성	—	5	—	—	—
			문맥규정	7	7	11	10	10
			유의 표현	6	5	5	5	5
			용법	6	5	5	5	—
		문법	문장의 문법 1 (문법형식 판단)	10	12	13	15	16
			문장의 문법 2 (문장만들기)	5	5	5	5	5
			글의 문법	5	5	5	5	5
			독해	내용이해(단문)	4	5	4	4

	<table><tr><td rowspan="5"></td><td rowspan="5"></td><td>내용이해(중문)</td><td>9</td><td>9</td><td>6</td><td>4</td><td>2</td></tr><tr><td>내용이해(장문)</td><td>4</td><td>—</td><td>4</td><td>—</td><td>—</td></tr><tr><td>통합이해</td><td>3</td><td>2</td><td>—</td><td>—</td><td>—</td></tr><tr><td>주장이해(장문)</td><td>4</td><td>3</td><td>—</td><td>—</td><td>—</td></tr><tr><td>정보검색</td><td>2</td><td>2</td><td>2</td><td>2</td><td>1</td></tr><tr><td rowspan="6">청해</td><td>과제이해</td><td>6</td><td>5</td><td>6</td><td>8</td><td>7</td></tr><tr><td>포인트이해</td><td>7</td><td>6</td><td>6</td><td>7</td><td>6</td></tr><tr><td>개요이해</td><td>6</td><td>5</td><td>3</td><td>—</td><td>—</td></tr><tr><td>발화표현</td><td>—</td><td>—</td><td>4</td><td>5</td><td>5</td></tr><tr><td>즉시응답</td><td>14</td><td>12</td><td>9</td><td>8</td><td>6</td></tr><tr><td>통합이해</td><td>4</td><td>4</td><td>—</td><td>—</td><td>—</td></tr></table> * 구체적인 문제 수는 매회 달라질 수 있으며, ‘독해’에서는 하나의 텍스트(본문)에 복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음.			내용이해(중문)	9	9	6	4	2	내용이해(장문)	4	—	4	—	—	통합이해	3	2	—	—	—	주장이해(장문)	4	3	—	—	—	정보검색	2	2	2	2	1	청해	과제이해	6	5	6	8	7	포인트이해	7	6	6	7	6	개요이해	6	5	3	—	—	발화표현	—	—	4	5	5	즉시응답	14	12	9	8	6	통합이해	4	4	—	—	—
				내용이해(중문)	9	9	6	4	2																																																													
				내용이해(장문)	4	—	4	—	—																																																													
				통합이해	3	2	—	—	—																																																													
				주장이해(장문)	4	3	—	—	—																																																													
		정보검색	2	2	2	2	1																																																															
청해	과제이해	6	5	6	8	7																																																																
	포인트이해	7	6	6	7	6																																																																
	개요이해	6	5	3	—	—																																																																
	발화표현	—	—	4	5	5																																																																
	즉시응답	14	12	9	8	6																																																																
	통합이해	4	4	—	—	—																																																																
평가 시간	<table><tr><th>레벨</th><th colspan="2">1교시</th><th>2교시</th></tr><tr><td>N1</td><td colspan="2">언어지식 · 독해 (1시간 50분)</td><td>청해 (65분)</td></tr><tr><td>N2</td><td colspan="2">언어지식 · 독해 (1시간 45분)</td><td>청해 (55분)</td></tr><tr><td>N3</td><td rowspan="2">문자 · 어휘 (30분)</td><td>문법 · 독해 (70분)</td><td>청해 (45분)</td></tr><tr><td>N4</td><td>문법 · 독해 (60분)</td><td>청해 (40분)</td></tr><tr><td>N5</td><td>문자 · 어휘 (25분)</td><td>문법 · 독해 (50분)</td><td>청해 (35분)</td></tr></table>	레벨	1교시		2교시	N1	언어지식 · 독해 (1시간 50분)		청해 (65분)	N2	언어지식 · 독해 (1시간 45분)		청해 (55분)	N3	문자 · 어휘 (30분)	문법 · 독해 (70분)	청해 (45분)	N4	문법 · 독해 (60분)	청해 (40분)	N5	문자 · 어휘 (25분)	문법 · 독해 (50분)	청해 (35분)																																														
레벨	1교시		2교시																																																																			
N1	언어지식 · 독해 (1시간 50분)		청해 (65분)																																																																			
N2	언어지식 · 독해 (1시간 45분)		청해 (55분)																																																																			
N3	문자 · 어휘 (30분)	문법 · 독해 (70분)	청해 (45분)																																																																			
N4		문법 · 독해 (60분)	청해 (40분)																																																																			
N5	문자 · 어휘 (25분)	문법 · 독해 (50분)	청해 (35분)																																																																			
평가 주기	연 2회 (7, 12월)																																																																					
점수 체제	언어지식, 독해, 청해 각 영역 60점씩 180점 만점.																																																																					
채점 방식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표를 OMR 리더기로 채점																																																																					
등급 설정	‘득점구분별 득점’과 이를 합제한 ‘종합득점’, 향후의 일본어 학습을 위한 ‘참고정보’를 통지한다. ‘참고정보’는 합격/불합격 판정의 대상은 아니며, A: 매우 잘했음 (정답률 67% 이상), B: 잘했음 (정답률 34%이상 67% 미만), C: 그다지 잘하지 못했음 (정답률 34% 미만) 와 같이 나뉜다. 시험의 합격점은 일본에서 발표되며, 과목별 과락이 존재한다.																																																																					

(4) 유럽

□ 독일어 능력 시험(Zertifikat Deutsch: ZD)

평가 제도 개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되는 자격 시험이다. 대표적 독일어권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세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시험이다. 독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데 있다.										
평가 방식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만 구술시험을 치를 수 있다.										
영역 설정 / 문항 수(영역별) / 평가 시간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필기 시험(Schriftliche Prüfung) : 총 150분</th></tr> <tr> <td>읽기(Leseverstehen) - 70분, 75점</td><td></td></tr> <tr> <td>문법(Sprachbausteine) - 20분, 30점</td><td></td></tr> <tr> <td>듣기(Höverstehen) - 30분, 75점</td><td></td></tr> <tr> <td>쓰기(Schriftlicher Ausdruck) - 30분, 45점</td><td></td></tr> </table>	필기 시험(Schriftliche Prüfung) : 총 150분		읽기(Leseverstehen) - 70분, 75점		문법(Sprachbausteine) - 20분, 30점		듣기(Höverstehen) - 30분, 75점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 30분, 45점	
필기 시험(Schriftliche Prüfung) : 총 150분											
읽기(Leseverstehen) - 70분, 75점											
문법(Sprachbausteine) - 20분, 30점											
듣기(Höverstehen) - 30분, 75점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 30분, 45점											

	구술시험(Mündliche Prüfung) : 10~20분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Kontaktaufnahme) - 3분 주제에 대한 대화(Gespräh über ein Thema) - 6분 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Lösen einer Aufgabe) - 6분					
평가 주기	연 5회(3월, 6월, 9월, 12월)					
점수 체제	총 300점 만점					
채점 방식	채점은 모두 독일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객관식 문항은 문항에 따라 5점, 2.5점, 1.5점의 배점이며, 쓰기 시험의 경우에는 채점 항목에 따라 부분 채점이 이루어진다. - 쓰기의 채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시 사항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최고 5점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한 문장이 있을 경우 1~2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2. 내용 전개 및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논리적인 순서, 그리고 적절한 호칭, 끝맺음, 날짜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최고 5점이 주어진다. 3. 문법, 맞춤법 등이 평가 대상이며 최고 5점이 주어진다. - 말하기 평가에서는 시험 직후 시험관이 구두로 평가 결과를 전달해 준다. 말하기의 채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어휘력, 주제에 맞는 표현능력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2. 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참여하는가, 자기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명하는가 등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3. 문법에 얼마나 맞게 말하는가에 따라 최고 4점이 주어진다. 4. 발음과 억양에 따라 최고 3점이 주어진다.					
등급 설정	등급은 아래와 같이 네 등급으로 나누며, 179.5점부터는 불합격이다. <table><tr><td>300~270: 매우 우수(sehr gut)</td></tr><tr><td>269.5~240: 우수(gut)</td></tr><tr><td>239.5~210: 만족할만한(befriedigend)</td></tr><tr><td>209.5~180: 충족한(ausreichend)</td></tr><tr><td>179.5~0: 불합격(nicht bestanden)</td></tr></table> *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다. 즉, 필기시험에서 135점 이상, 구두시험에서 4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00~270: 매우 우수(sehr gut)	269.5~240: 우수(gut)	239.5~210: 만족할만한(befriedigend)	209.5~180: 충족한(ausreichend)	179.5~0: 불합격(nicht bestanden)
300~270: 매우 우수(sehr gut)						
269.5~240: 우수(gut)						
239.5~210: 만족할만한(befriedigend)						
209.5~180: 충족한(ausreichend)						
179.5~0: 불합격(nicht bestanden)						

□ 대입 독일어 능력 시험(DSH, Deutsche Sprachprüfung für den Hochschulzugang)

평가 제도 개요	독일의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며, 독일의 각 대학에서만 칠 수 있다. 중급의 독일어 수업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시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평가 방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응시자의 신청에 의해 시험이 이루어진다. 필기시험과 말하기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필기시험에서 57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만 말하기 시험을 칠 수 있다. 말하기 시험은 주어진 3~4개의 지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문을 선택하여 15분 동안 읽고 메모한 후, 2명의 시험관에게 자기소개와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역 설정	필기시험은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Leseverstehen und Wissenschaftssprachliche Strukturen), 듣고 이해하기(Höerverstehen), 작문(Textproduktion)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 영역은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 듣고 이해하기와 작문, 말하기의 다섯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문항 수(영역별)	문항 수는 주관하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가 시간	<table><tr><td>읽고 이해하기와 문법: 90분</td></tr><tr><td>듣고 이해하기: 40분 (두 번의 듣기 대본 낭독 후 40분의 시간이 주어짐)</td></tr><tr><td>작문: 70분</td></tr><tr><td>말하기: 20분(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말하기)</td></tr></table>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 90분	듣고 이해하기: 40분 (두 번의 듣기 대본 낭독 후 40분의 시간이 주어짐)	작문: 70분	말하기: 20분(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말하기)
읽고 이해하기와 문법: 90분					
듣고 이해하기: 40분 (두 번의 듣기 대본 낭독 후 40분의 시간이 주어짐)					
작문: 70분					
말하기: 20분(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말하기)					
평가 주기	연 2회				
점수 체제	– 지필평가의 총점은 100점이고,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함께 제시한다. 영역별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고, 문법 영역의 점수 비중이 다른 영역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table><tr><td>지필 평가</td><td>문법: 14.28%, 읽고 이해하기: 28.57%, 듣고 이해하기: 28.57%, 작문: 28.57%</td></tr></table> – 말하기 평가의 총점도 100점이다.	지필 평가	문법: 14.28%, 읽고 이해하기: 28.57%, 듣고 이해하기: 28.57%, 작문: 28.57%		
지필 평가	문법: 14.28%, 읽고 이해하기: 28.57%, 듣고 이해하기: 28.57%, 작문: 28.57%				
채점 방식	DSH는 다수의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제 수행형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컴퓨터 전산 처리 방식이 아닌 채점자의 직접 채점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각 대학에서는 문제 출제와 동시에 과제별로, 그리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별로 상세한 채점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등급 설정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된다. (DSH 1: 57%, DSH 2: 67%, DSH 3: 82%) * 대개 필기시험과 말하기, 쓰기 시험에서 67% 이상, 즉 67점 이상을 획득해야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 독일어 능력 시험(TestDaF, Test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평가 제도 개요	TestDaF는 독일에서 학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독일어 능력 인정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능력 시험이다. 독일의 TestDaF-연구소가 주관하며 대략 600~800시간 정도의 독일어 수업을 들으면 응시할 수 있다.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입학 자격 취득을 위한 언어능력 증명으로 인정된다.											
평가 방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식, 서답식 평가로 이루어진다. 읽기, 듣기의 경우는 객관식 문항이며, 쓰기의 경우에는 주제와 함께 제시된 핵심 내용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연계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말하기의 경우에는 컴퓨터 지원을 받는 개인별 시험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는 독일 대학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7개의 과제가 주어지고, 이 설정된 각 상황에 적합한 말하기를 수행하여 녹음하여 제출한다.											
영역 설정	평가 영역은 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 듣고 이해하기(Höverstehen),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말하기(Mündlicher Ausdruck)의 네 영역으로 나뉜다.											
문항 수(영역별)	총 30문항											
평가 시간	총 3시간 15분											
	<table><tr><th>하위 영역</th><th>시간</th></tr><tr><td>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td><td>60분</td></tr><tr><td>듣고 이해하기(Höverstehen)</td><td>약 40분</td></tr><tr><td>쓰기(Schriftlicher Ausdruck)</td><td>60분</td></tr><tr><td>말하기 (Mündlicher Ausdruck)</td><td>약 35분</td></tr></table>		하위 영역	시간	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	60분	듣고 이해하기(Höverstehen)	약 40분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60분	말하기 (Mündlicher Ausdruck)	약 35분
하위 영역	시간											
읽고 이해하기(Leseverstehen)	60분											
듣고 이해하기(Höverstehen)	약 40분											
쓰기(Schriftlicher Ausdruck)	60분											
말하기 (Mündlicher Ausdruck)	약 35분											
평가 주기	연 6회											
점수 체제	시험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표준화된 시험이다. 읽고 이해하기와 듣고 이해하기 시험 영역에서는 시험 과제(예: 선택형 혹은 진위형 과제)마다 1점이 배점된다. 이 두 시험의 시험 영역별 등급 판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각각의 정답 개수이다.											
채점 방식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모두 훈련받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채점과 등급 판정은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다.											
등급 설정	결과는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3등급으로 평가된다. <table><tr><td>TestDaF-등급5 (TDN-5)</td></tr><tr><td>TestDaF-등급4 (TDN-4)</td></tr><tr><td>TestDaF-등급3 (TDN-3)</td></tr></table> * 이 중 TDN-5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TDN-3 이하는 등급이 더 이상 세분화 되지 않으며, 아직 TestDaF 응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려 준다.		TestDaF-등급5 (TDN-5)	TestDaF-등급4 (TDN-4)	TestDaF-등급3 (TDN-3)							
TestDaF-등급5 (TDN-5)												
TestDaF-등급4 (TDN-4)												
TestDaF-등급3 (TDN-3)												

□ 프랑스어 능력 시험(TCF, Test de Connaissance du Français)

평가 제도 개요	비프랑스어권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준 시험이며, 프랑스의 국제 교육 연구 센터(Centre International d'études Pédagogiques, CIEP)가 주최한다. 영어의 토익, 토플과 비슷한 프랑스어 레벨 측정 시험이다. 직업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프랑스어 능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만 16세 이상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공용 외국어능력 등급표에 따른 여섯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응시자의 레벨을 나누어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된 성적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평가 방식	필수 과목인 청취, 문장 구성, 독해 영역은 객관식 평가로 이뤄지며, 선택 과목인 구술과 작문 시험은 각각 구술 및 서술 평가로 이뤄진다. 구술시험은 구술 표현력을 평가하며 사전 준비 시간 없이 응시자와 면접관 간에 일대일 개별 인터뷰로 진행된다. MP3로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CIEP(국제 교육 연구 센터)에서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이중 평가를 하며, 면접관의 견해를 평가에 반영한다. 서술 시험은 총 여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는 빠뜨리는 것 없이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한다. 작성된 답안지는 CIEP(국제 교육 연구 센터)의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채점하며 역시 이중 평가를 실시한다.																	
영역 설정 및 문항 수 (영역별)	필수 영역 총 80문항. <table><tr><th colspan="2">영역</th><th>문항 수</th></tr><tr><td rowspan="3">필수 영역</td><td>청취(Compréhension orale)</td><td>30문항</td></tr><tr><td>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td><td>20문항</td></tr><tr><td>독해(Compréhension écrite)</td><td>30문항</td></tr><tr><td rowspan="2">선택 영역</td><td>말하기(Expression orale)</td><td>—</td></tr><tr><td>쓰기(Expression écrite)</td><td>6문항</td></tr></table> 이 중 청취, 문장 구성, 독해 영역은 필수 과목이며 말하기와 쓰기는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영역		문항 수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30문항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문항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30문항	선택 영역	말하기(Expression orale)	—	쓰기(Expression écrite)	6문항
영역		문항 수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30문항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문항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30문항																
선택 영역	말하기(Expression orale)	—																
	쓰기(Expression écrite)	6문항																
평가 시간	필수 과목 총 1시간 30분, 선택과목 총 2시간 <table><tr><th colspan="2">영역</th><th>문항 수</th></tr><tr><td rowspan="3">필수 영역</td><td>청취(Compréhension orale)</td><td>25분</td></tr><tr><td>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td><td>20분</td></tr><tr><td>독해(Compréhension écrite)</td><td>45분</td></tr><tr><td rowspan="2">선택 영역</td><td>말하기(Expression orale)</td><td>15분</td></tr><tr><td>쓰기(Expression écrite)</td><td>105분</td></tr></table>			영역		문항 수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25분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분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45분	선택 영역	말하기(Expression orale)	15분	쓰기(Expression écrite)	105분
영역		문항 수																
필수 영역	청취(Compréhension orale)	25분																
	문장구성(Maîtrise des structures de la langue)	20분																
	독해(Compréhension écrite)	45분																
선택 영역	말하기(Expression orale)	15분																
	쓰기(Expression écrite)	105분																
평가 주기	매달 1회(한 번 시험에 응시하면 그 다음 시험은 60일 이후 응시 가능)																	
점수 체제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며 총점은 699점이다.																	
채점 방식	객관식 답안은 답안지 스캔을 통해 컴퓨터로 채점되며, 구술 및 서술 답안지는 모두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채점된다.																	

등급 설정

등급은 유럽공용 외국어능력 등급표에 따른 여섯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응시자의 레벨을 나누어 제시한다.

유럽공용 외국어등급	기본레벨	능력별 레벨	학습시간 (단위:시간)	TCF점수 (만점:699점)
A1	초급	입문단계	80	100-199
A2		초보단계	150-200	200-299
B1	중급	실용구사단계	400	300-399
B2		독립구사단계	600-650	400-499
C1	고급	자율활용단계	800-850	500-599
C2		완성단계	900 이상	600-699

(5) 중국

□ 중국한어수평고시(中國漢語水平考試, Chinese Proficiency Test: HSK)

평가 제도 개요	중국정부기구인 중국국가한반이 중국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주관하는 시험으로,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정부 유일의 국제 중국어능력 표준화고시이다. 생활, 학습, 업무 등 실생활에서의 중국어 운용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세계 112개 국가, 86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평가 방식	HSK는 ‘HSK 1급-6급’ 시험과 ‘HSKK 초급·중급·고급회화’ 시험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되기에 해당 등급에 대해 개별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평가는 지필시험과 IBT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지필시험은 기존에 진행해 오던 시험 방식으로 종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시험이며, IBT시험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시험이다.																																																													
영역 설정 / 문항 수(영역별) / 평가 시간	<table><tr><th>시험 수준</th><th>영역</th><th>문항 수</th><th>평가 시간</th></tr><tr><td rowspan="2">HSK 1급</td><td>듣기</td><td>20</td><td>약 15분</td></tr><tr><td>독해</td><td>20</td><td>17분</td></tr><tr><td rowspan="2">HSK 2급</td><td>듣기</td><td>35</td><td>약 25분</td></tr><tr><td>독해</td><td>25</td><td>22분</td></tr><tr><td rowspan="3">HSK 3급</td><td>듣기</td><td>40</td><td>약 35분</td></tr><tr><td>독해</td><td>30</td><td>30분</td></tr><tr><td>쓰기</td><td>10</td><td>15분</td></tr><tr><td rowspan="3">HSK 4급</td><td>듣기</td><td>45</td><td>약 30분</td></tr><tr><td>독해</td><td>40</td><td>40분</td></tr><tr><td>쓰기</td><td>15</td><td>25분</td></tr><tr><td rowspan="3">HSK 5급</td><td>듣기</td><td>45</td><td>약 30분</td></tr><tr><td>독해</td><td>45</td><td>45분</td></tr><tr><td>쓰기</td><td>10</td><td>40분</td></tr><tr><td rowspan="3">HSK 6급</td><td>듣기</td><td>50</td><td>약 35분</td></tr><tr><td>독해</td><td>50</td><td>50분</td></tr><tr><td>쓰기(작문)</td><td>1</td><td>45분</td></tr></table>				시험 수준	영역	문항 수	평가 시간	HSK 1급	듣기	20	약 15분	독해	20	17분	HSK 2급	듣기	35	약 25분	독해	25	22분	HSK 3급	듣기	40	약 35분	독해	30	30분	쓰기	10	15분	HSK 4급	듣기	45	약 30분	독해	40	40분	쓰기	15	25분	HSK 5급	듣기	45	약 30분	독해	45	45분	쓰기	10	40분	HSK 6급	듣기	50	약 35분	독해	50	50분	쓰기(작문)	1	45분
시험 수준	영역	문항 수	평가 시간																																																											
HSK 1급	듣기	20	약 15분																																																											
	독해	20	17분																																																											
HSK 2급	듣기	35	약 25분																																																											
	독해	25	22분																																																											
HSK 3급	듣기	40	약 35분																																																											
	독해	30	30분																																																											
	쓰기	10	15분																																																											
HSK 4급	듣기	45	약 30분																																																											
	독해	40	40분																																																											
	쓰기	15	25분																																																											
HSK 5급	듣기	45	약 30분																																																											
	독해	45	45분																																																											
	쓰기	10	40분																																																											
HSK 6급	듣기	50	약 35분																																																											
	독해	50	50분																																																											
	쓰기(작문)	1	45분																																																											
평가 주기	지필시험은 월별로 시행됨. IBT시험은 연 6회 정도 시행됨.																																																													

점수 체제	1-2급: 영역별 100점 만점, 총점 200점 만점. 총점 120점 이상 합격. 3-6급: 영역별 100점 만점, 총점 300점 만점. 총점 180점 이상 합격.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하다.
채점 방식	객관식 답안은 답안지 스캔을 통해 컴퓨터로 채점되며, 구술 및 서술 답안지는 모두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채점된다.

(6) 기타 언어능력 측정 사례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 개요	OECD 회원국들의 교육 체제의 질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이다.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학생의 대부분(약 98%)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함.
조사 시기	3년 주기로 시행
표본 크기	PISA 2015의 경우, 총 72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37개국)의 만 15세 학생 약 54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
표본 추출 방법	비례 층화 표집 방법
조사 방법	2시간의 지필 검사로 시행된다.
조사 도구	각 영역의 문항이 서로 다르게 배합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주 영역과 보조 영역의 문항 수 비중이 다르다. 시험은 선택형, 단답형, 폐쇄형 서술형, 개방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처리	조사 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한다.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 점수를 활용하며, 등급 구분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와 더불어 PISA 2006부터는 95%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순위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 OECD 국제 성인 문식력 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OECD 국제 성인 문식력 및 생활능력조사 (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조사 제도 개요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는 OECD에서 주관한 국제 규모의 성인 문해 조사 프로그램이며,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은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조사 대상	-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1994년, 1996년, 1998년 3단계에 걸쳐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20여 개 국가들의 16~6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식력을 조사하여, 국제 비교하였다. -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2003년 버뮤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6개 국가의 16~6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식력 및 생활 기술 문식력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이루어졌다.
조사 시기 및 조사 기간	-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1994년, 1996년, 1998년 -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2003년 자료 수집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나 대략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표본 크기	-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국가별로 대략 3000여 표본을 수집 - 국제성인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약 1275개
표본 추출 방법	각 가정에서 16세~65세의 연령대에 있는 성인 1명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연령, 교육 정도 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표본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영역 안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조직적으로 선정되도록 함.
조사 방법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배경 변인에 대한 설문과 문해 능력에 대한 인터뷰 조사)
조사 도구	IALS는 예비조사 6문항, 본 조사 3개 영역 10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기초 단계 수준의 조사이다. 예비조사는 조사에 응하는 모든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며, 예비조사 2문항 이상을 수월하게 응답한 응답자는 이어서 본 조사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조사 단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본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문해 조사는 종료된다. 본 조사는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7권 중 한 권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각각의 조사지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사지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영역은 총 7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는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를 모두 포함하는 11~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LL은 평가 문항이 다양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트는 세분화된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포함한 각각의 문해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이다. 응답자들은 전체 세트에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16종류의 평가지에서 무선적으로 선정된 하나의 평가지에 응답한다.
조사 결과 처리	문해 능력은 점수화되어 처리되며, IALS, ALL 모두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단계별(level 1-level 5단계), 영역별(산문, 문서, 수량 문해)로 비교 분석하였다.

□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평가 제도 개요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총 6개 어종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의 말하기 능숙도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언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언어 수행 능력 평가를 지향한다.						
평가 방식	지원자의 신청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 반(半) 직접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응시자 개개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하고 그 자료를 미국의 평가 서버에 전송하면 채점이 이루어져 결과가 통보된다.						
영역 설정	Global Tasks/ Functions 언어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Context/ Content 화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인 문맥 및 내용의 범위 Accuracy/ Compre- hensibility 답변의 보편적 이해도, 정확성, 그리고 수용성을 의미 Text Type 화자의 발화량 및 구조를 의미 실제 말하기 능력 측정을 위한 Proficiency Test OPIc은 4개 영역(Global Tasks/Functions, Context/Content, Accuracy/Comprehensibility, Text Type)에 걸쳐 언어능력을 측정하며,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등의 요소는 위 평가 영역 중 한 영역에 포함된 요소에 불과하다. Background Survey를 통한 개인 맞춤형 문제가 출제되며, 직업, 여가생활, 취미, 관심사, 스포츠, 여행 등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문항 수 (영역별)	12~15문항(개인별 맞춤 차등 문항)						
평가 시간	총 40분						
평가 주기	지정된 접수 기간에 신청(상시 가능)						
점수 체제 및 채점 방식	점수체제는 절대평가 체제이며, ACTFL 공인 평가자가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Speaking (Revised 2012)’ 말하기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방식은 총체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설정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Speaking이라는 말하기 능숙도(Oral Proficiency)에 대한 언어능력 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로 다음과 같은 9개의 등급을 구분한다.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 colspan="2">Level</th><th>등급별 특성</th></tr><tr><td>Advanced</td><td>Advanced Low</td><td>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적절한 위치에서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속력도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능숙도이다.</td></tr></table>	Level		등급별 특성	Advanced	Advanced Low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적절한 위치에서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속력도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능숙도이다.
Level		등급별 특성					
Advanced	Advanced Low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적절한 위치에서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속력도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능숙도이다.					

	Intermediate	Intermediate HIGH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곤 한다. 발화량이 많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Intermediate MID	일상적인 소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나열하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상대방이 조금만 배려해 주면 오랜 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Intermediate LOW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소재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Novice	Novice HIGH	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에 대해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라면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다.
		Novice MID	이미 암기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Novice LOW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영어 단어를 나열하며 말할 수 있다.

* Intermediate Mid의 경우 Mid < Mid2 < Mid3로 세분화하여 제공.

이렇게 국내외의 자국어능력 조사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평가와 조사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어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실용적인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고 있다. 둘 중에서는 특히 ‘조사’에 속하는 국제기구들에서 실시된 국제적인 문식력 조사들이 본 조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상통한다. 특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 정의된 문식력 및 언어능력의 개념, 문항 설계 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국제 자국어조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시 및 ICT 활용의 증가 추이에 주목할 수 있다. OECD는 PISA와 PIAAC을 통해 디지털 문식력을 평가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IEA역시 2016주기부터 ePIRLS를 기획 중이다. 또한 PISA 2015주기부터는 읽기, 수학, 과학, 문제 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인쇄 기반의 평가를 없애고 디지털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동향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문식력 교육의 중요한 내용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디지털 기반의 평가를 도구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 필요도 있다.

셋째,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자국어능력 조사의 하위 평가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경우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어능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도 나뉘는데, 이러한 평가의 두 수준에 있어 측정의 하위 요소들이나 내용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어학적 능력과 함께 문학적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Ⅲ. 조사 도구의 개발

1. 조사 도구 개발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사 도구의 개발 절차는 예정된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요 과제는 영역별 이론 구축, 조사 도구 구성, 1차 예비조사의 설계 및 시행, 1차 예비조사의 채점 및 결과 분석,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보완, 2차 예비조사 시행, 2차 예비조사의 채점 및 결과 분석, 조사 도구 정교화 및 관련 정책 제언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Ⅲ-1> 본 연구의 조사 도구 개발 절차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이론 구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영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영역별 국어능력의 개념화, 국어능력의 하위 요소 탐색함. - 국내외 자국어능력 조사 및 국어능력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국어능력의 재개념화하고 영역별 조사 도구의 설계 방향을 설정함.
조사 도구의 구성	- 영역별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 가교문항의 검토 - 문항 형식 결정 - 영역별 검사지 구성
1차 예비조사 시행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 설정 - 인구 분포 통계를 활용한 2단계 층화 후 집락 추출, 집락에서 개인 할당 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보 - 서울, 인천, 경기 동지역(중소도시), 경기 읍면지역 4개의 층으로 구분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9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 조사 검증
1차 예비조사의 채점 및 결과 분석	- 예비조사 결과의 채점 - 영역별 점수 분포를 분석하여 조사 도구의 적합성 분석 -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성 분석 -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식의 타당성 분석 - 행렬 표집 설계 검사지 간 동등화, 수직 척도화 분석 → 신규 문항의 적절성, 가교문항의 적절성 평가

▽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보완	▽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삭제 및 수정 문항의 선정 기준 마련 -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도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인 2차 예비조사를 위한 영역별 문항 삭제 및 수정 - 연구진 평가회 및 전문가 자문단 검토
▽ 2차 예비조사 시행	▽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학력군, 직업군’의 5개 변인 설정 - 인구 분포 통계를 활용한 2단계 층화 후 집락 추출, 집락에서 개인 할당 추출 방식을 적용 - 서울, 인천, 경기 동지역, 경기 읍면지역 4개의 층으로 구분 - 조사원 선발 및 재교육 7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 조사 검증
▽ 2차 예비조사의 채점 및 결과 분석	▽ 1, 2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문항 삭제 및 수정 - 조사 시행 방식의 타당도 조사 대상의 대표성 확인 - 연구진 평가회 및 전문가 자문단 검토 - 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의 최종 선정
▽ 조사 도구 정교화 및 관련 정책 제언	▽ - 각 조사 영역별 세부 결과 분석 및 문항의 정교화 - 연구원 평가회 및 전문가 자문단 검토 -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전반적, 영역별 제언

2. 영역별 조사 도구의 구성

1) 듣기 영역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 영역을 일관되게 설정하되, ‘보면서 듣기’의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거나 선지를 ‘메모’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문항 유형의 다변화와 함께, 활용하는 담화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제와 가까운 의사소통 상황을 문항의 장면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듣기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2013, 2017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2013			2017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가. 사실적 듣기	1. 세부 정보의 확인	2	가. 사실적 듣기	1. 세부 정보의 파악	2	
	2. 핵심 정보의 파악	1		나. 추론적 듣기	2. 핵심 정보의 파악	2
	3. 지시의 이행	1			다. 비판적 듣기	3. 지시의 이행 능력
나. 추론적 듣기	1. 내용의 추리	2	나. 추론적 듣기			1. 내용의 추리
	2.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	1		다. 비판적 듣기		2.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
	3. 적용	1			다. 비판적 듣기	3. 적용
다. 비판적 듣기	1. 내용 또는 형식의 평가	2	다. 비판적 듣기			1. 내용의 평가
				2. 형식의 평가		1
합계		10	합계 ¹⁸⁾		13	

담화 유형 역시 2013년 조사와의 검사 도구 동등화를 위하여 크게 변경한 부분은 없으며, 장소원 외(2012: 62)의 기초 연구에서의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담화유형을 대상으로 듣기 능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준용하였다. 다만 담화의 목적이나 상황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2013년도 조사와 2018년도에 시행될 본 조사의 구체적인 듣기 영역 담화 유형은 <표 III-3>, <표 III-4>와 같다.

<표 III-3> 2013년 조사 듣기 영역 담화 유형

문항 번호	담화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배점
		지시	뉴스	면담	대화	강연	회의	토론	
1	가-3	○							15
2	가-1			○					15
3	나-2			○					15
4	가-2		○						15
5	다-1							○	15
6	다-2				○				15
7	가-1						○		15
8	나-1				○				15
9	나-1				○				15
10	나-3					○			15
	계	1	1	2	3	1	1	1	150

18) 2017년은 2018년을 위한 예비조사이므로 최종 문항이 될 10문항의 1.2배수인 12문항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영역별 안배 및 본 조사 시 추가 선제 작업을 거치기로 하였으므로 1문항을 더 남겨 총 13문항을 추출하였다.

<표 III-4> 2018년 본 조사 듣기 영역 담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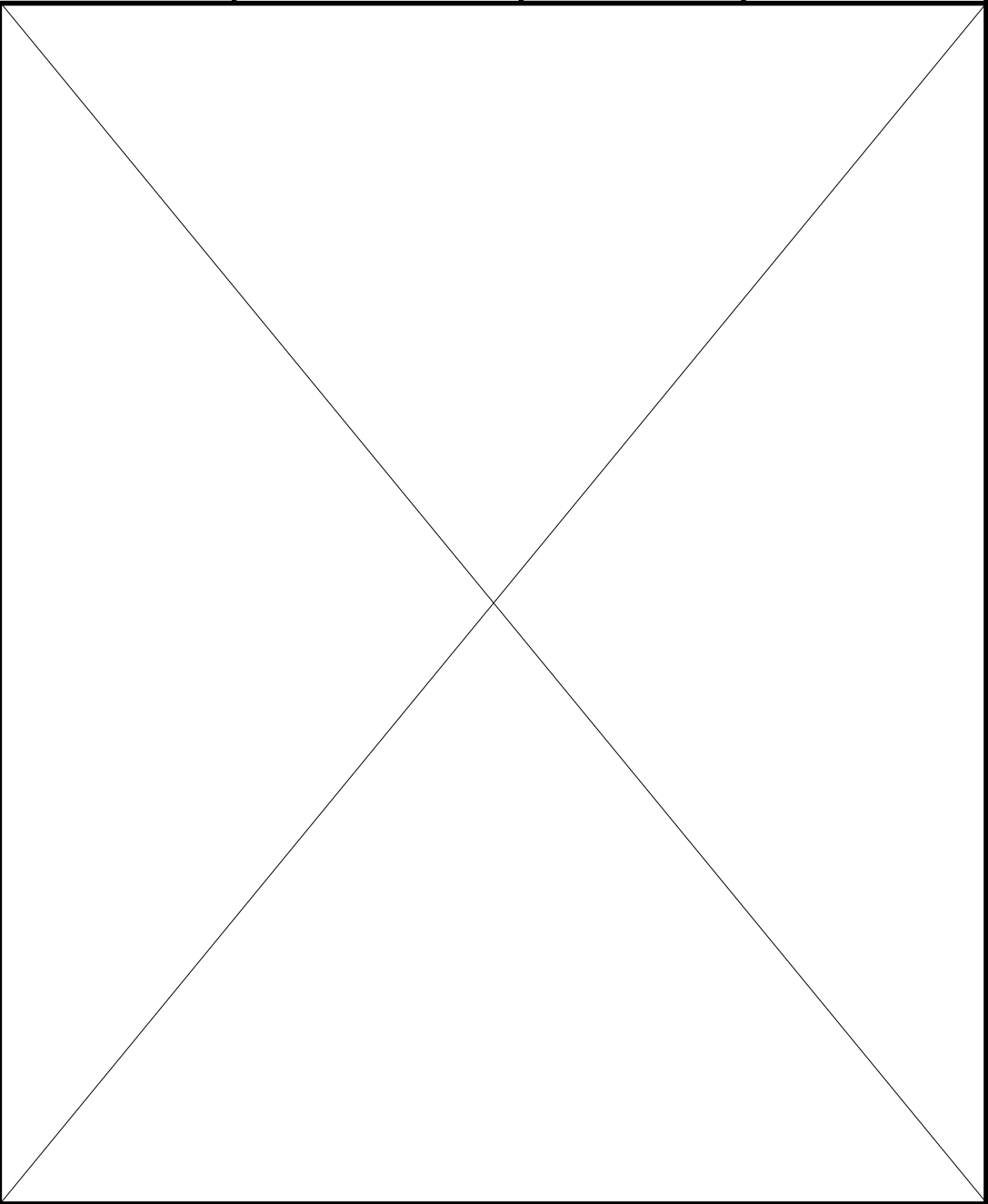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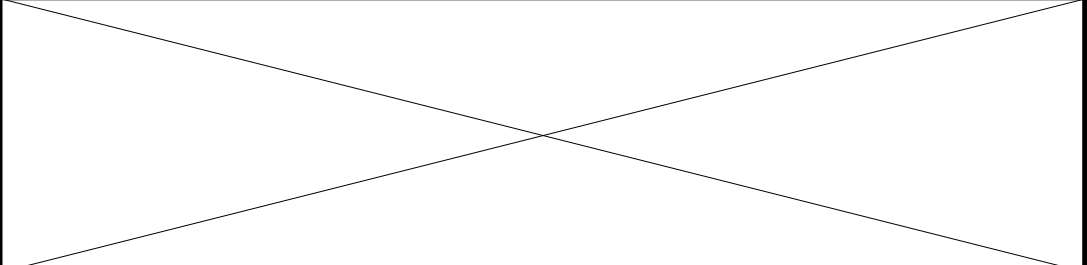
문항 번호	담화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지시	뉴스	면담	대화	강연	뉴스	토론
1	가-1			○				
2	나-2			○				
3	가-3	○						
4	가-2		○					
5	가-2		○					
6	다-1							○
7	다-1							○
8	가-1					○		
9	나-1			○				
10	나-1		○					
11	나-1						○	
12	다-2				○			
13	나-3					○		
계		1	3	3	1	2	1	2

(2) 가교문항 검토

2017년 예비조사 및 2018년 본 조사를 위한 가교문항으로는 2013년도의 세트 문항이었던 [L-2], [L-3] 두 문항을 선정하였다. 해당 가교문항은 가교문항이 조사하고자 하는 피험자의 능력 속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문항의 난이도 분포를 반영해야 하고, 높은 변별도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선정된 것이다. 2013년 조사 당시 듣기 영역의 난이도 평균은 0.74였는데, 해당 가교문항 쌍의 난이도 평균은 0.79로 전체 문항의 난이도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변별도 역시 두 문항 모두 0.5를 웃도는 수치로서 높게 측정되었다. 가교문항의 쌍은 라디오 방송의 전화 면담 내용을 듣고 내용 간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항과 면담의 목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화 유형상으로는 면담에, 목적상으로는 설명적 담화에 속하며, 평가 영역은 2013년과 2017년 모두 ‘사실적 듣기’의 ‘세부 정보의 파악’, ‘추론적 듣기’의 ‘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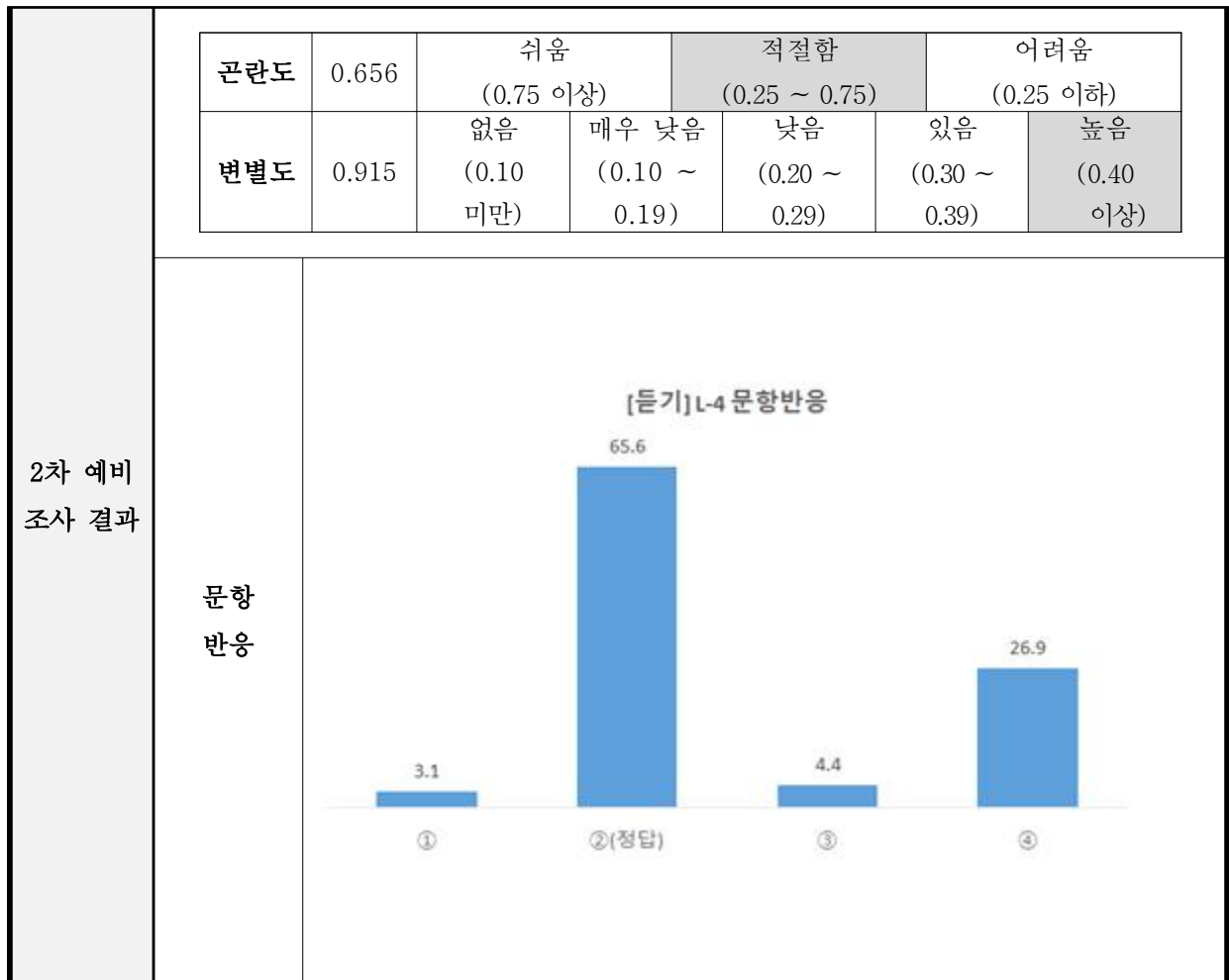
담화 지문의 내용은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 보험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확인 결과, 2013년도의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으므로 2017년 예비조사 및 2018년 본 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7년 1차 예비조사 결과 2013년도의 [L-2]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률과 변별도는 각각 0.818, 0.679로 나타났고, [L-3]의 경우 정답률과 변별도는 각각 0.798, 0.492로 나타났다. 2차 예비조사에서도 [L-2]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률과 변별도는 각각 0.831, 0.489로 나타났고, [L-3]의 경우 정답률과 변별도는 각각 0.781, 1.273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조사 당시의 정답률과 변별도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가교문항으로서 문항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다음은 2017년 예비조사 시 활용한 가교문항의 쌍이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L-2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_설명적 답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곤란도</td><td>0.798</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92</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곤란도	0.79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곤란도	0.79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2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5.4</td></tr><tr><td>②</td><td>3.3</td></tr><tr><td>③</td><td>11.6</td></tr><tr><td>④(정답)</td><td>79.8</td></tr></table>	①	5.4	②	3.3	③	11.6	④(정답)	79.8								
①	5.4																
②	3.3																
③	11.6																
④(정답)	79.8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곤란도</td><td>0.781</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1.273</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곤란도	0.78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1.27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곤란도	0.78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1.27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2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7.5</td></tr><tr><td>②</td><td>6.9</td></tr><tr><td>③</td><td>7.5</td></tr><tr><td>④(정답)</td><td>78.1</td></tr></table>	①	7.5	②	6.9	③	7.5	④(정답)	78.1								
①	7.5																
②	6.9																
③	7.5																
④(정답)	78.1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L-4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지시의 이행 능력)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곤란도</td><td>0.519</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807</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곤란도	0.51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곤란도	0.51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4.3</td></tr><tr><td>②(정답)</td><td>51.9</td></tr><tr><td>③</td><td>4.3</td></tr><tr><td>④</td><td>39.5</td></tr></tbody></table>						문항	반응률 (%)	①	4.3	②(정답)	51.9	③	4.3	④	39.5							
문항	반응률 (%)																						
①	4.3																						
②(정답)	51.9																						
③	4.3																						
④	39.5																						



(3) 문항 형식

듣기 영역의 경우 피험자가 듣기 지문을 들으며 문제를 풀되, 발문과 선지는 읽을 수 있도록 검사 화면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을 풀기에 앞서 피험자가 듣게 될 듣기 지문의 담화 유형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발문을 화면상에 제시하며 동시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L-3] ※ [문항 내용 비공개]

[L-6] ※ [문항 내용 비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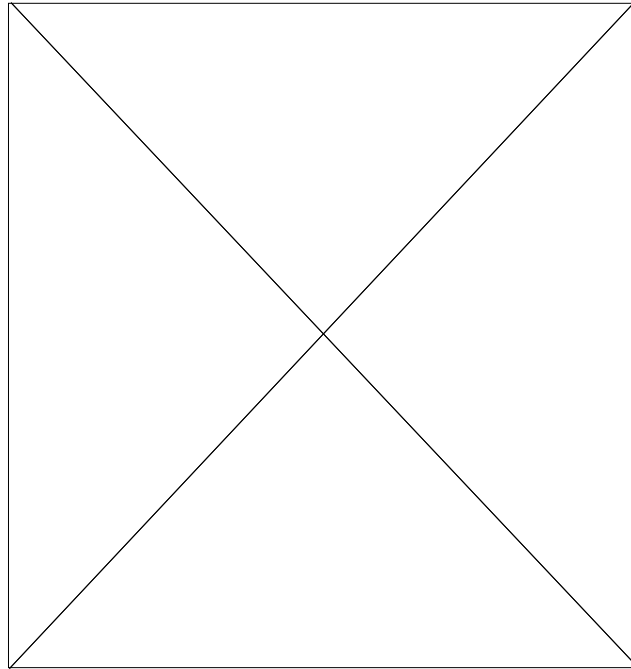
[L-13] ※ [문항 내용 비공개]

또한 가급적 긍정 발문의 비율이 부정 발문의 비율보다 높거나 같도록 발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긍정 발문을 제시함으로써 피험자가 문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1차 예비조사를 위하여 개발한 듣기 영역 20문항 중 긍정 발문이 12문항(60%), 부정 발문이 8문항(40%)이었다.

한편 문항 개발 시 선지를 구성할 때는 가독성과 명확성을 중시하였다. 가독성을 위하여 ①~④ 선지가 가급적 길이순으로 배열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선지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지양하였다. 1차 예비조사 분석 결과 이후에는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별도가 낮게 나온 문항의 경우 선지의 제시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회의 및 검토를 통해 지

나치게 길이가 길거나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선지는 그 길이를 짧게 하거나 의미가 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선지는 매력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제안서에서 문항 및 선지 구현 방식의 다양화를 제시한바, [L-7], [L-12]와 같이 피험자가 영상을 보면서 답화를 듣고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였고, 동영상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L-11]과 같이, 메모의 형태로 선지로 제시하고 답화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게 메모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도 새로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림 III-1]은 [L-11] 문항의 선지로서, 메모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I-1] [L-11] 문항의 선지

2) 말하기 영역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① 평가 영역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본 조사 시 말하기 영역의 평가는 2013년 수행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13년도의 말하기 영역의 평가영역을 준용하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문항 설계 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도구를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말하기 영역은 2013년 평가 영역에 기반을 두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표 III-5>는 2013년도와 2018년도 말하기 영역의 평가 영역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III-5> 2013년도 평가 영역과 2018년도 평가 영역의 비교

2013			2018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가. 설득하는 말하기	1. 설득(주장하는 말)	1	가. 설득하는 말하기	1. 설득(주장하는 말)	2
	2. 설득(요청하는 말)	1		2. 설득(요청하는 말)	2
나. 설명하는 말하기	1. 설명(경험을 설명하는 말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	1	나. 설명하는 말하기	1. 설명(경험을 설명하는 말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	1
합계		3	합계		5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현재 국민들의 말하기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진단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실제 국어 생활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설계하는 것이 주요한 안건이 된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시험이라는 특성 상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평가 영역만을 선별하여 측정함으로써 피험자의 피로도를 줄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신뢰로운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아래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말하기 영역 평가 도구의 평가 설계 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였다.

- 실제성
- 말하기 목적
- 담화 유형
- 말하기 상황

말하기 영역은 실제 국어사용 장면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말하기의 실제성을 고려하였다. 이는 장소원(2012)에서 명시한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말하기 상황과 과제를 선정하여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문항 구성 원칙을 준용한 것이기도 하다. 구어 상황은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물리적 현존을 전제하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Ong, 1967:125, 이동후 2010 재인용). 화자와 청자는 특정한 상황에 귀속되어 있으며, 화자는 항상 청자를 상징하고 상황 맥락에 맞게 말하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말하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말하기 상황을 조성하고, 피험자가 ‘말하고 있는 상대’를 상징하게 함으로써 실제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본 말하기 평가 도구의 평가 영역은 말하기 목적과 담화 유형, 말하기 상황에 따라 구분하였다. 먼저 말하기 목적은 ‘설명하는 말하기’와 ‘설득하는 말하기’로 한정하였다. ‘친교’, ‘정서표현’, ‘설명’, ‘설득’의 담화 유형은 일반적으로 국어과에서 통용되는 담화 유형이다. 이 중 친교적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로, 발화 순서 교대가 나타나 외적 변인을 통제하기 어려워 평가에 제약이 있다(민병곤, 정재미, 박재현, 2014). 결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평가에서는 친교적 말하기를 제외한 설명적 말하기 및 설득적 말하기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용이성과 타당도를 고려할 때 적합하다. 또한 설명 능력과 설득 능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도 발표, 토론, 토의 등의 장르를 통해 이러한 말하기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말하기와 설득하는 말하기를 평가의 중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담화 유형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말하기 장르인 ‘대화’와 ‘토론’을 대표적으로 설정하였다. 담화 유형은 말하기의 목적과 실제 언어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 중요성을 두루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일반적 말하기 상황은 대체로 일대일 상황으로 이루어진다. 화자는 청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담화 유형은 일대일 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은 일대일 대화 상황만큼 자주 접하는 담화 유형은 아니겠으나,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펼치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담화 유형이다. 토론에서는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드러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러한 설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토론 담화 유형이 적합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화자는 공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원 요청, 다수의 청중 앞에서 말하기 등의 공적 상황과 특정한 청자를 상정한 개인적 말하기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상황별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III-6>은 말하기 영역의 문항 개발 시 사용한 평가틀이다.

<표 III-6> 2017년도 제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의 평가틀

문항 번호	평가 영역		담화 유형	말하기 상황
1	가-2	요청하는 말	일대일 대화	공적
2	가-2	요청하는 말	일대일 대화	공적
3	나-1	개념을 설명하는 말 또는 경험을 설명하는 말	일대일 대화	개인적
4	나-1	개념을 설명하는 말 또는 경험을 설명하는 말	일대일 대화	개인적
5	가-1	주장하는 말	토론	공적
6(가교)	가-1	주장하는 말	토론	공적

문항은 개인적 상황과 평가 영역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표 III-7>, <표 III-8>은 각각 제1차 예비조사의 문항 정보와 제2차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정보이다.

<표 III-7> 2017년도 제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의 문항 정보

문항 번호	평가 영역 담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배점
		경험을 설명하는 말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	주장하는 말	요청하는 말	
1	가-2			●	50
2	가-2			●	50
3	나-1	○			50
4	나-1	○			50
5	가-1		●		50
6(가교)	가-1		●		50
	계	1	1	1	300

※ ○: 개인적 상황, ●: 공적 상황

<표 III-8> 2017년도 제2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의 문항 정보

문항 번호	평가 영역 담화 유형	설명적	설득적		배점
		경험을 설명하는 말 또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	주장하는 말	요청하는 말	
1	가-2			●	50
2	가-2			●	50
3	나-1	○			50
4	나-1	○			50
5(가교)	가-1		●		50
	계	1	1	1	250

※ ○: 개인적 상황, ●: 공적 상황

② 평가 형식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말하기 평가는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제 기반의 평가로 설계됨으로써 피험자의 실제적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김평원,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피험자의 실제 말하기 수행을 녹음하고, 녹음한 결과를 다수의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는 방식으로 피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피험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말하기 평가의 쟁점들을 고려하여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형식을 설정하였다.¹⁹⁾

19) 평가 형식 설계 시 박재현(2015)에서 제시한 화법 평가의 쟁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말하기 평가는 피험자의 수와 구성에 따라 ‘혼자 말하기’ 방식과 ‘함께 말하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함께 말하기 방식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실제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 상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말하기 평가는 대체로 ‘혼자 말하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민병곤, 정재미, 박재현, 2014). 또한 혼자 말하기 방식은 한 명의 피험자의 말하기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말하기와 관련한 피험자의 제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상호작용 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 ‘혼자 말하기’ 방식에서는 말하는 상대를 상정하고 피험자에게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종철 외(2013)에서 역시 청자를 상정한 ‘혼자 말하기’ 방식을 취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을 진단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청자를 상정한 혼자 말하기 방식의 평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피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기 평가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실제 수행 능력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말하기 평가의 특성 상, 평가 결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채점 시에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난점이 있어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민병곤, 박재현, 2015). 이에 따라 신뢰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점 기준을 설정하고 채점자의 주관이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기 평가의 채점은 피험자의 말하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 채점’ 방식과 독립된 평가 요소에 따라 피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적 채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체적 채점 방식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채점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분석적 채점 방식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을 진행하므로 신뢰로운 채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점자의 인지적 부담이 너무 크고 개별적 기준에 따른 채점이 말하기 수행 능력 전반을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을 적절히 종합하여, 말하기 능력의 구인을 고려하여 채점의 범주를 나누어 채점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말하기 능력 전반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설계하였다.

또한 채점 기준은 담화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이는 설득적 말하기와 설명적 말하기의 말하기 목적이 서로 다른바, 담화 유형별로 상이한 채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재윤(2007)의 논의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8>, <표9>, <표10>과 같이 담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채점 요소를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III-9> 설득하는 말하기(요청하는 말)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표 III-10> 설명하는 말하기(개념 및 경험 설명하는 말) 평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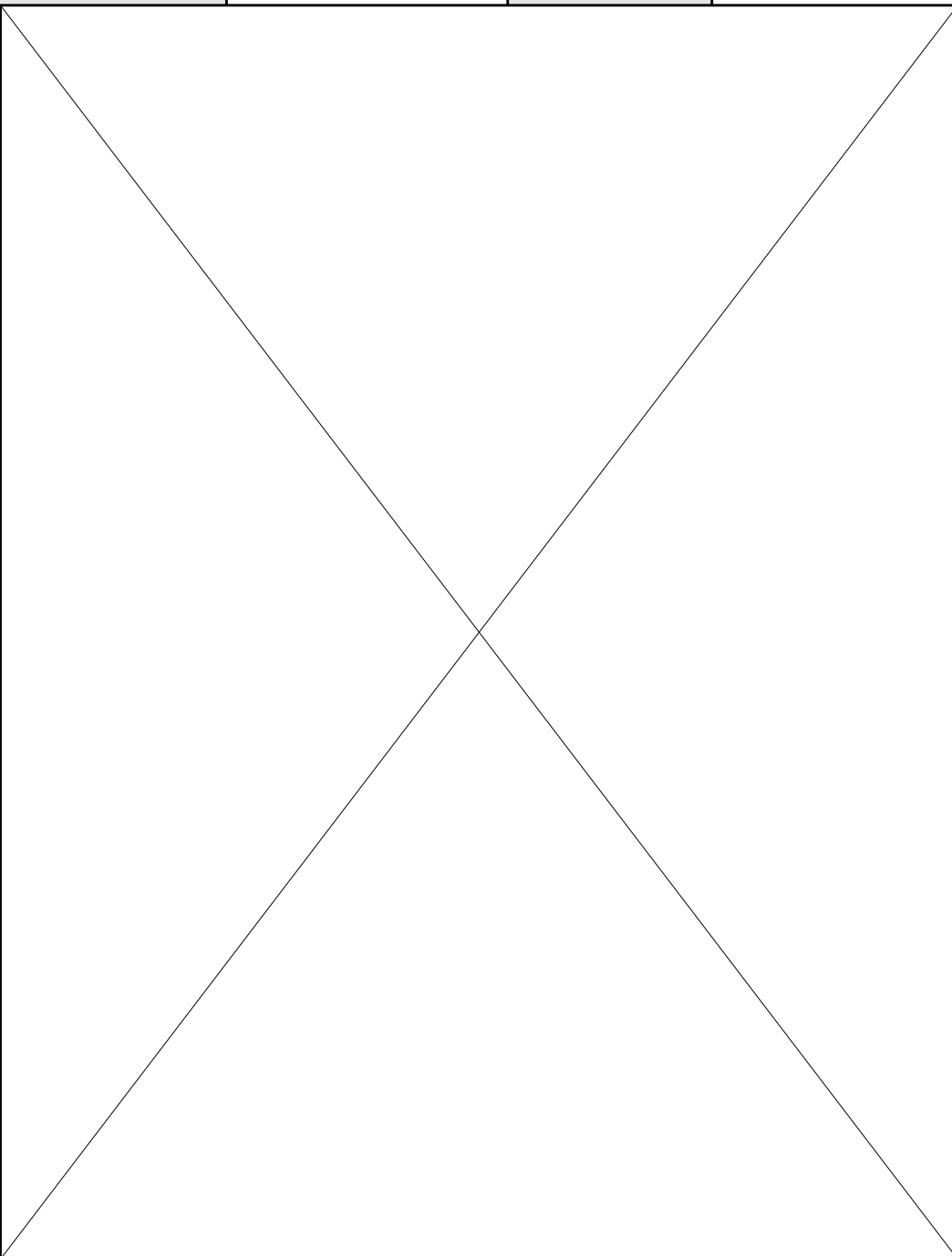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표 III-11> 설득하는 말하기(주장하는 말)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가교문항 검토

2018년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서는 2013년도와의 동등화를 위해 2013년도 말하기 문항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선제한 가교문항을 문항으로 수록하였다. 가교문항은 2018년도에 사용할 전체 문항 수의 20%이며, 변별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제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보인 한 문항을 선제하여 가교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아래는 2013년도에 사용된 말하기 영역 문항 가운데 2018년도를 위해 선제된 가교문항이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S-5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득하는 말하기-주장하는 말하기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선정	내용 구성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표현	표현 및 전달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43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4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위의 가교문항의 평가 영역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주장하는 말에 해당하며 공적 말하기 상황에서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이다. 이 문항은 ‘정년 연장법’에 대한 피험자의 찬반 의견을 묻는 문항이다. ‘정년 연장법’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았던바,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주장과 근거를 들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가교문항으로 선제되기 적합하였다. 더불어 가교문항은 피험자의 능력 속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도 말하기 영역 문항의 전체 평균 난이도는 0.55인데, 위 가교문항의 난이도는 0.439로 전체 평균 난이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적절하게 어려운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이 문항은 변별도 또한 0.742의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말하기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험자와 말하기 능력이 우수한 피험자를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양호한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3) 문항 형식

실제적 말하기는 구어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말하기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연계 속에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말하기 문항은 발문 및 안내할 내용을 녹음 자료로 제공하고, 상황 및 조건을 피험자가 읽을 수 있도록 글상자에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아래는 말하기 문항의 형식이다.

[발문] 아래의 상황과 조건을 읽고 (청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 영역)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그림 및 삽화

[상황] 자신이 ~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2분 정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림 III-2] 말하기 문항의 형식

3) 읽기 영역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조사와의 일관성과 변화하는 읽기 능력의 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항 유형의 동형성을 고려하면서도 텍스트 장르 및 유형의 다양화 및 범위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문학적인 텍스트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텍스트 및 문항 유형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읽기 영역의 2013년도 평가 영역과 2018년도 평가 영역의 비교

2013			2018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가. 사실적 읽기	1. 세부 내용 파악 능력	4	가. 정보 확인	1.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6
	2. 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2. 중심내용[대의] 파악	1
	3. 글의 구조 파악 능력	1		3.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3
	4. 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2		4. 내용 간 관계 파악	1
나. 추론적 읽기	1. 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3	나. 추론	1. 생략된 정보 재구	1
	2. 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2		2. 함축적 의미 파악	3
	3. 글 쓴 목적이나 동기 파악 능력	1		3. 필자의 의도 파악	2
	4. 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1		4.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1
	5.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 파악 능력	1	다. 평가	1. 내용[주장, 논거, 자료] 타당성 판단	0
다. 비판적 읽기	1. 구성의 적절성 파악 능력	0		2. 표현의 적절성 판단	2
	2. 표현의 적절성 파악 능력	1		3. 사회적 신념ideology 혹은 가치 판단	1
	3. 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1		1.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3
	4. 내용의 효용성 파악 능력	1	라. 재구성	2. 사회문화적 의미 재구성	1
합계		20	합계 ²⁰⁾		25

담화 유형의 경우 2013년 조사와 검사 도구의 동등화를 위하여 동일한 유형의 텍스트를 포함하면서도, 국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간 변화한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실생활과 밀접한 독서 자료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배경 변인별 읽기 능력의 조사를 위하여 각 연령대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텍스트로 하고자 하였으며, 직무 상황에서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텍스트도 포함하였다.

2013년의 조사와 담화 유형에서 달라진 부분은, 2013년 조사에서는 주로 비문학적인 텍스트를 지문으로 하였던 데에 비하여, 2017년 조사에서는 보다 문학적인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필

20) 2017년은 2018년을 위한 예비조사이므로 최종 문항이 될 20문항의 1.2배수인 24문항을 추출하였다.

지문을 포함하였다. 이는 주로 추론적 읽기 중 함축적 의미 파악의 능력과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과 연관된다.

구체적인 2013년 조사의 읽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가, 나형으로 구분)과, 2018년의 조사를 위해 선제된 읽기 영역 최종 문항의 텍스트 유형은 아래와 같다.

<2013년 조사 읽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

<표 III-13> 읽기 영역(‘가’ 형)의 텍스트 유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배점
		도로명 안내	가정 통신문	사용 설명서	기사문	민원 공문	전세 계약서	논설 /사설	취업 추천서	만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1	나-1									○					15
2	다-2									●					15
3	가-3				●										15
4	다-3				●										15
5	가-2							○							15
6	나-5							○							15
7	가-1	●													15
8	가-1		○												15
9	나-3		○												15
10	가-1					○									15
11	나-2					○									15
12	나-1											●			15
13	나-4												●		15
계		1	2		2	2		2		2		1	1		195

* 공통 문항은 ●로 표시

<표 III-14> 2013년 조사 읽기 영역(‘나’ 형)의 텍스트 유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적			
		도로명 안내	가정 통신문	사용 설명서	기사문	민원 공문	전세 계약서	논설 /사설	취업 추천서	만평 (2)	공익 광고	편지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1	나-1										○				
2	가-4										○				
3	다-2									●					
4	가-3				●										
5	다-3				●										
6	가-1	●													
7	가-1						○								
8	가-2						○								
9	가-4			○											
10	다-4			○											
11	나-1											●			
12	나-2													○	
13	나-4												●		
계		1		2	2		2			1	2	1	1	1	

* 공통 문항은 ●로 표시

<2017년 조사 읽기 영역 최종 문항의 텍스트 유형>

<표 III-15> 2018년 조사 읽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

문항 번호	텍스트 유형 능력	설명적					설득적				친교 및 정서 표현	
		신문 기사	버스 시간표	사용 설명서	관공서 안내문	가정 통신문	만평	신문 사설	공익 광고	전자 우편	전자 우편	수필
R-1	나-3						○					
R-2	가-3	○										
R-3	라-1	○										
R-4	가-3										○	
R-5	라-1	○										
R-6	다-3	○										
R-7	나-2							○				
R-8	가-4							○				
R-9	가-3		○									
R-10	가-3			○								
R-11	가-2			○								
R-12	가-3				○							
R-13	다-2								○			
R-14	나-2											○
R-15	가-3					○						
R-16	라-2					○						
R-17	나-3									○		
R-18	나-1									○		
R-19	나-4											○
R-20	가-3							○				
R-21	라-1							○				
R-22	나-2											○
R-23	다-2						○					
R-24	가-3				○							
R-25	가-3							○				
계		4	1	2	2	2	2	5	1	2	1	3

(2) 가교문항 검토

2018년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서는 2013년도와의 동등화를 위해 2013년도 읽기 문항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선제한 가교문항을 문항으로 수록하였다. 가교문항은 2018년도에 사용할 전체 문항 수의 20%이며, 읽기 영역의 경우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보인 문항을 선제하여 가교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교문항들은 읽기 영역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피조사자의 능력 속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R-1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만평			
예비조사 문항	가형-1번			
수정 사항	답지 순서 조정.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문항
반응

[읽기] 가형 2번

3.69%

18.87%

64.01%

13.43%

①

②

③(정답)

④

난이도	0.64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R-1번 문항은 2013년 조사 당시 추론적 읽기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으로, 2017년의 조사 시행 시에는 문항의 성격을 분석하여 ‘나.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문항은 난이도가 0.642로 읽기 영역 전체 문항의 난이도 평균인 0.66에 근접하여 대표성을 지니며, 변별도가 0.494로 높아 가교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R-2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공통)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사실적 읽기 능력_기사문
정보	
예비조사	가형-3번, 나형-4번
문항	
수정 사항	답지 순서 조정.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59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2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 0.19)

낮음
(~ 0.29)

있음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3번(가형/나형 공통)

58.55%

15.07%

14.51%

1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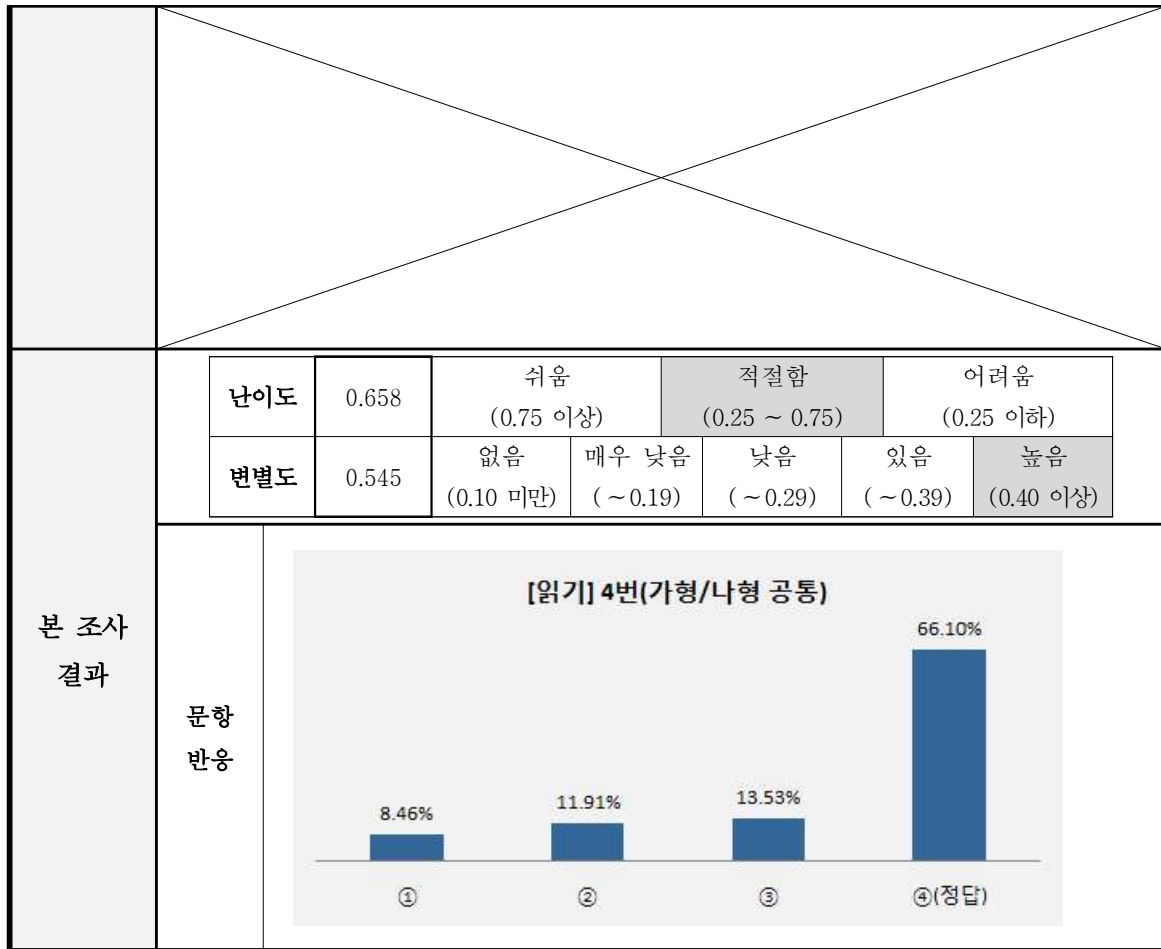
①(정답)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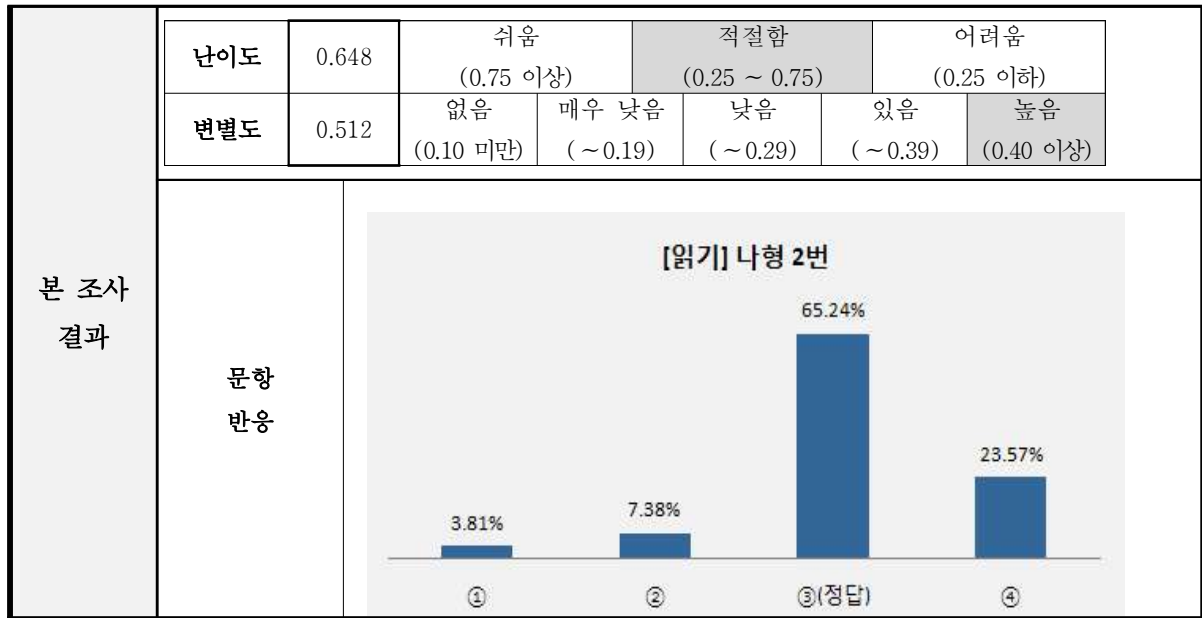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R-3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공통)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_기사문			
예비조사 문항	가형-4번, 나형-5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R-2번 문항과 R-3번 문항은 세트 문항이다. R-2번 문항은 2013년 조사 당시 사실적 읽기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으로, 2017년의 조사 시행 시에는 문항의 성격을 분석하여 ‘가. 정보 확인-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R-3번 문항은 2013년 조사 당시에는 비판적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설계되었는데, 2017년의 영역 체계 하에서는 ‘라.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으로 포함시켰다.

이 두 문항은 난이도가 각각 0.590, 0.658로 읽기 영역 전체 문항의 난이도 평균인 0.66에 근접하여 대표성을 지니며, 변별도는 각각 0.529와 0.545로 두 문항 모두 높아 가교문항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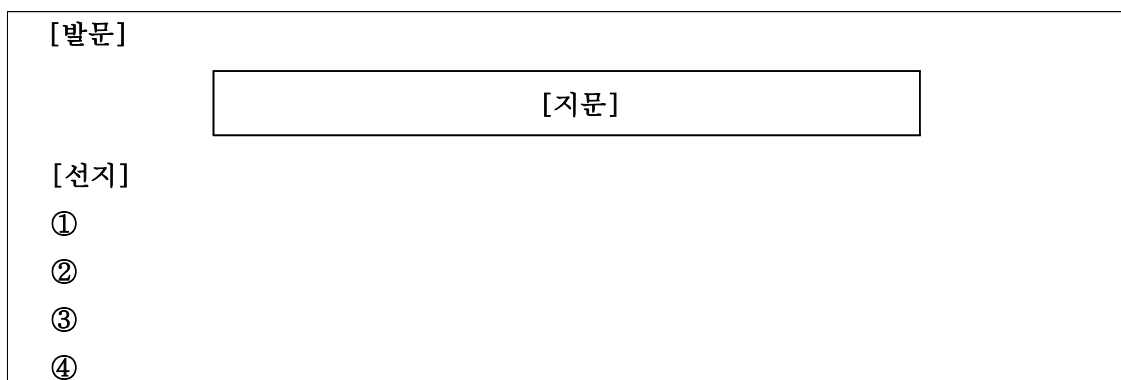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R-4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읽기 능력_전자우편			
예비조사 문항	나형-12번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R-4번 문항은 2013년 조사 당시 추론적 읽기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그런데 이 문항을 분석한 결과 추론적 읽기 능력과 사실적 읽기 능력 또는 정보 확인의 읽기 능력을 모두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보 확인의 읽기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7년의 조사의 영역 체계 하에서는 ‘가.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의 영역에 속하는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 문항은 난이도가 0.648로 읽기 영역 전체 문항의 난이도 평균인 0.66에 근접하여 대표성을 지니며, 변별도가 0.512로 높아 가교문항으로 선정하였다.

(3) 문항 형식

읽기 문항 형식의 경우 발문, 지문(텍스트 및 삽화), 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2013년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형식이다. 이 문항 형식에 따르면 피험자는 우선 발문을 통해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지문을 읽고 4개의 선지 중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응하게 된다. 전체적인 문항 형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3] 읽기 영역의 문항 형식

각 문항 당 가장 먼저 발문이 제시된다. 우선 단일 문항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발문들이 제시된다.

1. [문항 내용 비공개]

2. [문항 내용 비공개]

다음으로 한 지문에 두 문항이 제시되는 세트 문항의 경우 지문 위에 다음과 같은 발문이 제시되며, 그 아래에 지문이 주어지고 그 다음으로 두 문항의 발문과 선지가 각각 지문 아래에 제시된다.

※ 다음 사용 설명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2]

(지문)

1. [문항 내용 비공개]

2. [문항 내용 비공개]

발문은 문장 구조의 통일성을 도모하여 피험자가 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항의 내용 및 요구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문이 지문보다 위에 있을 경우 ‘다음 (글)’이라는 표현으로, 발문이 지문 아래에 있을 경우 ‘위 (글)’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안내문’ 또는 ‘공익 광고’, ‘사용 설명서’와 같이 텍스트의 유형을 발문에서 밝혀 주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긍정 발문과 부정 발문의 문항이 조사 대상자의 읽기 능력의 측정에 있어 지니는 기능 및 효과를 고려하여 두 종류의 발문의 비율이 비슷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지문은 글로 이루어진 텍스트 혹은 삽화와 글이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가 제시되며, 이번 2017년 조사에서는 텍스트 유형 및 내용의 다양화를 도모하였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텍스트를 포함하여 각 텍스트를 통해 요구하는 국어능력을 다양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가장 아래에 제시되는 것은 선지로, 선지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난이도와 변별도를 2013년 조사와 연속하여 분석하기 위해 형태를 고려한 것이다. 선지의 구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독성과 명확성을 중시하여, 정확한 표현과 명확한 단어 사용을 하였다. 또한 선지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며, ①부터 ④까지 답지가 가급적 길이순으로 배열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정답의 번호가 최대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차 예비조사 후에는 변별도와 정답률에 따라 선지의 매력도를 조절하고, 전반적으로 피험자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지의 문장을 수정하였다.

4) 쓰기 영역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① 평가 영역

쓰기 영역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평가 능력과 세부 평가 요소는 기본적으로 김종철 외(2013)에서 구안한 것을 유지하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이라는 목적에 맞게 평가 도구를 정교화하기 위해 2018년 본 조사에서 사용할 3문항의 2배

수인 6문항을 개발하여 1차 조사에 활용하고, 이를 수정·보완한 5문항을 선제하여 2차 조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설정된 세부 평가 영역을 2013년과 비교하면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2013, 2018 쓰기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2013			2018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가. 친교적 글쓰기	1. 친교적 글쓰기 (3문장 정도의 글)	1	가. 친교적 글쓰기	1. 친교적 글쓰기 (3문장 정도의 글)	1
나. 설명적 글쓰기	2. 설명적 글쓰기(가교) (300자 내외의 글)	1	나. 설명적 글쓰기	2. 설명적 글쓰기(가교) (300자 내외의 글)	1
다. 논증적 글쓰기	3. 논증적 글쓰기 (400자 내외의 글)	1	다. 논증적 글쓰기	3. 논증적 글쓰기 (400자 내외의 글)	2
합계		3	합계		4

이번 2017년 연구에서는 지난 2013년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타당도와 실제성이 높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평가 대상자의 ‘실제의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의 쓰기 능력’이란 학습자가 수사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 수사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글의 목적을 고려한 적합한 내용 및 형식의 선정, 사회적 의사소통을 고려한 표현 등의 요소는 ‘장르 중심 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선거 연령 하향, 감사 인사 등 전 연령층에서 답할 수 있는 과제 상황을 제시하고 전자 우편, 논증하는 글 등 실제 삶의 맥락에서 자주 접하는 장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 맥락 속에서 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피험자의 적극적인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때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몰이해나, 혹은 평가의 조건에 대한 주의집중 부재가 문제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개발시에 유의하였으며, 또한 특정한 배경 지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 문항 수준을 다양화하였다. 쓰기는 고도의 인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활동으로 피험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이에 쓰기 장르의 특성과 피험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3문장짜리의 짧은 글쓰기와 300~400자짜리의 긴 글쓰기로 나누어 출제하여 평가하고, 피험자의 쓰기 능력을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변화하는 문해력을 반영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작문 상황을 제시하였다. PIAAC의 경우에도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컴퓨터 평가와 서면 평가 중 한 가지를 응답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2012 PIAAC 연구에 의하면, 국제 성인역량 조사의 결과분석에 따르면, 사회인구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이민배경, 성별)이 고려되었을 때, 서면평가를 실시한 응답자의 점수와 컴퓨터평가를 실시한 응답자

의 점수에는 조직적인 차이(systematic difference)가 없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작문은 실제 작문 상황의 실제성을 담보하고 손글씨 쓰기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로 쓰기를 기본 평가 방식으로 채택하되, 활용 능력에 따라 두 가지 손글씨 쓰기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손글씨 쓰기의 경우 2013년 본 조사와 동일한 원고지를 활용하였다. <표 III-17>, <표 III-18>은 쓰기 영역의 문항 개발 시 사용한 평가틀이다.

<표 III-17> 2017년도 제1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평가틀

문항 번호	답화 유형		장르	상황	배점
1 (가교)	나-1	설명적 글쓰기	설명문	공적	80
2	다-1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공적	130
3	다-1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공적	130
4	다-1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공적	130
5	가-1	친교적 글쓰기	전자 우편	공적	40
6	가-1	친교적 글쓰기	전자 우편	개인적	40

<표 III-18> 2017년도 제2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평가틀

문항 번호	답화 유형		장르	상황	배점
1 (가교)	나-1	설명적 글쓰기	설명문	공적	80
2	다-1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공적	130
3	다-1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공적	130
5	가-1	친교적 글쓰기	전자 우편	공적	40
6	가-1	친교적 글쓰기	전자 우편	개인적	40

② 평가 요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 맥락, 독자, 답화 관습 등의 수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쓰기 능력이라 한다면, 쓰기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목적, 맥락, 독자 등의 수사적 상황을 고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내용 생성, 조직, 표현을 고르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쓰기 영역’의 평가는 쓰기와 관련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쓰기 능력 평가틀의 구조는, 쓰기 목적을 기준으로 한 텍스트의 유형과 쓰기 과정을 기준으로 한 평가 요소의 두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쓰기의 실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쓰기 과정을 분절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쓰기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한 편의 글을 쓰게 함으로써 문장, 문단, 글 전체 수준의 쓰기 능력,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등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내용, 조직, 표현으로 구분한 쓰기 영역의 평가 척도는 2013년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평

가 척도를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내용, 조직, 표현의 가중치를 각각 50%, 30%, 20%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쓰기 평가에서는 목적에 맞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을 좋은 글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때 표현보다는 내용 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쓰기 능력의 개념을 고려하여 가교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와 같이 수사적 상황에 대한 고려 항목을 평가 요소로 첨가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된 쓰기 영역의 각 문항별 평가 항목과 채점 요소, 채점 척도, 점수 비중은 아래와 같다.

<표 III-19> 설명적 글쓰기 문항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3	6	10	13	16

<표 III-20> 설득적 글쓰기 문항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표 III-21> 친교적 글쓰기 문항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2) 가교문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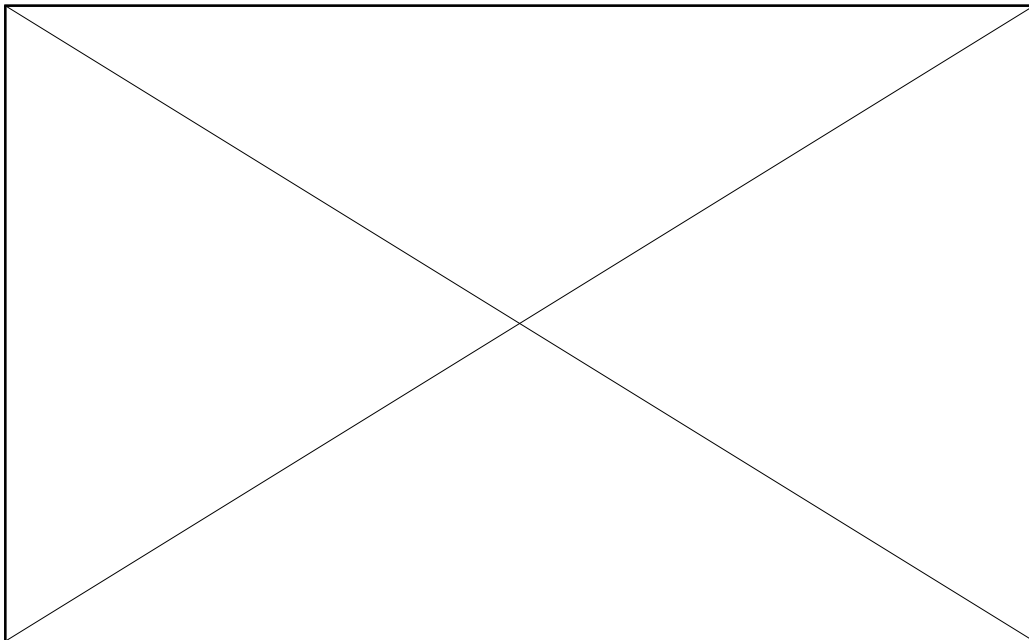
2018년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서는 2013년도와의 동등화를 위해 2013년도 쓰기 문항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선제한 가교문항을 문항으로 수록하였다. 가교문항은 2018년도에 사용할 전체 문항 수의 20%이며, 쓰기 영역의 경우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보인 한 문항을 선제하여 가교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2013년도에 사용된 쓰기 영역 문항 가운데 2018년도를 위해 선제된 가교문항이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W-1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적 글쓰기 - 묘사글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42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선제된 가교문항은 쓰기 영역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피조사자의 능력 속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문항의 난이도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가교문항이 전체 문항들의 난이도 분포에 비해 좁은 범위를 가질 때 가교문항들과 전체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동등화의 정확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전체 문항들의 난이도 평균과 가교 검사 문항들의 난이도 평균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제된 위 가교문항은 난이도 평균이 0.43이어서 쓰기 영역 문항의 전체 평균 난이도가 0.47임을 고려할 때 대표성을 가지며, 변별도 또한 0.804의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가교문항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문항 형식

쓰기 영역의 경우 피험자가 각 문항을 풀기에 앞서 수사적인 상황(독자, 목적, 매체, 상황 맥락)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쓰기 맥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발문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지양하였다. 또한 답안 작성시 고려해야 할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요구하는 답안의 범위를 한정함과 동시에 채점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글쓰기를 수행하는 매체의 양식을 화면(지면)상에 구현하여 쓰기 상황의 실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쓰기 문항의 예시이다.



[그림 III-4] 쓰기 문항의 예시

5) 문법 영역

(1)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본 연구는 2013년 수행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의 후속 주기 조사에 해당하는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기초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년 연구가 되는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에 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문법 능력의 평가도 2013년도의 평가 영역을 준용하되, 시대적 변화 및 앞서 제시된 문법 능력의 상세 틀을 바탕으로 하여 문항 설계 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 도구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2013년도와 2018년도의 문법 영역 평가 영역을 비교한 내용을 제시하면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2013년, 2018년 문법 영역 평가 영역

2013			2018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가. 규범	1. 맞춤법	1	가. 규범	1. 맞춤법	2
	2. 띄어쓰기	1		2. 띄어쓰기	0
	3. 표준어	1		3. 표준어	0
나. 어휘	1. 의미와 용법	2	나. 어휘	1. 의미와 용법	1
	2. 의미 관계	1		2. 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4
	3. 관용 표현의 의미	1		3. 관용 표현의 의미	0
다. 문장	1. 경어법	1	다. 문장	1. 경어법	1
	2. 호응 관계	1		2. 호응 관계	1
	3. 접속 관계	1		3. 의미와 용법	3
합계		10	합계 ²¹⁾		12

문법 능력은 언어 수행의 기초적인 지식 층위에서 국어능력의 바탕이 된다. 이에 문법 능력을 측정하는 조사 도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하였다.

첫째,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실체형 문항을 개발한다. 즉, 가능한 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선정하여 문법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말하기, 듣기 등 다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연계형 문항을 개발한다. 예컨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화쌍 또는 친숙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문구 등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적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는 문법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은 전반적으로 담화 및 텍스트의 차원에서 피험자의 국어능력을 평가하므로, 문법 능력은 이러한 언어 사용의 기초가 되는 어휘 및 문장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1) 2017년은 2018년을 위한 예비조사이므로 최종 문항이 될 10문항의 1.2배수인 12문항을 추출하였다.

<표 III-23> 1차 예비조사를 위한 문법 영역 문항 배분 현황

2017		
중영역	하위 영역	문항 수
가. 규범	1. 맞춤법	3 (가교)
	2. 띄어쓰기	1
	3. 표준어	1
나. 어휘	1. 의미와 용법	3 (가교)
	2. 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3
	3. 관용 표현의 의미	1
다. 문장	1. 경어법	1
	2. 호응 관계	4
	3. 의미와 용법	3
합계		20

‘규범’ 영역에서는 주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언어생활의 준거가 되는 규범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의 각 하위 영역에 한 문항씩 출제하였는데, 어문 규범의 실체인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는 한 문항을 추가로 출제하였다. 이에 ‘규범’ 영역에서는 기존의 가교 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을 일차적으로 출제하였다.

‘어휘’ 영역에서는 어휘 및 관용 표현 등을 실제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 사용하는 능력을 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개별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묻는 문항을 2문항, 어휘 간의 의미 관계와 문맥적 사용을 판단하는 문항을 3문항, 관용 표현의 의미를 묻는 문항을 1문항으로 각각 출제하였다. 이에 ‘어휘’ 영역은 기존의 가교 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7문항을 출제하였다.

‘문장’ 영역에서는 실용 텍스트의 전체적 이해 및 맥락적 의미, 생략된 정보 등의 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과다 경어법 사용 등과 같은 사례에 대한 문법적 이해 및 유사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법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어법’에 관련된 이해를 묻는 문항을 1문항, 문장의 호응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을 4문항, 문장의 의미와 적절한 용법을 판단하는 문항을 3문항 출제하여 총 8문항의 1차 예비조사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때 문항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앞서 기술한 조사 도구 개발의 방향성에 맞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즉,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맥락이나 상황에서의 어휘 및 문장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표지판 등과 같은 텍스트를 제재로 선정하였다.

(2) 가교문항 검토

본 연구는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2013년도 평가 간의 동등화를 꾀하기 위해 2013년도 문법 문항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선제한 문항을 가교문항으로서 수록하였다. 가교문항은 2018년도에 사용할 전체 문항 수의 20%이며, 2013년도 본 조사 결과 분석된 변별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 중에서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

를 보인 두 문항을 선제하여 가교문항으로 사용하였다. 2013년도의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중 가교문항으로 선정된 것은 다음의 두 문항이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G-1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규범_맞춤법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난이도	0.64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5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1번 (가형/나형 공통) 63.81% 8.09% 22.33% 5.77% ①(정답) ② ③ ④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G-2		문항 정보		가교문항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어휘_의미와 용법																						
정답 및 해설																							
본 조사 결과	<table><tr><td>난이도</td><td>0.627</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42</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9)</td><td>낮음 (~0.29)</td><td>있음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난이도	0.627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난이도	0.627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4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9)	낮음 (~0.29)	있음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6번 (가형/나형 공통) <table><tr><td>①</td><td>②(정답)</td><td>③</td><td>④</td></tr><tr><td>26.22%</td><td>62.17%</td><td>4.05%</td><td>7.56%</td></tr></table>							①	②(정답)	③	④	26.22%	62.17%	4.05%	7.56%								
①	②(정답)	③	④																				
26.22%	62.17%	4.05%	7.56%																				

이들 문항은 2013년의 조사에서는 각각 ‘규범-맞춤법’, ‘어휘-의미와 용법’의 평가 영역에 해당했던 것으로, 1차 예비조사 시행에 앞서 진행된 내부 검토 회의에서 G-2 문항 ‘보기’의 ‘만원사례’라는 표현이 실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불과 5년 전의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이기에 이번 연구까지는 가교로서 사용하되 다음 주기의 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만 시간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선지의 내용을 좀 더 실제적이고 개연성 있도록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에 맞게 선지의 순서를 재배열하되 정답은 기존과 동일하게 ②으로 유지하였다. 가교문항에 대한 ‘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조사 결과는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 문법 영역 가교문항의 ‘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조사 결과 (단위: %)

가교문항		2013 예비조사	2013 본 조사
G-1	①(정답)	65.00	63.81
	②	9.25	8.09
	③	21.25	22.33
	④	4.50	5.77
G-2	①	0.50	26.22
	②(정답)	93.50	62.17
	③	3.75	4.05
	④	2.25	7.56

G-1 문항은 2013년의 예비조사에서는 난이도 0.650, 변별도 0.447, 본 조사에서는 난이도 0.640, 변별도 0.452로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난이도가 적절하며 변별력은 높은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문항별 정답률이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서 일관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문항으로서 가교문항으로 기능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G-2 문항은 2013년의 예비조사에서는 난이도 0.935, 변별도 0.265로 난이도가 쉽고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에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난이도와 변별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는 난이도 0.627, 변별도 0.442로, G-1 문항과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적절하며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가교문항으로서 채택하였다.

(3) 문항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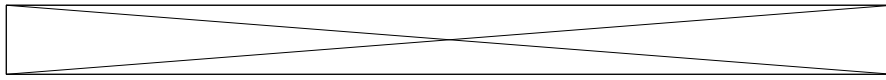
문법 영역의 문항 구성은 ‘발문’, ‘선지’, ‘보기 제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발문’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여 질문의 형식이 일관되게 구성하였다.

- [문항 내용 비공개]
- [문항 내용 비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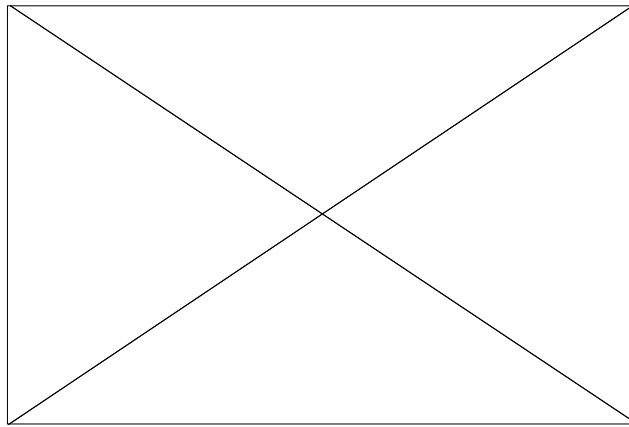
다음으로 ‘선지’는 현실에서 접하는 상황이나 텍스트의 내용을 선지로 제시함으로써 실생활에서 필

요한 어휘나 문장의 이해와 응용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보기> 제시 방식’으로는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소재와 주제, 형식의 텍스트와 내용은 물론, 문학 작품 등을 제시하여 문법 능력이 일상생활은 물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능력임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각의 예시는 [그림 III-5], [그림 III-6]과 같다.



[그림 III-5] 실생활 관련 텍스트



[그림 III-6] 문학 작품 텍스트

IV. 1차 예비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1. 1차 예비조사 시행

1) 1차 예비조사의 설계

(1) 모집단 및 표본 수

1차 예비조사의 모집단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6세~65세의 남녀로 정의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개인 차원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사 기본 단위(elementary unit :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장 최소의 요소)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1차 예비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조사 목적과 조사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총 940명으로 결정하였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8명의 표본이 추가 표집되어 948명의 표본의 완성되었다. 948명 표본의 오차한계는 단순확률표본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pm 3.2\%$ 로 계산된다.

(2) 평가 영역별 표본 수 배분

1차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의 2배수 분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모든 응답자에게 전체 문항을 조사한다면 응답자의 피로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각 영역 별로 표본을 나눠서 조사했으며, 영역별 표본 수는 평가지 유형 개수나 응답 예상 시간 등에 따라 차등을 뒀다. 평가지가 3종으로 구성된 문법·듣기 영역은 240명의 표본, 5종으로 구성된 읽기 영역은 500명, 4종으로 구성된 말하기·쓰기 영역은 200명의 표본이 배분됐다.

<표 IV-1> 평가 영역별 표본 수

영역	평가지 유형	목표 표본 수(명)	조사완료 표본 수(명)
문법·듣기	A	80	82
	B	80	80
	C	80	80
읽기	A	100	101
	B	100	100
	C	100	102
	D	100	100
	E	100	100
말하기·쓰기	A	50	50
	B	50	53
	C	50	50
	D	50	50
총계		940	948

(3) 모집단 층화화 표본 수 배분

층화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은 그룹들, 즉 층(strata)들로 나누고 각 층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다. 표본의 크기가 같은 경우, 층화 추출은 단순 확률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보다 추정오차의 한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층 내의 관측 값들이 동질적인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모집단 조사 단위들을 서로 편리한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조사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모집단 내의 하위 그룹들에 대한 모수 추정 값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층을 나누는 기준은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는 행정 구역이나 지리적 위치를 층화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모집단을 서울, 인천, 경기도 읍면지역, 경기도 동지역이라는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층화추출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된 각 층별로 몇 명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였다. 이번 예비조사는 모집단 전체의 국어능력을 추정하려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표본을 추출해 국어능력 평가조사의 평가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감안해 각 층별로 최대한 같은 크기의 표본 수를 배분하고자 했다.

<표 IV-2> 층별 표본 수

층 구분	목표 표본 수(명)	조사완료 표본 수(명)
서울특별시	240	243
인천광역시	230	232
경기_동	240	243
경기_읍면	230	230
총계	940	948

(4) 집락(읍·면·동) 추출과 응답자 추출

각 층별 표본 수를 결정한 후에는 각 층을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에는 2단계 집락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개념에서의 집락(cluster)은 서로 인접해 있는 개별 조사 단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락추출은 먼저 조사를 진행할 집락을 선정한 후에 그 집락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집락에 속한 기본 단위를 전수 조사한다면 1단계 집락추출이 되지만, 일부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조사한다면 2단계 집락추출이 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간주하고, 2단계 집락추출을 진행하였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각 층에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읍·면·동을 먼저 추출한 후에, 그 지역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할 개인을 추출한 것이다.

각 층 내에서는 크기비례확률추출(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통해 읍·면·동을 선정하였다. 크기비례확률추출은 규모가 큰 집락일수록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비례해서 높아지게 된다. 특히 집락들의 규모가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대규모 집락이 전체 모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각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여 뽑는 방법인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이렇게 크기비례확률추출을 통해 집락을 추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집락에서 동일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각 표본별로 추출 확률이 같아지는 자체가중표본(self-weighting sample)을 얻을 수 있다. 자체가중표본을 활용하면 결과 분석 과정에서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각 층별로는 추가적인 가중치 보정 없는 단순 평균값으로도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하나의 집락에서 조사되는 표본 수를 10명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목표 표본 수 940명을 조사하기 위한 집락 수는 총 94개로 설계했으며, 각 층별 집락 수는 23~24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94개의 집락을 대상으로 다시 계통추출을 진행해, 각 영역(문법·듣기, 읽기, 말하기·쓰기)을 조사할 집락을 선정했다. 그리고 각 영역 내 평가지 유형(A, B, C...)은 무작위로 순환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한 집락과 평가 영역, 표본 수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집락 추출 결과

층 구분	집락(읍면동)	평가영역	목표 표본 수	조사완료 표본 수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제1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제2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제2동	문법/듣기	10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4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제3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제2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제2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제2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제2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제1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5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제2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랑진제1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읽기	10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말하기/쓰기	10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제1동	읽기	10	10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3.5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동	말하기/쓰기	10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1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3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읽기	10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	문법/듣기	10	10
경기 동지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읽기	10	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말하기/쓰기	10	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읽기	10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문법/듣기	10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읽기	10	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읽기	10	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부천시 중1동	읽기	10	10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평택시 중앙동	읽기	10	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읽기	10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읽기	10	10
	경기도 구리시 수택1동	읽기	10	10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읽기	10	10
	경기도 하남시 신장1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읽기	10	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읽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양주시 회천3동	읽기	10	10
경기 읍면지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읽기	10	1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읽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읽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읽기	10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읽기	10	1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읽기	10	1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읽기	10	1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읽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읽기	10	1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읽기	10	1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읽기	10	1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읽기	10	1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법/듣기	10	10

(5) 조사대상자(개인) 추출 방법

추출된 집락(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개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할당추출법을 사용했다. 할당추출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하부 집단(예를 들어 성별이나 연령대)의 구성비에 맞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며, 사전 할당한 조건에 맞는 응답자를 찾아서 표집하는 방법이다. 비확률추출법이기는 하지만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확률추출을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모집단의 주요한 특성과 유사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개인의 국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성별과 연령대, 직업군, 학력을 기준으로 한 할당추출을 진행하였다. 성별과 연령 변인은 집단별로 균등하게 할당했으며, 직업과 학력 변인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했다. 이미 모집단을 층화하는 단계에서 지역 변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1차 예비조사 표본 추출 시 고려한 변인은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의 5개로 구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지역 배분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변인 내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변인

성별 변인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② 연령 변인

연령 변인은 최소점은 만16세로 설정하고 최대점은 만65세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만16세~65세의 각 세별로 표본을 할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대 이하(만 16-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 이상(만 50-65세)의 4개 구간으로 연령을 묶고 각 구간별로 표본을 할당했다.

③ 학력 변인

학력 변인은 ‘①무학, ②초등(국민)학교 졸업, ③중학교 중퇴, ④중학교 졸업, ⑤고등학교 중퇴, ⑥고등학교 재학, ⑦고등학교 졸업, ⑧대학교 재학, ⑨대학교 졸업, ⑩대학원 재학, ⑪대학원 졸업’의 11

가지 항목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11가지 학력 수준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졸 이하(①~⑥), 고등학교 졸업(⑦), 대재 이상(⑧~⑪)’의 세 요소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④ 직업 변인

직업변인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KSCO)를 참고하여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표본 할당을 위한 직업군은 ‘정신노동(white collar)’, ‘육체노동(blue collar)’, 학생, 주부, 무직자를 포함한 ‘기타’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때, 각 직업군에 속하는 세부 직업들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직업 변인 구분

직업군	세부 직업
정신노동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
육체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등
기타	주부, 학생, 무직 등

(6) 표본 구성

집락 추출 및 조사 영역 배분, 응답자 추출 과정을 통해 표집된 표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평가 영역 내에서 설문지 유형은 무작위로 순환해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유형별 응답자 특성도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5> 문법·듣기 영역 표본 구성

(단위: 명)		영역 전체	평가지 유형별		
			A 세트	B 세트	C 세트
전 체		242	82	80	80
지역별	서울	61	20	21	20
	인천	60	21	20	19
	경기 동지역	61	20	20	21
	경기 읍면지역	60	21	19	20
성별	남자	120	37	47	36
	여자	122	45	33	44
연령별	16~29세	60	20	20	20
	30대	61	18	20	23
	40대	60	18	19	23
	50~65세	61	26	21	14
직업별	정신노동	66	25	21	20
	육체노동	89	25	34	30
	기타	87	32	25	30
학력별	중졸이하	35	10	9	16
	고졸	78	27	29	22
	대재 이상	129	45	42	42

<표 IV-6> 읽기 영역 표본 구성

(단위: 명)		영역 전체	평가지 유형별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E 세트
전 체		503	101	100	102	100	100
지역별	서울	131	26	25	27	26	27
	인천	121	24	25	25	24	23
	경기 동지역	131	26	26	26	26	27
	경기 읍면지역	120	25	24	24	24	23
성별	남자	250	43	56	47	51	53
	여자	253	58	44	55	49	47
연령별	16~29세	127	25	20	26	32	24
	30대	125	25	32	24	26	18
	40대	126	19	26	24	24	33
	50~65세	125	32	22	28	18	25
직업별	정신노동	141	24	32	29	26	30
	육체노동	176	43	35	32	33	33
	기타	186	34	33	41	41	37
학력별	중졸이하	70	14	9	14	15	18
	고졸	168	36	32	34	29	37
	대재 이상	265	51	59	54	56	45

<표 IV-7> 말하기·쓰기 영역 표본 구성

(단위: 명)		영역 전체	평가지 유형별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전 체		203	50	53	50	50
지역별	서울	51	13	15	11	12
	인천	51	12	13	13	13
	경기 동지역	51	13	13	13	12
	경기 읍면지역	50	12	12	13	13
성별	남자	102	15	31	33	23
	여자	101	35	22	17	27
연령별	16~29세	50	15	13	12	10
	30대	50	13	15	14	8
	40대	52	11	14	13	14
	50~65세	51	11	11	11	18
직업별	정신노동	55	14	14	14	13
	육체노동	72	15	20	19	18
	기타	76	21	19	17	19
학력별	중졸이하	33	5	7	11	10
	고졸	65	15	18	14	18
	대재 이상	105	30	28	25	22

2) 1차 예비조사를 위한 검사지 구성

(1) 영역별 검사지 구성

①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표 IV-8>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검사지 (Booklet)	구획					문항 수
	말하기 구획1 3문항 (신규3)	말하기 구획2 2문항 (신규2)	쓰기 구획1 3문항 (신규3)	쓰기 구획2 2문항 (신규2)	말하기· 쓰기 공통구획 2문항 (가교2)	
검사지A	포함	포함			포함	7
검사지B		포함	포함		포함	7
검사지C			포함	포함	포함	7
검사지D	포함			포함	포함	7
• 말하기 문항 : 총 6문항 (신규 5문항, 가교 1문항) • 쓰기 문항 : 총 6문항 (신규 5문항, 가교 1문항) • 검사 시간 : 약 22분~60분 (말하기 문항당 3분(준비1분,실행2분) / 쓰기 문항당 10분) • 검사 인원 : 200명(검사지4종×50명)						

말하기, 쓰기의 경우 검사지는 4종(A,B,C,D)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7문항이다. 검사 시간은 말하기 문항의 경우 문항당 3분, 쓰기의 경우 문항당 10분이다. 검사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말하기 문항과 쓰기 문항의 수에 따라 약 22분에서 60분으로 검사지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검사 인원은 4종의 검사지 당 50명으로 전체 200명이다.

②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표 IV-9>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검사지 (Booklet)	구획						문항 수
	읽기 구획1 7문항 (신규7)	읽기 구획2 7문항 (신규7)	읽기 구획3 7문항 (신규7)	읽기 구획4 7문항 (신규7)	읽기 구획5 7문항 (신규8)	공통구획 4문항 (가교4)	
검사지A	포함	포함				포함	18
검사지B		포함	포함			포함	18
검사지C			포함	포함		포함	18
검사지D				포함	포함	포함	19
검사지E	포함				포함	포함	19
• 문항 : 총 40문항 (신규 36문항, 가교 4문항) • 검사 시간 : 36~38분 (A,B,C 18문항×2분, D,E 19문항×2분) • 검사 인원 : 500명(검사지5종×100명)							

읽기의 경우 검사지는 5종(A,B,C,D,E)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18문항(A,B,C) 혹은 19문항(C,E)이다. 검사 시간은 문항당 2분으로 A, B, C 검사지는 36분, C, E 검사지는 38분이 소요된다. 검사 인원은 5종의 검사지 당 100명으로 전체 500명이다. 이는 피험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검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③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표 IV-10>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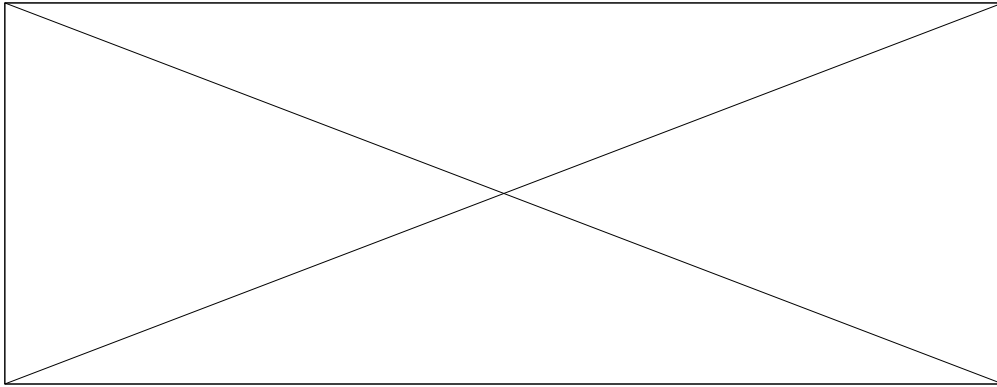
검사지 (Booklet)	구획				문항 수
	구획1 12문항 (문6,듣6) (신규12)	구획2 12문항 (문6,듣6) (신규12)	구획3 12문항 (문6,듣6) (신규12)	공통구획 4문항 (문2,듣2) (가교4)	
검사지A	포함	포함		포함	28
검사지B		포함	포함	포함	28
검사지C	포함		포함	포함	28
- 문항 : 총 40문항 (신규 36문항, 가교 4문항) - 검사 시간 : 35분 (문법 14문항×1분=14분, 듣기 14문항×1.5분=21분) - 검사 인원 : 240명 (검사지3종×80명) *문항당 응시자 160명					

문법, 듣기의 경우 검사지는 3종(A,B,C)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28문항으로 문법 14문항, 듣기 14문항으로 구성된다. 검사 시간은 문법 문항의 경우 문항당 1분, 듣기 문항의 경우 문항당 1.5분이 소요되어 문법 문항 전체 14분, 듣기 문항 전체 21분, 검사지당 35분 정도가 걸린다. 검사 인원은 검사지당 80명씩 전체 240명이다.

(2) 영역별 검사 문항의 실제

영역별 검사 문항은 최종적으로 선제된 조사 도구를 문항 카드 형태로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여기서는 화면 구성 방안과 관련하여 예시를 제시하였다. ‘문두’ 및 ‘선지’는 화면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였고 ‘지문’의 경우 음성 녹음 자료로 제공하였다. 아래 그림은 듣기 영역의 예시이며 지문 플레이를 면접원이 누르면 문두와 함께 지문이 재생되고 피조사자는 문두 및 선지를 읽은 후 답안을 제출한다.

※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전화 면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림 IV-1] 화면 구성 방안(듣기 영역)

2. 1차 예비조사의 진행

1) 조사 방법

본 조사는 1:1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태블릿 피시의 디지털 검사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디지털 검사지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Nfield CAPI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Nfield CAPI는 nipo software에서 만든 조사 솔루션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망의 접속이나 속도 문제로 인해 조사가 방해 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대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는 1차적으로 태블릿 피시에 저장되고, 나중에 인터넷 연결과 프로그램 동기화 과정을 통해 중앙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피시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될 위험이 있거나 응답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 방식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 한해 종이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사원이 응답 결과를 CAPI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1차 예비조사에서 종이 설문지를 사용한 표본 수는 96건으로 전체 완성 표본(948명)의 10%의 수준이다.

또한 말하기·쓰기 영역에서 쓰기 문항은 응답자가 직접 키보드를 사용해 타이핑을 하도록 했으나, 키보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응답자는 종이에 내용을 적은 후 조사원이 사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와 같은 ‘쓰기’ 영역을 종이 설문지에 응답한 케이스는 17건으로 말하기·쓰기 영역 응답자(203명)의 8% 수준이다.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시험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응답자에게 쓰기와 말하기 등을 요구하는 점 때문에 조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CAPI 조사 경험이 있는 경력 10년 이상의 조사원 38명을 선발해 1차 예비조사에 투입하였다. 조사원 1인 당 진행 표본 수는 15~40명 내외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조사원 1인이 25명의

표본을 완성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2017년 8월 16일에 2시간가량 진행됐다. KANTAR PUBLIC의 담당 연구원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진이 교육 과정을 참관했다. 조사원 교육은 인쇄된 설문지를 이용해 문항 구조와 개념을 이해하고, CAPI 시스템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 IV-11> 영역별 조사 진행 방법 및 숙지 사항

영역	조사 진행 방법 및 숙지 사항
말하기	•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용한 주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문항별 1분의 준비시간 제공 및 녹음 테스트 • 2분간 응답자의 응답 내용 녹음 (응답자 ID와 문항번호를 말하고 응답 시작) • 녹음 완료 후 녹음 상태 확인 및 저장 후 다음 말하기 문항 진행
듣기	• 파일을 실행시켜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 후, 이어폰을 전달하여 응답자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소리 크기를 조절함 (소리 크기는 듣기 문항 안내 멘트 부분을 이용하여 조절) • 파일에 문제 푸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파일을 종료하지 않도록 주의 • 기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을 반드시 한 번만 들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엄수
읽기	• 검사지 전달 및 시간을 고지한 후 검사 시작 • 응답자는 평가지를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해당 보기에 클릭하며 진행 • 태블릿 피스로 읽는 것이 어려울 경우, 종이 검사지로 진행(이때 종이 검사지로 진행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기록) • 문항을 건너뛰거나 임의로 선택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함
문법	• 검사지 전달 및 시간을 고지한 후 검사 시작 • 응답자는 평가지를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해당 보기에 클릭하며 진행 • 문항을 건너뛰거나 임의로 선택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함
쓰기	• 최대한 태블릿 피스와 키보드를 통해 응답을 받도록 함 • 종이원고지로 진행 시 응답자 ID, 조사원 ID와 작성 일시를 기록 • 문항별 글자 수의 준수 여부를 확인 • 종이검사지의 경우 원고지 구조 및 작성 방법 숙지

3) 1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표 IV-12> 1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단계	일정
표본 설계 및 설문지 설계	~ 8월 초
CAPI 시스템 구축	8월 7일 ~ 8월 14일
면접원 교육	8월 16일
CAPI 시스템 최종 점검 및 보완	8월 17일
현장 조사 진행	8월 18일 ~ 9월 17일
사후 검증	9월 1일 ~ 9월 17일
통계 처리	9월 10일 ~ 9월 18일
결과 보고	9월 19일

4) 조사 검증

각 면접원이 조사한 표본 중 30%에 해당하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검증을 진행했다. 전화 검증은 별도의 검증 요원이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 참여 여부, 주요 인구특성, 조사 소요 시간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일반적인 검증 절차와는 별도로 말하기 녹음 파일 전수를 다시 청취해 녹음 상태가 불량하거나 누락된 케이스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러한 사후 검증 과정에서 조사 품질을 의심할만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초 완성 표본 중 27건은 ‘말하기 녹음 상태 불량’, ‘전화번호 결번’, ‘연령 정보 상이’ 등이 발견되어, 해당 표본을 폐기하고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사례는 응답자가 개인 정보 노출을 꺼려 거짓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입력 과정상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KANTAR의 검증 매뉴얼에 따라 해당 표본을 폐기했다.

5) 결과물 제출

‘문법’, ‘읽기’, ‘듣기’ 영역의 조사 결과는 SPSS 데이터와 엑셀(EXCEL) 데이터, 주요 인구학적 변인과의 교차분석 통계표 형태로 제출했다. ‘말하기’ 영역은 응답자의 말하기 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음성 파일(MP3)로 제출했으며, ‘쓰기’ 영역은 쓰기 내용이 입력된 엑셀(EXCEL) 데이터 형태로 제출했다.

3. 1차 예비조사 관련 특이 사항

1) CAPI 활용 관련

2012년 조사와 달리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CAPI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1차 예비조사 진행 결과,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진행 과정에서는 CAPI 조사 방식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따라서 읽기 영역 지문의 글자 크기가 작게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PC 화면이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서는 종이 설문지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조사 진행시에도 종이 설문지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쓰기’ 영역은 기존 종이 방식과 달리 응답자의 쓰기 결과가 곧바로 전산 입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쓰기 결과 취합과 채점 과정은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 글씨보다는 타이핑에 익숙한 세대에서는 오히려 키보드 입력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키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원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원고지를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기’ 영역도 하나의 CAPI 시스템 내에서 조사 진행과 녹음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응답자 ID와 녹음 파일을 매칭하는 과정이 더 정확하고 간편해진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 초반에 조사원의 조작 실수로 녹음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기존 파일이 삭제되고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며 응답 결과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원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조사원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말하기 조사 과정을 동시 녹음하는 방식으로 응답 파일 유실에 대비했다. 그리고 실사 관리자가 사후 검증 차원에서 말하기 음성 파일을 전수 재청취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응답자의 음성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 재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조사 종료 후 데이터 점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만일 본 조사가 3,000 표본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사후 데이터 점검 과정까지 고려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기존 종이설문지 방식에 비해 CAPI 시스템이 조사 진행이나 관리, 그리고 응답자 편의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된다. 물론 일부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1차 조사에서 사용한 KANTAR의 솔루션인 Nfield 내에서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앞서 언급한 보조적인 도구(종이 설문지, 휴대폰 녹음 등)를 이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예비조사까지는 1차 조사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조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글자 크기

우선 교육 중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글자 크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중 특히 읽기 지문의 글자 크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사원들로부터 가장 여러 번 지적되었다. 우선 절대적인 글씨 크기가 작으며, 글씨 크기가 종이 평가지와 같더라도 해상도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발문과 답지의 폰트 형식과 지문의 형식이 다르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또한 앱의 구현상 조사 대상자가 태블릿 피시의 화면상에서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이후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 50-60대의 경우 태블릿 피시로 읽기 영역의 지문을 읽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이 검사지로 응답을 하게 하고, 조사원이 태블릿 피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달하였다. 이때 종이 검사지를 사용한 응답자 ID와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의 ID를 기록하였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2차 예비조사의 경우 폰트 형식을 통일하고, 전반적으로 글자 크기를 1차 예비조사 때보다 크게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 검사지의 플랫폼의 편집, 그림 크기, 정렬 방식 등의 문제는 역시 보완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앱의 구현상 글자 크기의 확대 기능이 없다는 기술적인 부분은 본 조사에서 개선되어야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문항별 시간의 배분 및 운영

1차 예비조사의 교육 및 실제 조사 진행 중 시간 구현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문항별 시간의 배분 문제이다. 문항의 특성상 각 문항별 시간이 배분되어 엄격히 준수되는 말하기 영역과 듣기 영역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항별 시간은 설정되었지만 문항 수에 따라서 총 시험 시간이 운영되는 영역인 읽기, 문법, 쓰기 영역의 경우 문항별로 시간을 운영할 것인지, 문항별 시간을 문항 수로 곱한 총시간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차 예비조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읽기 영역 검사의 경우 각 문항에 배분된 시간이 2분이라고 했을 때 14문항으로 이루어진 평가지를 풀 경우는 한 문항에 2분씩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총 28분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종이 검사지와는 다르게 조사 대상자가 총 문제의 수나 전체 문제를 한 번에 훑어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항의 총 개수와 제한 시간에 관한 지시문을 영역별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다음으로는 종이 검사지와는 다르게 문항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험이 종료되지 않는 디지털 검사지의 특성상 시간 초과의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읽기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응답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가능하면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이유로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시험 시간의 10%정도의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3) 문항 간 이동

디지털 검사지의 경우 문항이 선형적으로 배열되었기 때문에 종이 검사지에 비해 문항 간 자유로운 이동 및 응답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즉 종이 검사지와 같이 응답자가 문항을 선택하여 앞뒤로 오가며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없으며, 모든 문항을 풀어야 시험의 종료가 가능하다는 디지털 검사지의 특성과 결합하여 여러 사항에서의 논의점을 발생시켰다.

뒤로 가기 버튼의 존재 여부, 문항 응답의 보류 여부, 미응답 문항이 있는 채로 시험 종료의 가능 여부는 기술상 구현이 가능한데, 1차 예비조사에서는 쓰기, 읽기, 문법 영역의 경우 뒤로 가기 및 앞으로 가기 버튼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뒤로 한 번씩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문항 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를 남긴다. 화면 위쪽에 문항 번호가 있어서 클릭하면 이동 가능하고 답을 고르지 않고 넘어간 문제는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 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하였으나 문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문항을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실사 과정상의 문제점

1차 예비조사는 기본적으로 5개 변인별로 표본을 할당하고, 여기서 다시 평가 영역이 3개로 나뉘고, 평가 영역 내에서 다시 설문지 유형이 3~5개 종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여기에 응답자에게 키보드 타이핑과 말하기 녹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조사이다. 여기에 더해 각 영역과 세트별로 표본 수를 맞추면서, 인구학적 변인까지 고려하며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1차 조사가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해 본 조사 분량의 2배를 조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앞으로 2차 조사, 본조사로 진행될수록 문항 수가 줄어들고, 설문지 종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표본 할당 과정상의 어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4. 1차 예비조사 결과

1) 1차 예비조사 결과의 채점

(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1차 예비조사는 태블릿 피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응답자가 화면상에서 특정 보기를 터치하면, 응답 결과가 곧바로 CAPI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기존 조사처럼 별도의 전산 입력 과정을 거치거나, OMR 카드 사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없었다. 현장조사 종료 후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로부터 각 문항의 정답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계 처리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문항별 정답률을 계산했다.

(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1차 예비조사에는 말하기 영역 6문항, 쓰기 영역 6문항의 주관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계획했던 조사 대상 200명에서 검사지2에 대해 3명이 추가 조사되어 총 203명 피험자의 답안이 수합되었고, 이중 말하기는 709건, 쓰기는 712건의 응답 건수가 채점 대상이었다. 이를 채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채점단을 섭외하고, 채점 기준 정교화 협의를 시행하였다. 또한, 개별 문항에 대한 채점자들의 채점 요소별 채점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여 일정 비율의 답안을 함께 채점하도록 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관식 영역 채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은 말하기와 쓰기를 전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및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각 영역의 담당 공동 연구원들의 진행과 조율에 따라 채점을 진행하였다.

<표 IV-13> 주관식 답안 채점단 구성

영역	문항 번호 및 답안 수	채점단	담당 연구원
말하기 영역	1번 문항 100개 답안	임혜랑, 양수연, 류연석, 오영창, 이슬, 이원기, 장경미, 박진희, 윤현정	박재현(상명대 교수)
	2번 문항 103개 답안		
	3번 문항 100개 답안		
	4번 문항 103개 답안		
	5번 문항 100개 답안		
	6번 문항 203개 답안		
쓰기	1번 문항 203개 답안	정보미, 김태경, 김신원, 이병하, 이은석, 이지원	김종철(서울대 교수)
	2번 문항 103개 답안		
	3번 문항 103개 답안		
	4번 문항 100개 답안		
	5번 문항 100개 답안		
	6번 문항 103개 답안		

이러한 대규모 주관식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서는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명의 채점자들이 교차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채점설계 방식은 공통채점과 무선채점을 혼합한 설계 방식이다. 공통채점은 각 검사지별로 10%의 피험자에 대해 말하기 9인, 쓰기 6인의 모든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도록 설계하였고, 공통채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는 가능한 채점자의 무선조합(random combination)을 만들어 반복 배분하여 해당 영역의 전문가 3인이 교차채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기는 2547건, 쓰기는 2346건의 채점 결과 값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①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의 예비조사에는 신규로 개발된 문항 5개와 가교문항 1개가 포함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보한 말하기 영역의 응답 수는 총 203개이며, 이에 대한 주관식 채점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주관식 채점에서는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규모의 주관식 채점이므로 효율적인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말하기 영역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문항 당 3인의 교차 채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총 9인의 채점단을 확보한다. 채점단은 국어 교육전공의 박사 과정 및 석사 과정의 국어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다.

둘째, 채점자 집단 사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점자 9인을 3인씩 무선 조합하여 교차 채점을 진행하며, 응답 수의 10%는 9인 공통 채점을 진행한다.

위와 같은 채점 방식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관식 문항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첫째, 말하기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직접 녹음하여 문항별, 피조사자별로 파일을 구축하였다.

둘째, 각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시행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결과와의 동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말하기 영역의 채점 기준은 2013년도의 채점 기준을 준용하여, 2018년도의 연구 목적에 따라 전문 인력의 협의 하에 일부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말하기 영역은 6개 문항 모두 ‘내용 선정, 조직, 표현, 전달’의 하위 채점 요소를 설정하고 5점 척도를 중심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셋째, 채점 기준의 세안에는 피험자의 말하기 영역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할 근거를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채점이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말하기 영역의 6개 문항은 각각 50점 만점으로 채점하되 4개의 채점 요소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또한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1차 예비조사를 위한 말하기 영역의 문항은 2013년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말하기 영역 문항과의 동등화라는 목적 아래, 각각 문항 1과 문항 2, 문항 3과 문항 4, 문항 5와 문항 6이 동종으로 개발되었다. 동종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같은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하였다.

<표 IV-14> 말하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IV-15> 말하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요청’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설문 요원에게 문제에 대한 질문만 계속 던진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요청만 표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설득적으로 말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 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이 부족하여 본론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함께 ②가 나타나 시작과 마무리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 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전문적 용어-구청담당자, 격식적 표현 등),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 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도 없고 어휘가 적절하게 구사되지도 않은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없거나 정중한 표현이 나타나지 못한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고 정중하게 표현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구청담당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감정적인 어조(예: 흥분, 분노 등)인 경우 추가로 감점.
--	--

<표 IV-16> 말하기 2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IV-17>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요청’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설문 요원에게 문제에 대한 질문만 계속 던진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요청만 표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설득적으로 말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이 부족하여 본론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함께 ②가 나타나나 시작과 마무리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 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전문적 용어-구청담당자, 격식적 표현 등),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 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도 없고 어휘가 적절하게 구사되지도 않은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없거나 정중한 표현이 나타나지 못한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고 정중하게 표현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구청담당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감정적인 어조(예: 흥분, 분노 등)인 경우 추가로 감점.

<표 IV-18> 말하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IV-19> 말하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설명’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구체적 예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초등학교생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에 취해야 하는 대처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야 함.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경우(즉, 넘어져서 다쳤으면 일단 조심을 해야 하고, 집에 가서 밴드 붙이자.) 이는 질문에 요구하는 대답이 아님.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설명’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이나 몇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과 함께 한두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을 위배한 경우로,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일관된 흐름 없이 뒤죽박죽 말하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도입부까지 있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초등학생에게 맞는 쉽고 구체적인 어휘의 사용),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매우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이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려운 어휘나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름에 밖에 둔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와 같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에게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고,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며 어법에 맞게 말한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 박도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IV-20> 말하기 4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IV-21> 말하기 4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설명’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구체적 예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에 취해야 하는 대처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야 함.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경우(즉, 넘어져서 다쳤으면 일단 조심을 해야 하고, 집에 가서 밴드 붙이자.) 이는 질문에 요구하는 대답이 아님.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설명’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이나 몇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과 함께 한두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을 위배한 경우로,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일관된 흐름 없이 뒤죽박죽 말하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도입부까지 있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초등학생에게 맞는 쉽고 구체적인 어휘의 사용),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매우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이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려운 어휘나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름에 밖에 둔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와 같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에게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고,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며 어법에 맞게 말한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IV-22> 말하기 5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IV-23> 말하기 5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문제에 대한 이해’, ‘②찬반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찬반입장 표현이 없거나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양비론적인 주장을 말하는 경우 또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매우 미흡에 해당. - 미흡: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지만 근거 없이 주장만 드러내는 경우 미흡에 해당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찬반입장 즉 주장과 근거가 하나씩이라도 드러나는 경우. 예를 들어 ‘저는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처럼 주장과 근거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하고, 근거를 추가적으로 부연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주장과 근거의 관계’와 ‘②내용의 흐름(논리성)’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미흡: ①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근거에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즉, 피조사자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정년 연장법이 실행되면,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국가도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와 같이 근거가 모호한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가 제시되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최저 시급이 만원이 되면 고용주들이 고용을 그만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사람을 덜 뽑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와 같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우. - 우수: ①을 지켜 말하며, 근거가 설득적이고 타당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근거가 설득적이고 타당하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우. 즉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토론의 상황, 공식적 자리), 어휘의 의미(법안, 전문적 용어 등)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상황에 맞지 않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즉 공식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어법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말한 경우. 사적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표현법(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어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어체의 종결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흡으로 처리.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만 15세 대상을 상정한 수준으로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며 ③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③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하며, 목적에 맞게 용어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며 사용하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40초에서 5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 박또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5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IV-24> 말하기 6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IV-25> 말하기 6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문제에 대한 이해’, ‘②찬반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찬반입장 표현이 없거나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양비론적인 주장을 말하는 경우 또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매우 미흡에 해당. - 미흡: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지만 근거 없이 주장만 드러내는 경우 미흡에 해당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찬반입장 즉 주장과 근거가 하나씩이라도 드러나는 경우. 예를 들어 ‘저는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처럼 주장과 근거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하고, 근거를 추가적으로 부연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주장과 근거의 관계’와 ‘②내용의 흐름(논리성)’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미흡: ①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근거에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즉, 피조사자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정년 연장법이 실행되면,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국가도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와 같이 근거가 모호한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가 제시되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최저 시급이 만원이 되면 고용주들이 고용을 그만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사람을 덜 뽑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와 같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우. - 우수: ①을 지켜 말하며, 근거가 설득적이고 타당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근거가 설득적이고 타당하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우. 즉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토론의 상황, 공식적 자리), 어휘의 의미(법안, 전문적 용어 등)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상황에 맞지 않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즉 공식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어법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말한 경우. 사적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표현법(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어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어체의 종결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흡으로 처리.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만 15세 대상을 상정한 수준으로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며 ③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③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하며, 목적에 맞게 용어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며 사용하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40초에서 5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박 또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5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②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의 6개 문항은 영역별로 각각 친교적 글쓰기 40점(5, 6번 문항),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

80점(1번 문항), 설득하는 글쓰기 130점(2, 3, 4번 문항)으로 차등하여 배점하고, 각 문항마다 ‘내용, 조직, 표현’의 채점 요소를 두어 채점을 진행하였다. 또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되 각 채점 요소별 배점을 기준으로 척도 점수에 해당하는 원 점수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해, 쓰기 영역은 보다 세밀한 채점 기준을 제공하여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IV-26> 쓰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3	6	10	13	16

<표 IV-27> 쓰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는가.	60 미만	60이상~120미만	120이상~180미만	180 이상~240 미만	240이상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은 없는가?	4개	3개	2개	1개	0개
조직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는가.(위아래, 인상적인 것, 전체에서 부분 등)	방향성이 없다	미흡하다	방향성이 있다	체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문장이나 문단을 구성하였는가.	의미 중심의 문장을 구성하지 못했다.	문장을 구성하였으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장을 구성하였다.	문장을 구성하고 연결이 자연스럽다.	문장 및 문단을 구성하였다.
표현	적법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4	3	2	1	0
	맞춤법을 잘 지켰는가	4	3	2	1	0
* ‘표현’ 항목은 ‘내용’이 보통이면 미흡~우수 내에서 채점, 내용이 우수면 보통~매우 우수 내에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두 단계 이상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채점함. * ‘표현’ 항목의 맞춤법의 경우 답안의 길이가 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오류의 개수도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답안의 길이를 고려하여 채점함. * 오답은 내용과 조직 항목에서 매우 미흡으로 처리하되, 표현은 기준에 따라 채점함.						

<표 IV-28> 쓰기 2~4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단락 의식을 가지고 서론-본론-결론을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표 IV-29> 쓰기 2~4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는가.	80 미만	80이상~160미만	160이상~240미만	240 이상~320미만	320이상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은 없는가?	4개	3개	2개	1개	0개
조직	주장-근거의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주장-근거가 없다.	주장-근거가 미흡하다.		주장-근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정한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문장이나 문단을 구성하였는가.	의미 중심의 문장을 구성하지 못했다.	문장을 구성하였으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장을 구성하였다.	문장을 구성하고 연결이 자연스럽다.	문장 및 문단을 구성하였다.
표현	적법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4	3	2	1	0
	맞춤법을 잘 지켰는가	4	3	2	1	0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평이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효과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 ‘표현’ 항목은 ‘내용’이 보통이면 미흡~우수 내에서 채점, 내용이 우수면 보통~매우 우수 내에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두 단계 이상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채점함. * 쟁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답안의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표현’ 항목의 맞춤법의 경우 답안의 길이가 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오류의 개수도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답안의 길이를 고려하여 채점함. * 오답은 내용과 조직 항목에서 매우 미흡으로 처리하되, 표현은 기준에 따라 채점함.						

<표 IV-30> 쓰기 5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표 IV-31> 쓰기 5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감사 인사와 취임에 대한 포부가 미흡하게 제시됨.		상황에 적합한 감사 인사와 취임에 대한 포부가 포함되어 있음.	
	양적인 조건을 충족 하였는가	단어로 나열	1문장	2문장	4문장 이상	3문장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은 없는가?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이 있음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이 없음		
조직	담화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가.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 구성 중 두 가지 이상을 누락한 경우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 중 한 가지를 누락한 경우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 구성을 갖추고 있음.	
표현	적법한 문장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3개	2개	1개	0개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평이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효과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 ‘표현’ 항목은 ‘내용’이 보통이면 미흡~우수 내에서 채점, 내용이 우수면 보통~매우 우수 내에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두 단계 이상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채점함. * ‘표현’ 항목의 맞춤법의 경우 답안의 길이가 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오류의 개수도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답안의 길이를 고려하여 채점함. * 오답은 내용과 조직 항목에서 매우 미흡으로 처리하되, 표현은 기준에 따라 채점함.
--

<표 IV-32> 쓰기 6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표 IV-33> 쓰기 6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가 미흡하게 제시됨.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양적인 조건을 충족 하였는가	단어로 나열	1문장	2문장	4문장 이상	3문장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은 없는가?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이 있음		주제에서 이탈한 내용이 없음		
조직	담화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가.	‘감사의 인사 - 본문 - 끝인사’ 구성 중 두 가지 이상을 누락한 경우		‘감사의 인사 - 본문 - 끝인사’ 중 한 가지를 누락한 경우	‘감사의 인사 - 본문 - 끝인사’ 구성을 갖추고 있음.	

표현	적법한 문장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3개	2개	1개	0개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평이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효과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 ‘표현’ 항목은 ‘내용’이 보통이면 미흡~우수 내에서 채점, 내용이 우수면 보통~매우 우수 내에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두 단계 이상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채점함.

* ‘표현’ 항목의 맞춤법의 경우 답안의 길이가 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오류의 개수도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답안의 길이를 고려하여 채점함.

* 오답은 내용과 조직 항목에서 매우 미흡으로 처리하되, 표현은 기준에 따라 채점함.

(3)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 채점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

① 말하기 영역

<표 IV-34> 말하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채점자	선정		조직		표현		전달	
	모수	SE	모수	SE	모수	SE	모수	SE
채점자1	-.367	.066	-.263	.058	-.492	.060	-.309	.038
채점자2	-.064	.068	-.110	.062	-.027	.064	.051	.046
채점자3	-.442	.068	-.362	.060	-.079	.064	.382	.043
채점자4	-.180	.067	-.163	.059	-.086	.062	-.094	.043
채점자5	.236	.062	-.046	.058	.038	.059	-.281	.038
채점자6	.332	.061	.072	.058	-.209	.058	-.323	.039
채점자7	.242	.062	.279	.058	.446	.059	.148	.043
채점자8	.584	.061	.615	.059	.602	.059	.379	.042
채점자9	-.340	.064	-.023	.059	-.193	.060	.046	.042

채점자 효과 모수는 채점자의 엄격성과 관련이 있다. 모수의 의미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채점자가 평균적인 엄격함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0을 기준으로 값이 작을수록 엄격한 채점자이고, 값이 클수록 관대한 채점자라고 볼 수 있다.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 채점자8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매우 관대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채점자1은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영역에서 상당히 엄격한 채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채점자 3의 경우, 선정과 조직 하위 영역에서는 엄격하였으나, 전달 하위 영역에서는 관대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쓰기 영역

<표 IV-35> 쓰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채점자	내용		조직		표현	
	모수	SE	모수	SE	모수	SE
채점자1	-.130	.051	-.026	.060	.347	.059
채점자2	-.036	.053	.015	.062	.052	.058
채점자3	.083	.054	.063	.061	.047	.057
채점자4	.054	.053	.022	.061	-.188	.055
채점자5	.088	.054	.067	.061	-.115	.056
채점자6	-.059	.053	-.142	.060	-.143	.056

쓰기 영역 역시 말하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6개 문항에 대한 채점자 효과를 분석하였다. 쓰기 영역에서는 채점자 모수가 0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를 보이지 않아, 채점자 효과가 거의 없이 모든 채점자가 어느 정도 일관된 채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채점자1의 경우 다른 채점자에 비해 표현 영역에서 다소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1차 예비조사에서의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채점 결과를 통해 얻은 2차 예비조사의 채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예비조사의 채점자들이 본 조사 문항도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채점자 효과를 분석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은 채점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채점 전문가 집단이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이 맡은 문항을 채점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채점자는 교체한다.

셋째, 수정된 2차 예비조사 문항을 대상으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협의를 몇 차례 더 진행하고, 개별 문항에 대한 채점자들의 채점 요소별 채점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여 일정 비율의 답안을 함께 채점하도록 한다.

2) 1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1) 검사 설계상의 특징

<표 IV-36> 듣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 구성

검사지	문항구성				문항 수	응시자수
	1,2번 (공통/가교)	3,5,7,9,11,13번	4,6,8,10,12,14번	15~20번		
듣기A	포함	포함	포함		14	82
듣기B	포함		포함	포함	14	80
듣기C	포함	포함		포함	14	80

<표 IV-37> 읽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구성

검사지	문항구성						문항 수	응시자수
	1~4번 (공통/가교)	5~11번	12~18번	19~25번	26~32번	33~40번		
읽기A	포함	포함	포함				18	101
읽기B	포함		포함	포함			18	100
읽기C	포함			포함	포함		18	102
읽기D	포함				포함	포함	19	100
읽기E	포함	포함				포함	19	100

<표 IV-38> 문법 영역 검사지별 문항구성

검사지	문항구성				문항 수	응시자수
	1,2번 (공통/가교)	3,5,7,9,11,13번	4,6,8,10,12,14번	15~20번		
문법A	포함	포함	포함		14	82
문법B	포함		포함	포함	14	80
문법C	포함	포함		포함	14	80

<표 IV-39>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 구성

검사지	말하기 문항구성			쓰기 문항구성			문항 수	응시자수
	1,3,5번	2,4번	6번 (공통/가교)	1번 (공통/가교)	2,3,6번	4,5번		
말하기/쓰기A	포함	포함	포함	포함			7(말6,쓰1)	82
말하기/쓰기B		포함	포함	포함	포함		7(말3,쓰4)	80
말하기/쓰기C			포함	포함	포함	포함	7(말1,쓰6)	80
말하기/쓰기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7(말4,쓰3)	80

검사의 설계상 영역별 원점수 총점은 검사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문항이 가지는 변별도나 곤란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각 영역별 문항 수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검사지로 시험을 치른 피험자들의 원점수 총점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2) 영역별 점수 분포 분석

① 기술통계

<표 IV-40> 영역별 점수 분포의 기술통계치

영역	사례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듣기	242	29.901	65.106	50.074	7.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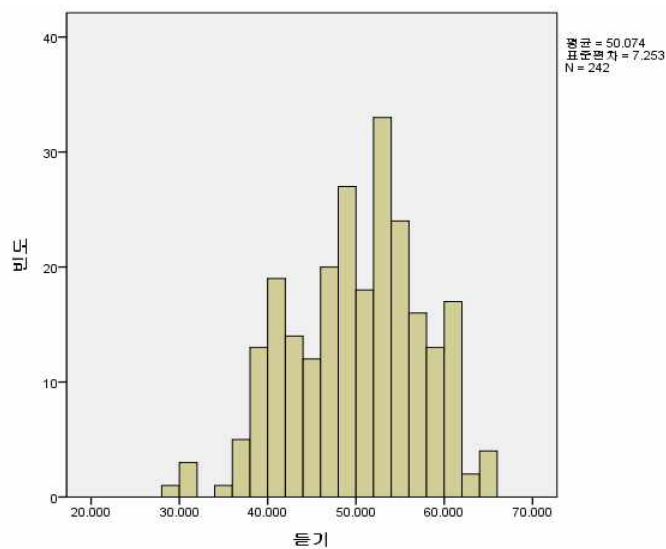
말하기	선정	203	26.570	81.706	49.208	9.550
	조직	203	27.435	78.676	49.184	9.328
	표현	203	24.917	75.051	49.389	9.011
	전달	203	24.073	75.986	49.511	9.328
읽기		503	25.000	65.631	50.029	8.719
쓰기	내용	203	27.458	83.556	49.358	10.243
	조직	203	24.504	86.355	49.830	9.937
	표현	203	26.725	82.141	49.871	9.513
문법		242	24.287	64.438	51.120	7.799

② 영역별 점수 분석 방법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듣기, 읽기, 문법 영역의 경우, 각각의 영역별로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역별로 피험자 능력 모수를 추정치(평균 0, 표준편차 1)를 산출한 후, 이 점수에 10점을 곱하고, 50점을 더하여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점수로 영역별 점수를 최종 산출하였다.

능력 모수 추정치는 표본집단이 아닌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기술통계 결과표에서 각각의 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0점과 10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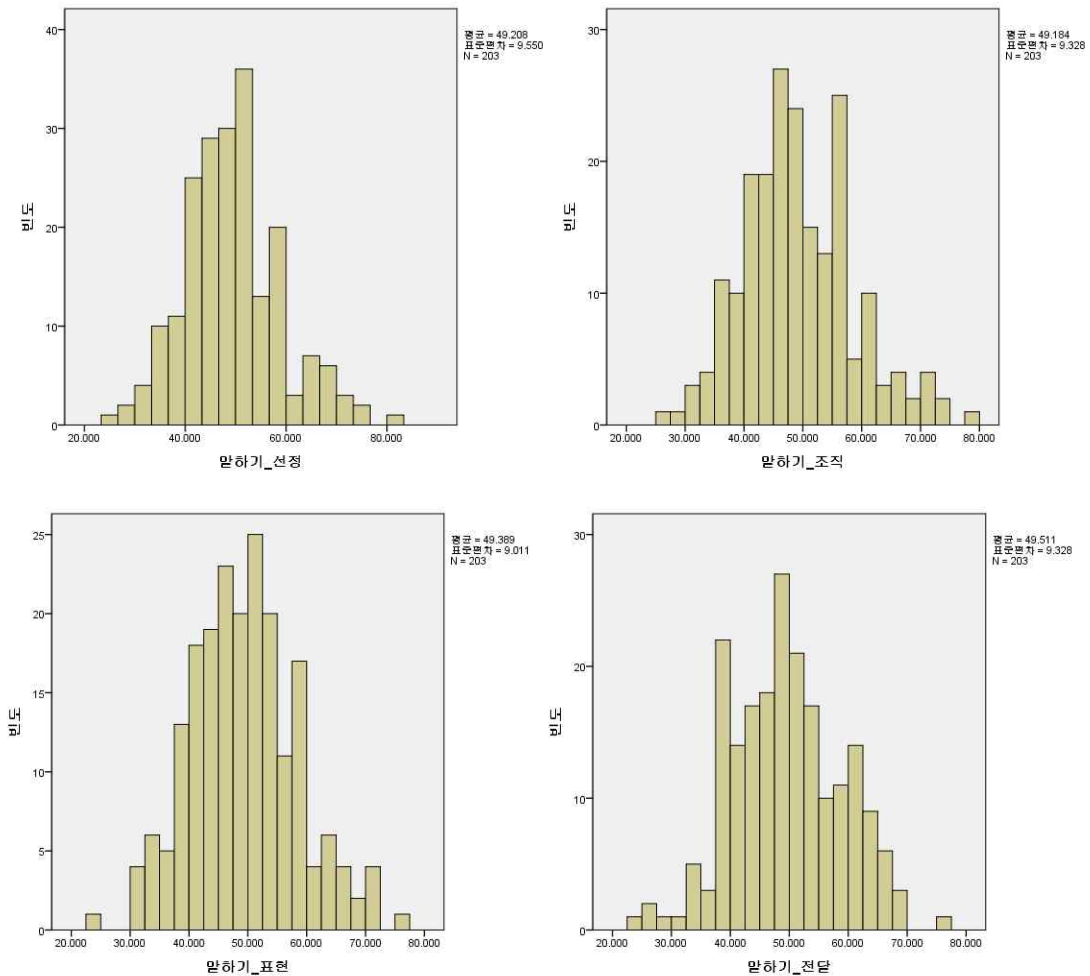
③ 듣기 영역



[그림 IV-2] 1차 예비조사의 듣기 영역 점수 분포

듣기 영역 점수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지만, 왜도가 -0.282 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부정적 편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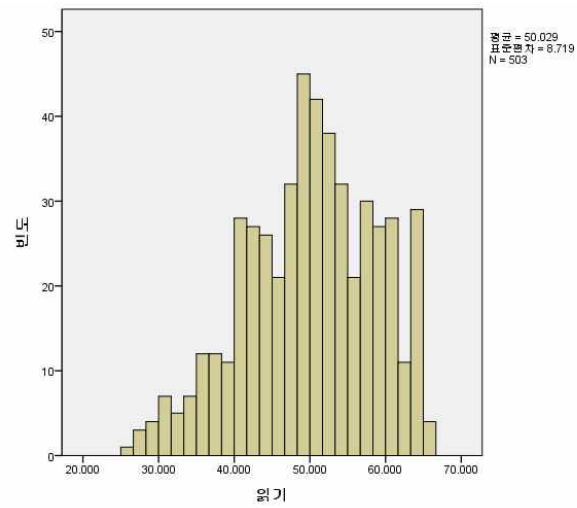
④ 말하기 영역



[그림 IV-3] 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 점수 분포

말하기 영역 점수 분포는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4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정적 편포를 나타냈다. 특히 선정, 조직 하위 영역의 왜도는 각각 .496, .438로 나타나 표현(왜도 .240), 전달(왜도 .081) 하위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편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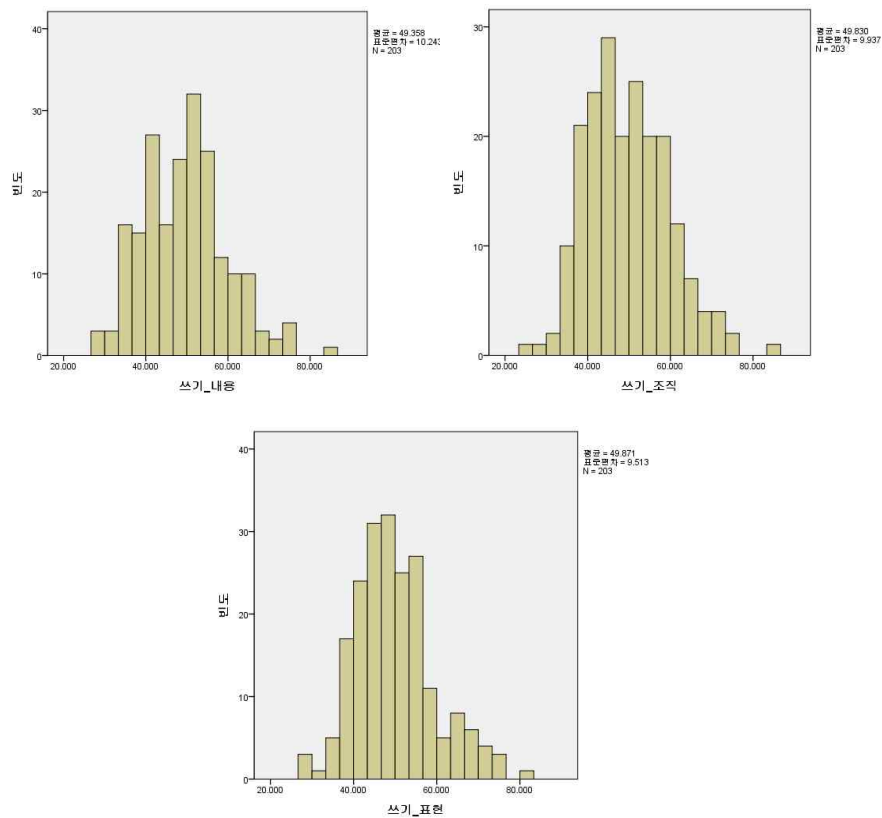
⑤ 읽기 영역



[그림 IV-4] 1차 예비조사의 읽기 영역 점수 분포

읽기 영역 점수 분포는 왜도 -0.338 로 정규분포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부정 편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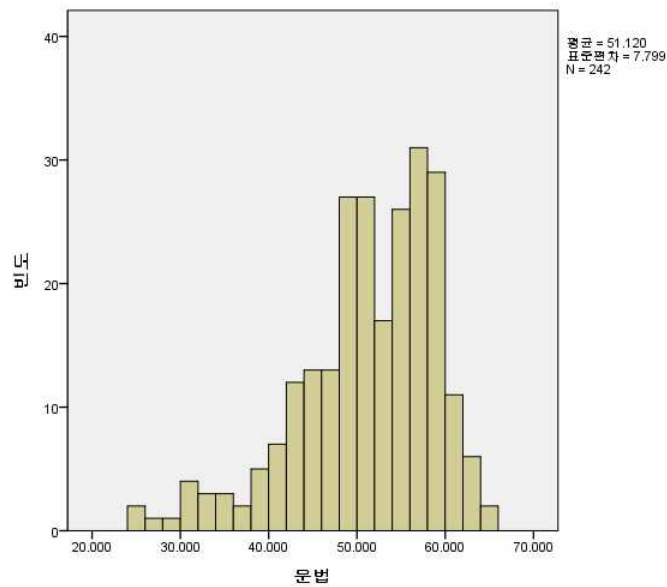
⑥ 쓰기 영역



[그림 IV-5] 1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점수 분포

쓰기 영역 점수 분포는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3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정적 편포를 나타냈다. 특히 표현 하위 영역은 왜도가 .547로 내용(왜도 .352), 조직(왜도 .486) 하위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심한 편포를 보였다.

⑦ 문법 영역



[그림 IV-6] 1차 예비조사의 문법 영역 점수 분포

문법 영역 점수 분포는 왜도 $-.974$ 로 정규분포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치우치는 부정적 편포를 보인다.

(3) 영역별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① 듣기 영역

<표 IV-41> 1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사례 수	정답률	문항모수추정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χ^2	df	p-value
듣기_01(공통)	242	81.8	.679	.226	-1.591	.468	2.371	4	.671
듣기_02(공통)	242	79.8	.492	.202	-1.539	.538	4.299	4	.367
듣기_03	162	87.7	.329	.267	-3.130	1.797	.814	2	.671
듣기_04	162	51.9	.807	.267	-.268	.213	10.329	4	.035
듣기_05	162	98.1	.011	.240	.000	10.431	196.542	6	.000
듣기_06	162	37.7	.113	.143	3.099	4.974	2.942	6	.818
듣기_07	162	84.0	.665	.303	-1.567	.659	.041	3	.994

듣기_08	162	56.8	.412	.179	-.276	.306	.697	5	.981
듣기_09	162	21.6	.136	.195	3.166	3.073	16.977	6	.010
듣기_10	162	47.5	.006	.142	3.737	93.731	4.769	6	.575
듣기_11	162	55.6	.174	.164	-1.034	.996	12.791	6	.046
듣기_12	162	82.7	.244	.201	-3.531	2.359	6.847	4	.143
듣기_13	162	80.2	.318	.223	-2.554	1.459	5.668	4	.224
듣기_14	162	40.7	.010	.142	5.227	113.675	11.688	6	.069
듣기_15	160	80.6	1.459	.658	-1.051	.259	.533	2	.769
듣기_16	160	57.5	.209	.157	-1.092	.909	8.850	5	.114
듣기_17	160	50.6	.473	.179	-.081	.278	4.714	5	.453
듣기_18	160	63.1	.116	.157	-3.155	3.804	4.016	5	.549
듣기_19	160	25.0	.738	.267	.958	.331	5.682	5	.338
듣기_20	160	68.1	.530	.208	-.908	.368	1.470	4	.833
듣기_전체		63.4					302.041	92	.000

듣기 영역 20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변별도와 곤란도 분석 결과를 보였다.

듣기 5번, 10번, 14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 문항들은 듣기 능력을 거의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② 말하기 영역

<표 IV-42>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선정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1.040	.104	.195	.070	-2.702	-.667	1.232	2.136	58.711	16	.000
말하기2	1.310	.143	-.018	.065	-2.568	-.824	.946	2.446	86.330	16	.000
말하기3	1.038	.093	.030	.070	-2.748	-.607	1.355	2.000	65.580	16	.000
말하기4	1.166	.100	-.291	.070	-2.624	-.773	1.103	2.294	58.549	15	.000
말하기5	.727	.055	.514	.090	-3.282	-.885	1.677	2.490	58.562	19	.000
말하기6 (공통)	.610	.034	.316	.068	-2.963	-1.267	1.657	2.573	174.846	22	.000
전체									502.578	104	.000

<표 IV-43>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899	.070	.161	.072	-1.998	-1.182	1.148	2.032	22.488	20	.314
말하기2	1.282	.119	.078	.062	-2.121	-.881	.810	2.192	25.804	17	.078
말하기3	1.190	.111	.215	.066	-2.231	-1.016	.860	2.387	20.631	18	.298
말하기4	1.357	.126	.018	.064	-2.104	-.998	.806	2.297	17.491	17	.422
말하기5	.902	.087	.681	.077	-2.803	-.814	.924	2.693	18.976	20	.524
말하기6 (공통)	.727	.047	.464	.062	-2.544	-1.052	.710	2.887	119.644	25	.000
전체									225.034	117	.000

<표 IV-44>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683	.053	.139	.092	-3.194	-1.305	1.477	3.023	29.955	18	.038
말하기2	.948	.079	-.200	.076	-2.989	-1.190	1.393	2.786	32.382	17	.014
말하기3	1.147	.119	.373	.069	-2.106	-.884	.560	2.430	50.336	18	.000
말하기4	1.542	.156	.298	.060	-2.060	-.922	.679	2.304	50.742	16	.000
말하기5	1.157	.093	.492	.078	-2.869	-.984	1.496	2.357	24.279	19	.185
말하기6 (공통)	1.052	.068	.365	.058	-2.791	-1.215	1.374	2.632	88.664	19	.000
전체									276.359	107	.000

<표 IV-45>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중 전달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1.067	.089	.667	.068	-2.341	-.680	.382	2.638	25.264	19	.152
말하기2	1.446	.132	.702	.060	-2.189	-.633	.311	2.510	16.457	16	.422
말하기3	1.830	.160	.559	.058	-1.710	-.741	.299	2.152	21.437	17	.207
말하기4	2.438	.297	.603	.052	-1.705	-.623	.331	1.996	16.246	15	.366
말하기5	2.544	.247	.493	.055	-1.825	-.549	.312	2.062	26.381	14	.023
말하기6 (공통)	1.441	.108	.522	.050	-1.923	-.595	.238	2.280	89.828	22	.000
전체									195.613	103	.000

말하기 영역 6문항에 대하여 4개 하위 영역별로 문항반응이론 일반화부분점수 채점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하위 영역에서 모든 문항이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③ 읽기 영역

<표 IV-46> 1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사례 수	정답률	문항모수추정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χ^2	df	p-value
읽기_01(공통)	503	87.9	.461	.187	-3.611	.500	31.089	3	.000
읽기_02(공통)	503	63.4	.600	.105	-.731	.181	15.481	8	.050
읽기_03(공통)	503	62.6	.389	.106	-1.108	.192	17.265	8	.027
읽기_04(공통)	503	73.6	.612	.113	-1.423	.269	9.492	7	.218
읽기_05	201	25.9	.125	.122	3.492	2.422	20.351	8	.009
읽기_06	201	68.2	.487	.146	-.855	.842	5.896	5	.316
읽기_07	201	54.7	.214	.121	-.166	.326	11.958	8	.152
읽기_08	201	92.5	1.212	.527	-2.009	.304	1.908	1	.163
읽기_09	201	53.2	.427	.133	-.207	.371	13.084	7	.070
읽기_10	201	37.8	.614	.175	.387	.186	13.147	8	.106
읽기_11	201	86.1	1.075	.249	-1.714	.288	1.643	2	.443
읽기_12	201	77.6	1.039	.254	-1.180	.196	1.021	4	.906
읽기_13	201	73.1	.534	.181	-1.263	.236	6.278	6	.393
읽기_14	201	88.1	2.002	1.226	-1.622	.181	2.893	2	.234
읽기_15	201	64.2	.521	.137	-.738	.344	7.903	7	.341
읽기_16	201	74.1	.498	.175	-1.523	.273	14.767	6	.022
읽기_17	201	76.1	.504	.133	-1.120	.964	16.000	6	.014
읽기_18	201	67.7	1.076	.230	-.790	.165	12.392	5	.030
읽기_19	202	86.6	.236	.324	-4.434	.766	1.208	2	.552
읽기_20	202	37.6	.298	.133	.684	.384	8.950	8	.346
읽기_21	202	84.2	.403	.281	-1.836	.224	11.820	5	.037
읽기_22	202	54.0	.664	.146	-.539	.243	19.927	7	.006
읽기_23	202	38.1	.149	.106	1.659	1.788	20.381	9	.016
읽기_24	202	73.8	.484	.177	-1.303	.208	3.625	5	.607
읽기_25	202	75.7	.724	.164	-.753	.494	10.595	6	.101
읽기_26	202	54.0	.577	.174	-.431	.237	11.235	7	.128
읽기_27	202	65.3	.251	.137	-2.107	1.012	2.814	4	.592
읽기_28	202	86.1	.704	.275	-1.922	.462	.535	2	.768
읽기_29	202	31.2	.256	.129	1.241	.655	11.978	7	.101
읽기_30	202	91.6	1.454	.727	-1.855	.258	.000	0	.000
읽기_31	202	91.1	1.187	.291	-1.726	.458	.000	0	.000
읽기_32	202	73.3	.497	.177	-1.741	.630	6.214	3	.100
읽기_33	200	72.0	.492	.215	-1.456	.364	3.933	4	.416
읽기_34	200	75.0	.380	.193	-.688	.219	18.477	6	.005
읽기_35	200	69.0	.547	.213	-.693	.246	8.804	5	.116
읽기_36	200	69.0	.425	.139	1.690	1.209	180.664	7	.000
읽기_37	200	84.0	.361	.189	-2.751	1.779	1.984	4	.742
읽기_38	200	84.5	1.072	.303	-.914	.129	4.003	4	.406
읽기_39	200	50.0	.487	.166	-.512	.317	14.885	5	.011
읽기_40	200	58.0	.366	.155	-.280	.315	3.351	6	.766
읽기_전체		68.7					547.948	207	.000

읽기 영역 40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은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하지만 읽기 7번, 19번, 20번, 23번, 27번, 29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3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 문항들은 나머지 문항들에 비하여 읽기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④ 쓰기 영역

<표 IV-47>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문항 중 내용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쓰기1 (공통)	.915	.118	1.185	.074	-.644	-.322	.966		111.287	18	.000
쓰기2	1.757	.319	.908	.070	-.525	-.327	.852		42.232	13	.000
쓰기3	1.418	.184	1.239	.068	-.336	-.933	.025	1.244	40.486	14	.000
쓰기4	.687	.120	1.680	.164	-.565	-.114	.679		43.610	14	.000
쓰기5	.199	.023	-.129	.156	4.342	-5.365	1.023		62.913	13	.000
쓰기6	.360	.035	-.954	.100	.178	-2.662	-.093	2.577	85.340	17	.000
전체									385.867	89	.000

<표 IV-48>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문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쓰기1 (공통)	.424	.044	1.250	.087	-.977	-1.127	1.414	.690	163.823	27	.000
쓰기2	1.439	.180	.367	.066	-1.147	-.974	.247	1.874	89.767	16	.000
쓰기3	.928	.114	.566	.072	-1.409	-.874	.539	1.743	62.593	19	.000
쓰기4	.394	.059	1.331	.125	-1.214	-.967	.039	2.142	53.488	18	.000
쓰기5	.267	.043	-1.533	.184	-1.947	-.225	2.171		16.210	15	.368
쓰기6	.350	.044	-1.375	.152	-1.149	-.505	1.796	-.142	20.679	15	.147
전체									406.560	110	.000

<표 IV-49>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문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쓰기1 (공통)	.625	.052	.599	.065	-1.185	-1.112	.246	2.051	161.959	26	.000
쓰기2	1.277	.211	.689	.063	-.861	-.791	.193	1.459	49.519	16	.000
쓰기3	.789	.089	.783	.073	-1.243	-.926	.553	1.616	37.227	21	.016
쓰기4	.809	.104	1.065	.083	-1.792	-.811	.303	2.300	24.094	18	.152
쓰기5	.345	.037	-2.244	.143	-2.643	-1.366	2.255	1.755	22.678	13	.046
쓰기6	.456	.058	-1.022	.118	-1.168	-.445	1.613		17.107	11	.104
전체									312.585	105	.000

쓰기 영역 6개 문항에 대하여 3개 하위 영역별로 문항반응이론 일반화부분점수 채점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 하위 영역에서 5개 문항은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반면에 5번 문항의 경우 내용, 조직 하위 영역에서 변별도가 .3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표현 하위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별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5번 문항은 쓰기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문법 영역

<표 IV-50> 1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사례 수	정답률	문항모수추정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χ^2	df	p-value
문법_01(공통)	242	71.5	.385	.180	-1.479	.333	14.943	4	.005
문법_02(공통)	242	92.1	.549	.181	-3.310	1.110	.000	0	.000
문법_03	162	56.8	.633	.181	-.625	.436	15.528	4	.004
문법_04	162	16.0	.424	.214	1.858	1.876	14.244	5	.014
문법_05	162	94.4	4.304	4.184	-1.609	.264	.000	0	.000
문법_06	162	96.3	1.405	.646	-2.652	.471	.000	0	.000
문법_07	162	73.5	.584	.206	-1.363	.397	4.359	3	.224
문법_08	162	78.4	.649	.299	-1.661	.442	5.592	2	.059
문법_09	162	76.5	.845	.276	-1.400	.279	10.433	2	.006
문법_10	162	88.9	1.620	.380	-.571	.779	43.057	3	.000
문법_11	162	84.6	.414	.208	-3.212	1.281	.000	0	.000
문법_12	162	65.4	.391	.170	-1.256	.355	1.346	4	.854
문법_13	162	86.4	.105	.163	.000	1.015	91.056	4	.000
문법_14	162	67.9	.393	.299	-1.125	.261	15.248	4	.004
문법_15	160	43.8	.024	.145	.000	4.453	7.566	5	.181
문법_16	160	66.3	.295	.158	-2.391	7.222	10.738	3	.013
문법_17	160	82.5	.249	.275	-2.080	.363	17.957	3	.001
문법_18	160	87.5	.370	.272	-3.531	.924	.000	0	.000
문법_19	160	25.6	.137	.160	4.988	4.027	2.143	6	.906
문법_20	160	64.4	.325	.150	1.464	3.347	80.244	6	.000
문법_전체		71.5					334.455	58	.000

문법 영역 20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은 양호한 문항모수를 보였고, 일부 문항은 다소 양호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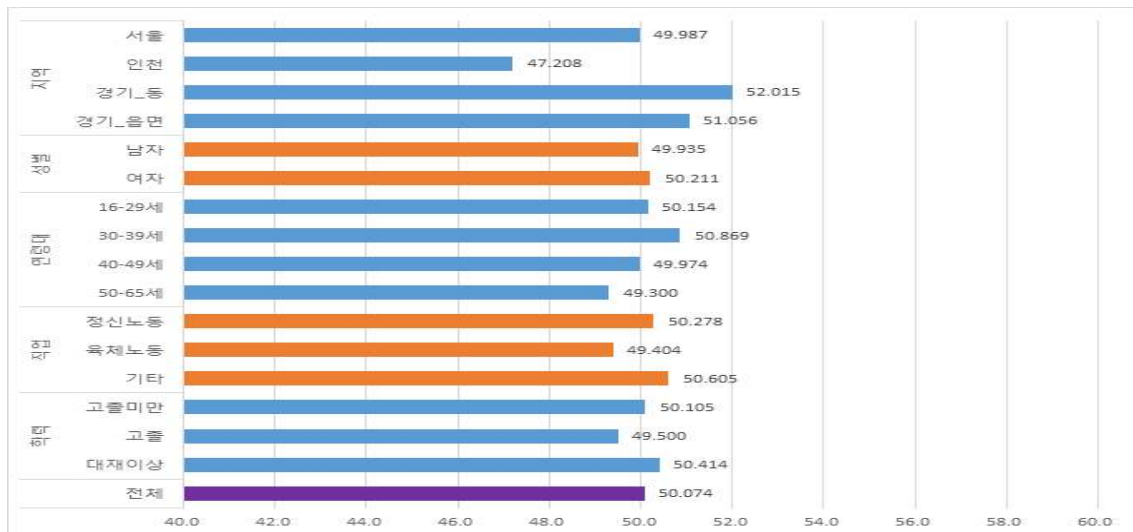
문법 13번, 15번, 19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2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 문법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이 부족한 문항들이다.

(4) 배경변인별 분석

① 듣기 영역

<표 IV-51> 1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61	49.987	7.520
	인천	60	47.208	7.080
	경기_동	61	52.015	5.701
	경기_읍면	60	51.056	7.806
성별	남자	120	49.935	7.170
	여자	122	50.211	7.360
연령대	16-29세	60	50.154	7.735
	30-39세	61	50.869	6.576
	40-49세	60	49.974	7.653
	50-65세	61	49.300	7.096
직업	정신노동	66	50.278	7.286
	육체노동	89	49.404	7.358
	기타	87	50.605	7.149
학력	고졸미만	35	50.105	7.345
	고졸	78	49.500	7.437
	대재이상	129	50.414	7.150
전체		242	50.074	7.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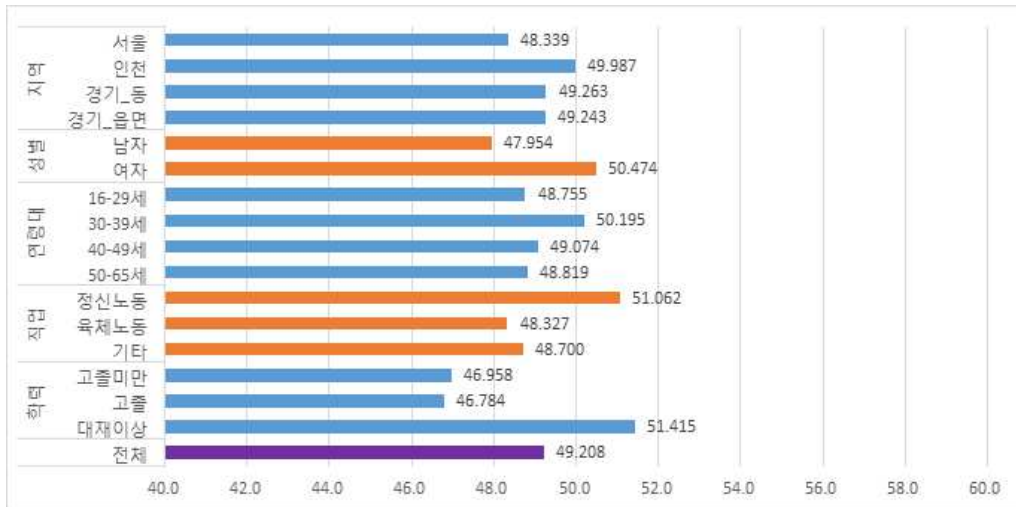
[그림 IV-7] 1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듣기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 경기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각각 52.015점, 51.056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인천지역’은 47.208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50.154점으로 평균 수준이었고, ‘30대’가 50.869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0.278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9.404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0.414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9.500점으로 가장 낮았다.

② 말하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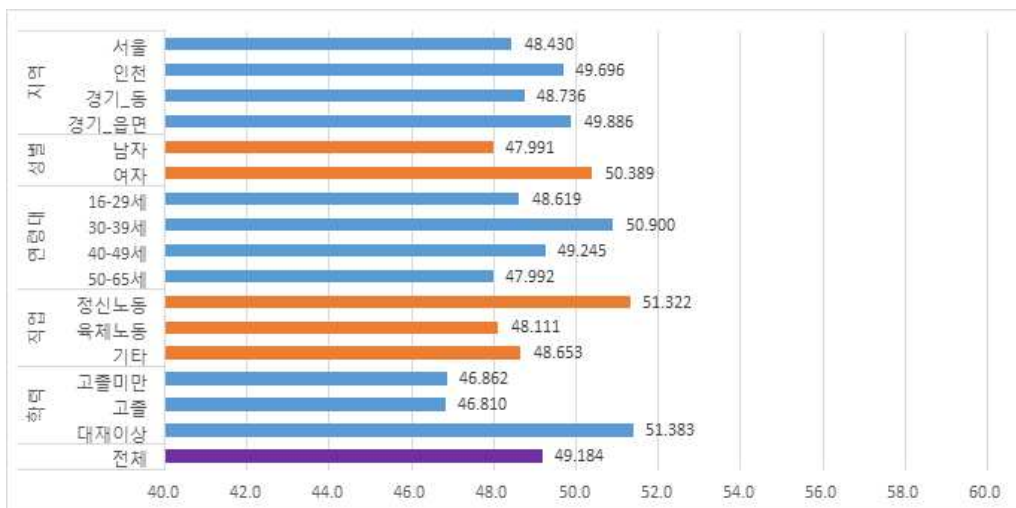
<표 IV-52>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선정		조직		표현		전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51	48.339	10.524	48.430	10.632	47.692	9.354	48.937	9.750
	인천	51	49.987	8.852	49.696	8.745	49.989	8.863	49.283	9.080
	경기_동	51	49.263	8.486	48.736	8.067	49.344	8.790	49.266	9.866
	경기_읍면	50	49.243	10.397	49.886	9.867	50.553	9.038	50.580	8.753
성별	남자	102	47.954	9.191	47.991	8.967	48.238	8.377	48.666	9.640
	여자	101	50.474	9.782	50.389	9.573	50.551	9.509	50.365	8.969
연령대	16-29세	50	48.755	11.075	48.619	10.989	48.844	10.113	47.083	11.407
	30-39세	50	50.195	10.491	50.900	10.290	51.833	9.469	50.407	9.307
	40-49세	52	49.074	8.418	49.245	7.648	49.202	7.739	51.185	8.019
	50-65세	51	48.819	8.171	47.992	8.065	47.716	8.348	49.307	7.993
직업	정신노동	55	51.062	10.526	51.322	10.175	51.654	9.378	51.003	10.208
	육체노동	72	48.327	8.594	48.111	8.264	48.292	8.637	49.223	8.493
	기타	76	48.700	9.614	48.653	9.509	48.789	8.914	48.704	9.416
학력	고졸미만	33	46.958	6.772	46.862	7.339	47.615	7.728	45.634	8.554
	고졸	65	46.784	7.996	46.810	7.724	46.782	7.880	47.705	8.161
	대재이상	105	51.415	10.653	51.383	10.276	51.560	9.545	51.848	9.653
전체		203	49.208	9.550	49.184	9.328	49.389	9.011	49.511	9.328



[그림 IV-8]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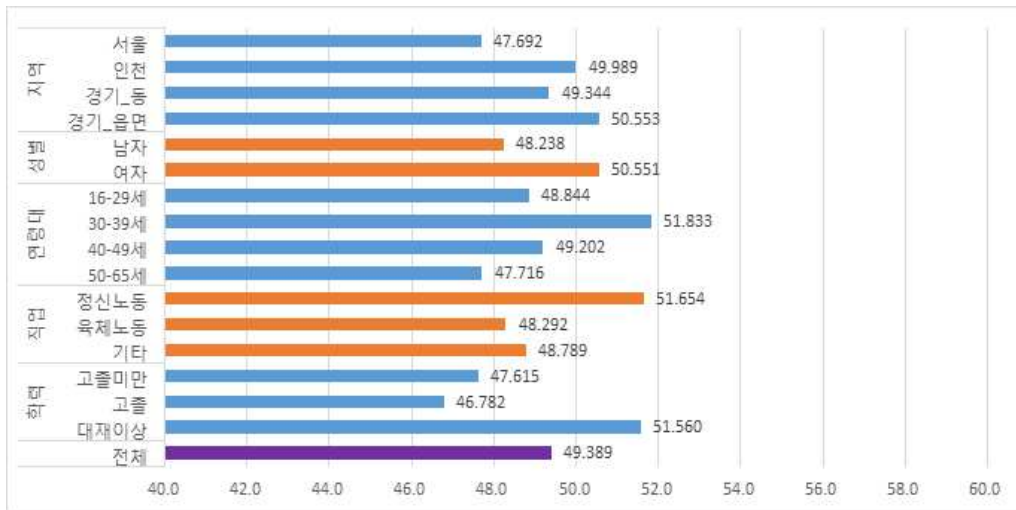
말하기 영역 중 선정 하위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 ‘인천지역’이 49.987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서울지역’은 48.339점으로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50.474점으로 ‘남자’의 평균 47.954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48.755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30대’가 50.19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1.062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327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415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6.784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V-9]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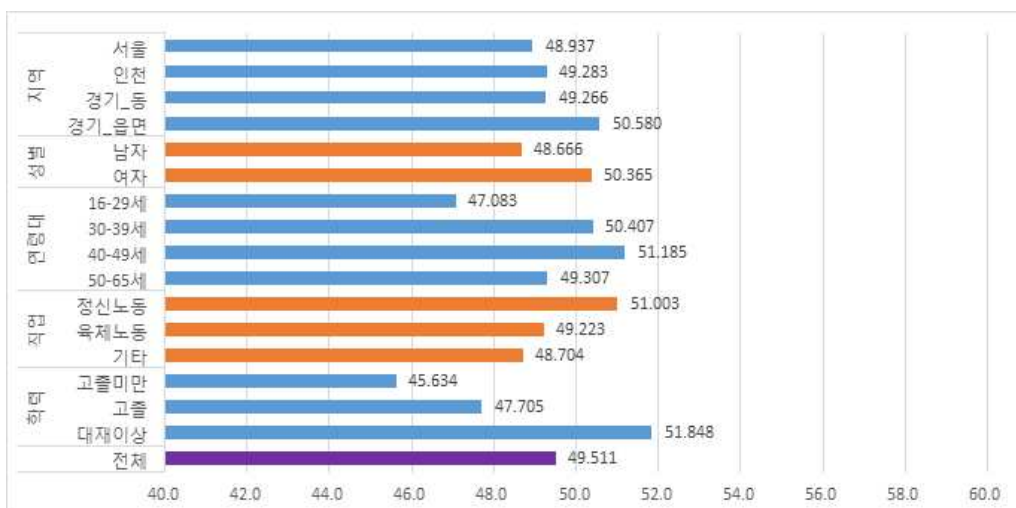
말하기 영역 중 조직 하위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평균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경기읍면지역’이 각각 49.886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지역’이 48.430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50.389점으로 47.991점의 평균을 보이는 ‘남자’에 비하여 평균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48.619점으로 평균 이하였고, ‘30대’가 50.9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전반적

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1.322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111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383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6.810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V-10]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말하기 영역 중 표현 하위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평균 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서 ‘경기 읍면지역’ 평균 50.5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서울지역’ 평균은 47.692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자’가 평균 50.551점으로 ‘남자’(평균 48.238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48.844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이고, ‘30대’가 51.83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졌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1.654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292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560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6.78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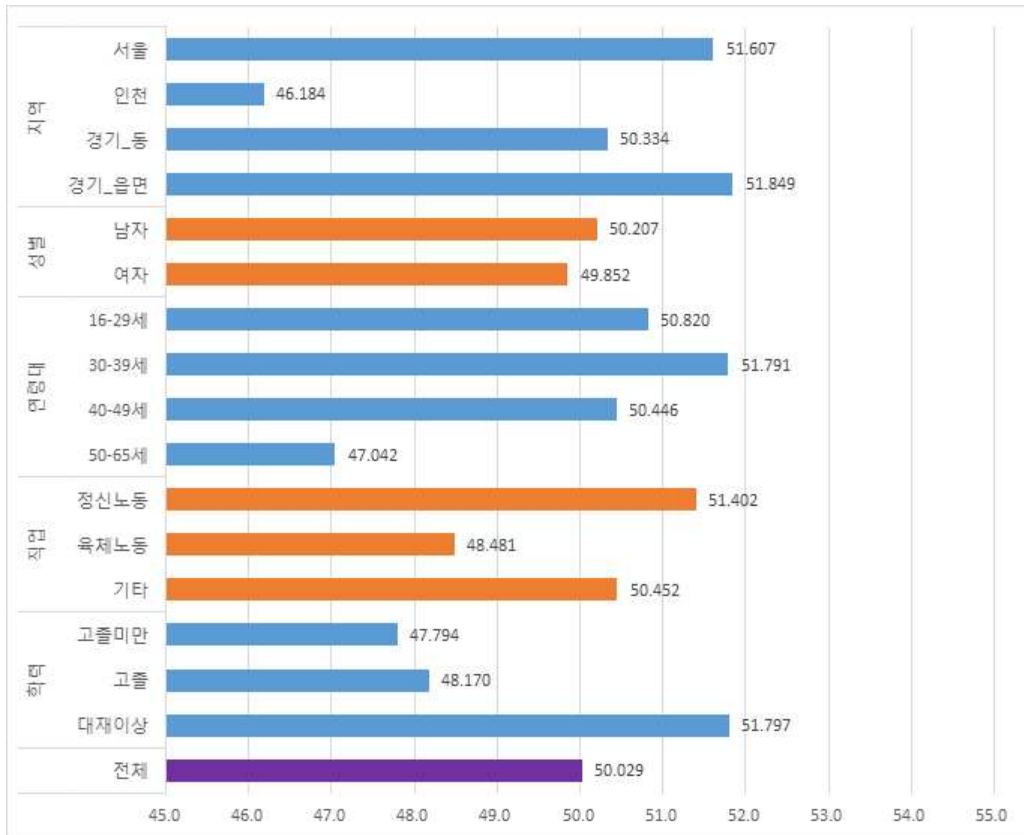
[그림 IV-11]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배경변인별 분석

말하기 영역 중 전달 하위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 ‘경기 읍면지역’이 50.580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평균 50.365점으로 ‘남자’의 평균 48.666점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47.083점으로 평균 수준이었고, ‘40대’가 51.1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1.003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9.223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848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이 45.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③ 읽기 영역

<표 IV-53> 1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131	51.607	8.988
	인천	121	46.184	9.184
	경기_동	131	50.334	7.469
	경기_읍면	120	51.849	8.078
성별	남자	250	50.207	8.893
	여자	253	49.852	8.558
연령대	16-29세	127	50.820	9.226
	30-39세	125	51.791	8.602
	40-49세	126	50.446	7.994
	50-65세	125	47.042	8.363
직업	정신노동	141	51.402	8.814
	육체노동	176	48.481	8.534
	기타	186	50.452	8.644
학력	고졸미만	70	47.794	8.260
	고졸	168	48.170	8.724
	대재이상	265	51.797	8.481
전체		503	50.029	8.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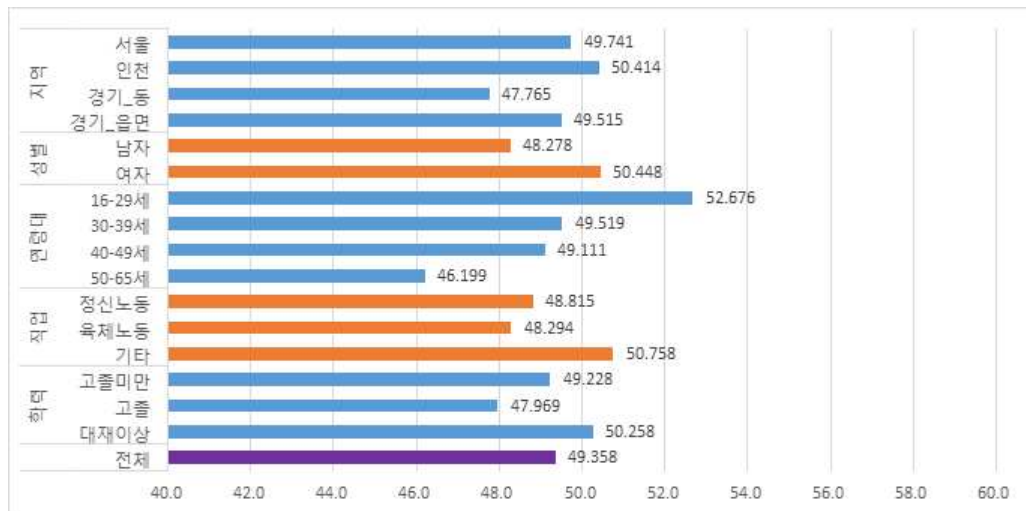
[그림 IV-12] 1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읽기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 ‘경기 읍면지역’이 51.8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서울지역’이 평균 51.607점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반면 ‘인천지역’은 46.184점으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50.820점으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30대’가 51.79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져 50대 이상에서는 47.0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1.402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481점)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797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이 47.794점으로 가장 낮았다.

④ 쓰기 영역

<표 IV-54>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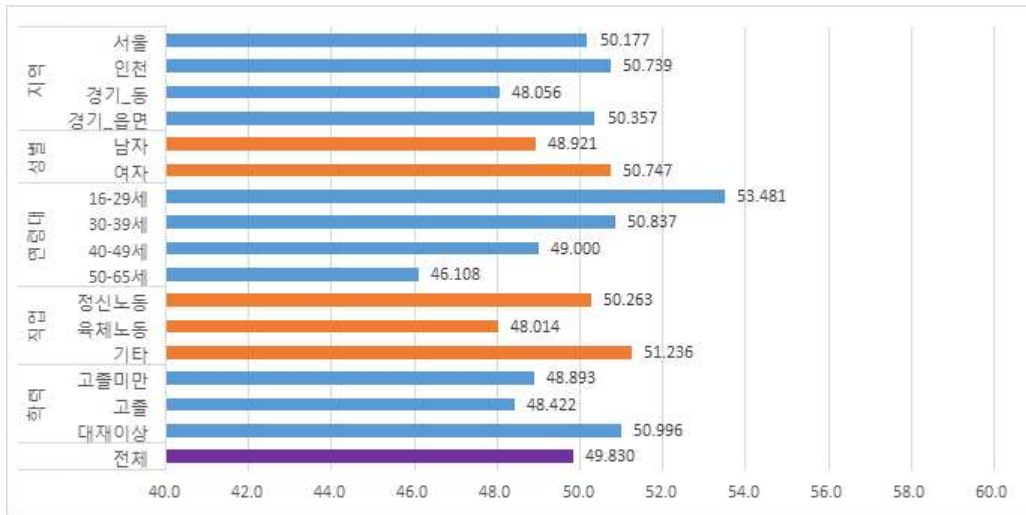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내용		조직		표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51	49.741	10.672	50.177	11.157	49.107	10.454
	인천	51	50.414	8.901	50.739	8.823	50.099	7.732
	경기_동	51	47.765	9.961	48.056	9.199	49.527	8.970
	경기_읍면	50	49.515	11.414	50.357	10.476	50.770	10.807
성별	남자	102	48.278	9.853	48.921	9.583	49.179	9.512
	여자	101	50.448	10.560	50.747	10.248	50.570	9.509
연령대	16-29세	50	52.676	12.342	53.481	12.220	54.466	11.569
	30-39세	50	49.519	9.705	50.837	8.722	50.399	9.043
	40-49세	52	49.111	8.519	49.000	8.471	48.477	7.658
	50-65세	51	46.199	9.328	46.108	8.699	46.270	7.603
직업	정신노동	55	48.815	8.983	50.263	8.120	49.634	7.774
	육체노동	72	48.294	9.600	48.014	9.509	48.885	9.089
	기타	76	50.758	11.575	51.236	11.296	50.977	10.944
학력	고졸미만	33	49.228	9.210	48.893	9.449	49.442	7.858
	고졸	65	47.969	10.489	48.422	10.041	48.079	9.165
	대재이상	105	50.258	10.391	50.996	9.970	51.115	10.072
전체		203	49.358	10.243	49.830	9.937	49.871	9.513



[그림 IV-13]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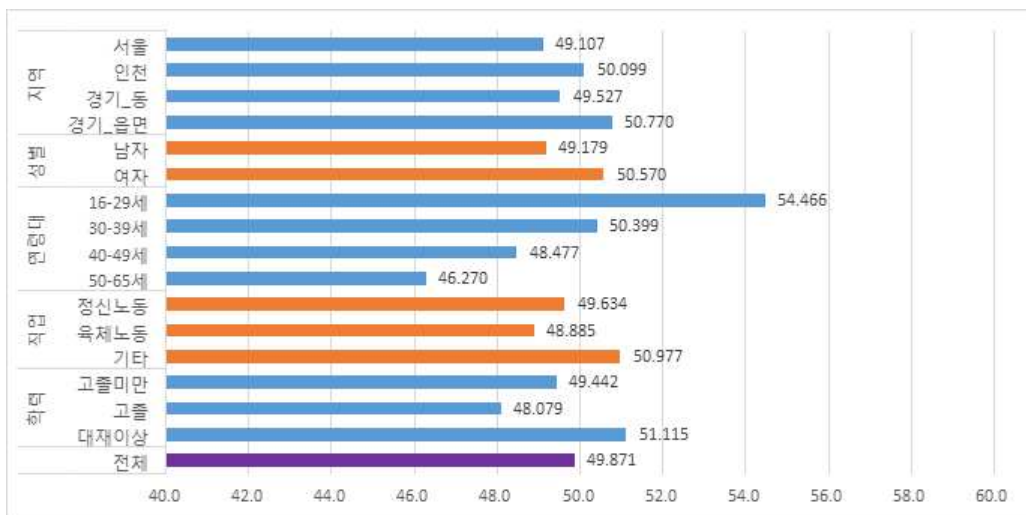
쓰기 영역의 내용 하위 영역 척도 점수를 배경변인별로 평균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서 ‘인천지역’이 5.414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경기 동지역’이 47.765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평균 50.448점으로 ‘남자’의 평균 48.278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평균 52.6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져 ‘50대’는 평균 46.19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48.815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294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0.258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7.969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V-14]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쓰기 영역의 조직 하위 영역 척도 점수를 배경변인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인천지역’이 50.739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경기 동지역’이 48.056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평균 50.747점으로 ‘남자’의 평균 48.921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평균 53.4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져 ‘50대’는 평균 46.10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0.263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014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0.996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8.42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V-15] 1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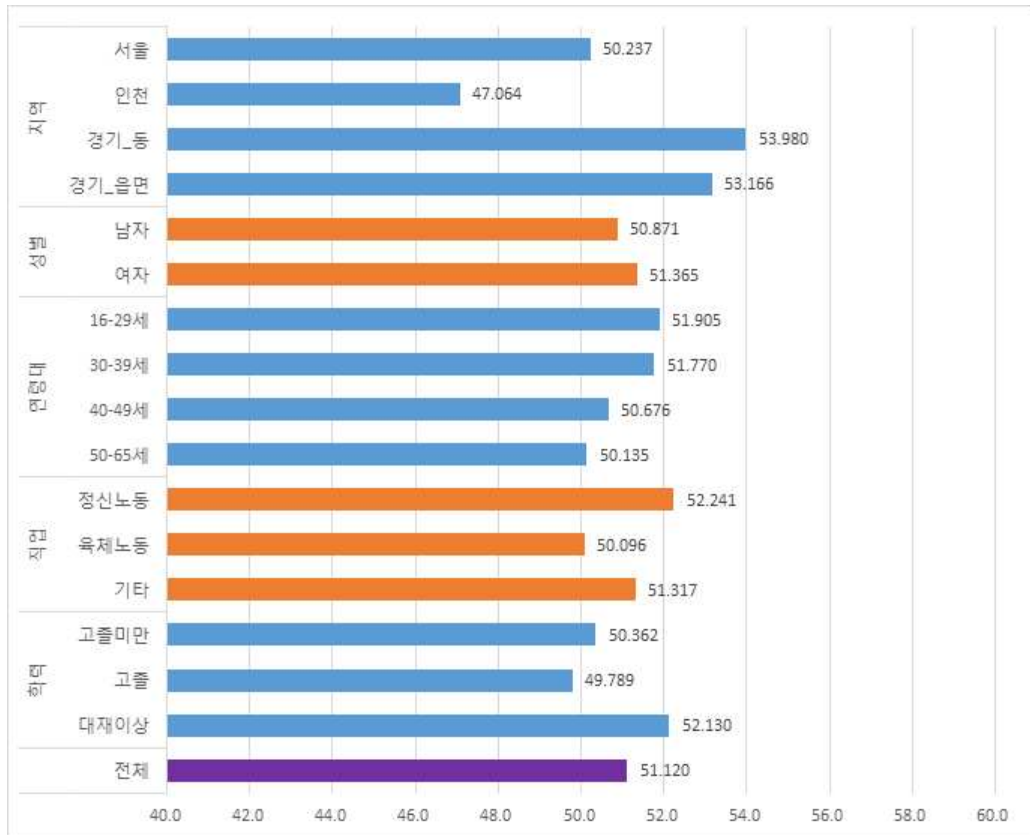
쓰기 영역의 표현 하위 영역 척도 점수를 배경변인별로 평균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서 ‘경기 읍면지역’이 50.77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서울 지역’이 49.107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평균 50.570점으로 ‘남자’의 평균 49.179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평균 54.4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떨어져 ‘50대’는 평균 46.270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49.634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48.885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115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8.079점으로 가장 낮았다.

⑤ 문법 영역

<표 IV-55> 1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61	50.237	7.981
	인천	60	47.064	8.979
	경기_동	61	53.980	7.396
	경기_읍면	60	53.166	4.142
성별	남자	120	50.871	8.007
	여자	122	51.365	7.613
연령대	16-29세	60	51.905	7.575
	30-39세	61	51.770	8.110
	40-49세	60	50.676	7.566
	50-65세	61	50.135	7.973
직업	정신노동	66	52.241	6.758
	육체노동	89	50.096	7.909
	기타	87	51.317	8.356
학력	고졸미만	35	50.362	8.106
	고졸	78	49.789	7.813
	대재이상	129	52.130	7.621
전체		242	51.120	7.799



[그림 IV-16] 1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문법 영역 척도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 경기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각각 53.980점, 53.166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인천지역’은 47.064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가 51.90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2.241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50.096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2.130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9.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V. 2차 예비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1. 2차 예비조사 도구의 시행

1) 2차 예비조사 도구의 확정

2차 예비조사 도구의 확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 연구원들이 모여 1차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2차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선정 및 수정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구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 : 10월 11일(수요일)

□ 참석자

<표 V-1> 2차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협의회

영역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듣기	김승현 연구위원(평가원)	민병곤 교수 (서울대)	김동섭
말하기	박재현 교수(상명대)		허모아
읽기	김혜정 교수(경북대)		김민재
쓰기	김종철 교수(서울대)		장지혜
문법	정희창 교수(성균관대)		신유진
통계	박현정 교수(서울대)		박민호
총괄	서보영 연구원(서울대)		차경미

이후 각 영역을 담당하는 공동 연구원들이 수정한 영역별 문항을, 모든 공동 연구원들이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6배수 문항을 선정하였다.

(1) 영역별 삭제 및 수정 문항의 선정 기준

① 듣기 영역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1차 예비조사의 듣기 영역 문항은 신규로 개발된 18개의 문항과 2013년도에 개발된 가교문항 2개가 활용되었다. 문항 1번과 문항 2번은 가교문항의 세트 구성되었으며, 3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은 동종 문항으로 두 문항씩 짝을 지어 개발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평가 영역 중 ‘중영역’의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영역에 대한 피조사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듣기 문항의 양호도는 1차 예비조사의 듣기 영역 20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별도와 곤란도를 측정하여 판단하였다. 연구진은 앞서 제시한 1차 예비조

사의 듣기 영역 문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2차 예비조사에 사용될 문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문항모수추정치를 통해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한다.

둘째, 문항반응곡선을 통해 분석 기준별로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한다.

셋째,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문항의 특성 및 평가 영역, 통계 수치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의 1.6배수인 16문항을 선별한다.

듣기 문항의 분석 결과 대체로 모든 문항들의 변별도와 곤란도가 적절한 수치로 측정되었고, 문항 반응곡선 역시 대부분의 문항이 평균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문항에서는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변별도와 곤란도 분석 결과를 보였다. 듣기 5번, 10번, 14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항들은 듣기 능력을 거의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듣기 3번, 6번, 9번, 10번, 12번, 14번, 18번 문항의 경우 곤란도가 -3 이하, +3 이상의 범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선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전문가 협의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교문항인 듣기 1번과 2번 문항은 2차 예비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가교문항과 동종으로 개발되었던 듣기 15번과 16번 문항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문항모수추정치 결과 변별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듣기 5번과 14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듣기 10번의 경우 변별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문항의 답지 중 하나가 지나치게 매력도가 높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답지의 매력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 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곤란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정답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타난 경우, 답지의 표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좀 더 정밀한 듣기 능력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따라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친 문항은 듣기 3번, 6번, 9번, 10번, 11번, 17번, 19번이고, 이는 2차 예비조사에서도 사용할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② 말하기 영역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 문항은 신규로 개발된 5개의 문항과 2013년도에 개발된 가교문항 1개가 활용되었다. 문항 1번과 문항 2번, 문항 3번과 문항 4번, 문항 5번과 문항 6번(가교)은 동종 문항으로 두 문항씩 짝을 지어 개발되었으며, 각각 요청하는 말하기, 설명하는 말하기, 주장하는 말하기에 대한 피조사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말하기 문항의 양호도는 채점 기준의 하위 영역인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표현’, ‘전달’이라는 네 가지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진은 앞서 제시한 1차 예비조사의 말하기 영역 문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2차 예비조사에 사용될 문항을 선제하였다.

첫째, 문항모수추정치를 통해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한다.

둘째, 문항반응곡선을 통해 분석 기준별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한다.

셋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문항의 특성 및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의 1.6

배수인 5문항을 선제한다.

말하기 문항의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변별도는 0.6 이상으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곤란도 또한 -2 이상 +2 미만의 범위 이내로 모든 문항에서 적절하게 나타났다. 말하기 영역에서 신규로 개발된 문항 5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문항의 선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전문가 협의회 결과 2차 예비조사에서는 가교문항의 동종으로 개발된 문항 5번을 제외하고,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및 가교문항 6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문항 전반의 평가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가교문항 6번과 평가 요소가 동종인 문항 5번이 삭제의 우선순위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예비조사에서는 요청하는 말하기, 설명하는 말하기, 주장하는 말하기에 대한 피조사자의 능력을 두루 측정할 수 있었다.

③ 읽기 영역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1차 예비조사의 읽기 영역 문항은 신규로 개발된 36개의 문항과 2013년도에 개발된 가교문항 4개가 활용되었다. 문항들은 기존의 2013년의 읽기 영역 중 중영역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에 각각 대응하는 중영역인 ‘정보 확인’, ‘추론’, ‘평가’의 중영역을 설정하고, 추가 중영역으로 ‘재구성’ 영역을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과 사회문화적 의미 재구성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2배수에서 문항이 선별되어 1.2배수만 남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한 하위 영역의 문제들이 모두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항 수를 적절히 분배하고자 하였다.

수정 및 삭제 문항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변별도와 곤란도를 기준으로 하여 변별도와 곤란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한다. 둘째, 문항반응곡선을 통해 분석 기준별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한다. 이때 전반적인 표본을 변별하는 문항, 상위권 안에서 변별하는 문항, 그리고 하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은 문항들을 남겨두고, 정보량이 적은 문항들을 삭제한다. 셋째, 문항에서 사용된 텍스트의 유형 및 장르, 문항의 평가 요소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삭제할 문항과 수정할 문항을 변별한다.

④ 쓰기 영역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1차 예비조사의 쓰기 문항은 신규로 개발된 5개의 문항과 2013년도에 개발된 가교문항 1개가 활용되었다. 문항 1번(W-1)은 가교문항으로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이며, 가교문항의 활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동종 문항을 개발하지 않았다. 문항 2번(W-2), 문항 3번(W-3)과 문항 4번(W-4)은 설득하는 글쓰기 문항으로 동종 문항이며, 문항 5번(W-5)과 문항 6번(W-6)은 친교적 글쓰기 문항으로 동종 문항이다.

동종 문항 중 피조사자의 문항 반응 결과를 고려하여 양호도가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선제하고자 하였다. 문항 반응 결과는 문항모수추정치와, 문항반응곡선 등 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피조사자 답안을 질적으로 검토하여 양호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쓰기 문항의 양호도는 채점 기준의 하위 영역인 ‘내용’, ‘조직’, ‘표현’이라는 세 가지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진은 앞서 제시한 1차 예비조사의 쓰기 영역 문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문항의 특성 및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의 1.6배수인 5문항을 선

제하였다.

쓰기 문항의 분석 결과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는 변별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곤란도에 있어 표현 영역에서는 적절한 곤란도를 내용과 조직 영역에서는 다소 높은 곤란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에 적절한 곤란도를 보였던 동일한 가교문항이라는 점에서 문항의 곤란도를 조정하기보다는 채점 시 채점 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득하는 글쓰기는 모든 문항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높은 변별도를 보였으나, W-2의 경우 적절한 곤란도를, W-3의 경우 조직과 표현 영역에서 적절한 곤란도를, 내용 영역에서 다소 높은 곤란도를 보였으며, W-4의 경우 세 개 영역에서 모두 높은 곤란도를 보였다. 그중 W-4의 경우, 답지 분석 결과 해당 문항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제재에 대한 배경지식에 의존하여 답변을 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쓰기 능력을 파악하기에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문항으로 파악되었다.

친교적 글쓰기는 W-5, W-6 모두 표현 영역에서는 변별도가 있으나 내용과 조직 영역에서는 낮은 변별도를 보였으며 곤란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협의 결과, 쓰기 능력을 다층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 쉬운 문항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문항을 삭제하거나 설계를 재구성하기보다는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전 영역에서 변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채점 기준을 수정하고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문항의 곤란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문법 영역

1차 예비조사 결과, 문법 영역은 전체 문항의 30%에 해당하는 문항만 0.6 이상의 변별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문항이 곤란도 -2 이상 +2 미만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반응곡선(ICC) 상으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잘 변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면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을 선별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변별도가 지나치게 낮은 15번 문항(규범-띄어쓰기)과, 변별도와 곤란도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19번 문항(문장-호응 관계)을 삭제하였다. 이때 ‘규범’ 영역의 평가 문항은 변별도 및 난이도와 무관하게 문항별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별도와 난이도에 큰 문제가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온 16번 문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3문항(3번, 4번, 15번)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장’ 영역에서는 ‘호응 관계’를 묻는 7번과 17번 문항을 각각 내용 측면의 제약(‘조사의 쓰임’이라는 한정된 내용에 국한됨),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 선제 과정을 통하여 2차 예비조사에서는 ‘규범’ 영역의 문항을 축소하고, 실제 생활 맥락에서의 ‘어휘’ 및 ‘문장’ 능력을 묻는 문항을 대폭 늘려, 보다 실제적인 국민의 문법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였다.

특히 어휘 및 문장의 실제 맥락에서의 의미를 묻는 문항을 각 1문항씩 추가 개발하여, 가교 2문항을 제외한 수정 10문항, 유지 2문항, 추가 2문항의 총 14문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본 조사에 사용될 문항의 1.6배수인 16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2) 개별 문항별 수정 및 삭제 내용

① 듣기 영역

상술한 대로 듣기 영역 문항은 3번, 6번, 9번, 10번, 11번, 17번, 19번의 답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표 V-2>와 같다.

<표 V-2>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듣기 문항의 수정 사항 및 이유

문항 번호	중영역	하위 영역	수정 이유
L-3	사실적 듣기	지시의 이행 능력	① ‘들을 수는 없겠군’ → ① ‘듣기는 어렵겠군’으로 수정. ‘없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서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L-6	추론적 듣기	내용의 추리	③ SNS 사용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을 온라인 홍보를 선호한다. → ③ SNS 사용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홍보를 선호한다. ④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 ④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홍보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④번 오답지의 매력도가 너무 높아서 일부 응답자 층에서 정답지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매력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답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L-9	비판적 듣기	내용의 평가	③ 유전자 변형 작물이 현재 식량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가요? → ③ 유전자 변형 작물의 품종 다양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③번 오답지의 매력도가 너무 높아, 정답지인 ④번보다 훨씬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L-10	비판적 듣기	내용의 평가	②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만 나이 사용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②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②번 오답지의 매력도가 높아서 일부 응답자 층에서 정답지보다 반응률이 높게 나타난 문항이다. 변별도가 낮고 곤란도가 높은 문항이므로 답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L-11	사실적 듣기	세부 정보의 확인	오답지 ①의 반응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1. 설득할 때 저지르기 쉬운 잘못' 항목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의 항목과 구분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표현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였다.
L-17	추론적 듣기	내용의 추리	④ 성인이 올해 7월에 스케일링을 받는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 ④ 성인이 올해 7월 스케일링을 받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 답지의 길이가 다른 답지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L-19	비판적 듣기	형식의 평가	(물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물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발문의 오타 수정) ① 직원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 ① 직원은 자신의 판매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 보다 명확해지도록 표현 추가. ③ 손님은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③ 손님은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④ 손님은 제품 구매 결정을 유보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손님은 직원의 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제품 구매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 정답지 ②번에 대한 반응률이 25%에 불과한 문항으로 네 답지들에 대한 반응률이 골고루 나타났다. ①번에는 일부 표현을 추가하였고, ③번과 ④번은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문장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②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 문항은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2차 예비조사에서는 문항 5번만을 삭제하고 나머지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및 가교문항 6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읽기 영역

1차 조사에서는 총 8문항이 삭제되었다. 그 기준은 변별도와 곤란도를 1차적 기준으로 하되, 텍스트 유형, 평가 요소 및 제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조정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5, 8, 19, 23, 27, 29, 31, 32번 문항이었다. 삭제 문항과 그 이유는 <표 V-3>과 같다.

<표 V-3>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읽기 문항의 삭제 및 이유

문항 번호	중영역	하위 영역	삭제 이유
R-5	정보 확인	내용 간 관계 파악	변별도가 0.125, 곤란도가 3.492로 변별력이 없고 매우 어려운 문항으로 분석되어 삭제하였다.
R-8	추론	필자의 의도 파악	변별도가 1.212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나, 곤란도가 -2.009로 매우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항반응곡선 상에서도 하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만 변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고’ 제재가 다른 문항에도 사용되었음을 감안하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R-19	평가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변별도가 0.236, 곤란도가 -4.434로 변별력이 없고 매우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어 삭제하였다.
R-23	평가	내용 타당성 판단	변별도가 0.149, 곤란도가 1.659로 변별력이 없고 매우 어려운 문항으로 분석되어 삭제하였다.
R-27	평가	주장의 타당성 판단	변별도가 0.251, 곤란도가 -2.107로 변별력이 없고 매우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어 삭제하였다.
R-29	평가	내용 타당성 판단	변별도가 0.256으로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답보다 특정 오답의 응답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 요소의 배분을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R-31	정보 확인	중심 내용[대의] 파악	변별도 1.187, 곤란도 -1.726으로 다소 쉬우나 변별력이 좋은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항반응곡선 상으로 보면 상위 수준의 피조사자들을 거의 변별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답률이 91.1%로 지나치게 높게 확인되었다. 이에 유사한 제재 및 평가 요소의 배분을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R-32	정보 확인	논지 전개 방식 파악	변별도 0.497, 곤란도 -1.741로 변별도와 곤란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나, 삭제된 R-31번 문항과 연계된 세트 문항이므로 함께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총 26개의 문항을 수정하였는데, 변별도와 곤란도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 문제가 되는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전체 선지의 응답률을 고르게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 및 삽화를 수정하였다. 발문, 지문, 선지 등 세부 내용을 수정한 문항은 7, 10, 26, 40의 총 4문항이었으며, 표 및 삽화를 수정한 문항은 11, 20, 37, 38의 4문항이었다. 또한 단순 발문을 수정한 문항은 2, 3, 4, 6, 9, 12, 13, 14, 16, 21, 22, 24, 25, 30, 33, 34, 35, 39의 18문항이었다. 수정 문항의 세부적인 수정 사항 및 이유는 <표 V-4>와 같다.

<표 V-4>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읽기 문항의 수정 사항 및 이유

문항 번호	중영역	하위 영역	수정 이유
R-2	정보 확인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이 기사’를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R-3	재구성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이 기사’를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R-4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다음의’를 ‘다음’으로 수정하였다.
R-6	재구성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이 글’을 ‘위 글’로 수정하였다.
R-7	평가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실험’을 ‘위 글의 실험’으로 수정하였다. [답지] 한편 이 문항은 변별도가 0.214로 낮게 나왔는데, 기존의 답지 ④에 대한 피조사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답지의 순서를 역순으로 조정하고,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R-9	추론	함축적 의미 파악	[발문] 문두의 ‘다른’에 밑줄이 누락되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지문] (A)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R-10	정보 확인	내용 간 관계 파악	[지문] (A)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발문] 지문의 변화에 맞게 발문을 수정하였다. [답지] 변인별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정답(①)과 오답(④) 간 반응 역전 현상이 확인되어 정답 ①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R-11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발문] 발문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지문] 시간표의 형식을 일부 수정하였다.
R-12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발문] 명확한 표현을 위해 문두의 ‘다음 카메라 설명서’를 ‘다음 사용 설명서’로 수정하였으며, 문항 발문의 ‘위 글’을 ‘위 설명서’로 수정하였다.
R-13	정보 확인	중심 내용[대의]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설명서’를 ‘위 설명서’로 수정하였다.
R-14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R-16	평가	표현의 적절성 판단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다음의’를 ‘다음’으로 수정하였다.

R-20	정보 확인	중심 내용[대의]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를 수정하였다. [지문] ‘제목’을 부각하기 위해 삽화를 일부 수정하였다. [답지] 한편 위 문항은 변별도가 0.298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정답과 특정 오답의 응답률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선지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였다.
R-21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가정 통신 문’을 ‘위 가정 통신문’으로 수정하였다.
R-22	재구성	반응 또는 의미 재구성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글’을 ‘위 가정 통신문’으로 수정하였다.
R-24	추론	필자의 의도 파악	[발문] 표현의 명료성을 위해 문두의 ‘다음 글’을 ‘다음 전자 우편’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항 문두의 ‘전자우편’을 ‘위 전자 우편’으로 수정하였다.
R-25	추론	생략된 정보 재구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전자우편’을 ‘위 전자 우편’으로 수정하였다.
R-26	정보 확인	중심생각 파악	[발문] 기존의 세트 문항에서 한 문항을 삭제함에 따라 문두를 수정하였으며, [지문] 단일 문항이 되었으므로 지문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삭제하였다. (2문제에서 1문제가 됨)
R-30	추론	필자의 의도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공익광고’를 ‘공익 광고’로 수정하였다.
R-33	정보 확인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기사’를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R-34	재구성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글’을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R-35	추론	생략된 정보 재구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다음의’를 ‘다음’으로 수정하였다.
R-37	표현	적절성 판단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 및 표현의 명료성을 위해 문두를 수정하였다. [지문] 한편 위 문항은 곤란도가 -2.751로 매우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체 선지의 근거를 삽화에서 보다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삽화를 새로이 수정하였다.
R-38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지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R-39	정보 확인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사설’을 ‘위 사설’로 수정하였다.
R-40	평가	내용[주장, 논거, 자료] 타당성 판단	[발문]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글’을 ‘위 사설’로 수정하였다. [답지] 또한 위 문항은 정답률이 58.0%로 다소 낮게 분석되었는데, 이를 보정하고 전체적인 선지의 응답률을 고르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문 내용에서 보다 명확히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 선지의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④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의 경우 2차 예비조사에서는 문항 4번(W-4)을 삭제하고 가교문항인 W-1, 변별도가 매우 높았던 W-2, W-3 문항은 별도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W-5의 경우 1차 예비조사 결과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답안에 중복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본문에 제시한 ‘감사합니다’를 삭제하였으며, ‘조건’으로 ‘본문에 기술된 문장은 3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W-6의 경우, 앞선 W-5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제시한 ‘감사합니다’를 삭제하였으며, ‘조건’으로 ‘본문에 기술된 문장은 3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전문가 협의회 결과 쓰기 상황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신자 호칭을 수정하였다.

⑤ 문법 영역

문법 영역은 전체 문항의 70%가 0.6 이하의 낮은 변별도를 보여, 전반적인 문항 수정을 통해 개별 문항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특히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게 분석된 문항이 많아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이에 가교문항 및 삭제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에 대해 평가 요소 및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발문, 보기 내용, 선지 내용 등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G-10 문항은 변별도 1.620, 곤란도 -0.571로 변별력은 높으나 난이도가 쉬운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G-14 문항은 변별도 0.393, 곤란도 -1.125로 변별력이 낮으며 난이도가 쉬운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나, 두 문항 모두 문항반응곡선의 분포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별 수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V-5>와 같다.

<표 V-5>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법 문항의 수정 사항 및 이유

문항 번호	수정 사항	수정 이유
G-5	보기, 선지	[보기] 언어 현실에 가깝도록 실제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토대로 전반적인 표현을 수정하였다. [선지]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기’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체 선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G-6	발문, 선지	[발문]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다음 표지판’을 ‘다음 공사장 표지판’으로 수정하였다. [선지] 선지 간의 균형을 맞추되 삽화에 제시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 선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G-8	발문, 보기, 선지	[발문] 부정 발문을 긍정 발문으로 수정하였다. [보기] 기존에는 학교와 관련된 한 문장만을 제시하였으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두 문장으로 제시하여 문항의 상황과 난이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선지] 보기의 상황에 적절한 어휘들을 새로이 선정하여 선지로 구성하였다.

G-9	보기	[보기] 문항의 난이도 조절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혼란스러운 표현들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G-11	발문, 선지	[발문] 문항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밑줄 친 부분의’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선지] 문항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의 내용을 보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G-12	발문, 선지	[발문] 문항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보기의 ㉠, ㉡을 활용하여 발문을 수정하였다. [선지] 문항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문제가 되는 일부 선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G-13	보기, 선지	[보기] 보다 전형성이 높은 관용 표현으로 교체하고, 그에 맞게 대화쌍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선지] 새로 교체된 관용 표현에 맞추어 적합한 어휘들을 선정하여 선지를 구성하였다.
G-16	발문, 삽화, 선지	[발문] ‘적절하지 않은’에서 ‘않은’ 부분에 밑줄을 추가하여 문항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삽화] 문항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선지] 선지 간의 균형과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선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G-18	보기	[보기] 문항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기에서 제시된 표현을 수정하였다.
G-20	선지	[선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문항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어휘를 새로이 선정하고, 전체 선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2) 2차 예비조사의 설계

(1) 모집단 및 표본 수

2차 예비조사의 모집단은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6세~65세의 남녀로 정의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개인 차원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사 기본 단위(elementary unit :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장 최소의 요소)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2차 예비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조사 목적과 조사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총 760명으로 결정하였다.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 수 역시 목표 표본 수와 동일하다. 760명 표본의 오차한계는 단순 확률 표본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pm 3.6\%$ 로 계산된다.

(2) 평가 영역별 표본 수 배분

2차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의 1.5배수 분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모든 응답자에게 전체 문항을 조사한다면 응답자의 피로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각 영역별로 표본을 나눠서 조사했으며, 영역별 표본 수는 평가지 유형 개수나 응답 예상 시간 등에 따라 차등을 뒀다. 평가지가 1종으로 구성된 문법·듣기 영역은 160명의 표본, 3종으로 구성된 읽기 영역은 400명, 4종으로 구성된 말하기·쓰기 영역은 200명의 표본이 배분됐다.

<표 V-6> 2차 예비조사 평가 영역별 표본 수

영역	평가지 유형	목표 표본 수(명)	조사 완료 표본 수(명)
문법·듣기	A	160	160
읽기	A	133	133
	B	133	133
	C	134	134
말하기·쓰기	A	50	50
	B	50	50
	C	50	50
	D	50	50
총계		760	760

(3) 모집단 층화화 표본 수 배분

2차 조사의 표본설계는 1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채택했다.

층화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은 그룹들, 즉 층(strata)들로 나누고 각 층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다. 표본의 크기가 같은 경우, 층화 추출은 단순 확률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보다 추정오차의 한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층 내의 관측값들이 동질적인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모집단 조사 단위들을 서로 편리한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조사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모집단 내의 하위 그룹들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모집단을 서울, 인천, 경기도 읍면지역, 경기도 동지역이라는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층화추출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된 각 층별로 몇 명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였다. 이번 예비조사는 모집단 전체의 국어능력을 추정하려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표본을 추출해 국어능력 평가조사의 평가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감안해 각 층별로 최대한 같은 크기의 표본 수를 배분하고자 했다.

<표 V-7> 2차 예비조사 층별 표본 수

층 구분	목표 표본 수(명)	조사완료 표본 수(명)
서울특별시	190	190
인천광역시	190	190
경기_동	190	190
경기_읍면	190	190
총계	760	760

(4) 집락(읍·면·동) 추출과 응답자 추출

각 층별 표본 수를 결정한 후에는 각 층을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에는 2단계 집락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개념에서의 집락(cluster)은 서로 인접해 있는 개별 조사 단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락추출은 먼저 조사를 진행할 집락을 선정한 후에 그 집락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집락에 속한 기본 단위를 전수 조사한다면 1단계 집락추출이 되지만, 일부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조사한다면 2단계 집락추출이 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을 집락으로 간주하고, 2단계 집락추출을 진행하였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각 층에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읍·면·동을 먼저 추출한 후에, 그 지역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할 개인을 추출한 것이다.

각 층 내에서는 크기비례확률추출(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통해 읍·면·동을 선정하였다. 크기비례확률추출은 규모가 큰 집락일수록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비례해서 높아지게 된다. 특히 집락들의 규모가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대규모 집락이 전체 모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각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여 뽑는 방법인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크기비례확률추출을 통해 집락을 추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집락에서 동일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각 표본별로 추출 확률이 같아지는 자체가중표본(self-weighting sample)을 얻을 수 있다. 자체가중표본을 활용하면 결과 분석 과정에서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각 층별로는 추가적인 가중치 보정 없는 단순 평균값으로도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하나의 집락에서 조사되는 표본 수를 10명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목표 표본 수 760명을 조사하기 위한 집락 수는 총 76개로 설계했으며, 각 층별 집락 수는 19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76개의 집락을 대상으로 다시 계통추출을 진행해, 각 영역(문법·듣기, 읽기, 말하기·쓰기)을 조사할 집락을 선정했다. 그리고 각 영역 내 평가지 유형(A, B, C...)은 무작위로 순환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한 집락과 평가 영역, 표본 수는 <표 V-8>과 같다.

<표 V-8> 2차 예비조사 집락 추출 결과

총 구분	집락(읍면동)	평가영역	목표 표본 수	조사완료 표본 수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제2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제2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제1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제1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1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3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제3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3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제5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문법/듣기	10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말하기/쓰기	10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읽기	10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제1동	문법/듣기	10	10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문법/듣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말하기/쓰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읽기	10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	문법/듣기	10	10
경기 동지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읽기	10	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읽기	10	1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읽기	10	10
	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읽기	10	10

	경기도 평택시 중앙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읽기	10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읽기	10	10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읽기	10	10
	경기도 오산시 초평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군포시 군포2동	읽기	10	10
	경기도 하남시 미사2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읽기	10	10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동탄1동	읽기	10	10
	경기도 여주시 중앙동	말하기/쓰기	10	10
경기 읍면지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읽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읽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읽기	10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읽기	10	10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읽기	10	1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읽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읽기	10	1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읽기	10	1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말하기/쓰기	10	1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읽기	10	1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문법/듣기	10	1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읽기	10	1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문법/듣기	10	10
	합계		760	760

(5) 조사 대상자(개인) 추출 방법

추출된 집락(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개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할당추출법을 사용했다. 할당추출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하부 집단(예를 들어 성별이나 연령대)의 구성비에 맞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며, 사전 할당한 조건에 맞는 응답자를 찾아서 표집하는 방법이다. 비확률추출법이기는 하지만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확률추출을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모집단의 주요한 특성과 유사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2차 예비조사에서는 개인의 국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성별과 연령대, 직업군, 학력을 기준으로 한 할당추출을 진행하였다. 성별과 연령 변인은 집단별로 균등하게 할당했으며, 직업과 학력 변인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했다. 이미 모집단을 층화하는 단계에서 지역 변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2차 예비조사 표본 추출 시 고려한 변인은 ‘지역, 성

별, 연령, 학력, 직업'의 5개로 구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지역 배분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변인 내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변인

성별 변인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② 연령 변인

연령 변인은 최소점은 만16세로 설정하고 최대점은 만65세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만16세~65세의 각 세별로 표본을 할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대 이하(만 16-29세), 30대(만 30-39세), 40대(만 40-49세), 50대 이상(만 50-65세)의 4개 구간으로 연령을 묶고 각 구간별로 표본을 할당했다.

③ 학력 변인

학력 변인은 '①무학, ②초등(국민)학교 졸업, ③중학교 중퇴, ④중학교 졸업, ⑤고등학교 중퇴, ⑥고등학교 재학, ⑦고등학교 졸업, ⑧대학교 재학, ⑨대학교 졸업, ⑩대학원 재학, ⑪대학원 졸업'의 11가지 항목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11가지 학력 수준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졸 이하(①~⑥), 고등학교 졸업(⑦), 대재 이상(⑧~⑪)'의 세 요소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④ 직업 변인

직업변인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KSCO)를 참고하여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표본 할당을 위한 직업군은 '정신노동(white collar)', '육체노동(blue collar)', 학생, 주부, 무직자를 포함한 '기타'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때, 각 직업군에 속하는 세부 직업들은 <표 V-9>와 같다.

<표 V-9> 2차 예비조사 직업 변인 구분

직업군	세부 직업
정신노동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
육체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등
기타	주부, 학생, 무직 등

(6) 표본 구성

집락 추출 및 조사 영역 배분, 응답자 추출 과정을 통해 표집된 표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읽기와 말하기·쓰기 평가 영역 내에서 설문지 유형은 무작위로 순환해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유형

별 응답자 특성도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10> 2차 예비조사 문법·듣기 영역 표본 구성

(단위: 명)		영역 전체
전 체		160
지역별	서울	40
	인천	40
	경기 동지역	40
	경기 읍면지역	40
성별	남자	80
	여자	80
연령별	16~29세	40
	30대	40
	40대	40
	50~65세	40
직업별	정신노동	41
	육체노동	58
	기타	61
학력별	중졸이하	23
	고졸	53
	대재 이상	84

<표 V-11>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표본 구성

(단위: 명)		영역 전체	평가지 유형별		
			A 세트	B 세트	C 세트
전 체		400	133	133	134
지역별	서울	100	33	33	34
	인천	100	33	34	33
	경기 동지역	100	34	33	33
	경기 읍면지역	100	33	33	34
성별	남자	200	57	69	74
	여자	200	76	64	60
연령별	16~29세	100	30	36	34
	30대	100	27	37	36
	40대	100	39	33	28
	50~65세	100	37	27	36
직업별	정신노동	110	40	35	35
	육체노동	144	51	47	46
	기타	146	42	51	53
학력별	중졸이하	55	14	19	22
	고졸	133	44	46	43
	대재 이상	212	75	68	69

<표 V-12> 2차 예비조사 말하기·쓰기 영역 표본 구성

(단위: 명)		영역 전체	평가지 유형별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전 체		200	50	50	50	50
지역별	서울	50	12	13	13	12
	인천	50	13	12	12	13
	경기 동지역	50	12	13	13	12
	경기 읍면지역	50	13	12	12	13
성별	남자	100	25	26	29	20
	여자	100	25	24	21	30
연령별	16~29세	50	11	13	11	15
	30대	50	14	16	12	8
	40대	50	18	12	13	7
	50~65세	50	7	9	14	20
직업별	정신노동	54	18	14	14	8
	육체노동	74	19	17	19	19
	기타	72	13	19	17	23
학력별	중졸이하	31	9	5	6	11
	고졸	68	13	19	20	16
	대재 이상	101	28	26	24	23

3) 2차 예비조사를 위한 검사지 구성

(1) 영역별 검사지 구성

①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표 V-1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 세트

검사지 (Booklet)	구획					문항 수
	말하기 구획1 2문항 (신규2)	말하기 구획2 2문항 (신규2)	쓰기 구획1 2문항 (신규2)	쓰기 구획2 2문항 (신규2)	말하기·쓰기 공동구획 2문항 (가교2)	
검사지1	포함	포함			포함	6
검사지2		포함	포함		포함	6
검사지3			포함	포함	포함	6
검사지4	포함			포함	포함	6
• 말하기 문항 : 총 5문항 (신규 4문항, 가교 1문항) • 쓰기 문항 : 총 5문항 (신규 5문항, 가교 1문항) • 검사 시간 : 약 25분~53분 (말하기 문항 당 3분(준비1분, 실행2분) / 쓰기 문항 당 10분) • 검사 인원 : 200명(검사지4종×50명)						

말하기, 쓰기의 경우 검사지는 4종(1,2,3,4)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5문항이다. 검사 시간은 말하기 문항의 경우 문항 당 3분, 쓰기의 경우 문항 당 10분이다. 검사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말하기 문항

과 쓰기 문항의 수에 따라 약25분에서 53분으로 검사지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검사 인원은 4종의 검사지 당 50명으로 전체 200명이다.

②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표 V-14>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검사지 세트

검사지 (Booklet)	구획				문항 수
	읽기구획1 9문항 (신규9)	읽기구획2 9문항 (신규9)	읽기구획3 10문항 (신규10)	공통구획 4문항 (가교4)	
검사지1	포함	포함		포함	22
검사지2		포함	포함	포함	23
검사지3	포함		포함	포함	23
- 문항 : 총 32문항 (신규 28문항, 가교 4문항) - 검사 시간 : 44분, 46분 (22문항×2분, 23문항×2분) - 검사 인원 : 400명 (검사지3종×133명, 134명)					

읽기의 경우 검사지는 3종(1,2,3)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22문항(검사지1) 혹은 23문항(검사지 2,3)이다. 검사 시간은 문항 당 2분으로 검사지 1은 44분, 검사지 2, 3은 46분이 소요된다. 검사 인원은 3종의 검사지 당 133 혹은 134명으로 전체 400명이다.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문항 및 검사 시간이 증가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피조사자의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표 V-15> 2차 예비조사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 세트

구분	하위 영역	문항 수
검사지 구성	문법 문항	총 16문항 (신규 14문항, 가교 2문항)
	듣기 문항	총 16문항 (신규 14문항, 가교 2문항)
시행 세부 사항	- 검사 시간: 총 40분 (문법 16문항×1분=16분, 듣기 16문항×1.5분=24분) - 검사 인원: 160 명	

문법, 듣기의 경우 검사지는 1종으로 문항 수는 검사지당 32문항으로 문법 16문항, 듣기 16문항으로 구성된다. 검사 시간은 문법 문항의 경우 문항 당 1분, 듣기 문항의 경우 문항 당 1.5분이 소요되어 문법 문항 전체 16분, 듣기 문항 전체 24분, 검사지당 40분 정도가 걸린다. 검사 인원은 전체 160명이다.

(2) 영역별 검사 문항의 실제

영역별 검사 문항은 최종적으로 선제된 조사 도구를 문항 카드 형태로 <부록>에 수록하였다.

2. 2차 예비조사의 진행

1) 조사 방법

본 조사는 1:1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태블릿 피시의 디지털 검사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디지털 검사지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Nfield CAPI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Nfield CAPI는 nipo software에서 만든 조사 솔루션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망의 접속이나 속도 문제로 인해 조사가 방해 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대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는 1차적으로 태블릿 피시에 저장되고, 나중에 인터넷 연결과 프로그램 동기화 과정을 통해 중앙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피시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될 위험이 있거나 응답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 방식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 한해 종이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사원이 응답 결과를 CAPI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2차 예비조사에서 종이 설문지를 사용한 표본 수는 96건으로 전체 완성 표본(948명)의 10%의 수준이다.

또한 말하기·쓰기 영역에서 쓰기 문항은 응답자가 직접 키보드를 사용해 타이핑을 하도록 했으나, 키보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응답자는 종이에 내용을 적은 후 조사원이 사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와 같은 ‘쓰기’ 영역을 종이 설문지에 응답한 케이스는 17건으로 말하기·쓰기 영역 응답자(203명)의 8% 수준이다.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시험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응답자에게 쓰기와 말하기 등을 요구하는 점 때문에 조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차 예비조사를 수행했던 조사원 중 33명을 선발해 2차 예비조사에 재투입하였다. 조사원 1인 당 진행 표본 수는 10~50명 내외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조사원 1인이 23명의 표본을 완성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2017년 11월 8일에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미 1차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들이기 때문에 1차 조사에 비해 시간을 단축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조사원 교육은 인쇄된 설문지를 이용해 1차와 달라진 문항 구조 등을 확인하고, CAPI 시스템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3) 2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표 V-16> 2차 예비조사 진행 일정

단계	일정
표본 설계 및 설문지 설계	~ 11월 2일
CAPI 시스템 구축	11월 2일 ~ 11월 7일
면접원 교육	11월 8일
CAPI 시스템 최종 점검 및 보완	11월 9일
현장 조사 진행	11월 10일 ~ 12월 1일
사후 검증	11월 20일 ~ 12월 1일
통계 처리	11월 28일 ~ 12월 5일
결과 보고	12월 5일

4) 조사 검증

각 면접원이 조사한 표본 중 30%에 해당하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검증을 진행했다. 전화 검증은 별도의 검증 요원이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 참여 여부, 주요 인구특성, 조사 소요 시간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일반적인 검증 절차와는 별도로 말하기 녹음 파일 전수를 다시 청취해 녹음 상태가 불량하거나 누락된 케이스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러한 사후 검증 과정에서 조사 품질을 의심할만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초 완성 표본 중 19건은 ‘말하기 녹음 상태 불량’, ‘전화번호 결번’, ‘연령 정보 상이’ 등이 발견되어, 해당 표본을 폐기하고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사례는 응답자가 개인 정보 노출을 꺼려 거짓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입력 과정 상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KANTAR의 검증 매뉴얼에 따라 해당 표본을 폐기했다.

5) 결과물 제출

‘문법’, ‘읽기’, ‘듣기’ 영역의 조사 결과는 SPSS 데이터와 엑셀(EXCEL) 데이터, 주요 인구학적 변인과의 교차분석 통계표 형태로 제출했다. ‘말하기’ 영역은 응답자의 말하기 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음성 파일(MP3)로 제출했으며, ‘쓰기’ 영역은 쓰기 내용이 입력된 엑셀(EXCEL) 데이터 형태로 제출했다.

3. 2차 예비조사 관련 특이 사항

1) 문법 영역 조사 도구 관련

10월 20(금)의 국립국어원 중간 보고회 결과 문법 영역의 경우 현재 개발된 문법 조사 도구에서 ‘규범’이 중시되고 있으며 단순히 언어 규범을 외우는 것보다는 메타 언어적으로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위해 문항의 제작을 제안 받았다. 문법 문항을

다시 만들면 1차 예비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문항을 최대한 수정하였다. 이에 문법 영역 전문가에게 1차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법 영역의 전체 구성 및 개별 문항을 수정하였다. 자문의 의뢰한 전문가는 <표 V-17>과 같다.

<표 V-17>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전문가

전문가	소속
남가영 교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신명선 교수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제민정 교수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 CAPI 활용 관련

2013년 조사와 달리 올해 1, 2차 예비조사에서는 CAPI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예비조사 진행 결과,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진행 과정에서는 CAPI 조사 방식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따라서 읽기 영역 지문의 글자 크기가 작게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PC 화면이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서는 종이 설문지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조사에서도 종이 설문지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쓰기’ 영역은 기존 종이 방식과 달리 응답자의 쓰기 결과가 곧바로 전산 입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쓰기 결과 취합과 채점 과정은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 글씨보다는 타이핑에 익숙한 세대에서는 오히려 키보드 입력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키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원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원고지를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기’ 영역도 하나의 CAPI 시스템 내에서 조사 진행과 녹음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응답자 ID와 녹음 파일을 매칭하는 과정이 더 정확하고 간편해진 장점이 있다. 녹음 과정 상 조작실수로 녹음 파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원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말하기 조사 과정을 동시 녹음하는 방식으로 응답 파일 유실에 대비했다.

다만 실사 관리자가 사후 검증 차원에서 말하기 음성 파일을 전수 재청취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응답자의 음성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 재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조사 종료 후 데이터 점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만일 본 조사가 3,000 표본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사후 데이터 점검 과정까지 고려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기존 종이설문지 방식에 비해 CAPI 시스템이 조사 진행이나 관리, 그리고 응답자 편의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된다. 물론 일부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1, 2차 조사에서 사용한 KANTAR의 솔루션인 Nfield 내에서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 조사에서는 국어능력 평가에 최적화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2차 예비조사의 결과

1) 2차 예비조사 결과의 채점

(1) 객관식 문항(듣기, 읽기, 문법)의 채점

2차 예비조사는 태블릿 피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응답자가 화면상에서 특정 보기를 터치하면, 응답 결과가 곧바로 CAPI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기존 조사처럼 별도의 전산 입력 과정을 거치거나, OMR 카드 사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없었다. 현장조사 종료 후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로부터 각 문항의 정답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계 처리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문항별 정답률을 계산했다.

(2)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의 채점

2차 예비조사에는 말하기 영역 5문항, 쓰기 영역 5문항의 주관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 200명의 피조사자 답안이 수합되었고, 이중 말하기와 쓰기 모두 600건의 응답 건수가 채점 대상이었다. 이를 채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채점단을 섭외하고, 채점 기준 정교화 협의를 시행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채점단을 구성함에 채점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1차 채점에서 신뢰도가 다소 낮은 채점단은 교체하고, 개별 문항에 대한 채점자들의 채점 요소별 채점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여 일정 비율의 답안을 함께 채점하도록 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관식 영역 채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다음과 같다. 말하기 영역의 전문가 집단은 말하기를 전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및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이었으며, 쓰기 영역의 전문가 집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및 경력5년 이상의 교사들이다. 이들은 각 영역의 담당 공동 연구원들의 진행과 조율에 따라 채점을 진행하였다.

<표 V-18> 2차 쓰기 주관식 답안 채점단 구성

영역	문항 번호 및 답안 수	채점단	담당 연구원
말하기 영역	1번 문항 100개 답안	권현숙, 박교연, 이슬, 임해랑, 장경미, 최석환	박재현(상명대 교수)
	2번 문항 100개 답안		
	3번 문항 100개 답안		
	4번 문항 100개 답안		
	5번 문항 삭제		
	6번 문항 200개 답안		
쓰기	W-1 200개 답안	정보미, 김태경, 김신원, 이병하, 이은석, 이지원	김종철(서울대 교수)
	W-2 100개 답안		
	W-3 100개 답안		
	W-4 삭제		
	W-5 100개 답안		
	W-6 100개 답안		

이러한 대규모 주관식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서는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말하기와 쓰기 영역 모두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명의 채점자들이 교차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채점설계 방식은 공통채점과 무선채점을 혼합한 설계 방식이다. 공통채점은 각 검사지별로 10%의 피조사자에 대해 말하기, 쓰기 모두 6인의 모든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도록 설계하였고, 공통채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사자는 가능한 채점자의 무선조합(random combination)을 만들어 반복 배분하여 해당 영역의 전문가 3인이 교차 채점하는 방식이었다.

①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의 2차 예비조사에는 신규로 개발된 문항 4개와 가교문항 1개가 포함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보한 말하기 영역의 응답 수는 총 200개이며, 이에 대한 주관식 채점을 진행하였다. 주관식 채점에서는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규모의 주관식 채점이므로 효율적인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1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문항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말하기 채점 시 채점자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난 채점자가 몇 나타났다. 앞선 기술에서와 같이, 채점자 8은 너무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채점자 1은 다소 엄격하게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자 효과는 채점의 엄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2차 예비조사에서는 채점자 효과 모수의 절댓값이 너무 큰 채점자를 제외하고, 채점자 효과가 0에 가까운 채점자를 선별하여 채점단을 구성하였다. 종합하여, 말하기 영역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총 6인의 채점단을 확보하여 문항 당 3인의 교차 채점을 진행한다. 채점단은 국어교육전공의 박사 과정 및 석사 과정의 국어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되, 1차 예비조사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채점자 효과가 큰 채점자를 제외함으로써 채점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둘째, 채점자 집단 사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점자 6인을 3인씩 무선 조합하여 교차 채점을 진행하며, 응답 수의 10%는 6인 공통 채점을 진행한다.

2차 예비조사에 채점단으로 선별된 채점자는 채점자2, 채점자 5, 채점자 9이며 모두 화법교육전공 박사 및 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채점의 신뢰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2차 예비조사에서는 새로운 채점자 3인을 채점단으로 편입하였다. 새로이 편입된 채점단은 화법 교육 전공의 박사 및 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현직 교사로 화법 교육 전문 인력이다. 다음의 <표 V-19>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의 채점을 담당한 채점단 정보이다.

<표 V-19> 2차 예비조사 채점자 정보

채점자	소속
채점자1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채점자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채점자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채점자4	상명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채점자5	상명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채점자6	상명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위와 같은 채점 방식을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관식 문항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는 1차 예비조사에서 실시한 주관식 문항 채점 방식과 동일하다.

첫째, 말하기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직접 녹음하여 문항별, 피조사자별로 파일을 구축하였다.

둘째, 각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시행한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결과와의 동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말하기 영역의 채점 기준은 2013년도의 채점 기준을 준용하여, 2018년도의 연구 목적에 따라 전문 인력의 협의 하에 일부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말하기 영역은 6개 문항 모두 ‘내용 선정, 조직, 표현, 전달’의 하위 채점 요소를 설정하고 5점 척도를 중심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셋째, 채점 기준의 세안에는 피조사자의 말하기 영역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단할 근거를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채점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말하기 영역의 6개 문항은 각각 50점 만점으로 채점하되 4개의 채점 요소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또한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1차 예비조사를 위한 말하기 영역의 문항은 2013년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말하기 영역 문항과의 동등화라는 목적 아래, 각각 문항 1과 문항 2, 문항 3과 문항 4, 문항 5와 문항 6이 동종으로 개발되었다. 동종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같은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하였다.

<표 V-20> 말하기 1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V-21> 말하기 1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요청’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설문 요원에게 문제에 대한 질문만 계속 던진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요청만 표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설득적으로 말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이 부족하여 본문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함께 ②가 나타나나 시작과 마무리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 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전문적 용어-구청담당자, 격식적 표현 등),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 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도 없고 어휘가 적절하게 구사되지도 않은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없거나 정중한 표현이 나타나지 못한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고 정중하게 표현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구청담당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감정적인 어조(예: 흥분, 분노 등)인 경우 추가로 감점.

<표 V-22>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V-23> 말하기 2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요청’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설문 요원에게 문제에 대한 질문만 계속 던진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요청만 표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④이유 및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설득적으로 말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이 부족하여 본론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함께 ②가 나타나 시작과 마무리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한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 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전문적 용어-구청담당자, 격식적 표현 등), 어휘의 의미

	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 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도 없고 어휘가 적절하게 구사되지도 않은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없거나 정중한 표현이 나타나지 못한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높임 표현이 드러나고 정중하게 표현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구청담당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감정적인 어조(예: 흥분, 분노 등)인 경우 추가로 감점.

<표 V-24> 말하기 3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V-25> 말하기 3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설명’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구체적 예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에 취해야 하는 대처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야 함.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경우(즉, 넘어져서 다쳤으면 일단 조심을 해야 하고, 집에 가서 밴드 붙이자.) 이는 질문에 요구하는 대답이 아님.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설명’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이나 몇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과 함께 한두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 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을 위배한 경우로,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일관된 흐름 없이 뒤죽박죽 말하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도입부까지 있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초등학생에게 맞는 쉽고 구체적인 어휘의 사용),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매우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이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려운 어휘나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름에 밖에 둔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요'와 같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에게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고,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며 어법에 맞게 말한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V-26> 말하기 4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V-27> 말하기 4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 '②설명'하는 말하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 미흡: ①과 ②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지만 내용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구체적 예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에 취해야 하는 대처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야 함. 그런데 이것이 아닐 경우(즉, 넘어져서 다쳤으면 일단 조심을 해야 하고, 집에 가서 밴드 붙이자.) 이는 질문에 요구하는 대답이 아님.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설명’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이나 몇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상황에 대한 설명, 행동의 이유 등)과 함께 한두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내용의 흐름(상황 파악, 선후관계 등)’과 ‘②시작과 마무리의 표현’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미흡: ①을 위배한 경우로,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일관된 흐름 없이 뒤죽박죽 말하는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며,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도입부까지 있는 경우. * 추가 감점 기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1점 감점함.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초등학생에게 맞는 쉽고 구체적인 어휘의 사용),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매우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이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려운 어휘나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름에 밖에 둔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와 같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초등학생에게 맞는 어휘나 표

	현을 사용하고,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며 어법에 맞게 말한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3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3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박 또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4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표 V-28> 말하기 5번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3	6	9	12	15	30%	60%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40%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표 V-29> 말하기 5번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선정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문제에 대한 이해’, ‘②찬반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 - 매우 미흡: ①과 ②의 내용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찬반입장 표현이 없거나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양비론적인 주장을 말하는 경우 또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매우 미흡에 해당. - 미흡: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지만 근거 없이 주장만 드러내는 경우 미

	흡에 해당 - 보통: ①과 ②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찬반입장 즉 주장과 근거가 하나씩이라도 드러나는 경우. 예를 들어 ‘저는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처럼 주장과 근거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만족하며 ③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문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하고, 근거를 추가적으로 부연하는 경우.
조직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주장과 근거의 관계’와 ‘②내용의 흐름(논리성)’ - 매우 미흡: 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 즉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미흡: ①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근거에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즉, 피조사자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정년 연장법이 실행되면,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국가도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와 같이 근거가 모호한 경우. - 보통: ①을 지켜 말한 경우,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가 제시되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최저 시급이 만원이 되면 고용주들이 고용을 그만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사람을 덜 뽑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와 같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우. - 우수: ①을 지켜 말하며, 근거가 설득적이고 타당한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지켜 말하며 근거가 설득적이고 타당하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우. 즉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표현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적절한 어휘 사용’, ‘②문법에 맞는 표현’ ①적절성: 상황에 맞는 어휘의 사용(토론의 상황, 공식적 자리), 어휘의 의미(법안, 전문적 용어 등)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경우 등 ②명확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간명하지 못한 표현 등 - 매우 미흡: ①과 ②가 모두 부족한 경우, 상황에 맞지 않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즉 공식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어법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말한 경우. 사적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 - 미흡: ①과 ②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표현법(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어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어체의 종결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흡으로 처리. - 보통: ①과 ②가 보통 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만 15세 대상을 상정한 수준으로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 -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며 ③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과 ②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③토론의 상황에 맞는 표현, 법안이나 그에 사용하며, 목적에 맞게 용어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며 사용하는 경우.
전달	이 항목의 기준은 ‘①시간 준수’와 ‘②반언어적 표현’ - 매우 미흡: ①시간이 10초 이하인 경우 - 미흡: ①시간이 10초에서 40초의 분량인 경우. ②말을 지나치게 더듬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한 분량이 보통 수준이더라도, 지나치게 느리게 말하거나 더듬어서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미흡에 해당. - 보통: ①시간이 40초에서 50초의 분량인 경우 ②적절한 수준으로 평범하게(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경우. - 우수: ①시간이 50초를 넘기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야기를 유창하게 지속하는 경우. - 매우 우수: ①시간이 1분 30초 이상이며, ②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 ‘음-,어-’ 등의 간투사나 휴지는 소요 시간에 반영하지 않음.

②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의 5개 문항은 영역별로 각각 친교적 글쓰기 40점(W-5, W-6),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 80점(W-1), 설득하는 글쓰기 130점(W-2, W-3)으로 차등하여 배점하고, 각 문항마다 ‘내용, 조직, 표현’의 채점 요소를 두어 채점을 진행하였다. 또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채점 하되 각 채점 요소별 배점을 기준으로 척도 점수에 해당하는 원 점수를 제공하였다. 앞선 1차 예비조사에서 친교적 글쓰기는 다소 높은 점수로의 편포를 보이고,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와 설득하는 글쓰기는 다소 낮은 점수로의 편포를 보인 것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채점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채점 기준안 회의를 실시하고 채점 기준안을 정교화 하여 채점의 타당도 및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 채점 기준은 <표 124>와 같다.

<표 V-30> 2차 예비조사 쓰기 W-1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3	6	10	13	16

<표 V-31> 2차 예비조사 쓰기 W-1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내용	－ 내용 항목에서 고려한 대상 : 탈의 구성 요소(전체－부분) * 전체 : 얼굴형, 머리모양, 색깔(피부 등), 표정(웃음), 인상, 성별 * 부분 : 눈(눈웃음), 코, 입, 눈썹, 볼(연지근지 관련x), 이마(연지근지 관련x), 연지근지																																																	
	<table border="1"> <tr> <th>전체 \ 부분</th> <th>0</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 이상</th> </tr> <tr> <th>0</th> <td>매우 미흡</td> <td>매우 미흡</td> <td>미흡</td> <td>보통</td> <td>보통</td> <td>우수</td> </tr> <tr> <th>1</th> <td>매우 미흡</td> <td>미흡</td> <td>미흡</td> <td>보통</td> <td>보통</td> <td>우수</td> </tr> <tr> <th>2</th> <td>미흡</td> <td>미흡</td> <td>보통</td> <td>우수</td> <td>우수</td> <td>매우 우수</td> </tr> <tr> <th>3</th> <td>보통</td> <td>보통</td> <td>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r> <tr> <th>4</th> <td>보통</td> <td>우수</td> <td>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r> <tr> <th>5 이상</th> <td>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d>매우 우수</td> </tr> </table>	전체 \ 부분	0	1	2	3	4	5 이상	0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우수	1	매우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우수	2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우수	매우 우수	3	보통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4	보통	우수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5 이상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전체 \ 부분	0	1	2	3	4	5 이상																																											
	0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우수																																											
	1	매우 미흡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우수																																											
	2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우수	매우 우수																																											
	3	보통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4	보통	우수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5 이상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묘사를 올바르게 하였는가. → 틀린 묘사의 경우 -1.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 설명/정보전달/묘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1.(ex.가면극 자체에 대한 설명)cf) 이 탈은 우리나라 전통 탈 중 하나이다. 주로 연극 등에 쓰인다. 우리나라 정통 탈인 하회탈이라고 불립니다.																																																		
※ 그림탈의 이름은 ‘부네탈’. 대부분 ‘부네탈’이 아닌 ‘각시탈’로 설명. 이는 감점하지 않음.																																																		
조직	－ 조직 항목에서 고려한 대상 : 전체－부분의 조화, 방향성, 담화 유형의 특성																																																	

	전체 + 부분 + 방향성 + α(수사적 인식[친절한 설명]/단락으로서 구조적 특성[중심+뒷받침 문장, 처음-중간-끝] 등)	매우우수
	전체 + 부분 + 방향성을 갖추	우수
	전체와 부분을 모두 다룸 (단,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보통
	ex) 동근 모양 + 눈과 연지곤지 하얗고 연지곤지가 있다. 웃는 인상이고 눈썹이 진하다.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모양을 방향성 없이 뒤섞어 이야기하는 경우)	
	전체 인상만 or 부분 요소만	미흡
	주제 이탈(아예 묘사가 안 들어간 경우[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도 포함)	매우미흡
	<유의 사항> * 설명의 방향성 : ①, ②가 동시에 나타나야 함. ① 전체적 방향성 : 전체→부분 or 부분→전체 ② 부분적 방향성 : 위→아래 or 아래→위 * 전체적 방향성과 통일성은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 것. ex) 전체에서 부분의 방향으로 설명하고, 다시 전체적 인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전체-부분-전체)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탈에 대한 묘사 후 느낌을 덧붙인 답변의 경우, 이를 정의적 묘사로 보고 감점하지 않음.	
표현	- 표현 항목에서 고려한 대상 : 문장의 호응, 맞춤법, 띄어쓰기	
	우수 + 띄어쓰기 훌륭함	매우우수
	주술 호응과 맞춤법이 틀린 곳이 없으나, 띄어쓰기는 1~2개 틀림	우수
	주술 호응은 맞으나 맞춤법이 1~2개 틀림 or 주술 호응과 맞춤법은 맞으나 띄어쓰기가 많이 틀림	보통
	주술 호응이 틀린 데가 있음 or 주술 호응이 맞으나, 맞춤법이 3개 이상 틀림	미흡
	한 문장을 제대로 종결하지 않음.	매우미흡
	* 한 단계 감점하는 경우 ① 문장 하나를 지나치게 길게 쓴 경우(열거하는 이어진 문장으로 연결한 경우) ② 답안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③ 문장마다 종결어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 V-32> 2차 예비조사 쓰기 W-2, W-3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단락 의식을 가지고 서론-본론-결론을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표 V-33> 2차 예비조사 쓰기 W-2, W-3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문항별 세부 채점 기준	
	W-2	W-3
내용	▣ 보통: 주장과 근거로 서술되어 있다. ▣ (+)요인(해당 요건이 있을 경우 각각 한 단계씩 상승) ▪ 근거가 둘 이상 서술되어 있다. (근거를 한 문장에 짧게 쓰고 유사한 경우는 근거 1개로 봄) ▪ 근거에 타당한 부연 설명이 있다. ▪ 적절한 반론이 있다. ▣ (-)요인(해당 요건이 있을 경우 각각 한 단계씩 하락) ▪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 근거로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어린 애들”, “세상 경험이 없는 애들”, 18세로 낮추자는 의미가 있어야 함.) ▪ 근거가 타당성 없다. ▪ 논점이 완전히 이탈했다. (매우 미흡)	2번 평가 기준과 동일함. 다만, (-) 요인 중에, “근거로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의 경우는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해당 없음.

조직	■ 보통: 세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도 문장 개수에 포함됨.) ■ (+)요인(해당 요건이 있을 경우 각각 한 단계씩 상승) ▪ 주장과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반대. ~(근거)~”의 서술은 안 됨.) (‘내용’ 평가와 별개임.) ▪ 네 문장 이상 서술되어 있다. (네 문장 이상인 것을 판단할 때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는 제외. 세 문장 이하인 경우는 문장 개수에 포함함.) ■ (-)요인(해당 요건이 있을 경우 각각 한 단계씩 하락) ▪ 두 문장이다. ▪ 한 문장이면 두 단계 하락한다.	2번 평가 기준과 동일함.
표현	■ 보통: (+) 또는 (-) 요인이 없다. ■ (+)요인(해당 요건이 있을 경우 각각 한 단계씩 상승) ▪ 세 문장 이상에서 적절한 어휘와 문장이 사용되었다. ▪ 수준 높은 어휘 또는 풍부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 (-)요인(해당 요건이 있을 경우 각각 한 단계씩 하락) ▪ 비문이나 부적절한 어휘사용이 심하다. ▪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문	2번 평가 기준과 동일함.

<표 V-34> 2차 예비조사 쓰기 W-5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본문 - 끝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표 V-35> 2차 예비조사 쓰기 W-6 문항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표 V-36> 2차 예비조사 쓰기 W-5, W-6 문항 세부 채점 기준

평가 항목	문항별 세부 채점 기준	
	W-5	W-6
내용	(+)요인 독자의 상황/입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ex) 바쁘신 와중에도 / 먼 걸음 마다하지 않으시고 (+)요인 기원/축복/미래 약속의 끝인사가 포함되었다 ex) 건강하세요 / 기원합니다 /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요인 독자의 기여 언급되었다. ex)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② (기준점) 감사의 인사가 포함되었다. (-)요인 통일성이 없거나 감사의 표현이 없다.	(+)요인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가 포함되었다. ex) 앞으로 우리 동호회를 위해서 ~을 하겠습니다. (+)요인 앞으로의 포부가 포함되었다. ex) 회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인 회원들에 대한 인사가 포함되었다. ex)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기준점) 감사의 인사가 포함되었다. (-)요인 통일성이 없거나 감사의 표현이 없다.
조직	(+)요인 (감사-본문-인사 등 3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이 자연스럽다 (+)요인 감사-본문-인사 등 3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2문장 ‘감사-인사’ 포함의 구성 3문장 또는 그 이상 ② 2문장 1문장 ‘감사-인사’ 포함의 구성 ① 1문장	(+)요인 (감사-본문-인사 등 3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이 자연스럽다 (+)요인 감사-본문-인사 등 3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2문장 ‘감사-포부’ 포함의 구성 3문장 또는 그 이상 ② 2문장 1문장 ‘감사-포부’ 포함의 구성 ① 1문장
표현	(+)요인 문장의 연결과 흐름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우며, 효과적인 관형어(절) 또는 부사어(절)가 사용되었다.(술술 읽힐 때 / 효과적인 표현 등) ex) 어머니의 단 한 번뿐인 칠순 잔치 (+)요인 띄어쓰기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눈에 띄는 심각한 띄어쓰기 오류가 없을 때) ③ (기준점) (-)요인 맥락에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었	(+)요인 문장의 연결과 흐름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우며, 효과적인 관형어(절) 또는 부사어(절)가 사용되었다.(술술 읽힐 때 / 효과적인 표현 등) (+)요인 띄어쓰기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눈에 띄는 심각한 띄어쓰기 오류가 없을 때) ③ (기준점) (-)요인 맥락에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었거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오기(오타)가 나

거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오기(오타)가 나타났다. ex) 칠순에 참석 (-)요인 문장 호응이 잘못되었다. ex) 먼길 기꺼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어머니께서도 무한 감사드린다고 전합니다.	타났다. ex) 안녕하세요. / '맞'게 되었습니다. (-)요인 문장 호응이 잘못되었다.
--	---

(3) 주관식 문항(말하기, 쓰기) 채점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

① 말하기 영역

<표 V-37> 2차 예비조사 말하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채점자	선정		조직		표현		전달	
	모수	SE	모수	SE	모수	SE	모수	SE
채점자1	.061	.067	-.038	.070	-.038	.070	.305	.049
채점자2	.493	.064	.523	.068	.523	.068	-.014	.045
채점자3	-.166	.066	-.275	.068	-.275	.068	.047	.047
채점자4	-.066	.065	.137	.068	.137	.068	.155	.048
채점자5	-.408	.066	-.260	.069	-.260	.069	-.224	.044
채점자6	.085	.066	-.087	.070	-.087	.070	-.269	.045

채점자 효과 모수는 채점자의 엄격성과 관련이 있다. 모수의 의미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채점자가 평균적인 엄격함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0을 기준으로 값이 작을수록 엄격한 채점자이고, 값이 클수록 관대한 채점자라고 볼 수 있다.

말하기 영역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 채점자2는 전달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매우 관대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채점자5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다소 엄격한 채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쓰기 영역

<표 V-38> 2차 예비조사 쓰기 하위 요소별 채점자 효과 분석

채점자	내용		조직		표현	
	모수	SE	모수	SE	모수	SE
채점자1	.024	.070	-.232	.065	.128	.074
채점자2	.002	.072	-.058	.067	.289	.075
채점자3	.135	.072	-.038	.067	-.029	.075
채점자4	-.121	.072	.064	.068	.184	.075
채점자5	-.067	.072	.218	.068	-.006	.075
채점자6	.027	.071	.046	.068	-.566	.074

쓰기 영역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 채점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점자6이 표현 하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2) 2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1) 검사 설계상의 특징

2차 예비조사에서는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로 20% 내외의 문항을 제거하여 문항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1차 예비조사에 비하여 검사지 설계가 비교적 단순화되었다. 먼저, 3개의 검사지로 구성하였던 문법, 듣기 영역 검사지는 하나의 공통 검사지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1차 예비조사에서 5개의 검사지로 구성되었던 읽기 영역은 3개의 검사지로 줄어들었고,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검사지 수는 4개로 유지되었지만 검사지당 문항 수가 감소하였다.

<표 V-39>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구성

검사지	문항구성				문항 수
	1~4번 (공통/가교)	5~13번	14~22번	23~32번	
읽기A	포함	포함	포함		22
읽기B	포함		포함	포함	23
읽기C	포함	포함		포함	23

<표 V-40>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쓰기 영역 검사지별 문항 구성

검사지	말하기 문항구성			쓰기 문항구성			문항 수
	1,3번	2,4번	5번 (공통/가교)	1번 (공통/가교)	2,5번	3,4번	
말하기/쓰기A	포함	포함	포함	포함			6(말5,쓰1)
말하기/쓰기B		포함	포함	포함	포함		6(말3,쓰3)
말하기/쓰기C			포함	포함	포함	포함	6(말1,쓰5)
말하기/쓰기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6(말3,쓰3)

검사의 설계상 영역별 원점수 총점은 검사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문항이 가지는 변별도나 곤란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각 영역별 문항 수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검사지로 시험을 치른 피조사자들의 원점수 총점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피조사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2) 영역별 점수 분포 분석

① 기술통계

<표 V-41> 2차 예비조사 영역별 점수 분포 기술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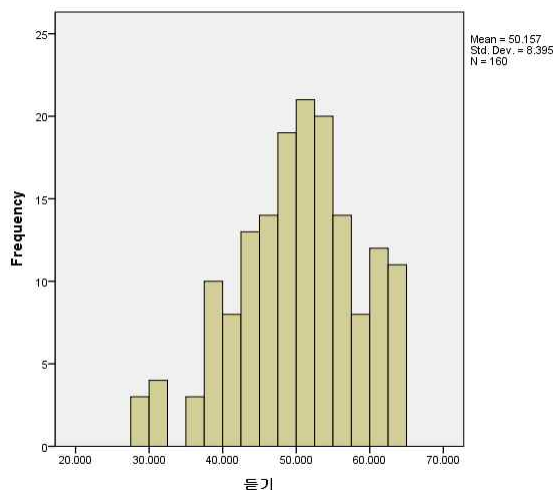
영역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듣기		160	27.908	64.619	50.157	8.395
말하기	선정	200	29.872	72.847	50.115	9.719
	조직	200	27.682	76.436	49.999	9.577
	표현	200	27.999	74.688	50.108	9.223
	전달	200	24.626	80.967	49.950	9.607
읽기		160	37.017	65.056	56.019	7.064
쓰기	내용	200	24.311	72.139	50.082	10.356
	조직	200	26.233	76.378	50.119	10.295
	표현	200	24.754	74.928	49.993	9.223
문법		400	20.496	64.361	46.033	9.082

② 영역별 점수 분석 방법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듣기, 읽기, 문법 영역의 경우, 각각의 영역별로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역별로 피조사자 능력 모수를 추정치(평균 0, 표준편차 1)를 산출한 후, 이 점수에 10점을 곱하고, 50점을 더하여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점수로 영역별 점수를 최종 산출하였다.

능력 모수 추정치는 표본집단이 아닌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기술통계 결과표에서 각각의 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0점과 10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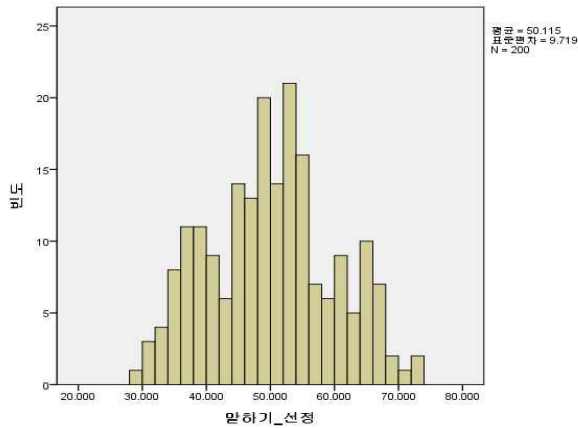
③ 듣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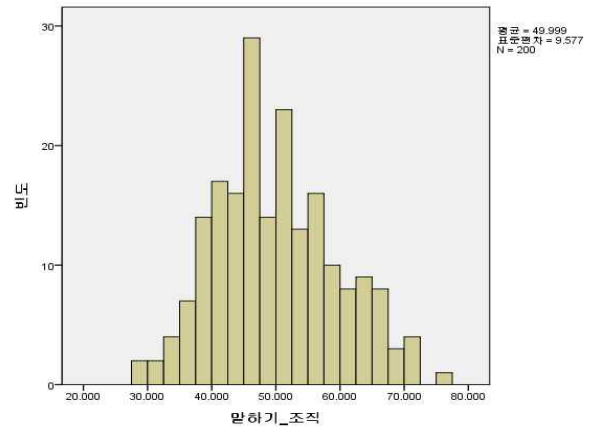
[그림 V-1]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점수 분포

듣기 영역 점수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지만, 왜도가 $-.374$ 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부정적 편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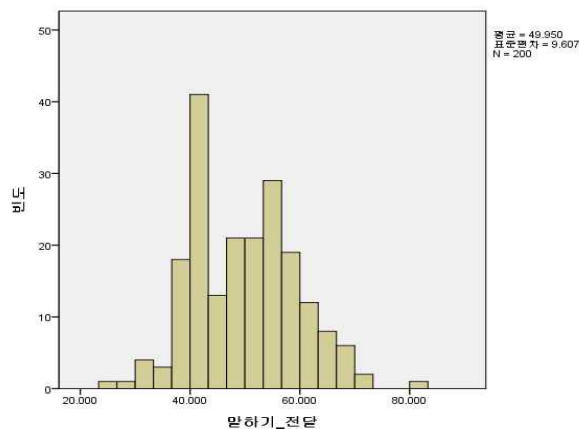
④ 말하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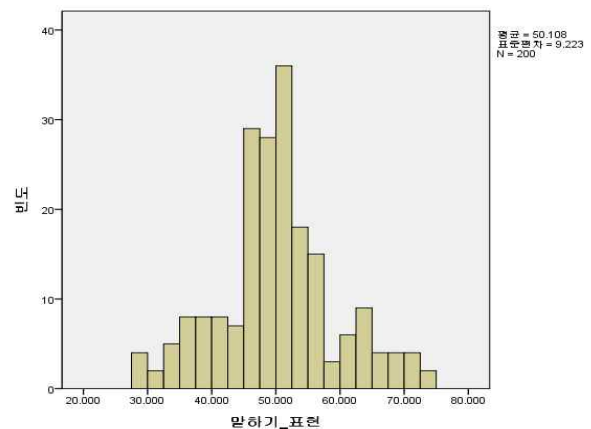
[그림 V-2]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점수 분포



[그림 V-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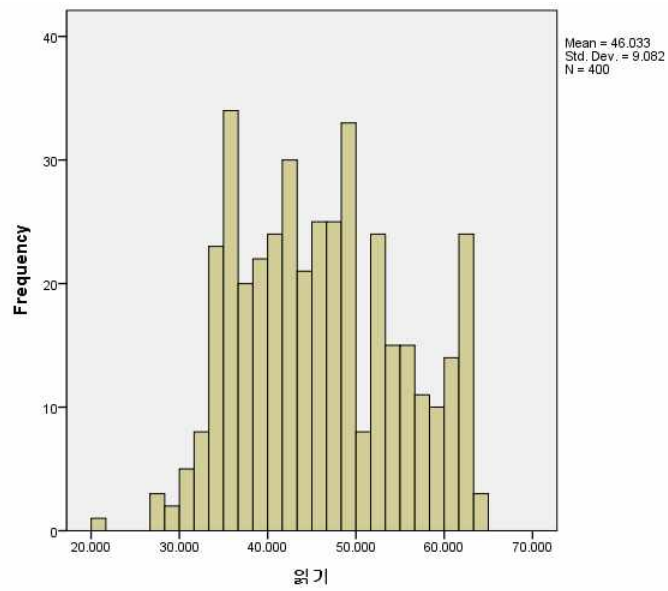
[그림 V-4]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점수 분포



[그림 V-5]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점수 분포

말하기 영역 점수 분포는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4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정적 편포를 나타냈다. 특히 조직, 전달 하위 영역의 왜도는 각각 $.295$, $.250$ 으로 나타나 표현(왜도 $.175$), 선정(왜도 $.104$) 하위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편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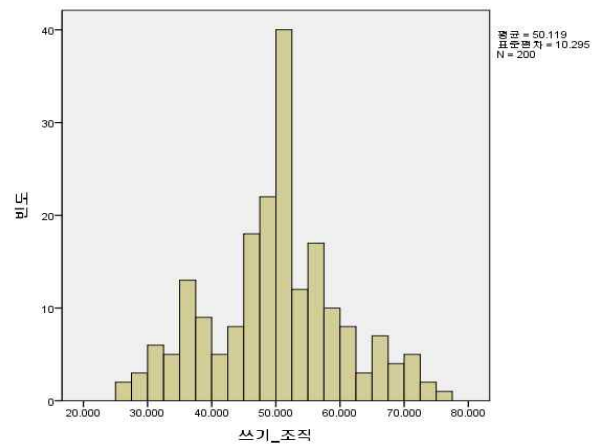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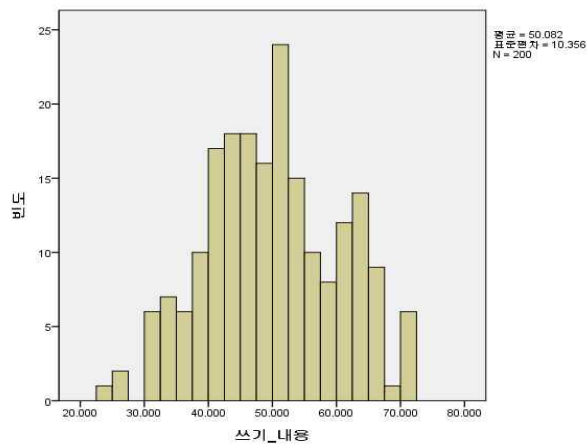
⑤ 읽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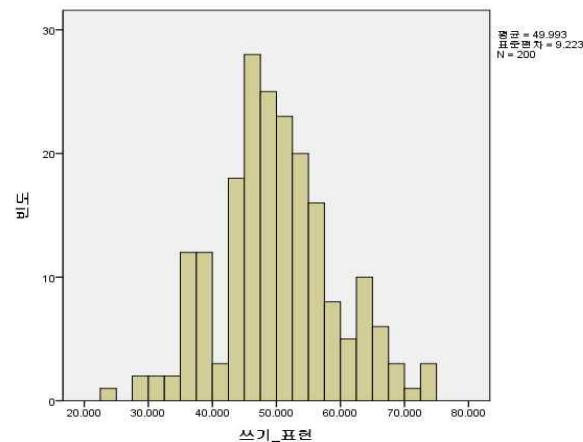
[그림 V-6]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점수 분포

읽기 영역 점수 분포는 특정 점수의 사례가 다소 많아 정규분포에 비해 평균 근처에서 비슷한 사례 수를 보이는 분포였고, 왜도는 .197로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정적 편포를 보인다.

⑥ 쓰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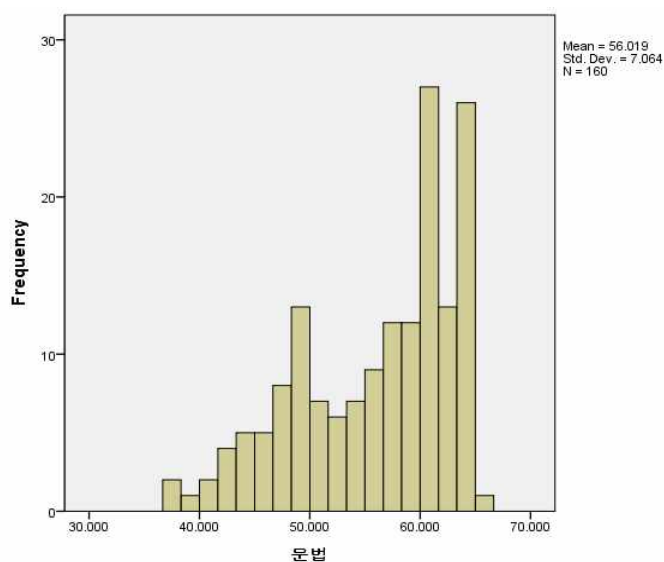
[그림 V-7]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점수 분포 [그림 V-8]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점수 분포



[그림 V-9]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점수 분포

쓰기 영역 점수 분포는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는데, 내용(왜도 .018), 조직(왜도 .024) 하위 영역에서는 거의 편포가 없었고, 표현 하위 영역에서는 왜도가 .151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정적 편포를 나타냈다.

⑦ 문법 영역



[그림 V-10]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점수 분포

문법 영역 점수 분포는 왜도 -0.706 로 정규분포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치우치는 부적 편포를 보인다.

(3) 영역별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① 듣기 영역

<표 V-42>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사례 수	정답률	문항모수추정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χ^2	df	p-value
듣기_01(공통)	160	83.1	.489	.225	-2.150	1.008	1.593	2	.454
듣기_02(공통)	160	78.1	1.273	.401	-.989	.211	1.041	3	.794
듣기_03	160	86.9	.742	.395	-1.886	.493	.000	0	.000
듣기_04	160	65.6	.915	.248	-.592	.198	3.615	5	.608
듣기_05	160	40.0	.072	.143	3.191	4.917	4.408	7	.734
듣기_06	160	84.4	.859	.255	-1.576	.399	5.341	3	.147
듣기_07	160	53.1	.537	.210	-.148	.279	6.954	6	.325
듣기_08	160	58.8	.906	.260	-.313	.185	2.549	5	.771
듣기_09	160	59.4	.405	.158	-.624	.397	1.635	6	.949
듣기_10	160	56.9	.484	.165	-.369	.260	2.827	6	.832
듣기_11	160	94.4	.573	.346	-2.542	3.657	.000	0	.000
듣기_12	160	69.4	.710	.213	-.814	.342	6.605	5	.251
듣기_13	160	63.1	.613	.226	-.628	.297	9.558	5	.088
듣기_14	160	83.8	.515	.193	-2.169	.705	.000	0	.000
듣기_15	160	55.0	.564	.187	-.177	.309	16.756	6	.010
듣기_16	160	65.6	.229	.171	-1.680	.941	17.593	5	.004
듣기_전체		68.6					80.475	64	.080

듣기 영역 16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변별도와 곤란도 분석 결과를 보였다.

듣기 5번, 16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3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 문항들은 듣기 능력을 거의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문항 모수 추정치를 감안할 때, 듣기 5번 문항은 필수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5번 문항은 본 조사에 앞서 선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듣기 16번 문항은 변별도가 다소 낮게 측정된 문항이지만 곤란도와 정답률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며 추후 본 조사의 평가 영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말하기 영역

<표 V-4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765	.087	.110	.086	-3.277	-.747	1.232	2.791	19.602	18	.355
말하기2	.790	.070	-.253	.092	-3.474	-.643	2.083	2.033	22.794	17	.156
말하기3	.636	.049	-.143	.101	-3.704	-1.160	1.910	2.954	26.477	19	.117
말하기4	1.805	.235	-.316	.067	-2.752	-.930	1.182	2.501	33.461	14	.003
말하기5 (공통)	.583	.046	.905	.067	-3.499	-.630	1.643	2.486	233.093	27	.000
전체									335.427	95	.000

<표 V-44>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1.018	.095	-.011	.081	-2.493	-1.305	1.216	2.583	49.370	17	.000
말하기2	1.021	.087	-.230	.081	-2.277	-1.660	1.370	2.567	34.374	16	.005
말하기3	.785	.062	-.432	.095	-2.278	-1.954	1.444	2.788	38.037	17	.002
말하기4	1.036	.099	-.415	.084	-2.307	-1.978	1.239	3.046	34.107	15	.003
말하기5 (공통)	.545	.038	.791	.072	-2.916	-1.232	.965	3.182	183.954	27	.000
전체									339.841	92	.000

<표 V-45>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1.018	.095	-.011	.081	-2.493	-1.305	1.216	2.583	49.370	17	.000
말하기2	1.021	.087	-.230	.081	-2.277	-1.660	1.370	2.567	34.374	16	.005
말하기3	.785	.062	-.432	.095	-2.278	-1.954	1.444	2.788	38.037	17	.002
말하기4	1.036	.099	-.415	.084	-2.307	-1.978	1.239	3.046	34.107	15	.003
말하기5 (공통)	.545	.038	.791	.072	-2.916	-1.232	.965	3.182	183.954	27	.000
전체									339.841	92	.000

<표 V-46>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말하기1	1.059	.094	.744	.073	-2.538	-.884	.486	2.936	49.349	18	.000
말하기2	2.428	.345	.773	.057	-2.476	-.549	.563	2.461	74.891	15	.000
말하기3	1.623	.177	.587	.065	-2.054	-.861	.237	2.678	58.753	16	.000
말하기4	1.369	.132	.624	.068	-2.234	-.846	.295	2.785	47.201	16	.000
말하기5 (공통)	1.005	.070	.461	.058	-2.365	-.831	.164	3.032	113.724	19	.000
전체									343.919	84	.000

말하기 영역 5문항에 대하여 4개 하위 영역별로 문항반응이론 일반화부분점수 채점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하위 영역에서 모든 문항이 대체로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와 비교하자면, 선정과 조직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변별도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2013년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교문항인 5번 문항의 선정과 조직 하위 영역 변별도가 높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가교문항인 5번 문항은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공적 토론 상황에서의 주장하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이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2013년 5월에 개정된 법안으로 이 주제는 사회적 관심이 다소 사그라진 주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정년 60세 연장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항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한 찬반의견은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현행법보다 연장하는 데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즉, 정년 연장법에 반대하여 현행법을 찬성하거나 정년 연장법에 찬성하는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몇몇의 답안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와 같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정년 연장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가교문항의 시의성이 변별도 수치에 다소간의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③ 읽기 영역

<표 V-47>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사례 수	정답률	문항모수추정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χ^2	df	p-value
읽기_01(공통)	400	88.5	.936	.278	-2.398	.362	19.487	2	.000
읽기_02(공통)	400	62.5	1.026	.205	-1.079	.152	50.736	4	.000
읽기_03(공통)	400	67.5	.875	.157	-1.226	.194	35.787	5	.000
읽기_04(공통)	400	71.3	.876	.186	-1.473	.216	42.926	4	.000
읽기_05	267	64.8	.928	.194	-1.115	.212	24.265	4	.000
읽기_06	267	65.5	.894	.211	-1.277	.188	13.005	3	.005
읽기_07	267	45.7	.349	.156	-.409	.233	29.094	7	.000
읽기_08	267	34.8	.477	.142	.054	.255	46.828	7	.000
읽기_09	267	88.4	.878	.279	-2.062	.937	.290	2	.862
읽기_10	267	82.0	1.296	.296	-1.573	.255	15.696	2	.000
읽기_11	267	78.3	.534	.147	-2.275	.465	16.505	3	.001
읽기_12	267	94.8	2.497	.529	-1.715	.146	.285	1	.600
읽기_13	267	70.0	.383	.152	-1.041	.611	10.568	6	.102
읽기_14	266	80.5	.318	.164	-2.782	2.168	1.791	5	.878
읽기_15	266	79.7	.227	.132	-4.833	2.519	16.268	3	.001
읽기_16	266	77.4	1.443	.338	-1.423	.201	15.573	2	.001
읽기_17	266	32.0	.439	.118	.392	.320	35.204	8	.000
읽기_18	266	86.8	1.916	.434	-1.641	.155	15.752	2	.000
읽기_19	266	51.9	1.112	.218	-.750	.140	46.934	4	.000
읽기_20	266	80.5	.573	.188	-2.081	.452	2.839	3	.419
읽기_21	266	84.6	.808	.295	-1.979	.297	7.152	3	.066
읽기_22	266	31.2	.366	.130	.626	.300	26.313	8	.001
읽기_23	267	80.9	1.172	.266	-1.636	.260	19.001	2	.000
읽기_24	267	85.8	.220	.167	-3.697	.900	26.488	5	.000
읽기_25	267	70.0	1.360	.279	-1.140	.172	32.760	3	.000
읽기_26	267	81.6	1.731	.414	-1.402	.192	25.373	2	.000
읽기_27	267	75.7	.085	.128	-2.639	4.133	59.166	8	.000
읽기_28	267	71.5	.962	.212	-1.353	.238	37.677	4	.000
읽기_29	267	82.4	1.493	.301	-1.545	.258	16.896	2	.000
읽기_30	267	86.5	.970	.244	-2.015	.300	5.745	2	.055
읽기_31	267	44.6	.771	.170	-.272	.162	49.799	6	.000
읽기_32	267	28.5	.011	.108	3.791	38.470	57.840	8	.000
읽기_전체		69.7					804.043	130	.000

읽기 영역 32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은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하지만 읽기 15번, 24번, 27번, 32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3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이 문항들은 나머지 문항들에 비하여 읽기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항의 곤란도는 문항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피조사자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문항들의 곤란도 수준은 ± 3 을 벗어나는 값으로 대다수 피조사자들이 분포하는 능력 수준에서 거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문항 모수 추정치를 감안하여, 우선 변별도가 0.1 이하인 읽기 27번, 32번 문항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받아들여 삭제하였다. 이후 13, 15, 17, 22, 24번 문항이 변별도가 낮으며, 능력이 낮은 피험자와 능력이 높은 피험자를 변별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문항 모수 추정치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문항을 선제한 결과 12번 문항과 18-19번 문항은 모두 지문의 텍스트 유형이 가정통신문이었는데, 텍스트 유형의 다양화를 위하여 12번 문항의 지문의 내용을 유사하게 하되 공공기관의 대민 안내문으로 형식을 수정하였다.

④ 쓰기 영역

<표 V-48>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쓰기1 (공통)	.606	.065	.195	.061	-1.902	-.182	.248	1.837	299.263	26	.000
쓰기2	.674	.072	.235	.086	-2.281	-1.093	.995	2.380	46.644	18	.000
쓰기3	.932	.111	.088	.075	-1.855	-1.042	.769	2.128	55.345	19	.000
쓰기4	.387	.028	-.030	.122	-3.061	-2.002	2.390	2.673	31.635	21	.064
쓰기5	.183	.016	-.527	.198	-4.396	-1.453	4.827	1.023	49.506	21	.000
전체									482.393	105	.000

<표 V-49>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쓰기1 (공통)	.632	.041	.388	.067	-2.620	-1.002	1.445	2.178	204.548	25	.000
쓰기2	1.111	.163	.583	.072	-1.732	-.579	.362	1.949	50.162	19	.000
쓰기3	.747	.100	.360	.078	-1.788	-.964	.470	2.282	57.626	21	.000
쓰기4	.311	.025	.003	.122	-1.343	-2.992	1.602	2.733	21.545	19	.307
쓰기5	.428	.047	-.187	.098	-2.025	-1.024	1.428	1.622	23.374	22	.381
전체									357.254	106	.000

<표 V-50>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문항모수추정치				단계모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1	2	3	4	χ^2	df	p-value
쓰기1 (공통)	.603	.049	.087	.065	-2.140	-.917	.764	2.294	332.576	22	.000
쓰기2	.725	.076	.130	.085	-2.221	-1.239	1.109	2.351	97.785	16	.000
쓰기3	.754	.073	.172	.083	-1.967	-1.493	1.157	2.303	88.613	16	.000
쓰기4	.467	.050	-.183	.099	-2.402	-1.391	.770	3.023	56.998	20	.000
쓰기5	.390	.033	-.391	.125	-3.718	-1.691	1.467	3.942	41.000	19	.002
전체									616.973	93	.000

쓰기 영역 5개 문항에 대하여 3개 하위 영역별로 문항반응이론 일반화부분점수 채점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 하위 영역에서 가교문항인 1번 문항과 일반 문항인 2번, 3번 문항은 양호한 변별도와 곤란도를 보였다. 반면에 4번, 5번 문항의 경우, 다소 낮은 수준의 변별도를 보였는데, 특히 5번의 경우, 내용 하위 영역에서 변별도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내용 하위 영역 5번 문항은 단계모수에 있어서도 더 높은 채점 분류에 대해 더 낮은 단계 모수가 추정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4, 5번 문항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전자 우편을 작성하는 문항으로, 친교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이다. 이중 4번은 취임 감사 인사라는 공적인 쓰기 상황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5번은 칠순 잔치 참석 감사 인사라는 개인적인 쓰기 상황을 기반하여 개발해, 두 유형 간의 비교를 통해 친교적 글쓰기 능력 측정에 적합한 문항 형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문장 이내의 친교적 글쓰기라는 낮은 곤란도의 문항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지만, 5번의 경우 예상보다 더 낮은 곤란도와 변별도를 보였는데, 이는 친교적 글쓰기가 정의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인 경우 평가의 변별도를 확보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칠순 잔치 참석 감사 인사라는 상황 또한 일반화된 소재인 까닭에 피험자의 반응이 상투화된 답안을 벗어나기 어려워 국민의 국어능력을 변별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내용과 문항 모수 추정치를 감안할 때, 쓰기 5번 문항은 필수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문법 영역

<표 V-51>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문항	사례 수	정답률	문항모수추정치				적합도		
			변별도	SE	곤란도	SE	χ^2	df	p-value
문법_01(공통)	160	74.4	.652	.412	-.071	.259	66.778	6	.000
문법_02(공통)	160	97.5	1.172	1.762	.062	.184	302.761	5	.000
문법_03	160	71.9	1.746	1.191	-.107	.272	33.824	4	.000
문법_04	160	97.5	.870	1.238	-9.327	6.412	.000	0	.000
문법_05	160	89.4	.104	.335	.427	4.237	136.396	6	.000
문법_06	160	90.6	.772	.647	.179	.198	195.673	6	.000
문법_07	160	95.6	2.674	2.898	-1.790	.755	.001	1	.929
문법_08	160	21.3	.247	.375	-.249	.817	78.426	6	.000
문법_09	160	45.6	.095	.248	.254	.956	2.545	6	.864
문법_10	160	93.1	.467	.688	-7.905	5.760	.000	0	.000
문법_11	160	60.6	1.224	.863	-.155	.327	16.242	5	.006
문법_12	160	53.1	.074	.263	-3.063	3.591	6.527	5	.257
문법_13	160	85.6	.275	.405	-7.587	8.203	.000	0	.000
문법_14	160	51.3	.358	.308	.016	.376	16.983	6	.009
문법_15	160	72.5	.569	.514	.000	.381	55.940	6	.000
문법_16	160	76.9	1.732	1.562	.114	.213	118.512	5	.000
문법_전체		73.6					1030.607	67	.000

문법 영역 16문항에 대하여 2모수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은 양호한 문항모수를 보였고, 일부 문항은 다소 양호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문법 5번, 8번, 9번, 12번, 13번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3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 문법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이 부족한 문항들이다. 그리고 4번, 10번, 13번 문항은 곤란도의 절댓값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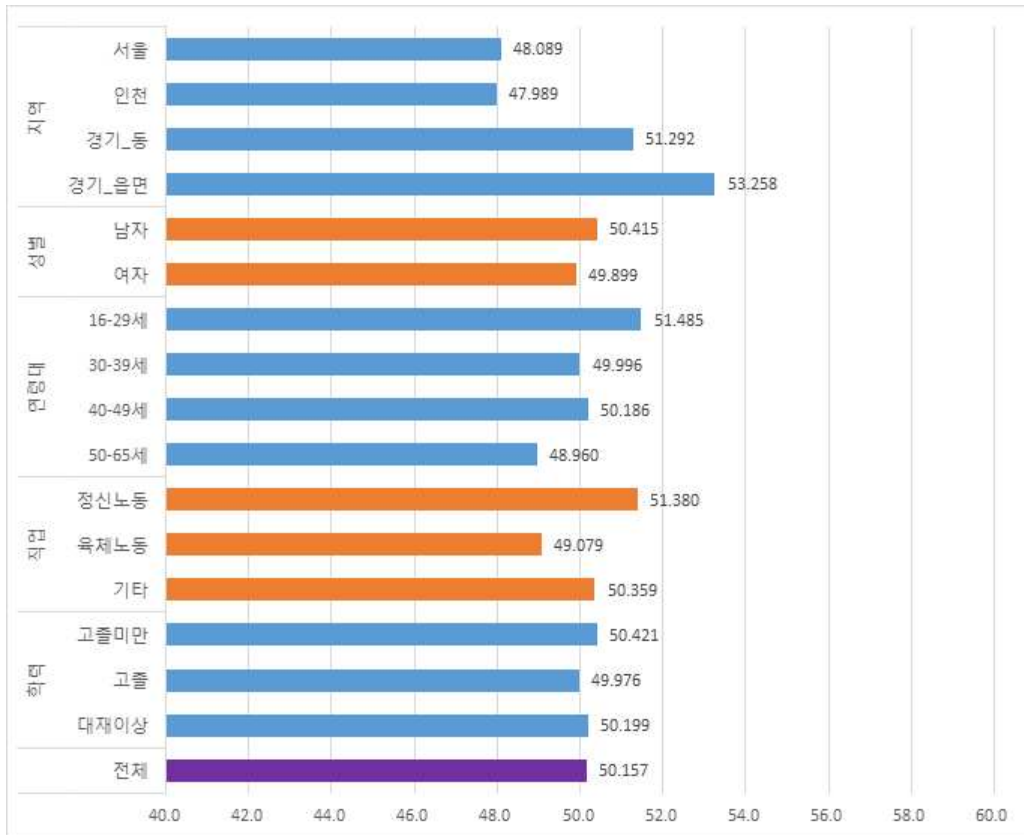
문항 모수 추정치를 감안할 때, 문법 4번, 10번, 13번 문항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 검토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종 문항의 선별을 진행하였다. 이 중 13번 문항은 ‘문장 - 호응 관계’의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유일한 문항이며, 1차 예비조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규범’ 영역의 평가 문항이 너무 적게 선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예비조사에서 삭제된 문항 중 문항 모수추정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 G-3 문항을 다시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2차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16문항 중 G-4, G-5, G-9, G-10, G-12의 총 5문항을 삭제하고, 1차 예비조사의 G-3 문항을 다시 포함하여 총 12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4) 배경변인별 분석

① 듣기 영역

<표 V-52>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40	48.089	7.429
	인천	40	47.989	8.414
	경기_동	40	51.292	10.577
	경기_읍면	40	53.258	5.390
성별	남자	80	50.415	8.640
	여자	80	49.899	8.188
연령대	16-29세	40	51.485	9.060
	30-39세	40	49.996	8.524
	40-49세	40	50.186	7.591
	50-65세	40	48.960	8.463
직업	정신노동	41	51.380	9.330
	육체노동	58	49.079	7.440
	기타	61	50.359	8.599
학력	고졸미만	23	50.421	8.165
	고졸	53	49.976	8.810
	대재이상	84	50.199	8.286
전체		160	50.157	8.395



[그림 V-11] 2차 예비조사 듣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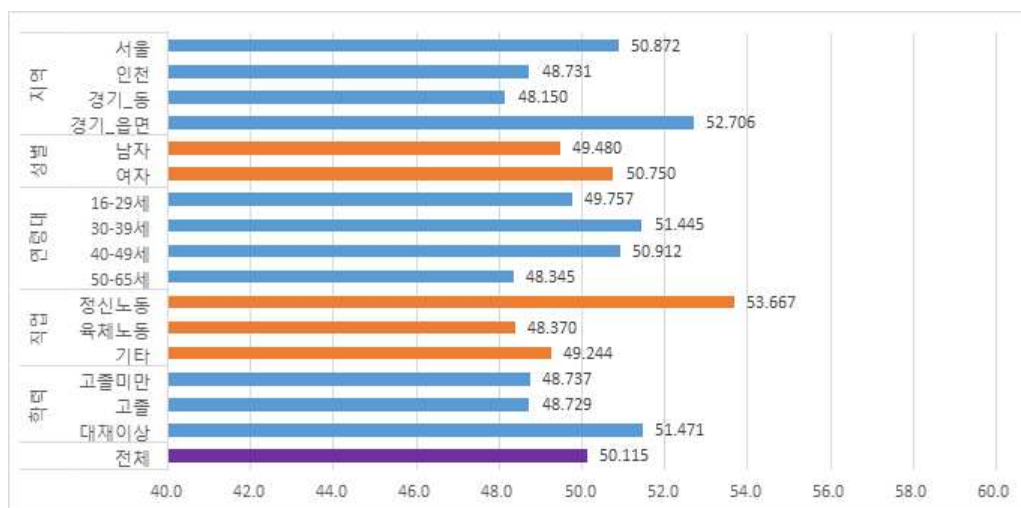
듣기 영역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각각 51.292점과 53.258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서울지역’은 48.089점, ‘인천지역’은 47.989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경기 ‘읍면지역’의 점수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동지역’의 경우 나머지 지역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50.415점으로 ‘여자’의 평균인 49.899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16~29세’가 51.485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40~49세’가 50.186점으로 전체 평균 수준이었고, ‘30~39세’와 ‘50~65세’가 각각 49.996점과 48.960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1.380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9.079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이 50.421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9.976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② 말하기 영역

<표 V-5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선정		조직		표현		전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50	50.872	11.061	49.905	10.690	51.047	9.473	49.539	10.132
	인천	50	48.731	8.306	49.494	8.936	49.005	7.434	48.932	8.459
	경기_동	50	48.150	9.747	48.506	8.359	48.960	9.805	49.130	10.023
	경기_읍면	50	52.706	9.161	52.090	10.073	51.422	9.955	52.200	9.649
성별	남자	100	49.480	9.280	49.467	8.512	49.904	9.335	49.879	9.403
	여자	100	50.750	10.145	50.530	10.552	50.313	9.152	50.021	9.853
연령대	16-29세	50	49.757	8.455	48.353	7.446	49.328	7.801	46.920	8.360
	30-39세	50	51.445	10.505	51.401	10.597	52.260	9.856	50.273	10.341
	40-49세	50	50.912	10.394	50.453	9.687	49.947	10.389	51.524	10.086
	50-65세	50	48.345	9.377	49.788	10.289	48.899	8.526	51.083	9.108
직업	정신노동	54	53.667	10.157	53.354	9.545	53.730	9.138	53.153	10.057
	육체노동	74	48.370	9.150	48.359	9.215	48.087	9.828	50.010	9.028
	기타	72	49.244	9.386	49.168	9.470	49.470	7.883	47.486	9.242
학력	고졸미만	31	48.737	8.823	48.077	8.646	47.213	7.832	46.578	9.239
	고졸	68	48.729	9.498	48.931	9.590	48.268	9.085	49.124	9.175
	대재이상	101	51.471	10.020	51.307	9.737	52.236	9.280	51.541	9.753
전체		200	50.115	9.719	49.999	9.577	50.108	9.223	49.950	9.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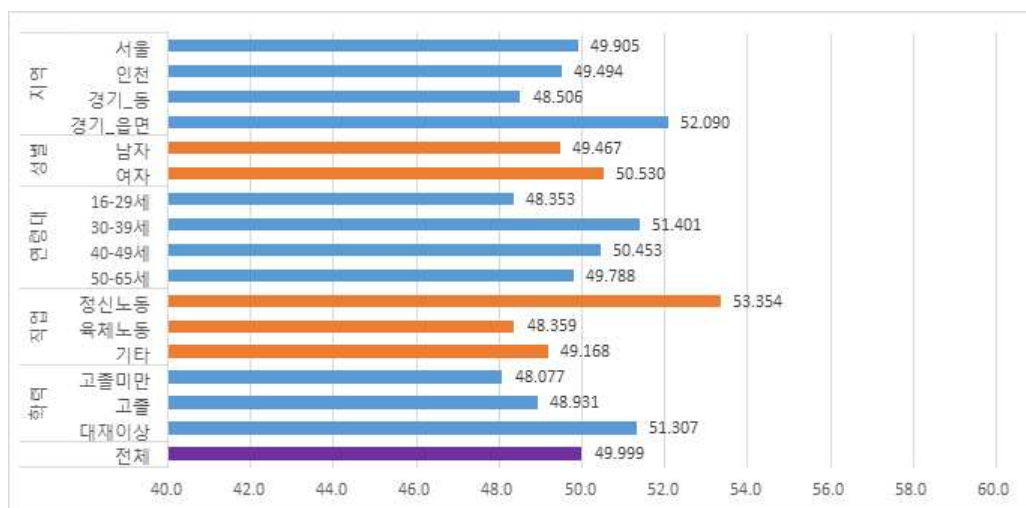
□ 선정



[그림 V-12]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선정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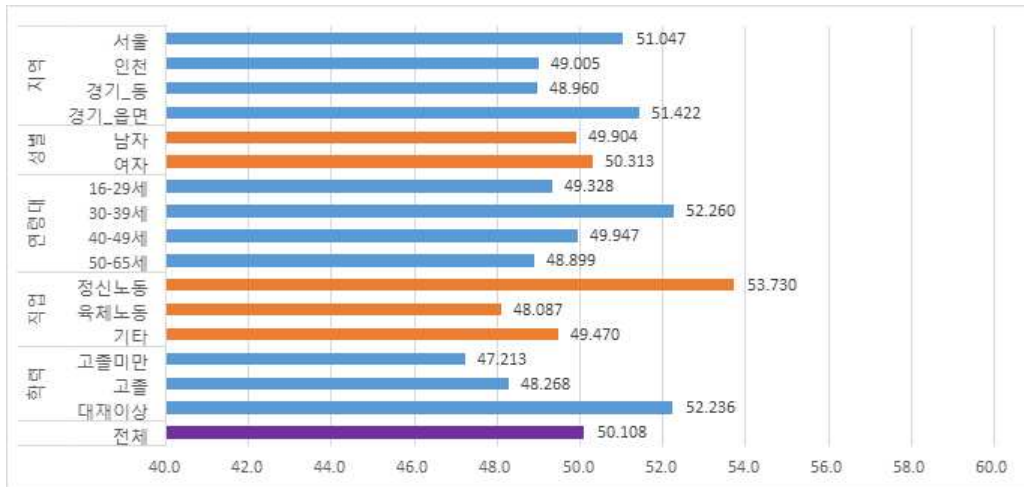
말하기 영역 중 선정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경기 ‘읍면지역’이 각각 50.872점과 52.706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인천지역’은 48.731점, 경

기 ‘동지역’은 48.150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50.750점으로 ‘남자’의 평균인 49.480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51.445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40~49세’가 50.912점, ‘16~29세’와 ‘50~65세’가 각각 49.757점과 48.345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3.667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8.370점과 ‘기타’ 직업군의 49.244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육체노동’과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육체노동’과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471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48.72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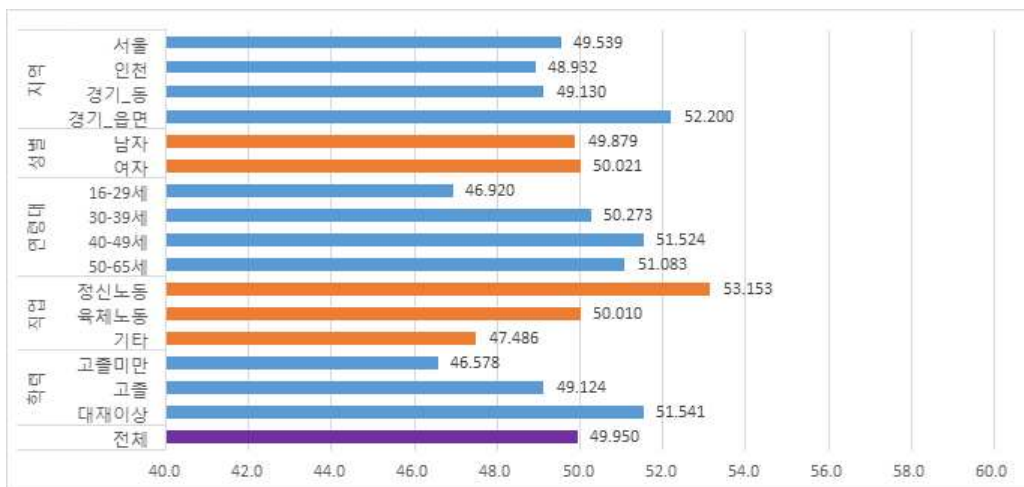
[그림 V-13]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말하기 영역 중 조직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경기 ‘읍면지역’이 52.090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서울지역’ 49.905점, ‘인천지역’ 49.494점, 경기 ‘동지역’은 48.506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50.530점으로 ‘남자’의 평균인 49.467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51.401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40~49세’가 50.453점, ‘50~65세’와 ‘16~29세’가 각각 49.788점과 48.353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3.354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8.359점과 ‘기타’ 직업군의 49.168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육체노동’과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육체노동’과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307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이 48.077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14]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말하기 영역 중 표현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경기 ‘읍면지역’이 51.422점, ‘서울지역’이 51.047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인천지역’은 49.005점, 경기 ‘동지역’은 48.960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50.313점으로 ‘여자’의 평균인 49.904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52.26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40~49세’가 49.847점, ‘16~29세’와 ‘50~65세’가 각각 49.328점과 48.899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3.730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8.087점과 ‘기타’ 직업군의 49.470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육체노동’과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육체노동’과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2.236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인 48.268점과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인 47.213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점수는 ‘고졸미만’과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고졸’ 학력자와 ‘고졸미만’ 학력자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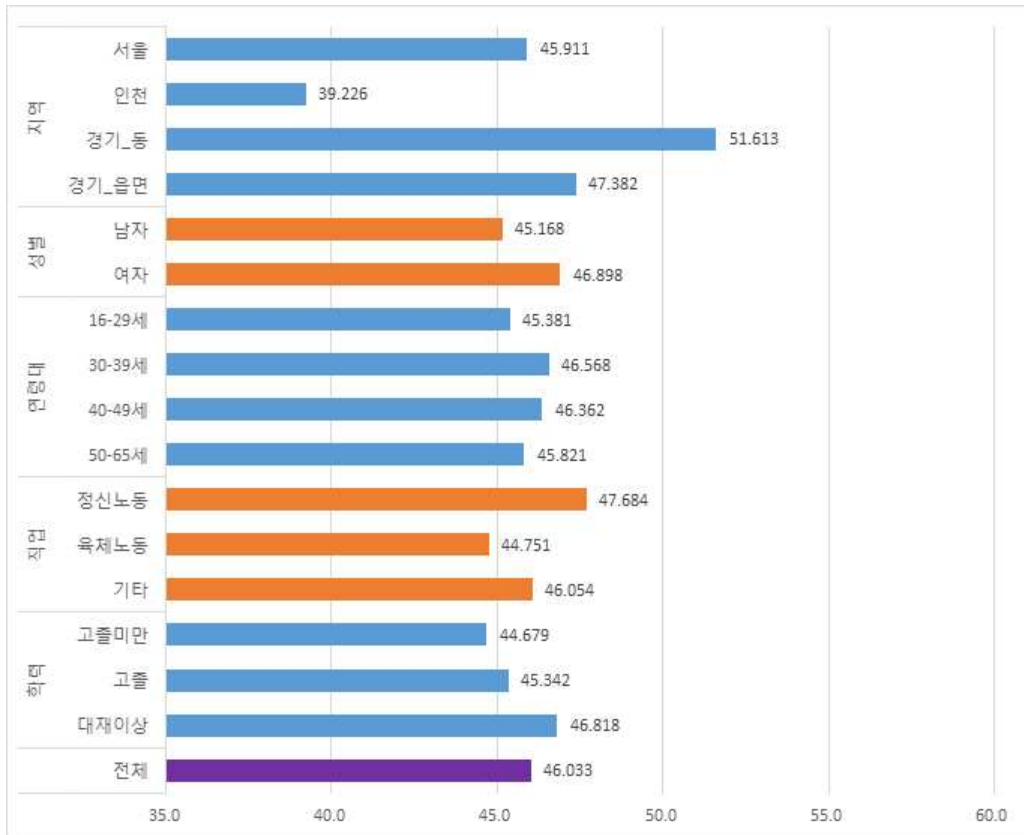
[그림 V-15] 2차 예비조사 말하기 영역 중 전달 배경변인별 분석

말하기 영역 중 전달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경기 ‘읍면지역’이 52.200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서울지역’ 49.539점, 경기 ‘동지역’ 49.130점, ‘인천지역’은 48.932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평균점수가 50.021점으로 ‘남자’의 평균인 49.87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51.524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50~65세’가 51.083점, ‘30~39세’와 ‘16~29세’가 각각 50.273점과 49.879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3.153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50.010점과 ‘기타’ 직업군의 47.486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기타’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541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인 49.124점과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인 46.578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점수는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학력자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읽기 영역

<표 V-54>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100	45.911	8.379
	인천	100	39.226	5.828
	경기_동	100	51.613	7.419
	경기_읍면	100	47.382	9.650
성별	남자	200	45.168	8.742
	여자	200	46.898	9.352
연령대	16-29세	100	45.381	9.158
	30-39세	100	46.568	9.101
	40-49세	100	46.362	8.628
	50-65세	100	45.821	9.509
직업	정신노동	110	47.684	8.446
	육체노동	144	44.751	9.449
	기타	146	46.054	9.033
학력	고졸미만	55	44.679	9.351
	고졸	133	45.342	9.952
	대재이상	212	46.818	8.381
전체		400	46.033	9.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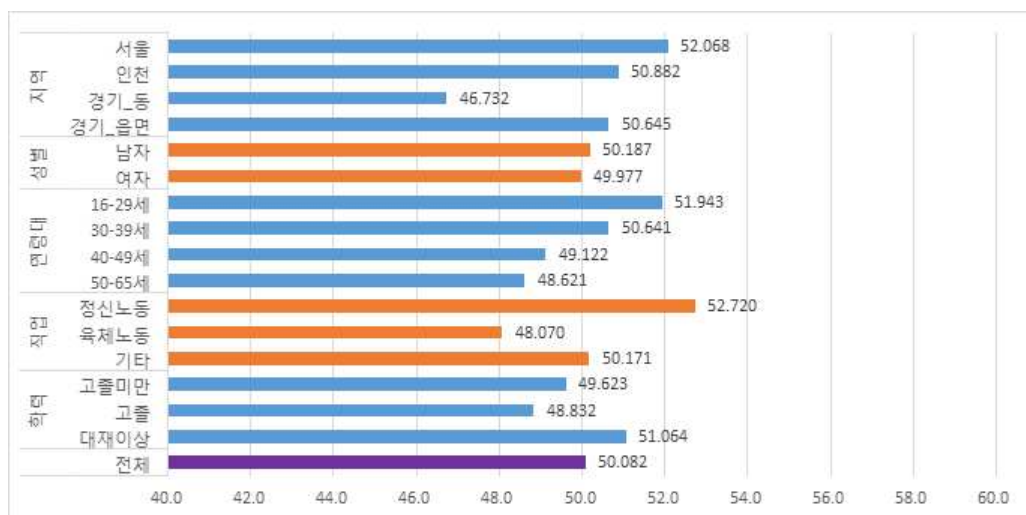
[그림 V-16] 2차 예비조사 읽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읽기영역 척도점수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에 따라 경기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평균이 51.613점과 47.38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고, ‘서울지역’은 45.911점, ‘인천지역’은 39.22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 중 경기 ‘동지역’의 평균은 ‘인천지역’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천지역’의 평균은 경기 ‘읍면지역’, 그리고 ‘서울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기 ‘읍면지역’과 ‘서울지역’의 평균은 통계적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46.898점으로 ‘남자’의 45.168점에 비하여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16~29세’에서 45.381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고 ‘30~39세’가 46.568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거두었으며,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이 낮아졌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47.684점)이 ‘육체노동’ 직업군(44.751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타’ 직업군의 평균인 46.054점은 다른 두 직업군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46.818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이 44.67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쓰기 영역

<표 V-55>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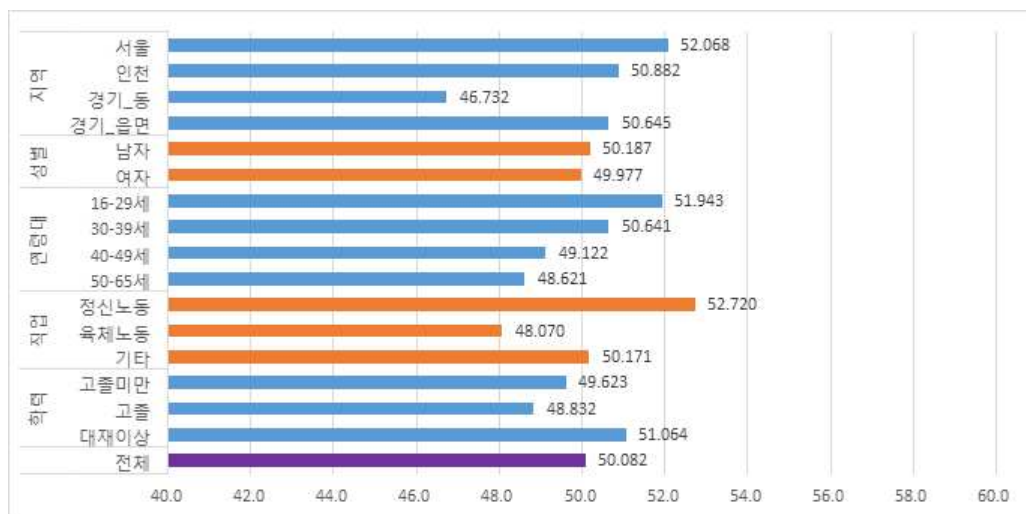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내용		조직		표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50	52.068	11.071	51.738	10.757	51.545	9.552
	인천	50	50.882	9.064	51.310	7.740	50.187	9.187
	경기_동	50	46.732	11.020	47.034	11.582	47.684	9.541
	경기_읍면	50	50.645	9.639	50.394	10.334	50.558	8.397
성별	남자	100	50.187	10.566	50.659	10.285	50.672	9.061
	여자	100	49.977	10.194	49.580	10.329	49.315	9.378
연령대	16-29세	50	51.943	10.115	52.381	9.581	53.720	8.651
	30-39세	50	50.641	11.264	50.637	11.419	50.805	10.142
	40-49세	50	49.122	9.748	49.146	7.971	46.780	7.892
	50-65세	50	48.621	10.216	48.312	11.617	48.668	8.848
직업	정신노동	54	52.720	11.712	53.438	12.044	52.710	10.709
	육체노동	74	48.070	9.514	47.804	9.228	48.326	7.968
	기타	72	50.171	9.778	50.009	9.342	49.670	8.883
학력	고졸미만	31	49.623	8.933	51.193	9.697	50.546	8.193
	고졸	68	48.832	10.202	47.540	10.076	48.249	8.765
	대재이상	101	51.064	10.846	51.526	10.384	50.998	9.720
전체		200	50.082	10.356	50.119	10.295	49.993	9.223



[그림 V-17]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내용 배경변인별 분석

쓰기 영역 중 내용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경기 ‘읍면지역’이 각각 52.068점과 50.882점, 50.645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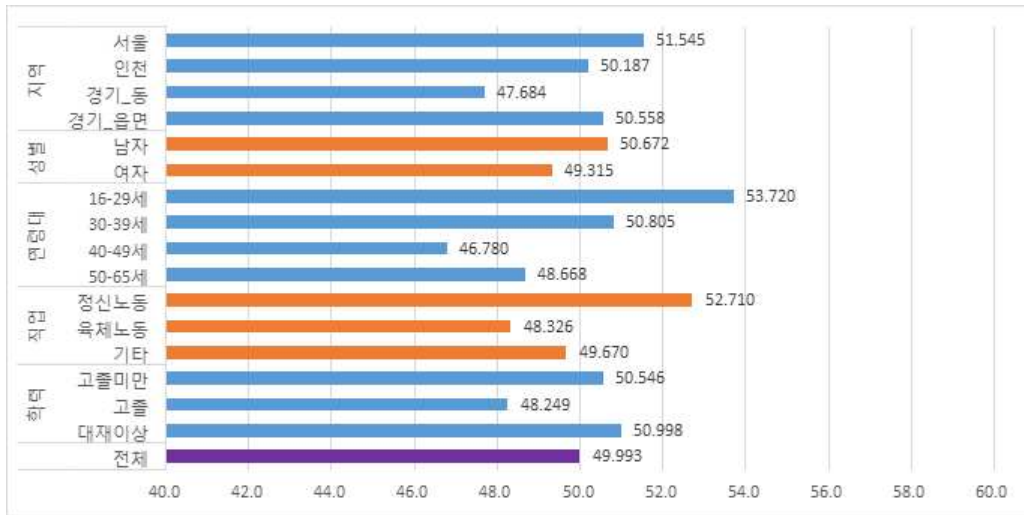
‘동지역’은 46.732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50.187점으로 ‘여자’의 평균인 49.97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16~29세’가 51.943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30~39세’가 50.641점, ‘40~49세’와 ‘50~65세’가 각각 49.122점과 48.621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2.720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8.070점과 ‘기타’ 직업군의 50.171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육체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064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인 49.623점과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인 48.8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V-18]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조직 배경변인별 분석

쓰기 영역 중 조직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경기 ‘읍면지역’이 각각 51.738점과 51.310점, 50.394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경기 ‘동지역’은 47.034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50.659점으로 ‘여자’의 평균인 49.58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16~29세’가 52.381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30~39세’가 50.637점, ‘40~49세’와 ‘50~65세’가 각각 49.146점과 48.312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3.438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7.804점과 ‘기타’ 직업군의 50.009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육체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1.5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인 51.193점과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인 47.540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

점수는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학력에 따른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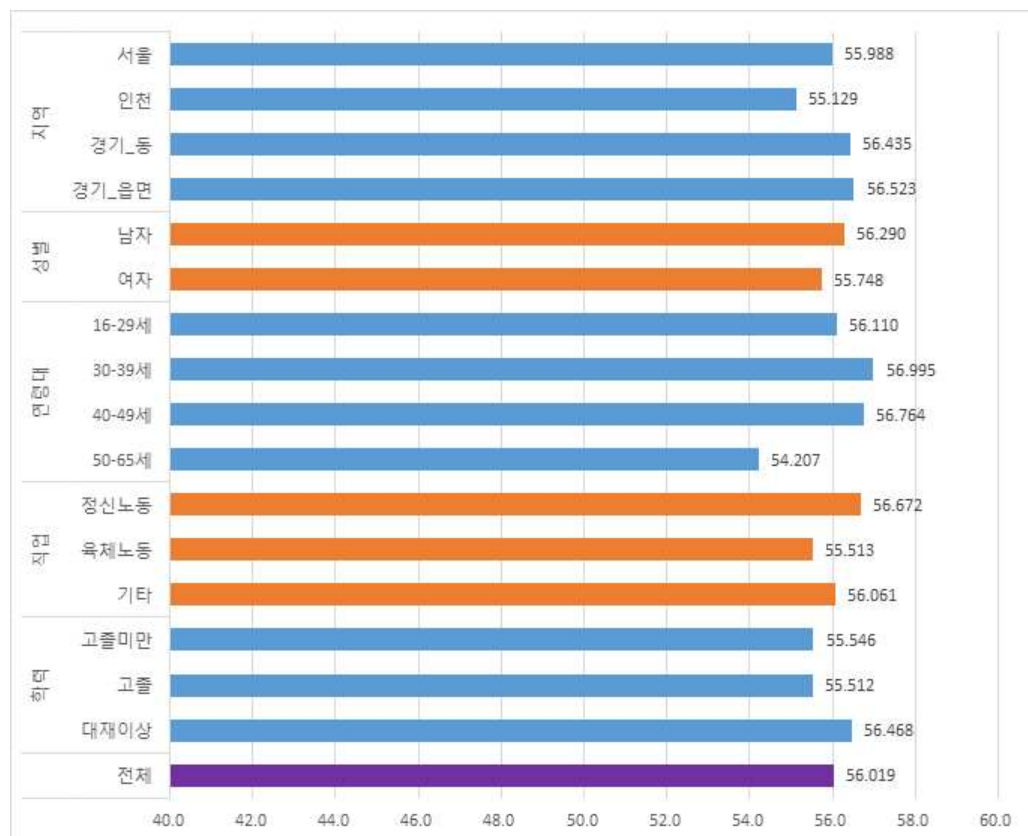
[그림 V-19] 2차 예비조사 쓰기 영역 중 표현 배경변인별 분석

쓰기 영역 중 표현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경기 ‘읍면지역’이 각각 51.545점과 50.187점, 50.558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경기 ‘동지역’은 47.684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50.672점으로 ‘여자’의 평균인 49.315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는 ‘16~29세’가 53.72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30~39세’가 50.805점, ‘50~65세’와 ‘40~49세’가 각각 48.668점과 46.78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16~29세’의 평균점수는 ‘40~49세’와 ‘50~65세’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52.710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48.326점과 ‘기타’ 직업군의 49.670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중 ‘정신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는 ‘육체노동’ 직업군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직업군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인 50.9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미만’ 학력자들의 평균인 50.546점과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인 48.249점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⑤ 문법 영역

<표 V-56>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40	55.988	7.425
	인천	40	55.129	6.358
	경기_동	40	56.435	7.607
	경기_읍면	40	56.523	6.985
성별	남자	80	56.290	7.262
	여자	80	55.748	6.896
연령대	16-29세	40	56.110	7.293
	30-39세	40	56.995	6.166
	40-49세	40	56.764	7.559
	50-65세	40	54.207	7.084
직업	정신노동	41	56.672	6.995
	육체노동	58	55.513	6.573
	기타	61	56.061	7.618
학력	고졸미만	23	55.546	6.379
	고졸	53	55.512	7.268
	대재이상	84	56.468	7.162
전체		160	56.019	7.064



[그림 V-20] 2차 예비조사 문법 영역 배경변인별 분석

문법 영역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 ‘읍면지역’의 평균이 56.523점으로 가장 높고 ‘인천지역’의 평균이 55.12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평균 점수가 56.290점으로 ‘여자’의 평균 점수인 55.748점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50~65세’가 54.207점으로 평균 이하였고, ‘30~39세’가 56.99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직업군이 평균 56.672점으로 ‘육체노동’ 직업군의 평균 55.513점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라서는 ‘대재이상’ 학력자들의 평균이 56.019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학력자들의 평균이 55.512점으로 가장 낮았다.

3) 최종 도구의 확정

최종 도구의 확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 연구원들이 모여 2차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2018년 시행 예정인 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선정 및 수정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구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 : 12월 8일(금요일)

□ 참석자

<표 V-57> 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확정을 위한 협의회

영역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듣기	김승현 연구위원(평가원)	민병곤 교수 (서울대)	김동섭
말하기	박재현 교수(상명대)		허모아
읽기	김혜정 교수(경북대)		김민재
쓰기	김종철 교수(서울대)		장지혜
문법	정희창 교수(성균관대)		신유진
통계	박현정 교수(서울대)		박민호
총괄	서보영 연구원(서울대)		차경미

이후 각 영역을 담당하는 공동 연구원들이 수정한 영역별 문항을, 모든 공동 연구원들이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2배수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의 전체적인 문항 구성 및 개별 문항에 대한 관해 각 영역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도구를 확정하였다.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한 전문가는 <표 152>와 같다.

<표 V-58> 최종 조사 도구 자문 및 검토 전문가

전문가	영역	소속
이도영 교수	말하기, 듣기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봉순 교수	읽기	공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신명선 교수	쓰기, 문법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VI. 제언

1. 전반적 제언

1) 조사 도구의 설계와 제작

(1) 문항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본 연구는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로 조사 도구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조사 도구가 마련되었지만, 이렇게 마련된 조사 도구를 최종적으로 타당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의 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경우, 출제자는 ‘개별 출제자의 문항 틀 제작 - 소재를 중심으로 한 문항화의 가능성 및 적절성 검토 - 문항 제작 - 소영역별 공동 문항 검토 및 수정 - 과목별 공동 문항 검토 및 수정 - 1차 검토된 문항 검토 및 수정 - 2차 검토된 문항 검토 및 수정 - 문제 확정 및 편집’이라는 수많은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칠수록 타당도와 변별도를 세밀하게 고려한 완성도 높은 문항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항 제작 과정에서 연구진 이외에도 문항 검토를 위한 국어 영역 전문가들의 풀(pool)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공동 검토와 수정을 통한 집중 작업을 통해 문항의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영역 통합형 문항의 개발을 위한 문항의 실제성 확보

본 연구는 2013 연구와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각 영역을 분절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국어능력이라는 것이 다섯 개의 국어능력의 영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함께 나타나는 것이므로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문법, 쓰기와 문법 등 영역 통합적 문항을 개발한다면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국민의 국어능력을 조사 및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인 만큼 이전 조사들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조사의 실행

(1) 조사 시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경비의 확보

① 조사원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경비 확보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피조사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최대한 조사원 사이의 동질성

을 담보하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사를 위한 공간으로 피조사자가 방문하여 조사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원이 표집된 피조사자의 가정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원 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보다 충분한 시간 및 경비를 확보한다면 조사 시행에 있어 착오 및 오류를 줄이고, 피조사자의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원 교육의 설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지침 그리고 각 영역별로 시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여 교육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조사원 교육을 하고, 조사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 조사 시행의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② 피조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사례비 상향

한편 피조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사례비 조사 시행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피조사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사례비는 다른 조사에 비하여 적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향후 사례비와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2011)에 의하면, 2011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PIAAC 조사에서는 조사의뢰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별조사(5,000원), 배경설문조사(25,000원), 직접 평가(50,000원)으로 하여 세 조사를 모두 완료한 피조사자에게 최대 8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직접 평가에 해당하는 각 영역의 조사지의 문항에 응답하는 것의 대가는 물론이고, 향후 배경설문조사를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답례비를 상향하여 마련해야 한다.

답례비에 따른 응답률과 관련한 해외 각국의 조사 사례도 있는데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2011:24-25)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예비조사 시 답례품의 액수를 달리 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응답률의 결과를 조사하였는데, 10유로, 25유로, 50유로의 세 가지 액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답례품의 가격이 높아지며, 응답 거부율이 낮아져서 본 조사 시에 50유로를 답례비로 채택하였다. 영국 및 북부 아일랜드에서도 20파운드와 30파운드의 두 가지로 답례 상품권의 가격을 달리 하여 응답률을 비교한 결과 본 조사 시 30파운드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역시 자국의 문식력 조사(ALL/NAAL)의 실시에 있어 30달러와 50달러 사이의 비교를 하여 본 조사 때 50달러로 결정하였다.²²⁾ 이러한 연구들에서 2018년의 본 조사에서 답례비를 보다 상향한다면 높은 응답률과 조사 완료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③ 태블릿 피시의 기술 구현을 위한 비용 확보

2017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예비조사에서는 태블릿 피시의 NFiel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능력을 조사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먼저 문항들이 선형적으로 배열됨으로 인해 문항 간 이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쓰기와 읽기, 문법의 경우 백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하여 이동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문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피조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글자 크기의 확대 및 축소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22) 이 조사 내용은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에서 2011년 6월에 발간한 「OECD 국제 성인역량조사(PIAAC) 관련 제7차 NPM 회의 및 훈련 참가 결과 보고」에 의거하였다.

지문의 글자 구현에 있어서도 캡처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실제로 태블릿 피시에 나타나는 폰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현재 존재하는 디지털 기술로는 대부분 해결 및 개선이 가능한 것이며, 조사 업체인 KANTAR로부터 비용이 확보된다면 국어능력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조사에 있어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진이 문항을 설계했던 방향으로 피조사자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보인다.

(2) 조사대상 층화 표집의 중요성

예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표본이 16~65세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을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가 본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와 2차 예비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조사된 표본들 간의 평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표집 설계 단계에서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로 2018년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본을 층화함으로써 표본이 모집단인 16~65세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성형 문항 검사지의 문항 수 확대

예비조사에서는 제한된 표본 수를 대상으로 5가지 영역에 걸친 다수의 문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풀게 되는 방식이 아닌 각각의 피험자가 할당된 문항만 풀도록 하는 행렬표집 설계를 적용하여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읽기 영역과 문법 영역을 묶고,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묶어 소검사지(booklet)을 구성하였고, 2차 예비조사에서는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만을 함께 묶어 소검사지를 구성하였다.

읽기와 문법 영역의 경우, 선택형 문항으로 문항 수가 다수였기 때문에 행렬표집 설계에 따라 한 영역에서 적은 비율의 문제를 풀더라도 조사대상 한 명이 풀이한 영역별 문항 수가 충분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국어능력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경우, 구성형 문항으로 전체 문항 수가 각각 6개(2차 예비조사에서는 각각 5개)로 나머지 선택형 문항 검사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국어능력 추정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이러한 검사지 구성이 조사 대상자의 국어능력 추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성형 문항 검사의 경우, 선택형 문항 검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어능력 추정의 오차가 약간 크게 나타나 2018년 본 조사에서는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에 행렬표집 설계를 적용한다면 영역당 최소 문항 수를 예비조사에 비해서 1~2문항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조사 결과의 분석과 활용

(1) 주관식 문항의 채점 시스템 정밀화

말하기, 쓰기 영역의 경우,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나머지 영역들과는 달리 조사대상자들이 실제로 말하거나 작성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는 구성형(주관식) 문항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점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채점자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채점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킴으로서 채점자 개개인의 일관성과 채점자 간의 일치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관식 채점의 엄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채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및 석사 과정,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등 국어 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1차 예비조사의 채점자 효과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예비조사에서는 채점자 효과가 큰 채점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채점자를 투입함으로써 채점의 객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2회에 걸친 채점 기준안 회의를 실시하고, 채점자들을 3인씩 무선 조합하여 교차 채점을 진행하였으며, 응답 수의 10%는 전체 채점자 공통 채점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 실시될 본조사의 경우 표본 수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채점단의 규모 또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앞선 1, 2차 예비조사에서 마련된 채점 절차의 엄정성이 유지되고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채점 과정에 나타날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 국어능력 평가 결과 환류 방안 마련

본 연구는 조사 도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등 인구학적 통계 정보의 변인만을 설정하였지만, 실상 국어능력과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 변인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조사 결과를 보다 심층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정책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독서량, 평소의 글쓰기 경험, 매체 사용빈도 등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함께 조사하고, 국어능력 평가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피험자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문항에 대한 반응 이유나 문항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국민의 국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관식 문항의 채점에 있어서도 오답 문항의 정보를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PISA 문항의 채점 기준의 경우 정답과 오답 코드가 부여되는데, 두 자리 수 코딩으로 앞자리 숫자는 점수(0점, 1점, 2점 등), 뒷자리 숫자는 다양한 응답을 범주화하는 등 정답과 오답 코드를 모두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점수뿐 아니라 피험자들이 어떤 유형의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말하기, 쓰기 능력에 있어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풍부하게 파악하기 위해 채점 과정에서 오답 정보를 파악한다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도 유용하리라고 본다.

(3) 변화하는 국어능력의 개념과 조사의 연속성 사이의 균형 확보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단순히 한 시점에 해당하는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국어능력 추이를 종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 도구 간의 검사 동등화 등 그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문항 형식 또는 난이도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가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의 국어능력을 보고자 하며, 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전 주기들의 조사와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측정하는 것 사이의 균형 확보와 그 기준 마련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영역별 제언

1) 듣기 영역

(1) 실제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를 위한 말하기와의 연계

듣기와 말하기는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각각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듣기는 여러 유형의 담화를 듣거나 제시된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영상에 딸린 문항을 해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고정된 담화를 피조사자가 듣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였다. 뉴스나 강연과 같이 일방향적인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듣기 영역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담화는 주로 대화 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발화를 주고받으면서, 담화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동시에 말하면서 표현하며 구성된다. 따라서 대화나 회의 등의 담화의 경우, 피조사자들이 해당 담화의 참여자로서 담화 속에서 담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형태로 문항을 구현하는 것 또한 실제적인 듣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듣기 평가 요소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2013년 조사와 연계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2013년 조사 도구를 준용하였다. 따라서 듣기 평가의 영역은 중영역으로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하위 영역도 세부 정보의 파악, 핵심 정보의 파악, 내용의 추리, 내용의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듣기 상황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능력뿐 아니라 친교적인 담화 상황에서의 공감적 듣기 능력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평가 영역은 대규모 평가의 상황에서 일반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3) 듣기 평가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담화 유형의 다양화

현재 조사 도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 평가의 담화 유형은 면담, 지시, 회의, 뉴스, 토론, 강연, 대화이다. 이는 피조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담화 유형 및 비율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평가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화의 비중을 보다 늘릴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를 늘리는 경우라도 피조사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에서의 대화’나 ‘학교에서의 대화’와 같이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 역시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듣기 담화 유형의 제시 역시 필요하다. 가령, 현대사회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면대면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음성언어 의사소통의 경우뿐 아니라, 전화 통화에서의 대화나 인터넷상에서의 동영상 시청 등과 같이 통신 매체를 통하여 듣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매체의 발달을 고려한 듣기 평가의 실제성 담보나 담화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 말하기 영역

(1) 평가 요소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로, 국민의 창조적인 국어생활을 위한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평가 도구 개발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말하기 영역의 평가 영역은 2013년 설계된 평가 도구를 준용하여, ‘설득하는 말하기’와 ‘설명하는 말하기’로 설정하였으며 담화 유형을 일대일 대화 및 토론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말하기 상황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담화 유형 및 담화 목적이 존재하므로, 평가 요소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로 피조사자의 ‘설득하는 말하기’ 능력과 ‘설명하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말하기 상황에서의 ‘친교적 말하기’의 비중이 크므로 이를 평가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말하기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담화의 상호작용적 속성 강조 필요

본 말하기 평가는 전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규모 평가로 시간과 비용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능한 국민들이 실제로 접하는 말하기 상황과 과제를 고려하여 국민의 실제적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말하기 평가는 ‘혼자 말하기’ 방식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실제 상호작용 양상을 측정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혼자 말하기’ 방식의 평가 상황을 설계 하여 피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피험자의 상호작용 능력 측정의 한계를 갖는 ‘혼자 말하기’ 방식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자를 상정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기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에 더해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속성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 상황을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피험자에게 듣기 상황을 제시하고, 피험자의 역할이 ‘청자’에서 ‘화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평가 상황을 설계할 수 있다. 즉, 현재

평가 상황에는 피험자가 상황을 읽은 뒤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면, 앞으로 제시될 상황은 상황을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다 엄밀한 의미의 상호작용 능력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채점의 신뢰도 확보 방안

말하기 평가의 질은 평가의 신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말하기 평가는 실제 수행 능력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조사 도구의 동등화를 위해 국어능력 평가에서는 가교 문항을 선정하여 조사 도구 간의 난이도를 조정하게 되는데, 말하기 영역의 경우 동일한 가교 문항에도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채점자 효과 및 채점 기준의 엄밀함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을 상세화하고 채점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채점 기준 및 채점 시 유의점이 5년 주기로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채점 시에 발생한 유의점을 모아 목록화하고 다음 평가 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점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방법을 사용한 검증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읽기 영역

(1) 조사 방식의 개선

이번 1, 2차 예비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태블릿 피시로 조사하였으며 태블릿 피시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종이 검사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상당수의 표본에 있어서²³⁾ 태블릿 피시로 읽기 영역 검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종이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용상의 문제로 설문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문서, 신문, 안내문, 웹툰, SNS 등 특정 읽기 상황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실제 모양대로 제작할 수 없다는 점, 이미 폰 문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재검토하기 어려운 점, 피험자가 문제를 풀면서 지문의 글자 크기나 그림을 자유롭게 확대하여 볼 수 없다는 점 등, 문항의 지문 구현 방식이나 문항 간 이동, 글자의 확대 및 축소 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디지털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읽기 영역 검사가 단순히 태블릿 피시를 사용한 조사가 아니라 보다 더 디지털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축 및 조사 방식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시대의 읽기 능력의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조사 시행

이번 조사가 국민의 읽기 능력, 즉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평가의 실체성(authenticity)을 높이기 위해 현대 우리나라의 독서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최근의 읽기는 종이 위의 글자 텍스트를 선형적으로 읽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복합양식적으로,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방식도 흔해졌다. 이로 인해 이번 조사

23) 1차 예비조사의 읽기 영역에서 태블릿 피시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어려워 종이 검사지를 이용한 표본 수는 전체 760표본 중 78건으로, 이는 약 10%이다.

에서도 다양한 텍스트를 도입하고 또 여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조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인프라가 구현된다면, 매체의 속성에 따른 하이퍼링크적 읽기 능력의 평가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 도구에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매체에 따라서 정보가 조직되고 제시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매체 능력이 독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PISA 역시 2009년 주기부터는 디지털 읽기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한 문항들이 설계되어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인쇄 매체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 기반의 읽기로의 전환을 보여주며, 매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독서 영역의 평가를 기획할 때에 이 점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읽기 능력의 하위 요소 및 텍스트 유형별 분석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읽기 영역의 조사 도구는 4개의 중영역과 그 아래의 하위 요소의 설정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며, 이와 같은 각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교육용 지문 외에도 신문 기사, 논설, 웹툰, 사내 메일, 공문서, 인터넷 건의문, 광고, 수필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지문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조사 시 각 하위 요소, 그리고 텍스트 유형별로도 심층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하위 요소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하위 요소 간 능력 측정치의 상관관계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기에서 새롭게 조사 도구에 추가되는 중영역 및 하위 요소들, 그리고 텍스트 유형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분석은 국민들의 다양한 읽기 능력과 텍스트 유형별 문식력을 측정하는 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단, 이와 같은 분석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함으로써, 조사 도구의 난이도와 실제 국민들의 읽기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중영역 또는 하위요소가 다른 중영역이나 하위 요소보다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할 때, 이것이 조사 도구의 난이도로 인한 것인지, 실제 국민의 중영역 또는 하위 요소별 읽기 능력의 차이 때문인지를 구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쓰기 영역

(1) 채점 기준의 정밀화 및 동등화

본 연구는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이다. 해당 조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며, 조사 주기에 따른 피조사자들의 국어능력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다.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조사 도구를 통해 국어능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두 조사 도구 간의 검사 동등화를 시행하기 위해 가교문항을 설정하여 조사 도구 간의 난이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쓰기 문항의 경우 동일한 가교문항이라 하더라도 채점자 및 채점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교문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5년 주기의 조사마다 동일한 채점자와 채점 여건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점 기준 및 채점 여건, 채점상의 유의점을 최대한 정밀화하여 다음 주기의 가교문항 채점 시 채점자가 일관되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교문항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정밀화, 동등화한다면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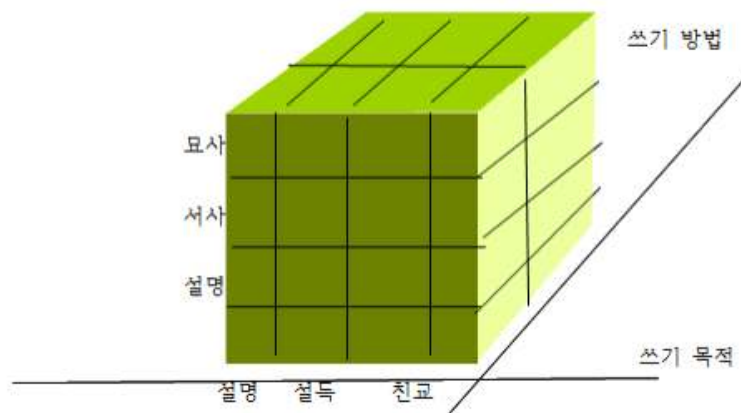
및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채점은 예비 채점 - 채점자 간 협의 및 채점 기준 수정·보완 및 상세화 - 채점자 훈련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채점 연수시 이전 주기의 채점 기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피험자 답안 작성의 성실도 확보 방안 마련

쓰기 영역에서는 설명적 글쓰기, 설득적 글쓰기, 친교적 글쓰기 세 가지 영역에서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쓰기 장르의 특성과 피험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각각 300자, 400자짜리의 긴 글쓰기와 3문장짜리의 짧은 글쓰기를 피험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험자들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3문장짜리의 짧은 글쓰기는 비교적 그 요구 분량을 준수하였으나, 300~400자로 완성해야 하는 긴 글쓰기에서도 1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로 답한 피험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실제 국민들의 표현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조사원들이 조사 시행 중 이러한 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조사 시행에 있어 피험자들의 성실도를 담보하기 위한 외적 유인 요소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게 함으로써 문장, 문단, 글 전체 수준의 쓰기 능력을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 충분한 사례비의 제공 등 피험자 답안 작성의 성실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하위 영역 평가 요소의 실제성 담보를 위한 기준의 다차원화

쓰기 평가의 경우, 현재는 글쓰기의 목적에 따른 답화 유형만을 고려하여 설명적 글쓰기, 설득적 글쓰기, 친교적 글쓰기라는 세 가지 유형의 평가 문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글쓰기 상황의 실제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과 기준 외에도 여러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설명에서는 설명, 서사, 묘사, 분류, 분석, 예시 등의 기준을, 설득에서는 근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의 적절성, 자료 인용의 신뢰성이나 공정성 등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쓰기 영역은 해당 피험자들의 피로도가 높은 평가 영역이어서 문항 수를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쓰기의 목적과 방법을 입체화해서 한 편의 긴 글 속에서 해당 능력들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VI-1] 쓰기 영역별 평가 기준 다차원화의 필요성

5) 문법 영역

(1) 다각도로 변화하는 국어 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방향 설정

본 연구에서는 문법 영역의 평가틀로 ‘규범, 어휘, 문장’의 중영역을 설정하고, 그 각각을 다시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의미와 용법, 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관용 표현의 의미’, ‘경어법, 호응 관계, 의미와 용법’으로 세분하여 하위 평가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때 전반적인 평가 내용이 어문규범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만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언어생활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문법 능력을 두루 포괄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립국어원의 규범 원칙을 기준으로 문항을 출제하되 단순히 규범이나 어법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은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특정 어휘나 문장의 사용에 대하여 물을 때에도 일상적인 대화쌍 또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문구를 보기로 제시하여 맥락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화용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반응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공사장 표지판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법한 다양한 기호들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국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매체의 영향으로 국민의 국어 생활도 다양한 층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의 조사에서 선정되었던 가교 문항의 시의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기존의 조사 도구를 기초로 하면서도 새로이 변화된 언어생활의 모습을 추가로 반영한 평가 도구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에도 말하기, 듣기 등 다른 영역과 연계형 문항을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어, 전반적인 국어 생활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의 언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의 다양화

문법 능력은 언어 수행의 기초적인 지식 층위에서 국어능력의 바탕이 되는 것인 바, 언어 수행의 다층적인 국면, 나아가 그 이면의 인지적인 측면까지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항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문법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는 단순히 개별 어휘, 문장의 맥락적 의미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어휘, 표현 등에 대한 국민의 언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휘 또는 문장의 사전적이고 기계적인 의미만을 확인하는 문항을 축소하고, 실제적인 발화 맥락 속에서의 화용론적 용법을 추론하는 문항을 주로 출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적 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맥락을 다양화하고자 실용문이나 일상대화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까지도 보기로써 수용하여 보다 폭넓은 언어 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의 문항으로 여러 평가 요소를 두루 포괄하는 동시에 2013년 조사와의 연속성까지도 고려하다 보니, 메타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다소 제한적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제약과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문법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언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 구영산(2013),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국어능력의 한 가지 정의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43권, 한국어교육학회.
- 김규훈(2015), 국어능력의 융복합적 개념화 탐색: 매개 담론을 통한 핵심 개념 설정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67권, 우리말글학회.
- 김동환 외(2008), 국어능력 검정 모의 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종철 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김평원(2007), 의사소통과정으로서의 말하기평가: 대규모 성인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11권, 한국화법학회.
- 노명완(2002), 국어 교육과 국어능력,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민병곤(2006),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5권, 국어교육학회.
- 민병곤, 박재현(2015),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 비교 연구: 정보 전달과 설득적 말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5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민병곤, 정재미, 박재현(2014), 성인의 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 분석, 화법연구 제24권, 한국화법학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정서법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제1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외(2001), 국어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민현식(2002), 한국인의 국어능력 실태,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박재현(2015), 화법 평가의 쟁점과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50권 2호, 국어교육학회.
- 박재현 외(2015),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서혁(1999), 듣기 능력 평가의 개선 방안, 선청어문 제27권 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손세모돌(2007), 성인화자의 말하기 평가 방법: 설명 능력 평가 방법, 화법연구 제11권, 한국화법학회.
- 양정실 외(2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국어과 진단평가 도구 및 보정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윤준채, 서혁(2010), 표준화 독서 능력 검사도구 개발 연구 2, 독서연구 24권, 한국독서학회.
- 이관희, 정희창(2015), 국민의 문법 능력 평가 연구, 우리말글 제67권, 우리말글학회.
- 이도영(2010), 말하기 평가 목표와 평가 기준 설정, 교육논총 제30권 2호, 경인교육대학교.
- 이동후(2010), 제3의 구술성, 언론정보연구 제47권 1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이병규 외(2004),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삼형 외(2004), 국어능력검정 시행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성영(2014), 국어능력의 개념과 성격 : 감(感)으로서의 국어능력, 한국초등국어교육 5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89-116.

- 이인호, 이상일, 김승현, 전영주(2016),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자료 ORM 2016-31-1).
- 이창덕(2008), 화법 능력과 화법(듣기,말하기) 교과서 개발 원리, 화법연구 제12권, 한국화법학회.
- 임언 외(2011), 2011년 OECD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PIAAC) 사업, 고용노동부.
- 임철성(2009), 듣기 능력과 듣기 평가의 목표: 수능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14권, 한국화법학회.
- 임철성(2016), 듣기의 본질과 듣기 교육의 방향, 화법연구 제34권, 한국화법학회.
- 장경희 외(2005),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6), 말하기능력 측정도구 개발,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9), 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조재윤(2007), 말하기 평가의 요소 설정 연구: 텔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새국어교육 제7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 진대연(2006),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발달 특성 및 수준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수능 CAT 2017-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achman, L.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 Press.
- Bachman, L. F. & Palmer, A. S.(1997),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Univ. Press.
- Bazerman, C.(1981), What written knowledge does: Three examples of academic discours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11(3), 361-388.
- Bereiter, C. L.(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Erlbaum Associates.
-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Buck, G.(2001), *Assessing listening*, Cambridge Univ. Press.
-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Flower, L. & Hayes, R.(1981),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2(4), 365-387.
- Flower, L.(1994),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writing*,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Glenn, E. C.(1989), A content analysis of fifty definitions of listening, *International Listening Association* 3, 21-31.
- Hymes, D.(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J. B. & Holmes, J.(eds.), *Sociolinguistics*, Penguin.
- Rost, M.(2011), *Teaching and researching listening*, Pearson Education Limited. 허선익 역 (2014), 듣기교육과 현장조사연구, 글로벌콘텐츠.

<Abstract>

A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Tool for the General Public

This is a preliminary study conducted for the National Assessment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2018) every five years. It aims to develop a definitive survey for language ability research that would serve as a basis for language policies promoting national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reative linguistic usage in everyday life. To this end, theory building, item development, and item verification were set as target goals. Using this tool in the assessment of national language proficiency in 2018 will contribute to policies that promote enhanced national language ability and creative language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The study wa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2013 National Assessment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scales used in the survey, such as the number of questions per section, time, scoring method, and so on, were set accordingly. Anchor items were multiplied twofold in the initial questionnaire development. Those items were then multiplied by 1.6 after the first round of the preliminary survey and by 1.2 after the second preliminary survey.

In regard to survey implementation, Block Interlaced Anchor Design, a matrix-sampling design, was applied equally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surveys to test the implementation method. The items were divided into multiple booklets,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one booklet each, thus reducing their fatigue and enhancing the ease of survey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blocks were paired by a specific number according to the common scale used in Item Response Theory in order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assuming that the survey was fully completed. Item Response Theory enables mathema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potential capacity and his/her response, allowing item parameters or participant performance to be deduced from the matrix sampling data.

In terms of the content, sub-categories of language proficiency were created in an identical manner to the existing survey so as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comparable to that of the 2013 version that reflects individual levels of literacy that change across different areas of assessment. Furthermore, the research team was composed of professionals who took part in the 2013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Via consultations from an advisory panel consisting of experts from each linguistic field, items were review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to minimize the survey's flaws.

The preliminary surveys focused on developing stable evaluation tools through item verification and a large-scale implementation trial. Samples from the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surveys were culled by first extracting clusters after stratification and then extracting individuals from each cluster to allocate them to survey units. Stratified sampling entails dividing the population into non-overlapping groups – in other words, strata – and drawing a probabilistic or non-probabilistic sample from each stratum. In this preliminary surve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divided into four strata: Seoul, Incheon, the eastern Gyeonggi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e Gyeonggi municipal area.

First, a preliminary assessment was conducted from August 1, 2017 to September 19,

2017, over the span of seven weeks, on 940 individuals from 16 to 65 years of age. A speaking/writing test, with four versions composed of seven questions each, was administered to 200 participants. A reading test, with five versions composed of 18 or 19 questions each, was given to 500 participants. The grammar/listening test has three versions with 28 questions each and was given to 240 participants. The target sample size in the first preliminary assessment was selec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research objectives, cost, and duration; thus, during the actual assessment, eight additional participants were added, resulting in a total of 948 samples.

The results from the first preliminary assessment showed that scores for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were close to a normal distribution. However, whereas listening and reading showed a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 to the right, speaking – for all of its four subcategories – and writing – for all of its three subcategories – had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s that displayed a slight skew to the left. As for the grammar score distribution, the skewness was measured to be $-.974$ and showed a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 with a significant skew to the right compared to a normal distribution.

Twenty questions under listening section were analyzed using the 2-parameter Item Response Theory. The analysis showed an extremely low discrimination index for three questions – less than $.1$ – whereas both the speaking and the reading questions showed a satisfactory discrimination index and difficulty level. One out of six questions under the reading section showed a low discrimination index for the subcategories of content structure and expression. The 20 questions for grammar showed satisfactory question parameters overall, and three questions showed a very low discrimination index below $.2$. In terms of participant backgrounds, participants who fell under the Gyeonggi municipality for regions, female for sex, 30s for age group, mental labor workers for occupation, and undergraduate students for education averaged the highest.

Based on these results, a council was held to finalize the survey for the second preliminary assessment.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by co-researchers representing each linguistic field, and then subsequently scrutinized by all involved researchers, who selected 1.6 times the number of initial questions to be used in the second survey. Item Response Theory parameters were used to identify 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 questions for modification or deletion, and the results were then confirmed by the item response curve. The research tools' characteristics, assessment area, and statistical data were evaluated through a discussion with researchers and external professionals.

The second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span of five weeks, from November 2, 2017 to December 5, 2017. The survey population was kept the same as the first-round survey. We selected 760 participa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earch aim, cost, and duration. We selected 160 participants for grammar/listening tests with one version, 400 participants for reading test with three versions, and 200 participants for speaking/writing tests with four versions. Similar to the first assessment, region, sex,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that may impact one's language proficiency.

The result of the second preliminary survey showed a normal distribution overall, but listening scores were shown to have a slightly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 while grammar scores showed a 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 to the right. Reading and speaking showed a slightly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In the listening section, five questions were shown to be problematic in their discrimination index, and three questions in terms of difficulty. Four

questions in reading showed .3 in discrimination index and a difficulty level greater than 3, providing almost no useful information considering the overall participant level of proficiency. There was littl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crepancy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Furthermore, the average score was higher for mental labor workers in relation to other occupations and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relation to those with high school diplomas or below.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finalized, and discussion points for the current as well as subsequent research were identified. "Preparing measures to finalize items," "securing sufficient time and expenses to augment the survey's credibility," "item authenticity," "preparing a reflex measure for language ability assessment results," "securing the number of assessment subject samples," "test paper composition," "grading procedures," "item consultation as well as improving the review process," "securing sufficient time and expense for research," "developing domain-integrated questions," and "securing a balance between the changing conception of language ability and continuity in research" were discussed. Furthermore, proposals were made for each area of assessment. Finally, 13 questions in listening, 5 questions in speaking, 25 questions in reading, 4 questions in writing, and 12 questions in grammar were selected as the final questions and proposed as cue cards to allow for the assessment to proceed smoothly i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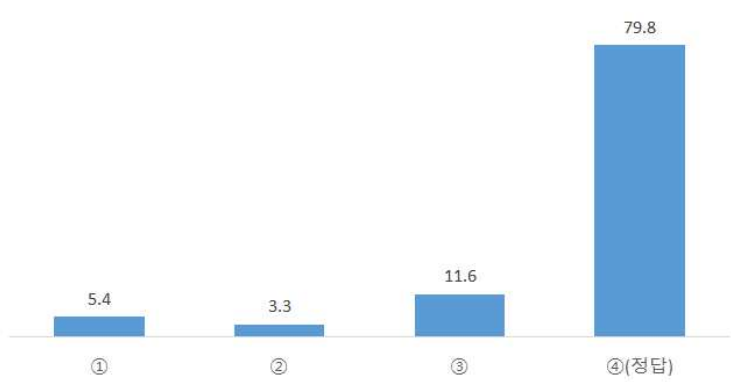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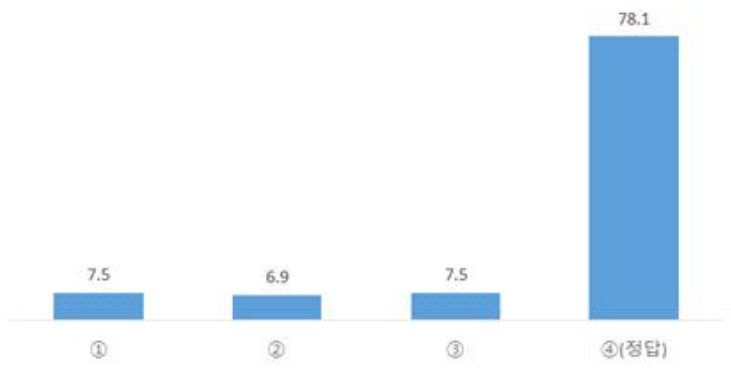
Keyword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listening skill, speaking skill, reading skill, writing skill, grammar proficiency, Block Interlaced Anchor Design, matrix sampling, Item Response Theory, first preliminary assessment, second preliminary assessment

[부록]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본 조사 시행을 위한 영역별 최종 문항
 1) 듣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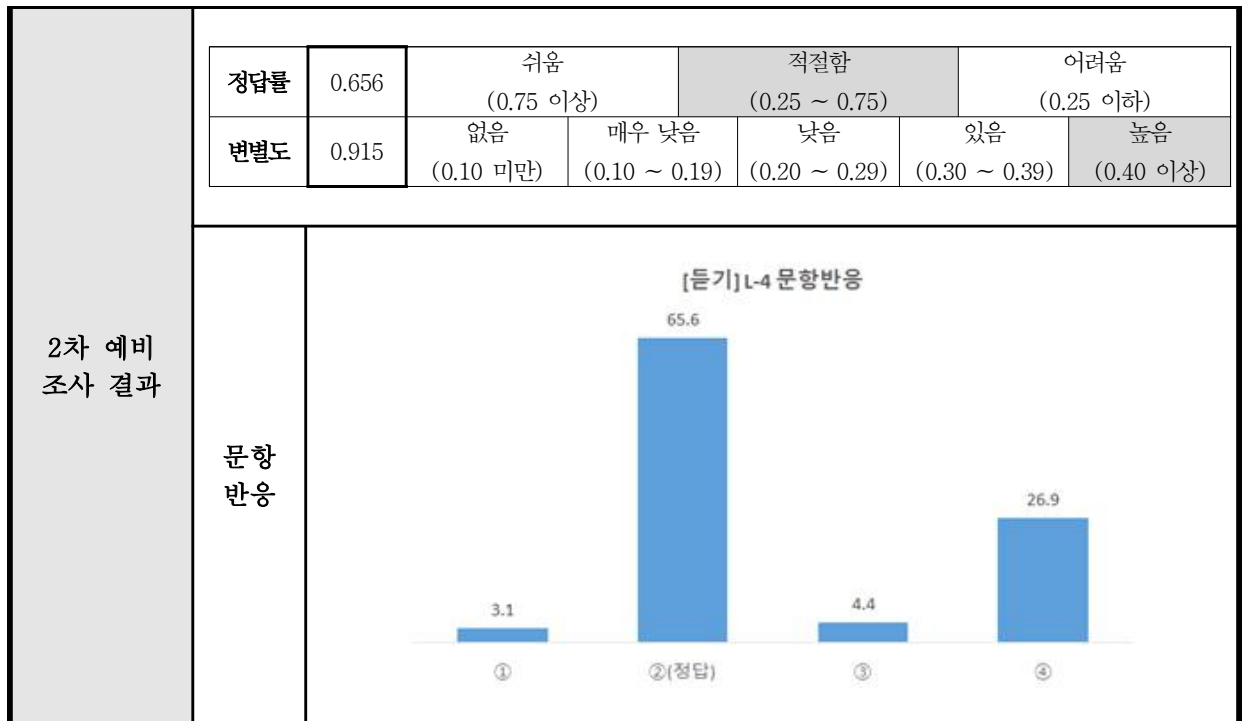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	2차 예비조사	L-1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세부 정보의 파악 능력)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818</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679</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81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67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81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67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1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11.6</td></tr><tr><td>②</td><td>5.0</td></tr><tr><td>③(정답)</td><td>81.8</td></tr><tr><td>④</td><td>1.7</td></tr></table>						①	11.6	②	5.0	③(정답)	81.8	④	1.7								
①	11.6																					
②	5.0																					
③(정답)	81.8																					
④	1.7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385</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1.479</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38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1.47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38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1.47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1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10.6</td></tr><tr><td>②</td><td>3.8</td></tr><tr><td>③(정답)</td><td>83.1</td></tr><tr><td>④</td><td>2.5</td></tr></table>						①	10.6	②	3.8	③(정답)	83.1	④	2.5								
①	10.6																					
②	3.8																					
③(정답)	83.1																					
④	2.5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2	2차 예비조사	L-2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심리 또는 태도의 추리)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문항 반응	<table><tr><td>정답률</td><td>0.798</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92</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79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79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9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듣기] L-2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정답)</td></tr><tr><td>5.4</td><td>3.3</td><td>11.6</td><td>79.8</td></tr></table>					①	②	③	④(정답)	5.4	3.3	11.6	79.8									
①	②	③	④(정답)																		
5.4	3.3	11.6	79.8																		
2차 예비 조사 결과	문항 반응	<table><tr><td>정답률</td><td>0.781</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1.273</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78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1.27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78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1.273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듣기] L-2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정답)</td></tr><tr><td>7.5</td><td>6.9</td><td>7.5</td><td>78.1</td></tr></table>					①	②	③	④(정답)	7.5	6.9	7.5	78.1									
①	②	③	④(정답)																		
7.5	6.9	7.5	78.1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4	2차 예비조사		L-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지시의 이행 능력)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519</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807</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51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51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4.3</td></tr><tr><td>②(정답)</td><td>51.9</td></tr><tr><td>③</td><td>4.3</td></tr><tr><td>④</td><td>39.5</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	4.3	②(정답)	51.9	③	4.3	④	39.5							
문항	정답률 (%)																						
①	4.3																						
②(정답)	51.9																						
③	4.3																						
④	39.5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7	2차 예비조사	L-6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핵심 정보의 파악)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문항 반응

정답률

0.840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66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 L-7 문항반응

84.0

5.6

2.5

8.0

①(정답)

②

③

④

2차 예비 조사 결과

문항 반응

정답률

0.84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5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 L-6 문항반응

84.4

2.5

1.3

11.9

①(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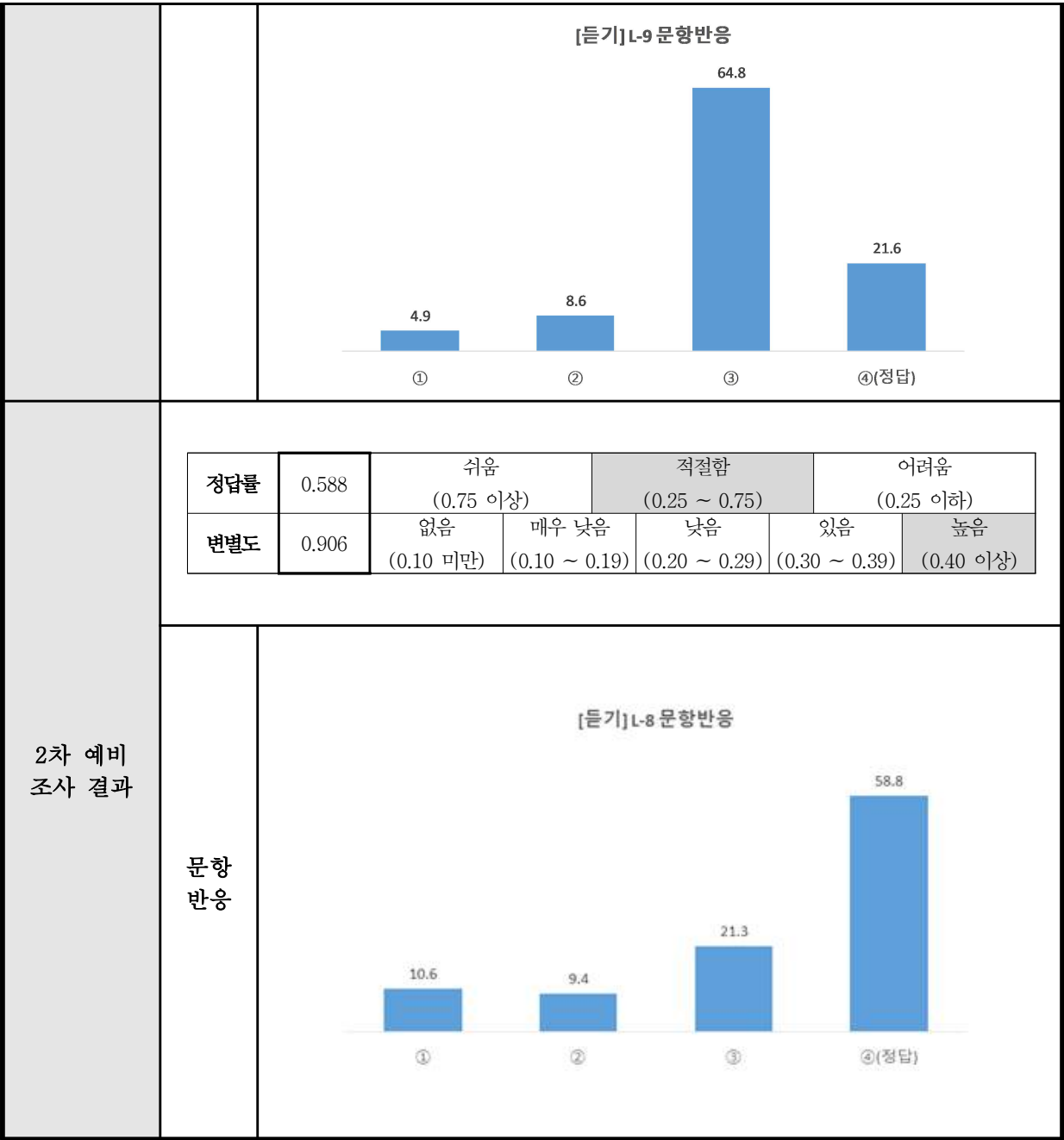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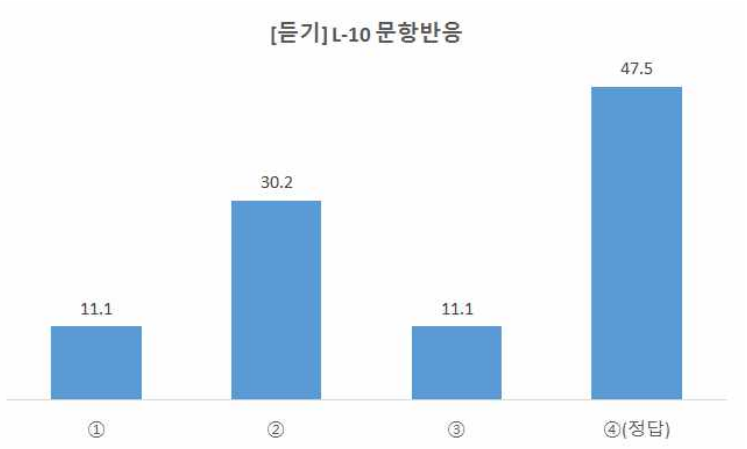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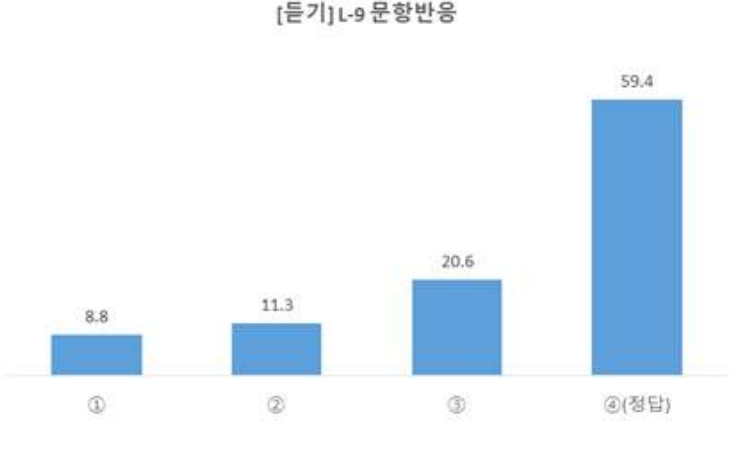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8	2차 예비조사		L-7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 능력(핵심 정보의 파악)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568</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12</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56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1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56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1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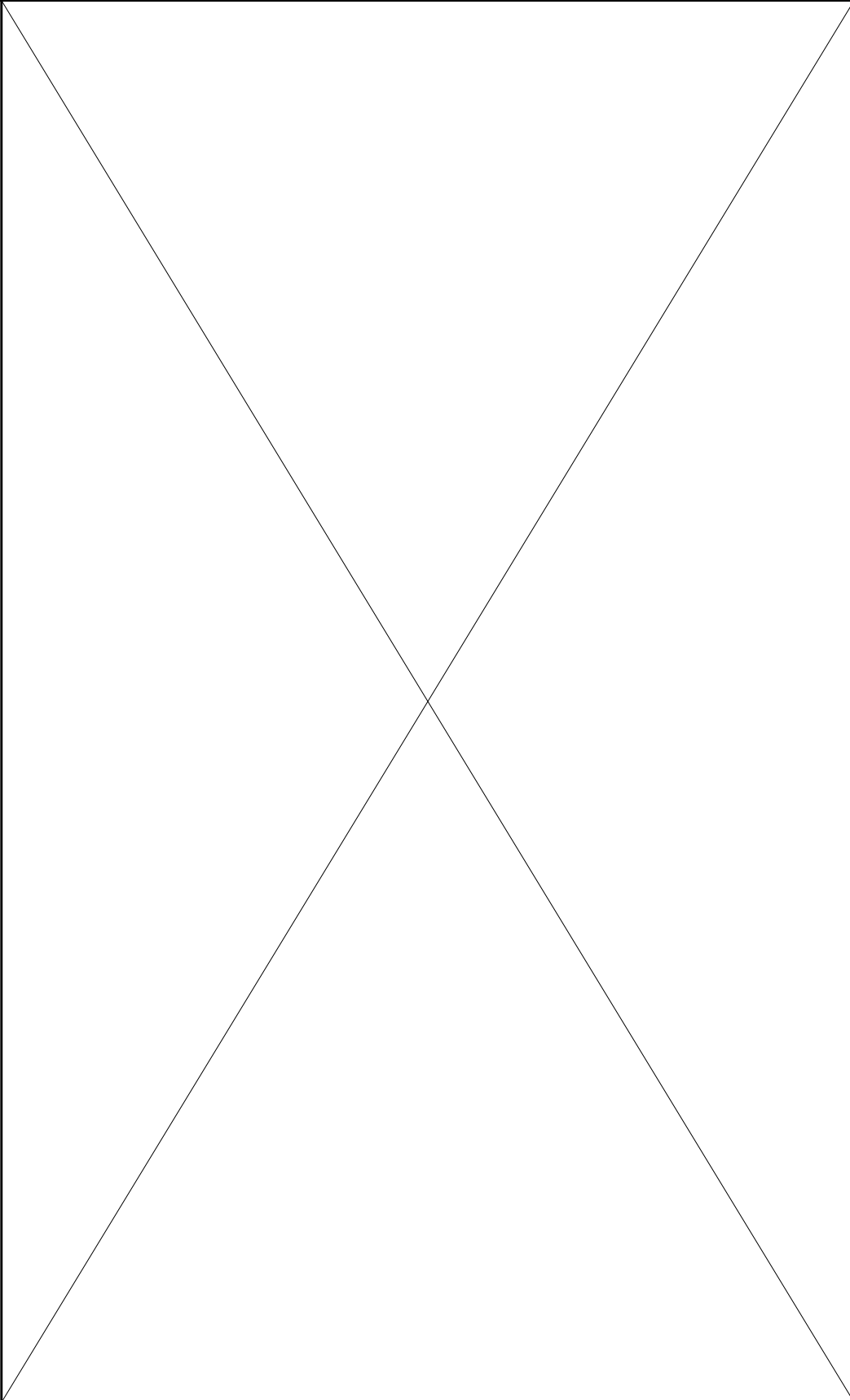
	문항 반응	[듣기]L-8 문항반응 <table><thead><tr><th>선택지</th><th>백분율 (%)</th></tr></thead><tbody><tr><td>①</td><td>27.8</td></tr><tr><td>②(정답)</td><td>56.8</td></tr><tr><td>③</td><td>10.5</td></tr><tr><td>④</td><td>4.9</td></tr></tbody></table>	선택지	백분율 (%)	①	27.8	②(정답)	56.8	③	10.5	④	4.9						
선택지	백분율 (%)																	
①	27.8																	
②(정답)	56.8																	
③	10.5																	
④	4.9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531</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537</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53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3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53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37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7 문항반응 <table><thead><tr><th>선택지</th><th>백분율 (%)</th></tr></thead><tbody><tr><td>①</td><td>34.4</td></tr><tr><td>②(정답)</td><td>53.1</td></tr><tr><td>③</td><td>8.8</td></tr><tr><td>④</td><td>3.8</td></tr></tbody></table>	선택지	백분율 (%)	①	34.4	②(정답)	53.1	③	8.8	④	3.8						
선택지	백분율 (%)																	
①	34.4																	
②(정답)	53.1																	
③	8.8																	
④	3.8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9	2차 예비조사		L-8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관적 듣기(내용의 평가)_설득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216</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136</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21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13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21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13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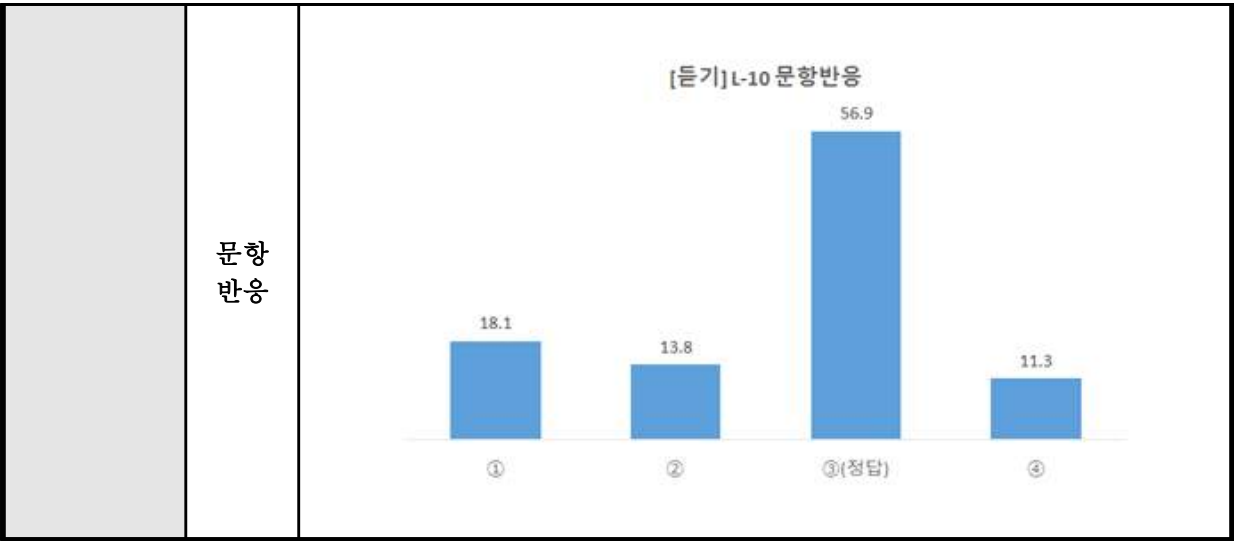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0	2차 예비조사		L-9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관적 듣기(내용의 평가)_설득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475</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006</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47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00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475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00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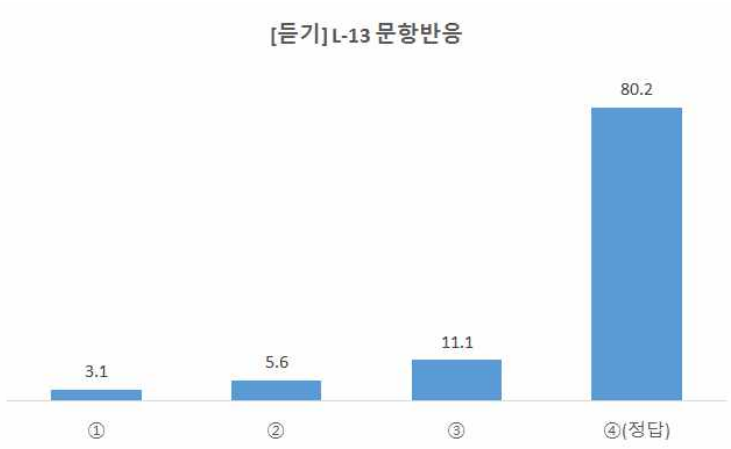
2차 예비 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L-10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th><th>③</th><th>④(정답)</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11.1</td><td>30.2</td><td>11.1</td><td>47.5</td></tr></tbody></table>	문항	①	②	③	④(정답)	반응률 (%)	11.1	30.2	11.1	47.5
	문항	①	②	③	④(정답)							
반응률 (%)	11.1	30.2	11.1	47.5								
문항 반응	[듣기]L-9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th><th>③</th><th>④(정답)</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8.8</td><td>11.3</td><td>20.6</td><td>59.4</td></tr></tbody></table>	문항	①	②	③	④(정답)	반응률 (%)	8.8	11.3	20.6	59.4	
문항	①	②	③	④(정답)								
반응률 (%)	8.8	11.3	20.6	59.4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1	2차 예비조사	L-10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사실적 듣기(세부 정보의 확인)_설득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556</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174</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55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17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55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17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11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33.3</td></tr><tr><td>②</td><td>6.8</td></tr><tr><td>③(정답)</td><td>55.6</td></tr><tr><td>④</td><td>4.3</td></tr></table>							①	33.3	②	6.8	③(정답)	55.6	④	4.3						
①	33.3																				
②	6.8																				
③(정답)	55.6																				
④	4.3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569</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484</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56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56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48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3	2차 예비조사		L-1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802</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328</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 colspan="2">높음 (0.40 이상)</td></tr></table>							정답률	0.80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2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802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328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 L-13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3.1</td></tr><tr><td>②</td><td>5.6</td></tr><tr><td>③</td><td>11.1</td></tr><tr><td>④(정답)</td><td>80.2</td></tr></tbody></table>	항목	반응률 (%)	①	3.1	②	5.6	③	11.1	④(정답)	80.2						
항목	반응률 (%)																	
①	3.1																	
②	5.6																	
③	11.1																	
④(정답)	80.2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정답률</td><td>0.694</td><td colspan="2">쉬움 (0.75 이상)</td><td colspan="2">적절함 (0.25 ~ 0.75)</td><td colspan="2">어려움 (0.25 이하)</td></tr><tr><td>변별도</td><td>0.710</td><td>없음 (0.10 미만)</td><td>매우 낮음 (0.10 ~ 0.19)</td><td>낮음 (0.20 ~ 0.29)</td><td>있음 (0.30 ~ 0.39)</td><td>높음 (0.40 이상)</td><td></td></tr></table>	정답률	0.69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1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694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1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 L-12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4.4</td></tr><tr><td>②</td><td>7.5</td></tr><tr><td>③</td><td>18.8</td></tr><tr><td>④(정답)</td><td>69.4</td></tr></tbody></table>	항목	반응률 (%)	①	4.4	②	7.5	③	18.8	④(정답)	69.4						
항목	반응률 (%)																	
①	4.4																	
②	7.5																	
③	18.8																	
④(정답)	69.4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7	2차 예비조사	L-1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설명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L-17 문항반응

문항	①	②(정답)	③	④
반응률 (%)	13.1	50.6	11.3	25.0

2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L-13 문항반응

문항	①	②(정답)	③	④
반응률 (%)	3.8	63.1	5.0	28.1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8	2차 예비조사	L-1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내용의 추리)_설득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L-18 문항반응

63.1

30.0

5.0

1.9

①(정답)

②

③

④

2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L-14 문항반응

83.8

8.8

6.3

1.3

①(정답)

②

③

④

정답률	0.63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116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정답률	0.838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15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19	2차 예비조사	L-15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비판적 듣기(형식의 평가)_설득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L-19 문항반응

항목	반응률 (%)
①	18.8
②(정답)	25.0
③	32.5
④	23.8

2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 반응

[듣기] L-15 문항반응

항목	반응률 (%)
①	6.3
②(정답)	55.0
③	15.0
④	23.8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L-20	2차 예비조사	L-16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추론적 듣기(적용)_선택적 담화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81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530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20 문항반응

①	②	③(정답)	④
10.6	15.0	68.1	6.3

2차 예비
조사 결과

정답률	0.65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229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문항
반응

[듣기]L-16 문항반응

①	②	③(정답)	④
14.4	12.5	65.6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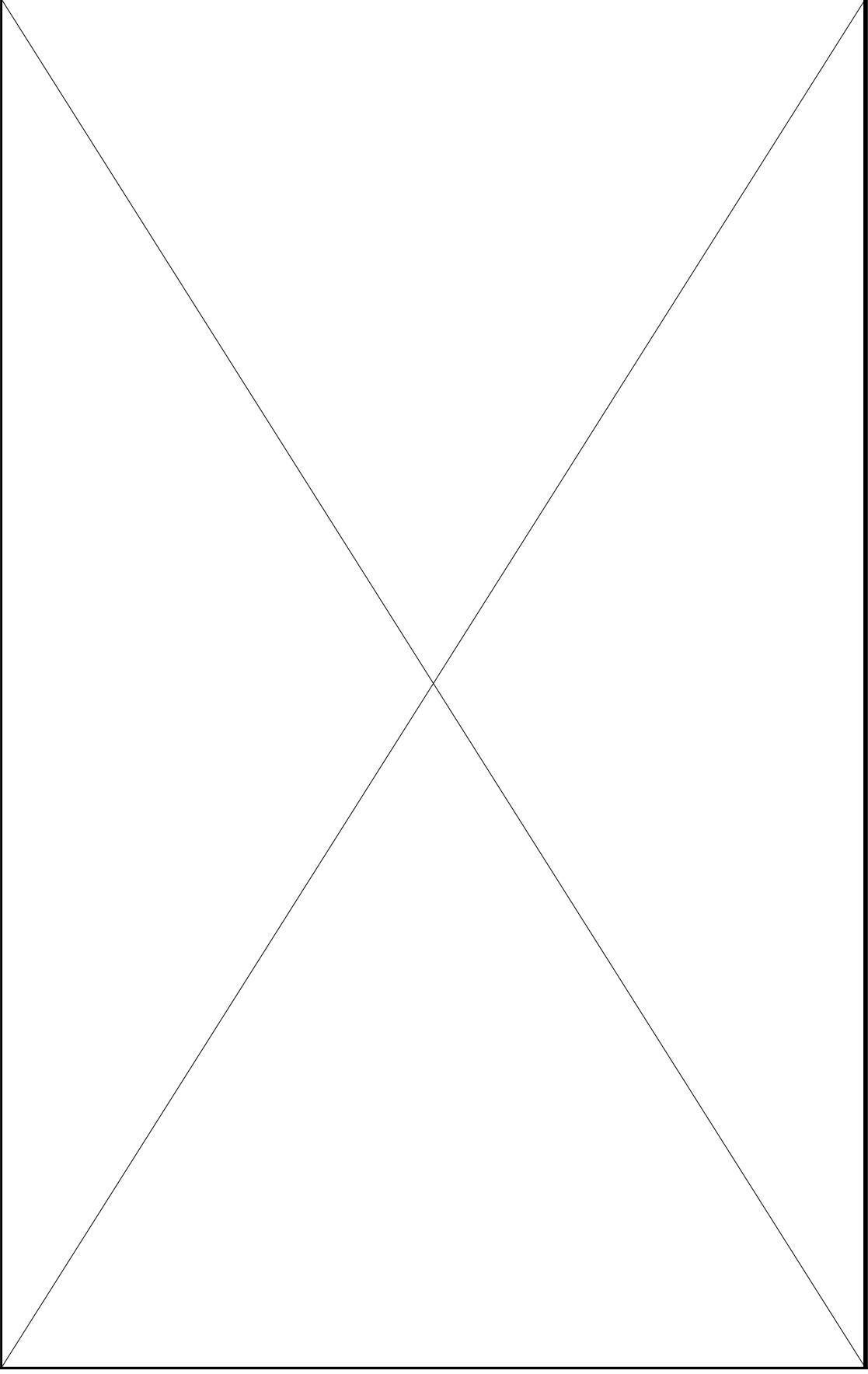
2) 말하기 영역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S-1		2차 예비조사		S-1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설득하는 말하기 - 요청하는 말하기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1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195	중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61							
			표현	.139							
			전달	.667							
		변별도	선정	1.040	변별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899										
표현	.683										
전달	1.067										
2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110	중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011							
			표현	-.011							
			전달	.744							
		변별도	선정	.765	변별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018							
			표현	1.018							
			전달	1.059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S-2		2차 예비조사		S-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설득하는 말하기 - 요청하는 말하기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잘 드러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요청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1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018	중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078								
		표현	-.200								
		전달	.702								
	변별도	선정	1.310	변별도가 적절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282								
		표현	.948								
		전달	1.446								
2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253	중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230								
		표현	-.011								
		전달	.773								
	변별도	선정	.790	변별도가 적절하거나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021								
		표현	1.021								
		전달	2.428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S-3		2차 예비조사		S-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설명하는 말하기 - 설명하는 말하기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1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030	중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215							
				표현	.373							
				전달	.559							
			변별도	선정	1.038	변별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190							
				표현	1.147							
				전달	1.830							
2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143	중간 정도에서 약간 쉬운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432							
				표현	-.432							
				전달	.587							
			변별도	선정	.636	변별도가 적절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785							
				표현	.785							
				전달	1.623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S-4		2차 예비조사		S-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설명하는 말하기 - 설명하는 말하기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명에 적합하다. - 시작과 마무리가 자연스럽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1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291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018							
				표현	.298							
				전달	.603							
			변별도	선정	1.166	변별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357							
				표현	1.542							
				전달	2.438							
2차 예비조사			곤란도	선정	-.316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약간 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415							
				표현	-.415							
				전달	.624							
			변별도	선정	1.805	변별도가 적절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1.036							
				표현	1.036							
				전달	1.369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S-5	2차 예비조사	S-6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득하는 말하기-주장하는 말하기									
수정 사항	없음.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구성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 한다.	3	6	9	12	15	30 %	60 %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3	6	9	12	15	30 %	
	표현 및 전달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2	4	6	8	10	20 %	40 %
전달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 적절한 시간을 지켜 말한다.	2	4	6	8	10	20 %		
2013년도 본조사 결과	난이도	0.439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742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1차 예비 조사	곤란도	선정	.316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464							
		표현	.365							
		전달	.522							
	변별도	선정	.610	변별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727							
		표현	1.052							
		전달	1.441							
2차 예비 조사	곤란도	선정	.905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791							
		표현	.791							
		전달	.461							
	변별도	선정	.583	변별도가 크게 높지는 않게 나타났다. 이는 가교문항의 내용이 다소 시간이 지난 사회적 주제로 구성되었기 때 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직	.545							
		표현	.545							
		전달	1.005							

3) 읽기 영역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	2차 예비조사	R-1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	③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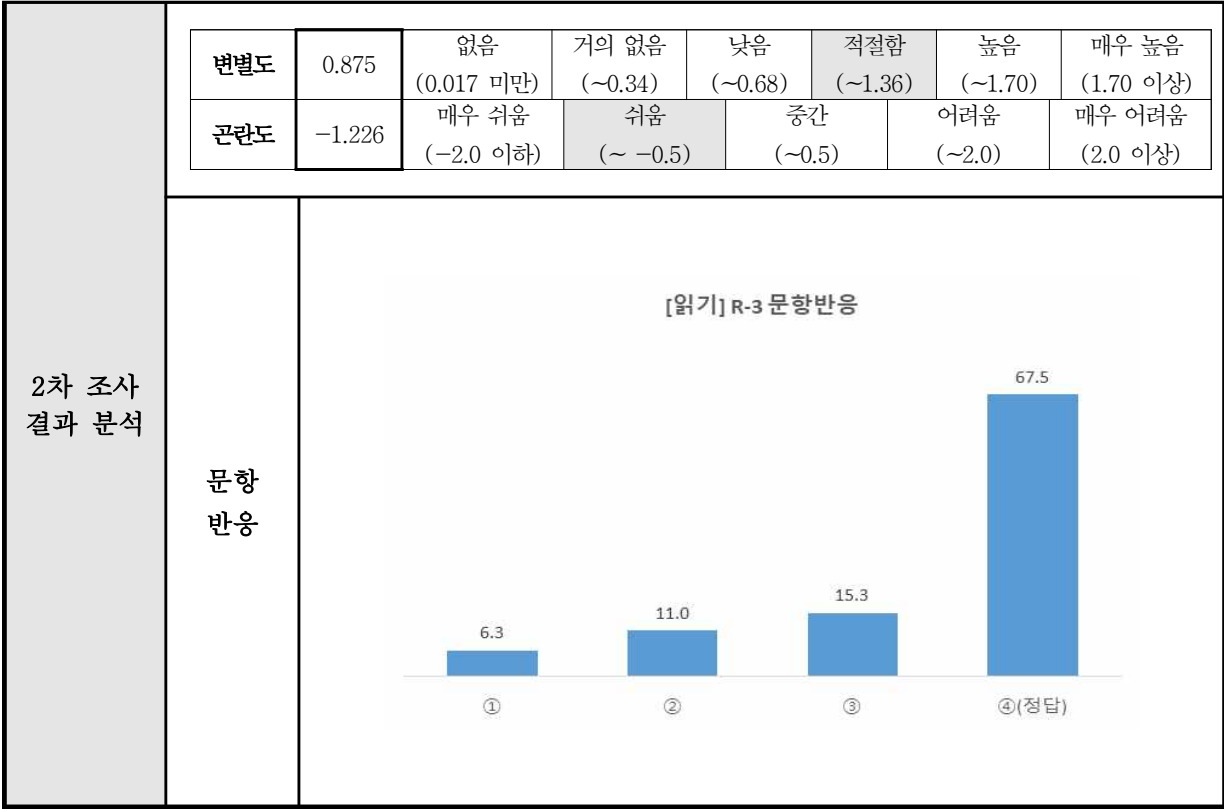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461</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3.611</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461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61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461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61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정답)</td><td>④</td></tr><tr><td>0.8</td><td>8.5</td><td>87.9</td><td>2.8</td></tr></table>								①	②	③(정답)	④	0.8	8.5	87.9	2.8								
①	②	③(정답)	④																					
0.8	8.5	87.9	2.8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93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2.398</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93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398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93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398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정답)</td><td>④</td></tr><tr><td>1.3</td><td>8.0</td><td>88.5</td><td>2.3</td></tr></table>								①	②	③(정답)	④	1.3	8.0	88.5	2.3								
①	②	③(정답)	④																					
1.3	8.0	88.5	2.3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2	2차 예비조사	R-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600</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731</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60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3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60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3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 문항반응 <table><tr><th>항목</th><th>반응률 (%)</th></tr><tr><td>①(정답)</td><td>63.4</td></tr><tr><td>②</td><td>8.7</td></tr><tr><td>③</td><td>13.1</td></tr><tr><td>④</td><td>14.7</td></tr></table>	항목	반응률 (%)	①(정답)	63.4	②	8.7	③	13.1	④	14.7					
항목	반응률 (%)																
①(정답)	63.4																
②	8.7																
③	13.1																
④	14.7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이 기사’를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02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07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02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0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02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0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 문항반응 <table><tr><th>항목</th><th>반응률 (%)</th></tr><tr><td>①(정답)</td><td>62.5</td></tr><tr><td>②</td><td>7.0</td></tr><tr><td>③</td><td>13.8</td></tr><tr><td>④</td><td>16.8</td></tr></table>	항목	반응률 (%)	①(정답)	62.5	②	7.0	③	13.8	④	16.8					
항목	반응률 (%)																
①(정답)	62.5																
②	7.0																
③	13.8																
④	16.8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		2차 예비조사		R-3																
평가 문항																								
평가 요소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④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이 기사’를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389</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108</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8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08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8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08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3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7.8</td></tr><tr><td>②</td><td>8.7</td></tr><tr><td>③</td><td>20.9</td></tr><tr><td>④(정답)</td><td>62.6</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	7.8	②	8.7	③	20.9	④(정답)	62.6								
문항	정답률 (%)																							
①	7.8																							
②	8.7																							
③	20.9																							
④(정답)	62.6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4	2차 예비조사	R-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정답	③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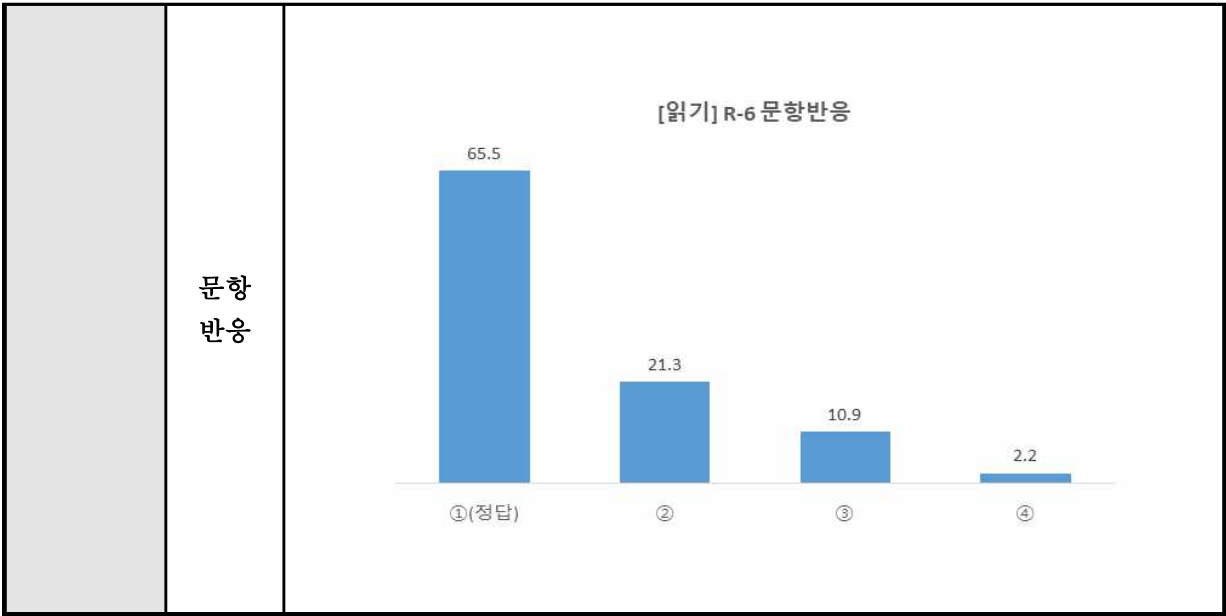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변별도	0.61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2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2.4</td></tr><tr><td>②</td><td>4.0</td></tr><tr><td>③(정답)</td><td>73.6</td></tr><tr><td>④</td><td>20.1</td></tr></tbody></table>							문항	반응률 (%)	①	2.4	②	4.0	③(정답)	73.6	④
문항	반응률 (%)																
①	2.4																
②	4.0																
③(정답)	73.6																
④	20.1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다음의’를 ‘다음’으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변별도	0.87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7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2.0</td></tr><tr><td>②</td><td>3.5</td></tr><tr><td>③(정답)</td><td>71.3</td></tr><tr><td>④</td><td>23.3</td></tr></tbody></table>							문항	반응률 (%)	①	2.0	②	3.5	③(정답)	71.3	④
문항	반응률 (%)																
①	2.0																
②	3.5																
③(정답)	71.3																
④	23.3																
수정 사항	조사 대상자가 보다 전자 우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 님을 찾아뵙고자’의 ‘선생님’을 ‘교수님’으로 수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6	2차 예비조사	R-5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①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487</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85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 colspan="2">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48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85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48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85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6 문항반응 <table><tr><td>①(정답)</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8.2</td><td>1.5</td><td>15.9</td><td>14.4</td></tr></table>							①(정답)	②	③	④	68.2	1.5	15.9	14.4									
①(정답)	②	③	④																					
68.2	1.5	15.9	14.4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하여 문두의 ‘이 글’을 ‘위 글’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928</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11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 colspan="2">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92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1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92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1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5 문항반응 <table><tr><td>①(정답)</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4.8</td><td>1.9</td><td>17.6</td><td>15.7</td></tr></table>							①(정답)	②	③	④	64.8	1.9	17.6	15.7									
①(정답)	②	③	④																					
64.8	1.9	17.6	15.7																					
수정 사항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지 ①의 ‘놀이 전에’를 ‘놀고 싶어도’로 수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7		2차 예비조사		R-6																		
평가 문항																										
평가 요소		평가 -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정답	①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21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166</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21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6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21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6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7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8.0</td></tr><tr><td>②</td><td>18.4</td></tr><tr><td>③</td><td>18.9</td></tr><tr><td>④(정답)</td><td>54.7</td></tr></table>									①	8.0	②	18.4	③	18.9	④(정답)	54.7										
①	8.0																									
②	18.4																									
③	18.9																									
④(정답)	54.7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실험’을 ‘위 글의 실험’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위 문항은 변별도가 0.214로 낮게 나왔는데, 기존의 답지 ④에 대한 피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답지의 순서를 역순으로 조정하고,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89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277</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89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27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89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27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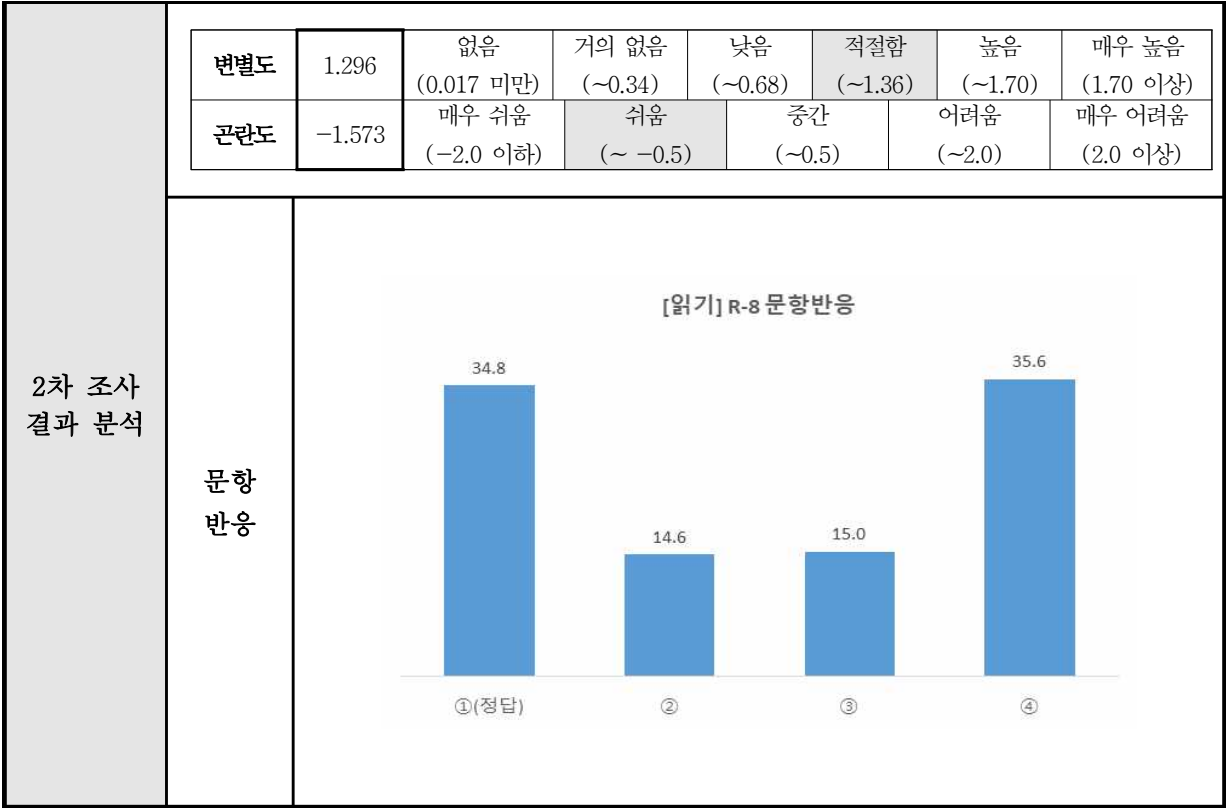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9	2차 예비조사		R-7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③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변별도	0.42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20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9 문항반응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①</th><th>②</th><th>③(정답)</th><th>④</th></tr></thead><tbody><tr><td>비율 (%)</td><td>13.9</td><td>10.9</td><td>53.2</td><td>21.9</td></tr></tbody></table>	항목	①	②	③(정답)	④	비율 (%)	13.9	10.9	53.2	21.9
	항목	①	②	③(정답)	④							
비율 (%)	13.9	10.9	53.2	21.9								
수정 사항	위 문항은 문두의 '다른'에 밑줄이 누락되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또한 밑줄의 위치를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349</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40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4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40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4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40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7 문항반응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①</th><th>②</th><th>③(정답)</th><th>④</th></tr></thead><tbody><tr><td>비율 (%)</td><td>12.0</td><td>8.6</td><td>45.7</td><td>33.7</td></tr></tbody></table>	항목	①	②	③(정답)	④	비율 (%)	12.0	8.6	45.7	33.7						
항목	①	②	③(정답)	④													
비율 (%)	12.0	8.6	45.7	33.7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0		2차 예비조사		R-8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내용 간 관계 파악					정답		①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61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387</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61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38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61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38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0 문항반응 <table><tr><td>①(정답)</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7.8</td><td>14.4</td><td>16.4</td><td>31.3</td></tr></table>						①(정답)	②	③	④	37.8	14.4	16.4	31.3										
①(정답)	②	③	④																						
37.8	14.4	16.4	31.3																						
수정 사항		위 문항은 1차 예비조사 시행 과정에서 지문 본문의 밑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A))을 다시 추가하고, 그에 맞게 발문을 수정하였다. 한편 변인별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정답(①)과 오답(④) 간 반응 역전 현상이 확인되어 정답 ①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1		2차 예비조사		R-9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정답	③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1.075</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714</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07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7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07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7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1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도 (%)</th></tr></thead><tbody><tr><td>①</td><td>3.5</td></tr><tr><td>②</td><td>1.0</td></tr><tr><td>③(정답)</td><td>86.1</td></tr><tr><td>④</td><td>9.5</td></tr></tbody></table>	항목	반응도 (%)	①	3.5	②	1.0	③(정답)	86.1	④	9.5						
항목	반응도 (%)																	
①	3.5																	
②	1.0																	
③(정답)	86.1																	
④	9.5																	
	수정 사항	발문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 시간표의 형식을 일부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53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2.27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53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27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53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27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9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반응도 (%)</th></tr></thead><tbody><tr><td>①</td><td>3.0</td></tr><tr><td>②</td><td>0.0</td></tr><tr><td>③(정답)</td><td>88.4</td></tr><tr><td>④</td><td>8.6</td></tr></tbody></table>	항목	반응도 (%)	①	3.0	②	0.0	③(정답)	88.4	④	8.6						
항목	반응도 (%)																	
①	3.0																	
②	0.0																	
③(정답)	88.4																	
④	8.6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2	2차 예비조사	R-10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정답	④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1.039</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180</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03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8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03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8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2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6.5</td></tr><tr><td>②</td><td>5.5</td></tr><tr><td>③</td><td>10.4</td></tr><tr><td>④(정답)</td><td>77.6</td></tr></table>	①	6.5	②	5.5	③	10.4	④(정답)	77.6								
①	6.5																
②	5.5																
③	10.4																
④(정답)	77.6																
수정 사항	명확한 표현을 위해 문두의 ‘다음 카메라 설명서’를 ‘다음 사용 설명서’로 수정하였으며, 문항 발문의 ‘위 글’을 ‘위 설명서’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29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573</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29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57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29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57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0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7.1</td></tr><tr><td>②</td><td>3.4</td></tr><tr><td>③</td><td>7.5</td></tr><tr><td>④(정답)</td><td>82.0</td></tr></table>	①	7.1	②	3.4	③	7.5	④(정답)	82.0								
①	7.1																
②	3.4																
③	7.5																
④(정답)	82.0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3		2차 예비조사		R-11																
평가 문항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중심 내용[대의] 파악					정답	②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53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263</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53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26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53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26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3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6.0</td></tr><tr><td>②(정답)</td><td>73.1</td></tr><tr><td>③</td><td>8.5</td></tr><tr><td>④</td><td>12.4</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	6.0	②(정답)	73.1	③	8.5	④	12.4						
문항	정답률 (%)																							
①	6.0																							
②(정답)	73.1																							
③	8.5																							
④	12.4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설명서'를 '위 설명서'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53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2.27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53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27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53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27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1 문항반응 <table><tr><th>문항</th><th>반응 (%)</th></tr><tr><td>①</td><td>2.6</td></tr><tr><td>②(정답)</td><td>78.3</td></tr><tr><td>③</td><td>5.2</td></tr><tr><td>④</td><td>13.9</td></tr></table>	문항	반응 (%)	①	2.6	②(정답)	78.3	③	5.2	④	13.9
문항	반응 (%)											
①	2.6											
②(정답)	78.3											
③	5.2											
④	13.9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4	2차 예비조사	R-1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정답	②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2.00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622</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2.00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2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2.00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2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4 문항반응 <table><tr><td>①(정답)</td><td>88.1</td></tr><tr><td>②</td><td>5.0</td></tr><tr><td>③</td><td>2.0</td></tr><tr><td>④</td><td>5.0</td></tr></table>	①(정답)	88.1	②	5.0	③	2.0	④	5.0								
①(정답)	88.1																
②	5.0																
③	2.0																
④	5.0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09:00 - 16:00’과 띄어쓰기 양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15:00-15:40’에서 ‘15:00 - 15:40’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2.497</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71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2.49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71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2.49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71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2 문항반응 <table><tr><td>①(정답)</td><td>94.8</td></tr><tr><td>②</td><td>3.0</td></tr><tr><td>③</td><td>1.1</td></tr><tr><td>④</td><td>1.1</td></tr></table>	①(정답)	94.8	②	3.0	③	1.1	④	1.1								
①(정답)	94.8																
②	3.0																
③	1.1																
④	1.1																
수정 사항	텍스트 유형 배분을 고려하여, 내용은 이전과 유사하게 하되 그 형식을 구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 안내문으로 변경하였다. 또 이에 맞추어 답지의 내용 역시 수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6	2차 예비조사	R-1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변별도	0.49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52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6 문항반응

①	②	③(정답)	④
8.5	7.5	74.1	10.0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다음의’를 ‘다음’으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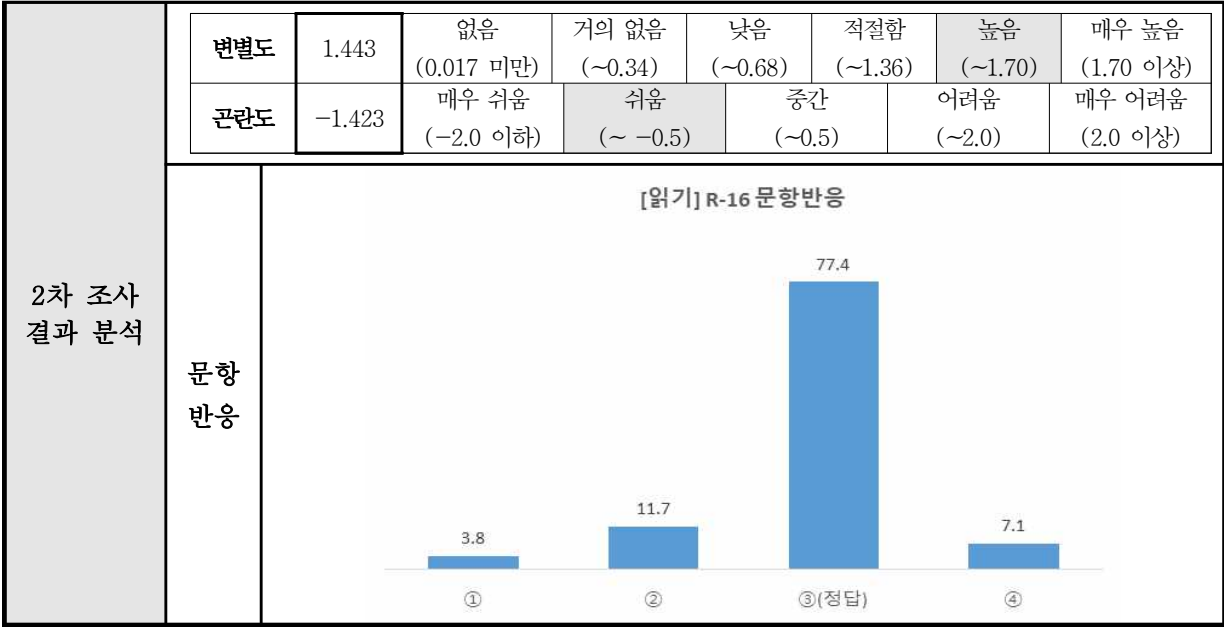
변별도	0.31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78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4 문항반응

①	②	③(정답)	④
12.8	3.4	80.5	3.4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18		2차 예비조사		R-16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③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1.07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790</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1.07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9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07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9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8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th><th>③(정답)</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7.0</td><td>18.9</td><td>67.7</td><td>6.5</td></tr></tbody></table>									문항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	7.0	18.9	67.7	6.5						
문항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	7.0	18.9	67.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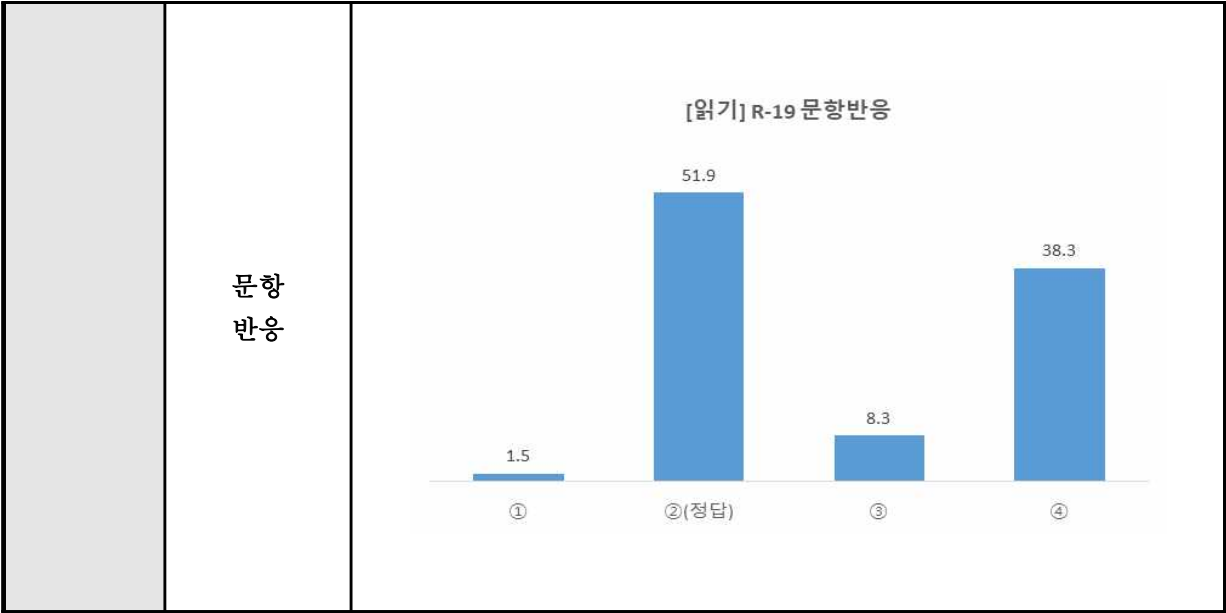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21	2차 예비조사		R-18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정답	③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변별도		0.40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83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1 문항반응 <table><tr><th>항목</th><th>값</th></tr><tr><td>①</td><td>3.0</td></tr><tr><td>②</td><td>5.9</td></tr><tr><td>③(정답)</td><td>84.2</td></tr><tr><td>④</td><td>6.9</td></tr></table>	항목	값	①	3.0	②	5.9	③(정답)	84.2	④	6.9
	항목	값										
①	3.0											
②	5.9											
③(정답)	84.2											
④	6.9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가정 통신문’을 ‘위 가정 통신문’으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91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641</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91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4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91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4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18 문항반응 <table><tr><th>항목</th><th>값</th></tr><tr><td>①</td><td>0.4</td></tr><tr><td>②</td><td>4.9</td></tr><tr><td>③(정답)</td><td>86.8</td></tr><tr><td>④</td><td>7.9</td></tr></table>	항목	값	①	0.4	②	4.9	③(정답)	86.8	④	7.9					
항목	값															
①	0.4															
②	4.9															
③(정답)	86.8															
④	7.9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22		2차 예비조사		R-19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재구성 - 반응 또는 의미 재구성					정답		②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66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53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66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53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66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53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2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2.0</td></tr><tr><td>②(정답)</td><td>54.0</td></tr><tr><td>③</td><td>9.4</td></tr><tr><td>④</td><td>34.7</td></tr></tbody></table>								문항	반응률 (%)	①	2.0	②(정답)	54.0	③	9.4	④	34.7							
문항	반응률 (%)																							
①	2.0																							
②(정답)	54.0																							
③	9.4																							
④	34.7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글’을 ‘위 가정 통신문’으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11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7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11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11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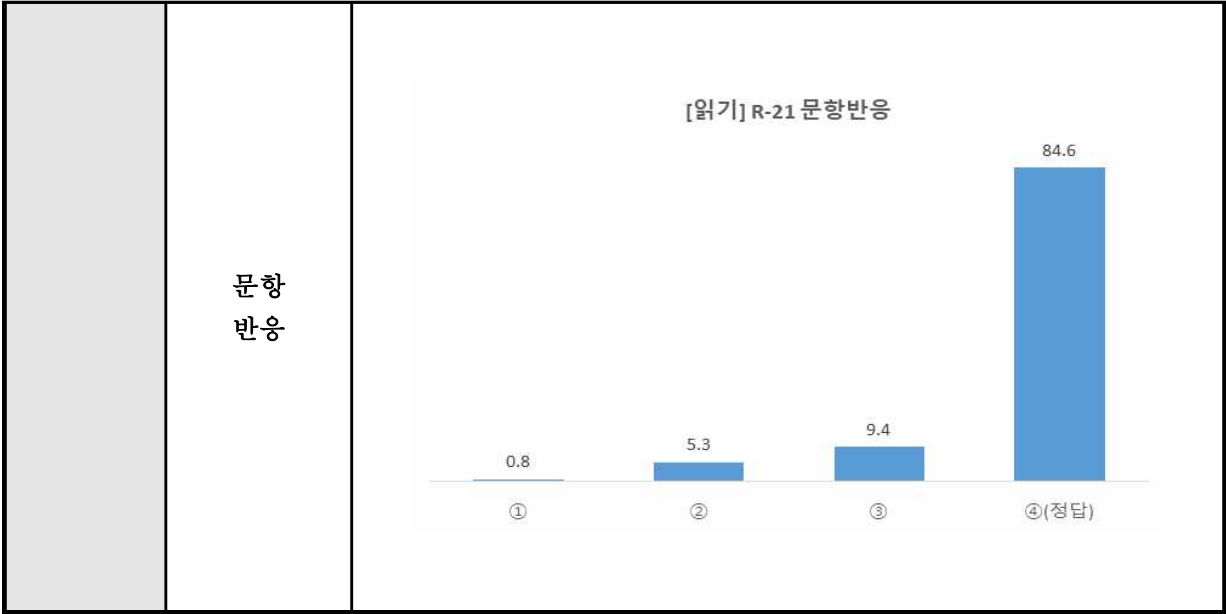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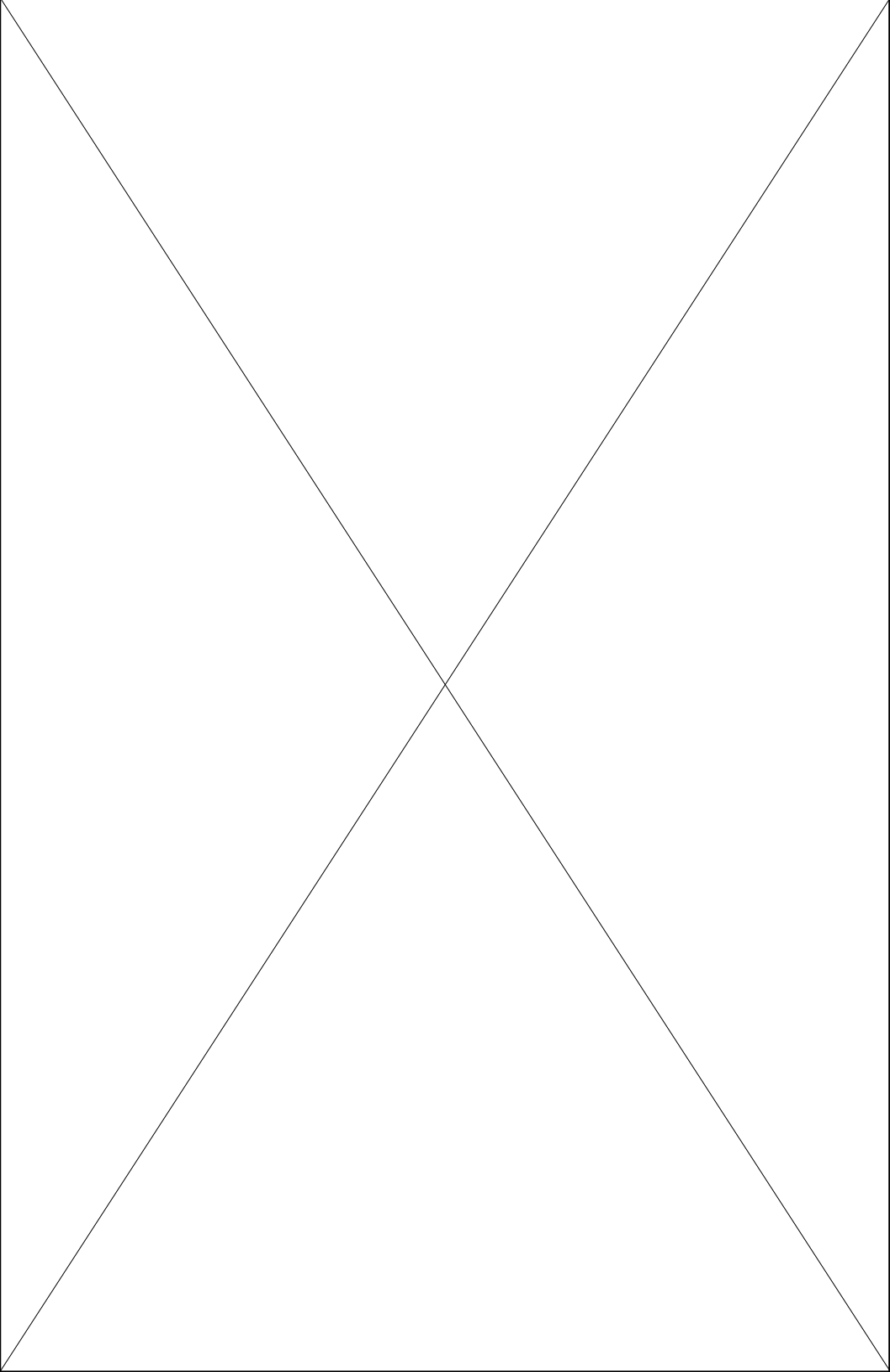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24	2차 예비조사	R-20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	③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변별도	0.48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52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th><th>③(정답)</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13.4</td><td>9.4</td><td>73.8</td><td>3.5</td></tr></tbody></table>							문항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	13.4	9.4	73.8
문항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	13.4	9.4	73.8	3.5													
수정 사항	표현의 명료성을 위해 문두의 ‘다음 글’을 ‘다음 전자 우편’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항 문두의 ‘전자우편’을 ‘위 전자 우편’으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변별도	0.57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08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0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th><th>③(정답)</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11.3</td><td>6.8</td><td>80.5</td><td>1.5</td></tr></tbody></table>							문항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	11.3	6.8	80.5
문항	①	②	③(정답)	④													
반응률 (%)	11.3	6.8	80.5	1.5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25		2차 예비조사		R-21																	
평가 문항																									
평가 요소		추론 - 생략된 정보 재구					정답	④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72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753</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72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5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72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753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5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정답)</td></tr><tr><td>3.0</td><td>7.9</td><td>13.4</td><td>75.7</td></tr></table>							①	②	③	④(정답)	3.0	7.9	13.4	75.7								
①	②	③	④(정답)																						
3.0	7.9	13.4	75.7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전자우편’을 ‘위 전자 우편’으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0.808</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97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80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9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80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9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28	2차 예비조사	R-2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추론 -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정답	④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70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922</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70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92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70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92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8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정답)</td></tr><tr><td>5.0</td><td>2.5</td><td>6.4</td><td>86.1</td></tr></table>							①	②	③	④(정답)	5.0	2.5	6.4	86.1								
①	②	③	④(정답)																				
5.0	2.5	6.4	86.1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17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636</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1.1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3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1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3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3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정답)</td></tr><tr><td>6.7</td><td>4.9</td><td>7.5</td><td>80.9</td></tr></table>							①	②	③	④(정답)	6.7	4.9	7.5	80.9								
①	②	③	④(정답)																				
6.7	4.9	7.5	80.9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3	2차 예비조사	R-25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②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49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456</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49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5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49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5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33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정답)</td><td>③</td><td>④</td></tr><tr><td>7.0</td><td>72.0</td><td>11.5</td><td>9.5</td></tr></table>	①	②(정답)	③	④	7.0	72.0	11.5	9.5								
①	②(정답)	③	④														
7.0	72.0	11.5	9.5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기사’를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3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14</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3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3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5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②(정답)</td><td>③</td><td>④</td></tr><tr><td>7.1</td><td>70.0</td><td>13.9</td><td>9.0</td></tr></table>	①	②(정답)	③	④	7.1	70.0	13.9	9.0								
①	②(정답)	③	④														
7.1	70.0	13.9	9.0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4		2차 예비조사		R-26																
평가 문항																								
평가 요소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④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table><tr><td>변별도</td><td>0.380</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688</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38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688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8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688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3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6.0</td></tr><tr><td>②</td><td>3.5</td></tr><tr><td>③</td><td>15.5</td></tr><tr><td>④(정답)</td><td>75.0</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	6.0	②	3.5	③	15.5	④(정답)	75.0							
문항	정답률 (%)																							
①	6.0																							
②	3.5																							
③	15.5																							
④(정답)	75.0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글’을 ‘위 기사’로 수정하였다.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6	2차 예비조사	R-28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②
해설					

1차 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문항 반응

[읽기] R-36 문항반응

문항	빈도
①	6.5
②(정답)	69.0
③	12.5
④	12.0

2차 조사 결과 분석

문항 반응

[읽기] R-28 문항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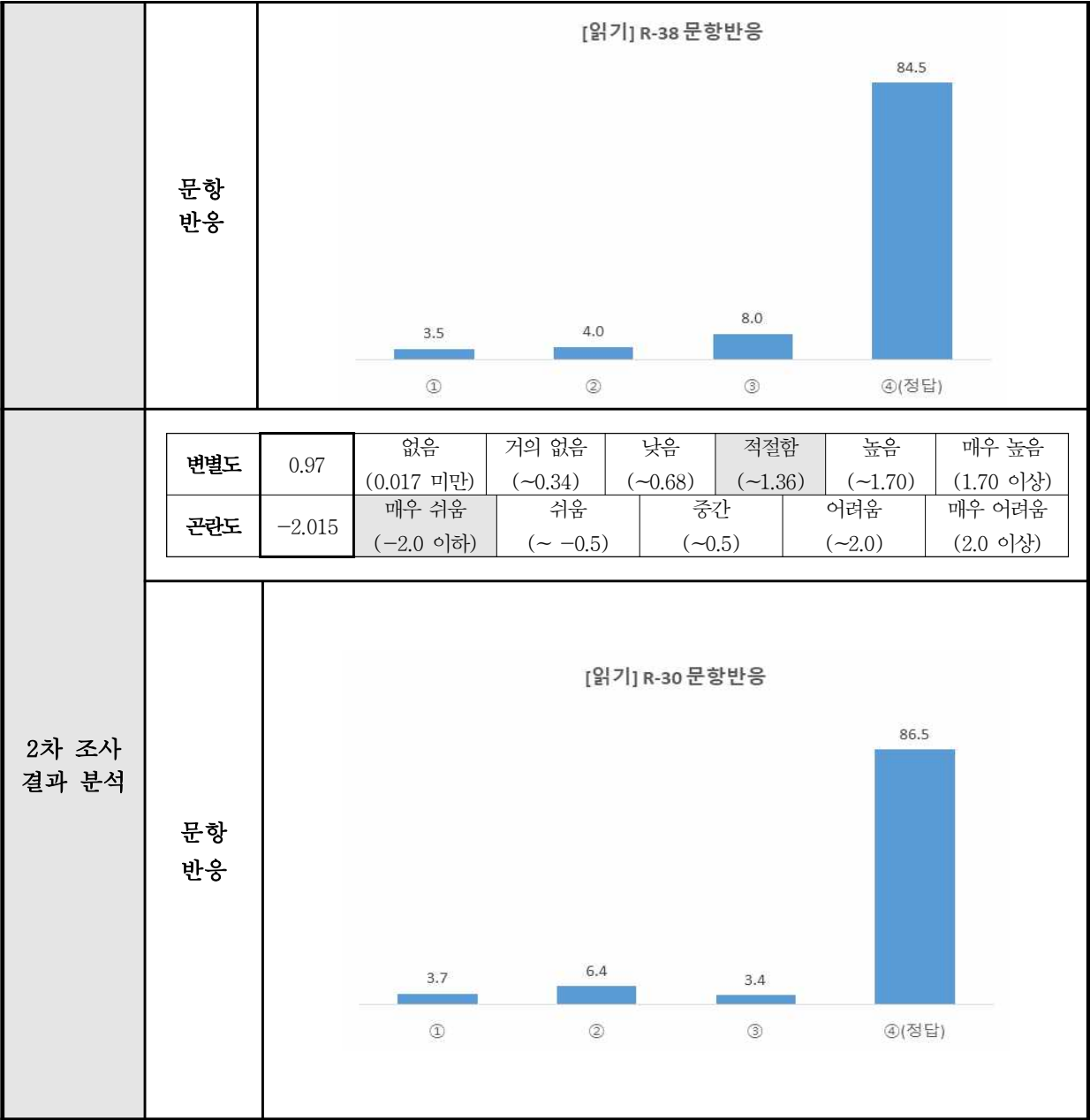
문항	빈도
①	9.4
②(정답)	71.5
③	11.6
④	7.5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7	2차 예비조사		R-29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수정 사항								
	변별도	0.361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2.75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37 문항반응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2.5</td></tr><tr><td>②(정답)</td><td>84.0</td></tr><tr><td>③</td><td>2.5</td></tr><tr><td>④</td><td>11.0</td></tr></tbody></table>	항목	반응률 (%)	①	2.5	②(정답)	84.0	③	2.5	④	11.0
	항목	반응률 (%)										
①	2.5											
②(정답)	84.0											
③	2.5											
④	11.0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 및 표현의 명료성을 위해 문두를 수정하였다. 한편 위 문항은 곤란도가 -2.751로 매우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체 선지의 근거를 삽화에서 보다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삽화를 새로이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table><tr><td>변별도</td><td>1.493</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54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49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54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49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54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29 문항반응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4.9</td></tr><tr><td>②(정답)</td><td>82.4</td></tr><tr><td>③</td><td>6.7</td></tr><tr><td>④</td><td>6.0</td></tr></tbody></table>	항목	반응률 (%)	①	4.9	②(정답)	82.4	③	6.7	④	6.0					
항목	반응률 (%)															
①	4.9															
②(정답)	82.4															
③	6.7															
④	6.0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8	2차 예비조사		R-30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정답	④																
해설																								
수정 사항		기존 삽화의 내용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삽화 본문 글씨의 크기를 키우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1.07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914</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 colspan="2">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0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9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0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9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R-39	2차 예비조사	R-31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변별도

.48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51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39 문항반응

50.0

25.0

19.5

5.5

①(정답)

②

③

④

수정 사항

전체적인 발문 통일을 위해 문두의 ‘이 사실’을 ‘위 사실’로 수정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

변별도

0.771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27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읽기] R-31 문항반응

44.6

25.5

20.2

9.7

①(정답)

②

③

④

4) 쓰기 영역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W-1		2차 예비조사		W-1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적 글쓰기 - 설명문																																									
정답 및 해설			<table><tr><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채점 요소</th><th colspan="5">채점 척도</th></tr><tr><th>매우 미흡</th><th>미흡</th><th>보통</th><th>우수</th><th>매우 우수</th></tr><tr><td>내용: 40점 (50%)</td><td>-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td><td>8</td><td>16</td><td>24</td><td>32</td><td>40</td></tr><tr><td>조직; 24점 (30%)</td><td>-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td><td>5</td><td>10</td><td>14</td><td>19</td><td>24</td></tr><tr><td>표현: 16점 (20%)</td><td>-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td><td>3</td><td>6</td><td>10</td><td>13</td><td>16</td></tr></table>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3	6	10	13	16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3	6	10	13	16																																						
2013 본조사 조사 결과			난이도	0.426	쉬움 (0.75 이상)		적절함 (0.25 ~ 0.75)		어려움 (0.25 이하)																																			
			변별도	0.804	없음 (0.10 미만)	매우 낮음 (0.10 ~ 0.19)	낮음 (0.20 ~ 0.29)	있음 (0.30 ~ 0.39)	높음 (0.40 이상)																																			
1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1.185	내용과 조직 영역에 있어 다소 높은 곤란도를, 표현 영역에서는 적절한 곤란도를 보임. 그러나 2013년에 적절한 곤란도를																																						
				조직	1.250																																							

		표현	.599	보였던 동일한 가교문항이라는 점에서 문항의 곤란도보다는 채점 기준을 다소 완화해야할 것으로 보임.
	변별도	내용	.915	변별도 높음.
		조직	.424	
		표현	.625	
2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195	곤란도 적절함.
		조직	.338	
		표현	.087	
	변별도	내용	.606	변별도 높음.
		조직	.632	
		표현	.603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W-2	2차 예비조사	W-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설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고 있는지, 400자라는 다소 긴 분량을 통해 단락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table> <tr> <th rowspan="2">평가 항목</th> <th rowspan="2">채점 요소</th> <th colspan="5">채점 척도</th> </tr> <tr> <th>매우 미흡</th> <th>미흡</th> <th>보통</th> <th>우수</th> <th>매우 우수</th> </tr> <tr> <td>내용: 65점 (50%)</td> <td>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td> <td>13</td> <td>26</td> <td>39</td> <td>52</td> <td>65</td> </tr> <tr> <td>조직: 39점 (30%)</td> <td>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td> <td>8</td> <td>16</td> <td>23</td> <td>31</td> <td>39</td> </tr> <tr> <td>표현: 26점 (20%)</td> <td>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td> <td>5</td> <td>10</td> <td>16</td> <td>21</td> <td>26</td> </tr> </table>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1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908	곤란도 적절함.
		조직	.367	
		표현	.689	
	변별도	내용	1.757	전 영역 변별도 매우 높음.
		조직	1.439	
		표현	1.277	
2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235	곤란도 적절함.
		조직	.583	
		표현	.130	
	변별도	내용	.674	내용 영역의 변별도 높으며, 조직과 표현 영역 변별도 매우 높음.
		조직	1.111	
		표현	.725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W-3	2차 예비조사	W-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설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고 있는지, 400자라는 다소 긴 분량을 통해 단락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채점 요소</th><th colspan="5">채점 척도</th></tr> <tr> <th>매우 미흡</th><th>미흡</th><th>보통</th><th>우수</th><th>매우 우수</th></tr> </thead> <tbody> <tr> <td>내용: 65점 (50%)</td><td>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td><td>13</td><td>26</td><td>39</td><td>52</td><td>65</td></tr> <tr> <td>조직: 39점 (30%)</td><td>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td><td>8</td><td>16</td><td>23</td><td>31</td><td>39</td></tr> <tr> <td>표현: 26점 (20%)</td><td>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td><td>5</td><td>10</td><td>16</td><td>21</td><td>26</td></tr> </tbody> </table>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1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1.239	조직 .566	표현 .783	내용에서 다소 높은 곤란도를, 조직과 표현에서 적절한 곤란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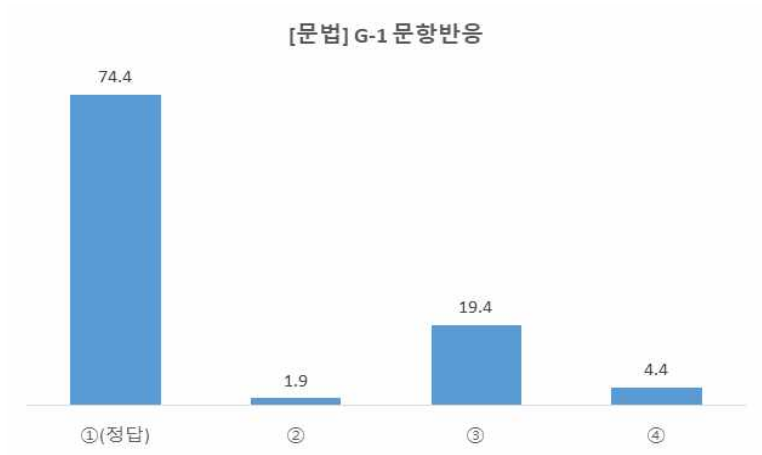
	변별도	내용	1.418	전 영역 변별도 매우 높음.
		조직	.928	
		표현	.789	
2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088	곤란도 적절함.
		조직	.360	
		표현	.172	
	변별도	내용	.932	전 영역 변별도 매우 높음.
		조직	.747	
		표현	.754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W-5	2차 예비조사	W-4																																	
평가 문항 <수정>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 - 전자 우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쓰기 목적(감사 인사)을 위한 글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는지, '전자 우편'이라는 친교적인 글쓰기의 특성에 알맞게 독자를 고려한 예의 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채점 요소</th><th colspan="5">채점 척도</th></tr> <tr> <th>매우 미흡</th><th>미흡</th><th>보통</th><th>우수</th><th>매우 우수</th></tr> </thead> <tbody> <tr> <td>내용: 20점 (50%)</td><td>-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td><td>4</td><td>8</td><td>12</td><td>16</td><td>20</td></tr> <tr> <td>조직: 12점 (30%)</td><td>-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 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td><td>2</td><td>5</td><td>7</td><td>10</td><td>12</td></tr> <tr> <td>표현: 8점 (20%)</td><td>-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td><td>2</td><td>3</td><td>5</td><td>6</td><td>8</td></tr> </tbody> </table>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 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목적(감사 인사)에 알맞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감사의 인사 - 취임에 대한 포부 - 끝 인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적법하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1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129	곤란도가 매우 낮음. 그러나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쉬운 문항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문항의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채점 기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직	-1.533																																				
		표현	-2.244																																				
	변별도	내용	.199	표현 영역에서는 변별도 있으나 내용, 조직 영역에서 낮은 변별도를 보임. 전 영역에서 변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채점 기																																			
		조직	.267																																				
		표현	.345																																				

				준의 수정이 필요함.
수정 사항 및 이유	1차 예비조사 결과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답안에 중복 기술 하는 경우가 많아 본문에 제시한 ‘감사합니다’를 삭제하였으며, ‘조건’으로 본문에 기술된 문장은 3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곤란도	내용	-.030	내용, 조직 영역의 곤란도는 적절하며, 표현 영역의 곤란도는 다소 낮음.
		조직	.003	
		표현	-.187	
	변별도	내용	.387	전 영역 변별도 있음.
		조직	.311	
		표현	.467	

5) 문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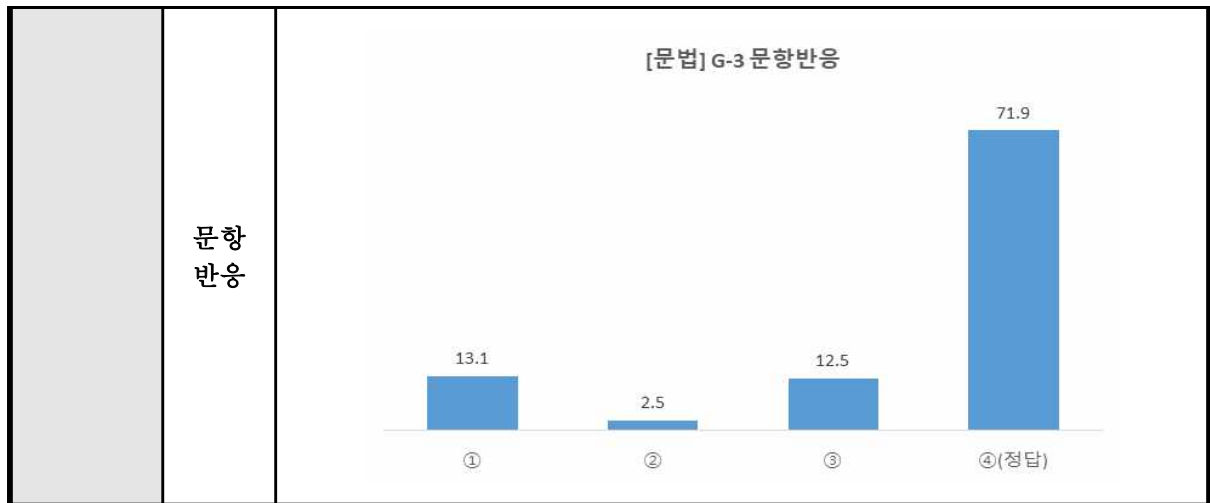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1	2차 예비조사		G-1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_맞춤법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385</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47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8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8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정답)</td><td>71.5</td></tr><tr><td>②</td><td>5.0</td></tr><tr><td>③</td><td>17.8</td></tr><tr><td>④</td><td>5.8</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정답)	71.5	②	5.0	③	17.8	④	5.8							
문항	정답률 (%)																						
①(정답)	71.5																						
②	5.0																						
③	17.8																						
④	5.8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65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071</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65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7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65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7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 문항반응 <table><tr><th>문항</th><th>반응</th></tr><tr><td>①(정답)</td><td>74.4</td></tr><tr><td>②</td><td>1.9</td></tr><tr><td>③</td><td>19.4</td></tr><tr><td>④</td><td>4.4</td></tr></table>	문항	반응	①(정답)	74.4	②	1.9	③	19.4	④	4.4
문항	반응											
①(정답)	74.4											
②	1.9											
③	19.4											
④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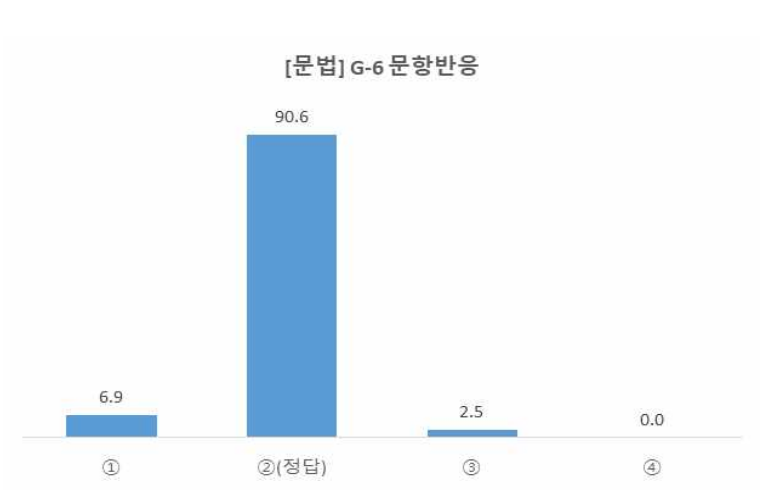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2	2차 예비조사		G-2																	
평가 문항 <가교>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어휘_의미와 용법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549</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3.310</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54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31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54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31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2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td><td>1.7</td></tr><tr><td>②(정답)</td><td>92.1</td></tr><tr><td>③</td><td>2.9</td></tr><tr><td>④</td><td>3.3</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	1.7	②(정답)	92.1	③	2.9	④	3.3								
문항	정답률 (%)																							
①	1.7																							
②(정답)	92.1																							
③	2.9																							
④	3.3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1.17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062</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1.1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6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1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6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2 문항반응 <table><thead><tr><th>Option</th><th>Percentage</th></tr></thead><tbody><tr><td>①</td><td>0.6</td></tr><tr><td>②(정답)</td><td>97.5</td></tr><tr><td>③</td><td>1.3</td></tr><tr><td>④</td><td>0.6</td></tr></tbody></table>	Option	Percentage	①	0.6	②(정답)	97.5	③	1.3	④	0.6
Option	Percentage											
①	0.6											
②(정답)	97.5											
③	1.3											
④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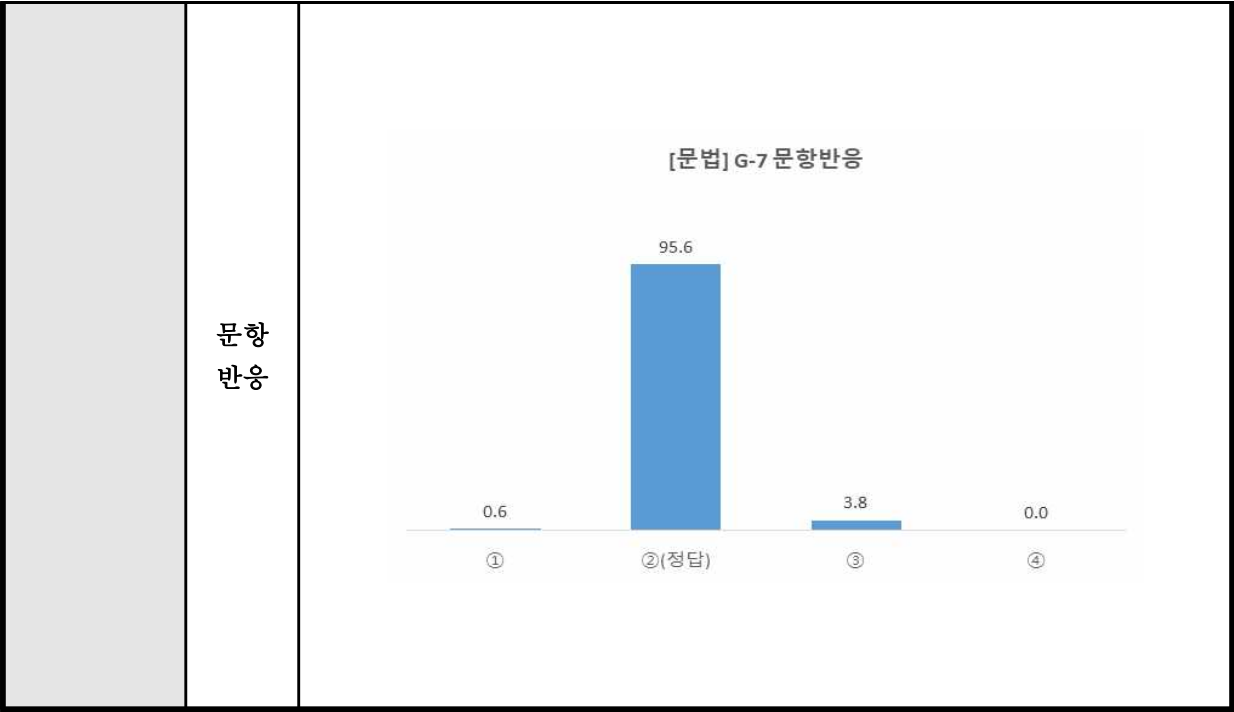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5	2차 예비조사		G-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장_의미와 용법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4.30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60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4.30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0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4.30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60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5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정답)</th><th>②</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문항반응 (%)</td><td>94.4</td><td>0.0</td><td>4.3</td><td>1.2</td></tr></tbody></table>							문항	①(정답)	②	③	④	문항반응 (%)	94.4	0.0	4.3	1.2							
문항	①(정답)	②	③	④																			
문항반응 (%)	94.4	0.0	4.3	1.2																			
2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1.746</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107</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74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0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746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0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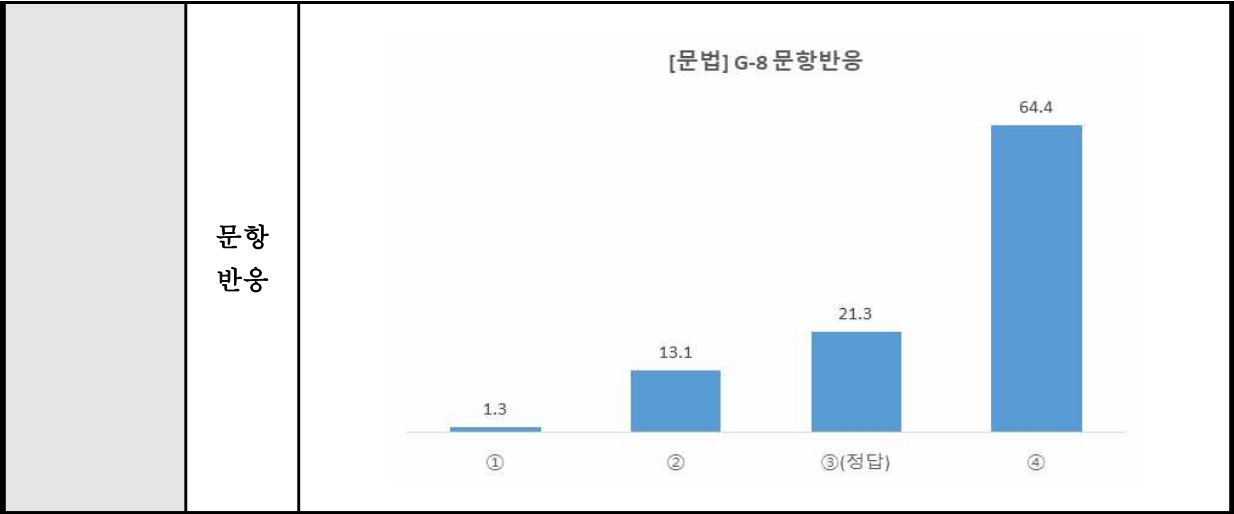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9	2차 예비조사		G-6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어휘_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845</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400</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84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0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84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0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9 문항반응 <table><tr><td>①(정답)</td><td>76.5</td><td>22.2</td><td>0.6</td><td>0.6</td></tr></table>							①(정답)	76.5	22.2	0.6	0.6											
①(정답)	76.5	22.2	0.6	0.6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77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17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7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77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7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6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문항반응</th></tr></thead><tbody><tr><td>①</td><td>6.9</td></tr><tr><td>②(정답)</td><td>90.6</td></tr><tr><td>③</td><td>2.5</td></tr><tr><td>④</td><td>0.0</td></tr></tbody></table>	문항	문항반응	①	6.9	②(정답)	90.6	③	2.5	④	0.0
문항	문항반응											
①	6.9											
②(정답)	90.6											
③	2.5											
④	0.0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10	2차 예비조사		G-7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어휘_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1.620</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571</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1.62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57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62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57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0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정답)</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td><td>4.9</td><td>88.9</td><td>4.9</td><td>1.2</td></tr></tbody></table>						문항	①	②(정답)	③	④	반응	4.9	88.9	4.9	1.2							
문항	①	②(정답)	③	④																			
반응	4.9	88.9	4.9	1.2																			
2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2.67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790</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2.67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79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2.67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79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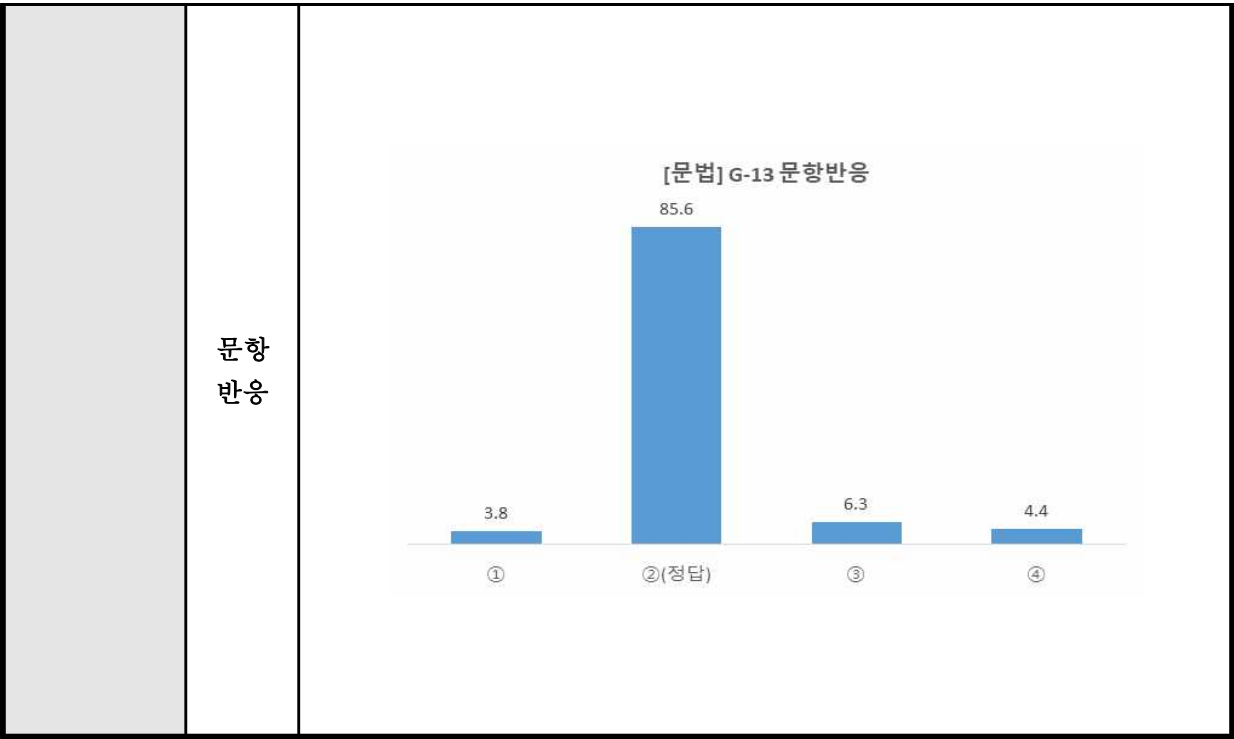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11		2차 예비조사		G-8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장_경어법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41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3.212</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41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21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41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212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1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0.6</td></tr><tr><td>②</td><td>1.9</td></tr><tr><td>③</td><td>13.0</td></tr><tr><td>④(정답)</td><td>84.6</td></tr></table>								①	0.6	②	1.9	③	13.0	④(정답)	84.6								
①	0.6																							
②	1.9																							
③	13.0																							
④(정답)	84.6																							
2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247</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249</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0.24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24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247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249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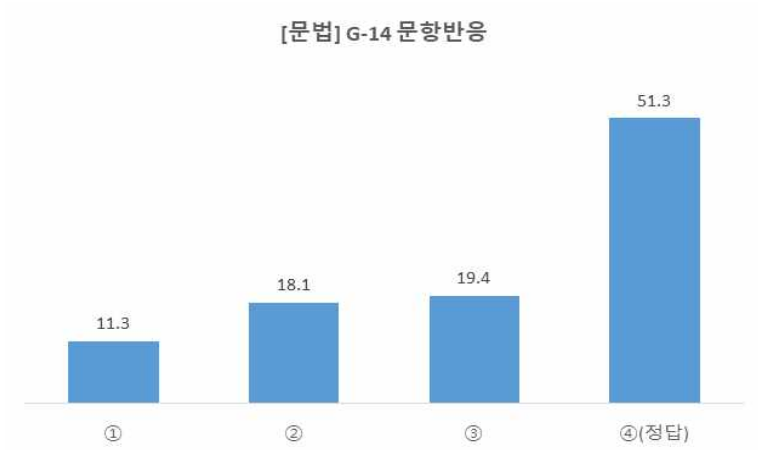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14	2차 예비조사		G-11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장_호응 관계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393</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12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9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2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9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12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2차 예비 조사 결과	문항 반응	[문법] G-14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①</th><th>②(정답)</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비율 (%)</td><td>1.9</td><td>67.9</td><td>4.9</td><td>25.3</td></tr></tbody></table>								항목	①	②(정답)	③	④	비율 (%)	1.9	67.9	4.9	25.3															
	항목	①	②(정답)	③	④																													
비율 (%)	1.9	67.9	4.9	25.3																														
문항 반응	<table><tr><td>변별도</td><td>1.224</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15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문법] G-11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①</th><th>②(정답)</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비율 (%)</td><td>0.0</td><td>60.6</td><td>5.6</td><td>33.8</td></tr></tbody></table>								변별도	1.22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5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항목	①	②(정답)	③	④	비율 (%)	0.0	60.6	5.6	33.8
변별도	1.224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5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항목	①	②(정답)	③	④																														
비율 (%)	0.0	60.6	5.6	33.8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18	2차 예비조사		G-1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장_의미와 용법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370</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3.531</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7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53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70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3.531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8 문항반응 <table><thead><tr><th>항목</th><th>①</th><th>②(정답)</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5.6</td><td>87.5</td><td>4.4</td><td>2.5</td></tr></tbody></table>						항목	①	②(정답)	③	④	반응률 (%)	5.6	87.5	4.4	2.5							
항목	①	②(정답)	③	④																			
반응률 (%)	5.6	87.5	4.4	2.5																			
2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275</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7.587</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27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7.58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27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7.587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20	2차 예비조사		G-1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어휘_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325</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1.464</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2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6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25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1.46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20 문항반응 <table><tr><td>①</td><td>8.1</td></tr><tr><td>②</td><td>8.8</td></tr><tr><td>③</td><td>18.8</td></tr><tr><td>④(정답)</td><td>64.4</td></tr></table>							①	8.1	②	8.8	③	18.8	④(정답)	64.4								
①	8.1																							
②	8.8																							
③	18.8																							
④(정답)	64.4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358</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016</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35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1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358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16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4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반응률 (%)</th></tr></thead><tbody><tr><td>①</td><td>11.3</td></tr><tr><td>②</td><td>18.1</td></tr><tr><td>③</td><td>19.4</td></tr><tr><td>④(정답)</td><td>51.3</td></tr></tbody></table>	문항	반응률 (%)	①	11.3	②	18.1	③	19.4	④(정답)	51.3
문항	반응률 (%)											
①	11.3											
②	18.1											
③	19.4											
④(정답)	51.3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추가	2차 예비조사		G-15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어휘_의미 관계와 문맥적 의미																						
정답 및 해설																								
2차 예비 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569</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000</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56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0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569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000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5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정답률 (%)</th></tr></thead><tbody><tr><td>①(정답)</td><td>72.5</td></tr><tr><td>②</td><td>11.3</td></tr><tr><td>③</td><td>6.9</td></tr><tr><td>④</td><td>9.4</td></tr></tbody></table>							문항	정답률 (%)	①(정답)	72.5	②	11.3	③	6.9	④	9.4								
문항	정답률 (%)																							
①(정답)	72.5																							
②	11.3																							
③	6.9																							
④	9.4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추가		2차 예비조사		G-16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장_의미와 용법																						
정답 및 해설																								
2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1.732</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114</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r></table>									변별도	1.73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1.732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114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16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th><th>②</th><th>③</th><th>④(정답)</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11.9</td><td>4.4</td><td>6.9</td><td>76.9</td></tr></tbody></table>								문항	①	②	③	④(정답)	반응률 (%)	11.9	4.4	6.9	76.9						
문항	①	②	③	④(정답)																				
반응률 (%)	11.9	4.4	6.9	76.9																				

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1차 예비조사		G-3	2차 예비조사		삭제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_맞춤법																						
정답 및 해설																							
1차 예비조사 결과	<table><tr><td>변별도</td><td>0.633</td><td>없음 (0.017 미만)</td><td>거의 없음 (~0.34)</td><td>낮음 (~0.68)</td><td>적절함 (~1.36)</td><td>높음 (~1.70)</td><td>매우 높음 (1.70 이상)</td></tr><tr><td>곤란도</td><td>-0.625</td><td>매우 쉬움 (-2.0 이하)</td><td>쉬움 (~ -0.5)</td><td>중간 (~0.5)</td><td>어려움 (~2.0)</td><td>매우 어려움 (2.0 이상)</td><td></td></tr></table>							변별도	0.63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62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변별도	0.633	없음 (0.017 미만)	거의 없음 (~0.34)	낮음 (~0.68)	적절함 (~1.36)	높음 (~1.70)	매우 높음 (1.70 이상)															
	곤란도	-0.625	매우 쉬움 (-2.0 이하)	쉬움 (~ -0.5)	중간 (~0.5)	어려움 (~2.0)	매우 어려움 (2.0 이상)																
문항 반응	[문법] G-3 문항반응 <table><thead><tr><th>문항</th><th>①(정답)</th><th>②</th><th>③</th><th>④</th></tr></thead><tbody><tr><td>반응률 (%)</td><td>56.8</td><td>19.1</td><td>3.1</td><td>21.0</td></tr></tbody></table>						문항	①(정답)	②	③	④	반응률 (%)	56.8	19.1	3.1	21.0							
문항	①(정답)	②	③	④																			
반응률 (%)	56.8	19.1	3.1	21.0																			
2차 예비조사 결과	1차 예비조사 결과 삭제되었으나, 가교문항과 동형의 ‘규범-맞춤법’ 영역 문항을 선별하고자 2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이후 최종 문항에 다시 포함하였음.																						

연구 책임자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 김중철(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현정(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희창(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혜정(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재현(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승현(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위원)
 서보영(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선임 연구원)
 이기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보조 연구원 : 장지혜(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김민재(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차경미(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박민호(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신유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사 과정)
 김동섭(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사 과정)
 허모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석사 과정)
 조사 수행 : KANTAR PUBLIC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인쇄	가람문화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